

발간 등록번호

11-1192000-001172-01

20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22. 4



해양수산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 종 덕

연구책임자

조국훈 연구원

참여 연구진

김수현 부연구위원

성진우 부연구위원

이남수 부연구위원

하혜수 전문연구원

하현정 전문연구원

한보현 전문연구원

김기완 연구원

김남호 연구원

신수정 전임사무원

연정화 전문사무원

목 차

■ 제1장 ■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3
2. 목적	3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4
1. 범위	4
2. 내용	5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6
1. 방법	6
2. 추진체계	8
■ 제2장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9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1
1. 어업별 생산	11
2. 어업별·부류별 생산	12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26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6
2. 수산물 소비 변화 현황	27
3. 수산물 소비 동향 변화 조사	32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42
1. 세계 수산물 수급 및 가격, 교역 현황	42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46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53
1.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정책 및 수급관련 정책	53
2. 수산물 비축사업	55
3. 수산물 자조금지원 사업	57
4.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58

■ 제3장 ■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59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61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61
2. 수산물 생산 현황	62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67
4. 수산물 재고 현황	70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72
6. 수산물 수급 현황	72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78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78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91
3. 수산물 유통중사자 현황	95
■ 제4장 ■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101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개요	103
1. 필요성 및 목적	103
2.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104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06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106
2. 고등어 유통구조	122
3. 고등어 유통비용	125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38
1. 명태 생산 및 유통현황	138
2. 명태 유통구조	148
3. 명태 유통비용	153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57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현황	157
2. 오징어 유통구조	176
3. 오징어 유통비용	182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191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191
2. 갈치 유통구조	208
3. 갈치 유통비용	214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218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218
2. 참조기 유통구조	231
3. 참조기 유통비용	234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조사	239
1. 마른멸치 생산 및 유통현황	239
2. 마른멸치 유통구조	251
3. 마른멸치 유통비용	254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	257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257
2. 양식전복 유통구조	271
3. 양식전복 유통비용	274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	277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현황	277
2. 양식넙치 유통경로	288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290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조사	295
1. 양식굴 생산 및 유통현황	295
2. 양식굴 유통구조	309
3. 양식굴 유통비용(통영 기준)	311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조사	315
1. 양식김 생산 및 유통현황	315
2. 양식김 유통구조	331
3. 양식김 유통비용	334
■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337
제1절 결론 및 요약	339
1.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요약	339

2.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344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354
참고문헌	357

표 목 차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7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13
<표 2-2>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15
<표 2-3> 우리나라 천해양식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0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2
<표 2-5>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4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추이	26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현황	27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28
<표 2-9>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30
<표 2-1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30
<표 2-11>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32
<표 2-12>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21년)	34
<표 2-13>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35
<표 2-14>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36
<표 2-15>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8
<표 2-16>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9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입 시 우선 확인 사항	40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염건) 소비자 선호도(소비 트렌드 동조성)	41
<표 2-19>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43
<표 2-20> 식품군별 물가 지수 현황(FAO 기준)	44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47
<표 2-22> 2021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금액 기준)	48
<표 2-23> 부류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48
<표 2-24> 부류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49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금액 기준)	50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금액 기준)	52
<표 2-27> 2021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56
<표 2-28>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57
<표 2-29>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57
<표 2-30>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58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63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4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5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6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7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68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69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70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	71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72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73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74
<표 3-13> 최근 5개년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현황	76
<표 2-14> 수산물 계통출하율 추이	82
<표 3-15>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21년 기준)	84
<표 3-16>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21년 기준)	84
<표 3-1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21년 기준)	85
<표 3-18> 전국 도매시장 현황(2020년 기준)	86
<표 3-19>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20년 기준)	86
<표 3-20>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20년 기준)	87
<표 3-21>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88
<표 3-22>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89
<표 3-23>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90
<표 3-24>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90
<표 3-25>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91
<표 3-2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92
<표 3-27>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92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0년 기준)	93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0년 기준)	93
<표 3-30>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20년 기준)	94
<표 3-31>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수산부문 종사자수 현황(2020년 기준)	95
<표 3-3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96
<표 3-33>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97
<표 3-34>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2021년 기준)	97
<표 3-35>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98
<표 3-36>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99
<표 3-37>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20년 기준)	99

<표 4-1>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105
<표 4-2>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06
<표 4-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107
<표 4-4>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08
<표 4-5>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09
<표 4-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109
<표 4-7>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10
<표 4-8>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10
<표 4-9>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111
<표 4-10>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12
<표 4-11>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113
<표 4-12>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114
<표 4-13>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116
<표 4-14>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117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118
<표 4-16>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119
<표 4-17>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120
<표 4-18>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123
<표 4-19> 2021년 야간부녀반 작업 노임	126
<표 4-20>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29
<표 4-21>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131
<표 4-22>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33
<표 4-23>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137
<표 4-24>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139
<표 4-25>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139
<표 4-26>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140
<표 4-27>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141
<표 4-28>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142
<표 4-29>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43
<표 4-30>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144
<표 4-31>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145
<표 4-32>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46
<표 4-33> 연도별·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동향(냉동 기준)	147
<표 4-34>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150
<표 4-35>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152
<표 4-36>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156
<표 4-37>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58

<표 4-3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159
<표 4-39>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60
<표 4-40>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62
<표 4-4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162
<표 4-42>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63
<표 4-43>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164
<표 4-44>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165
<표 4-45>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66
<표 4-46>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167
<표 4-47>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169
<표 4-48>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171
<표 4-4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72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173
<표 4-5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75
<표 4-52>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181
<표 4-53>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183
<표 4-54>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186
<표 4-55>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188
<표 4-56>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190
<표 4-57>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192
<표 4-58>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192
<표 4-59>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193
<표 4-60>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195
<표 4-61>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195
<표 4-62>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196
<표 4-63>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197
<표 4-64>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198
<표 4-65>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99
<표 4-66>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200
<표 4-67>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201
<표 4-68>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203
<표 4-69>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204
<표 4-70>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205
<표 4-71>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206
<표 4-72>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207
<표 4-73>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208
<표 4-74>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212

<표 4-75>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213
<표 4-76>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215
<표 4-77>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시장)	217
<표 4-78>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19
<표 4-79> 연도별·월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20
<표 4-80>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21
<표 4-81>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221
<표 4-82>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22
<표 4-83>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23
<표 4-84>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224
<표 4-85>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224
<표 4-86>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226
<표 4-87>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227
<표 4-88>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228
<표 4-89>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229
<표 4-90>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231
<표 4-91> 참조기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234
<표 4-92>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시장)	236
<표 4-93>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238
<표 4-94>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동향	239
<표 4-95> 연도별 어업별 멸치 생산량·생산금액 동향	240
<표 4-96> 연도별·월별 멸치 생산량 동향	241
<표 4-97> 연도별 부류별 멸치 생산량 동향	242
<표 4-98> 연도별 부류별 멸치 계통출하 동향	243
<표 4-99> 연도별 지역별 멸치 생산량 동향	243
<표 4-100> 연도별 어법별 멸치 생산량 동향	244
<표 4-101> 연도별 멸치 수출입 동향	245
<표 4-102> 연도별 마른멸치 수급구조	246
<표 4-103>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동향	247
<표 4-104>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동향	248
<표 4-105>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동향	250
<표 4-106> 마른멸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252
<표 4-107>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소비지 도매시장)	256
<표 4-108>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58
<표 4-109>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60
<표 4-110>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261
<표 4-111>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61

<표 4-112>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262
<표 4-113>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264
<표 4-114> 연도별 전복 수급구조	265
<표 4-115>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266
<표 4-116>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267
<표 4-117>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269
<표 4-118>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270
<표 4-119>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273
<표 4-120>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276
<표 4-121>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278
<표 4-122>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280
<표 4-123>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281
<표 4-124>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281
<표 4-125>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282
<표 4-126> 연도별 수협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282
<표 4-127>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동향	283
<표 4-128>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구조	285
<표 4-129>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동향	286
<표 4-130>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동향	287
<표 4-131>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횃집 기준)	292
<표 4-132>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294
<표 4-133>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및 생산금액 동향	296
<표 4-134> 연도별·월별 양식굴 생산량 동향	298
<표 4-135> 연도별 양식 굴 계통출하 동향	299
<표 4-136> 연도별 지역별 양식 굴 생산량 동향	300
<표 4-137> 연도별 굴 수출입 동향	301
<표 4-138> 제품유형별 굴 수출 실적	301
<표 4-139> 연도별 굴 수급구조	303
<표 4-140> 연도별 월별 각굴 생산단가 동향	304
<표 4-141> 연도별 월별 알굴 산지가격 동향	306
<표 4-142> 연도별 월별 알굴 도매가격 동향	307
<표 4-143> 연도별 월별 알굴 소비자가격 동향	308
<표 4-144> 양식굴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	310
<표 4-145>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314
<표 4-146> 연도별 지역별 양식김 어업권 동향	316
<표 4-147>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317
<표 4-148>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319

<표 4-149> 연도별 양식김 계통출하 동향	319
<표 4-150> 연도별·지역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320
<표 4-151> 연도별 양식김 수출입 동향	321
<표 4-152> 제품유형별 김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322
<표 4-153> 연도별 김 수급구조	324
<표 4-154>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단가 동향	325
<표 4-155> 연도별·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동향(물김 기준)	326
<표 4-156>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구매 기준)	327
<표 4-157>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판매 기준)	328
<표 4-158>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마른김)	329
<표 4-159>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얼구운김)	330
<표 4-160> 양식김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334
<표 4-161> 양식김(얼구운김)의 유통비용(산지 위판 → 소비지 도매시장)	336
<표 5-1>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340
<표 5-2> 조사대상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341
<표 5-3> 9개 품목 수산물 적용 가중치	343
<표 5-4>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34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차별 품종 도입 현황	4
<그림 1-2> 동 조사의 추진체계	8
<그림 2-1> 수산물 생산 동향	11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12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28
<그림 2-4>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31
<그림 2-5> 지출액 기준 구입 많은 가공식품 품목군	33
<그림 2-6>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34
<그림 2-7>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7
<그림 2-8>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39
<그림 2-9> 식품군별 물가 지수 변화 추이	44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수출국 비중(2021년 금액 기준)	45
<그림 2-11> 세계 수산물 수입국 비중(2021년 금액 기준)	46
<그림 2-12> 수산물 부류별 교역액 추이	49
<그림 2-13>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56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62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74
<그림 3-3>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77
<그림 3-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21년 기준)	79
<그림 3-5> 양식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80
<그림 3-6>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81
<그림 3-7>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83
<그림 3-8>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83
<그림 4-1>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108
<그림 4-2>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12
<그림 4-3>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115
<그림 4-4>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116
<그림 4-5>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117
<그림 4-6>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118
<그림 4-7>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120

<그림 4-8>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121
<그림 4-9> 고등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125
<그림 4-10>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138
<그림 4-11>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140
<그림 4-12>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	141
<그림 4-13>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43
<그림 4-14>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146
<그림 4-15> 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추이(냉동)	147
<그림 4-1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153
<그림 4-17>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157
<그림 4-18>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160
<그림 4-19>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161
<그림 4-20>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167
<그림 4-2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168
<그림 4-22>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170
<그림 4-23>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171
<그림 4-24>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173
<그림 4-25>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174
<그림 4-26>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175
<그림 4-27>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176
<그림 4-2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178
<그림 4-29>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179
<그림 4-30>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180
<그림 4-31>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193
<그림 4-32> 2021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194
<그림 4-33>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0년 기준)	199
<그림 4-34>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201
<그림 4-35>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202
<그림 4-36>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203
<그림 4-37>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204
<그림 4-38>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205
<그림 4-39> 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206
<그림 4-40>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207
<그림 4-41>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10
<그림 4-42>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11
<그림 4-43>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18
<그림 4-44>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19

<그림 4-45> 2021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20
<그림 4-46>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225
<그림 4-47>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226
<그림 4-48>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228
<그림 4-49>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230
<그림 4-50>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230
<그림 4-51>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32
<그림 4-52> 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추이	240
<그림 4-53> 월별 멸치 생산량 추이	242
<그림 4-54> 국가별 멸치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245
<그림 4-55> 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추이	248
<그림 4-56> 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추이	249
<그림 4-57> 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추이	250
<그림 4-58> 마른멸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254
<그림 4-59>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257
<그림 4-60>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259
<그림 4-61> 2021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260
<그림 4-62>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263
<그림 4-63>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266
<그림 4-64>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268
<그림 4-65>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269
<그림 4-6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270
<그림 4-67>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72
<그림 4-68> 연도별 넙치 생산량 추이	277
<그림 4-69>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279
<그림 4-70> 월별 양식넙치 출하량 추이	279
<그림 4-71> 국가별 양식넙치 수출 실적(2021년 기준)	284
<그림 4-72> 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287
<그림 4-73> 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288
<그림 4-74> 활양식넙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 비중	289
<그림 4-75>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추이	295
<그림 4-76> 최근 5년간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297
<그림 4-77>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298
<그림 4-78> 국가별 굴 수출입 비중	302
<그림 4-79> 연도별 각굴 생산단가 추이	304
<그림 4-80> 월별 알굴 산지가격 추이	306
<그림 4-81> 월별 양식 굴 도매가격 추이	308

<그림 4-82> 월별 알골 소비자가격 추이	309
<그림 4-83> 양식 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310
<그림 4-84> 통영 굴 수하식 수협외의 알골 위판 현황	312
<그림 4-85> 연도별 양식김 어업권 추이	315
<그림 4-86>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추이	316
<그림 4-87>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318
<그림 4-88> 2021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318
<그림 4-89> 2021년 연도별 계통 출하 비중 추이	320
<그림 4-90> 국가별 김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323
<그림 4-91> 연도별 양식김 생산단가 추이	325
<그림 4-92> 2021년 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추이(물김 기준)	326
<그림 4-93> 2021년 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추이(마른김-중품 기준)	327
<그림 4-94> 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추이	331
<그림 4-95> 양식김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333
<그림 5-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부산→가락)	344
<그림 5-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냉동, 부산→노량진)	345
<그림 5-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구룡포→가락)	346
<그림 5-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제주→노량진)	347
<그림 5-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목포→노량진)	348
<그림 5-6> 마른멸치의 유통비용 구조 (건어, 부산→가락)	349
<그림 5-7>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완도→대형소매점)	350
<그림 5-8>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제주→대형소매점)	351
<그림 5-9> 양식굴의 유통비용 구조(신선, 통영→대형소매점)	352
<그림 5-10> 양식김의 유통비용 구조(건어, 산지→대형소매점)	353

Ⅰ 제1장 Ⅰ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되었고, 동법에 수산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
 - 동법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기본계획(5년 주기)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규정함
- 이에 수산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산물 유통정책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나 통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수산물 유통산업 및 시장의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조사는 수산물 유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가 목적임
 - 특히, 수산물 가격정보 조사 기반을 위한 수산물 유통 조사 표준모델 마련하고, 1~4차(2017~2020년)에서 실시한 주요 실태조사 대상 수산물의 유통실태 조사 결

- 과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1~3차 수산물 유통실태 대상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를 포함한 어획수산물 5종이었으며, 이 외에 양식어업의 생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양식 넙치와 양식 전복을 추가하여 총 7종의 수산물을 실태조사 대상 품종으로 확정하여 조사하였음
 - 그리고 4차 조사에서는 어획수산물 가운데 생산량 비중이 큰 마른멸치와 주요 양식수산물인 굴을 추가 품목으로 도입하여 조사하였으며,
 - 이번 5차 조사에서는 양식수산물 가운데 생산량이 많고, 주요 수출 수산물인 김을 신규 품목으로 도입하여 조사하였음

<그림 1-1> 연차별 품종 도입 현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품종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참조기
	-	-	넙치	넙치	넙치
	-	-	전복	전복	전복
	-	-	-	마른멸치	마른멸치
	-	-	-	굴	굴
	-	-	-	-	김
합계	어획수산물 4종	어획수산물 5종	어획수산물 5종 양식수산물 2종	어획수산물 6종 양식수산물 3종	어획수산물 6종 양식수산물 4종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1. 범위

- 수산물 유통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제2항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등의 수산물 수급현황
-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요 품종별 유통실태 조사는 총 9개 품종을 대상으로 함
 - 대중성 품종(어획):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양식 품종: 넙치, 전복, 굴, 김

2. 내용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의 부분별 일반 현황: 수산물 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 및 폐기, 수급 등
 - 수산물 유통산업 및 종사자 현황: 업체 수(수산물 관련 도소매업 등), 매출액, 종사자 현황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표준 모델 제시
- 조사대상 주요 품종의 유통실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품종: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넙치(양식), 전복(양식), 굴(양식), 김(양식)
 - 조사대상 품종의 일반현황: 가격과 수급 여건 등
 - 조사대상 품종별 시장구조 분석: 계통 및 비계통 출하, 유통경로 및 비중 등
 - 조사대상 품종별 주요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조사와 분석
- 수산물 실태조사의 결과 요약정리 및 종합적인 평가
 - 조사 내용의 요약
 - 조사 내용의 종합적인 평가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1. 방법

- 동 조사 수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 등을 활용함
- (문헌조사)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유통실태 조사, 수산물 수급 등 본 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검토함
 - 2017~2020년 수산물 유통산업 실태조사(1~4차), 해양수산부
 - 2017년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 2014년 수산물 유통산업 체계 개선사업, 해양수산부 등임
- (통계조사) 수산물 유통산업 및 실태조사를 위해 이용한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수급(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폐기 등):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관세청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등
 -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수산물의 계통·비계통 출하현황(통계청,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도매시장 반입량 분석, 유통단계별 조사가격(aT KAMIS), 산지유통 종사자(수협 위공판장 현황 및 향운노조 조사), 도매유통 종사자(도매시장 통계연보) 등
- (현장조사) 수산물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됨
 - 산지조사: 기본적으로 산지수협 관계자, 산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양식 전복은 산지에 수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협회, 양식어가, 산지 수집상 등을 대상으로 조사함. 또한 이번 5차 조사에서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를 통해 어획수산물 5품목(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의 산지 중도매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음
 - 소비지 조사: 소비지 법정(공영)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고, 양식 넙치나 전복은 인천(연안부두), 하남, 부산(민락) 등 주요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 소매 조사: 소매 조사는 대량구매처인 대형소매점이나 백화점의 수산바이어 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함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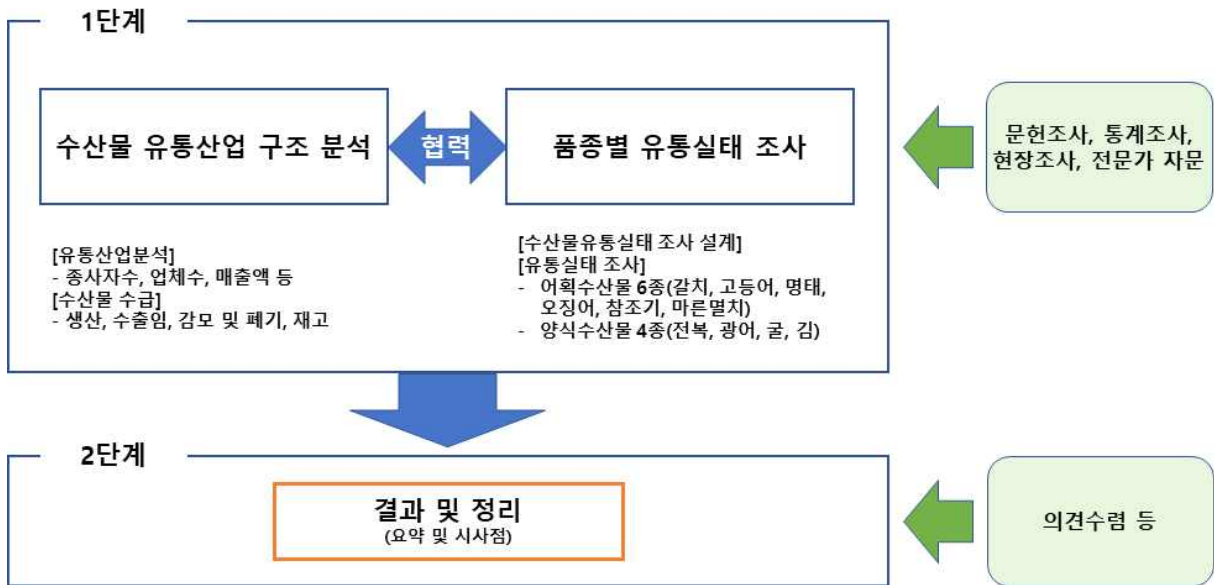
		조사 내용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10개 품종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산지: 산지수협, 산지중도매인 및 매참인, 산지가공업체, 냉동창고 등의 관계자 · 갈치(선어, 냉동): 부산공동어시장, 제주(서귀포, 성산포수협) 등 · 고등어(선어, 동결): 부산공동어시장 · 명태(냉동):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오징어(활어, 선어, 냉동): 부산국제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구룡포·후포·속초수협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수협 · 마른멸치 : 기선권현망수협 · 양식넙치: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 양식어가 등 · 양식전복: 전북협회, 완도 양식어가, 산지수집상 등 · 양식굴: 굴수하식수협 등 · 양식김: 고흥수협, 김가공업체 관계자 등
소비지	도매	노량진, 가락, 부산 등의 공영(법정)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소비지 도매시장 중도매인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하남, 인천, 부산 등
	소매	대형소매업체·백화점 등의 수산바이어, 수산전통시장 소매상 면담조사

- (전문가 자문) 수산물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에서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1:1 면담법을 수행하였음
 - 산지 전문가: 조사 대상 10개 품종과 관련하여 품종별로 취급물량이 많은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을 비롯하여 해당 산지수협 위판장의 실무자(판매과장 등)를 대상으로 함
 - 소비지 전문가: 대형소매업 및 백화점의 수산바이어를 현장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함
- (조사체계 고도화)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를 통해 대중성어종 5개 품목(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하여 유통현황 및 비용 조사를 실시하였음
 - 갈치(서귀포수협, 목포수협), 고등어(부산공동어시장), 오징어(감천공판장, 후포수협, 죽변수협), 참조기(목포수협, 한림수협), 마른멸치(기선권현망수협)

2. 추진체계

- 동 조사의 추진단계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 1단계: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분석과 유통실태조사 사례분석을 하나의 단계에 포함하여 병행적으로 수행함
 - 2단계: 1단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그림 1-2> 동 조사의 추진체계



Ⅰ 제2장 Ⅰ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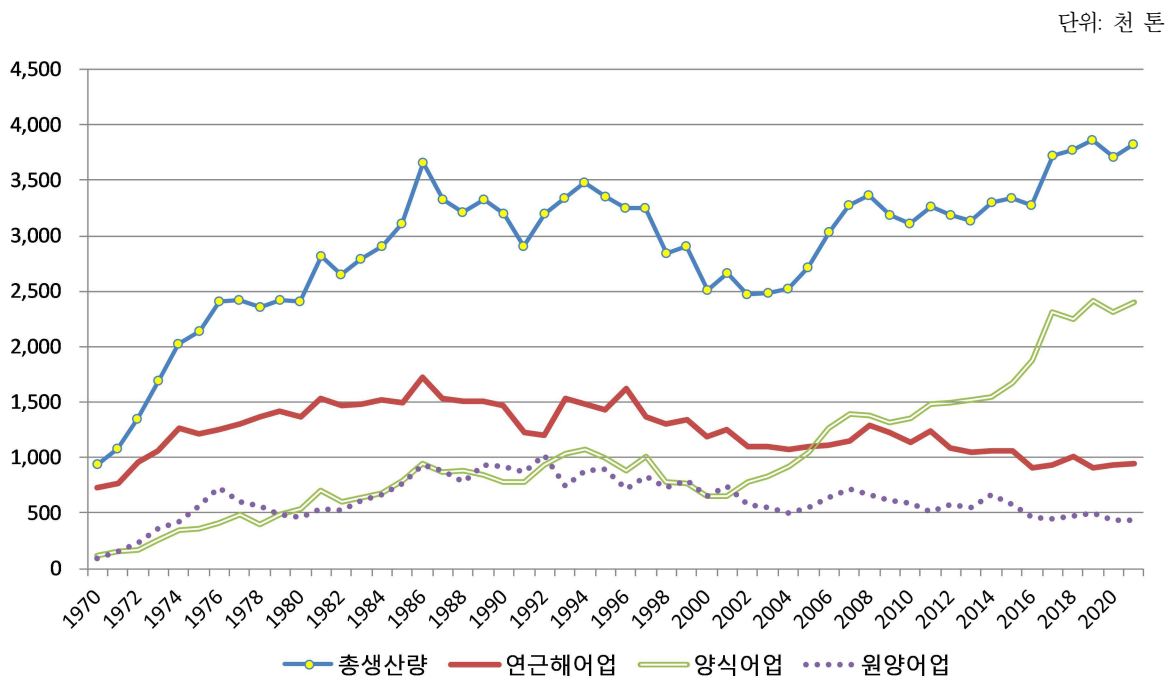
제2장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 어업별 생산

- 우리나라 어업은 일반해면어업(연근해),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으로 구분되며, 2021년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약 382만 톤¹⁾이었음. 모든 어업의 생산량이 늘면서 2020년(371만 톤) 대비 2.9% 증가했음
- 일반해면어업: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0.8% 증가한 94.1만 톤
- 천해양식어업: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3.9% 증가한 240만 톤
- 원양어업: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0.5% 증가한 43.9만 톤
- 내수면어업²⁾: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5.6% 증가한 4.3만 톤

〈그림 2-1〉 수산물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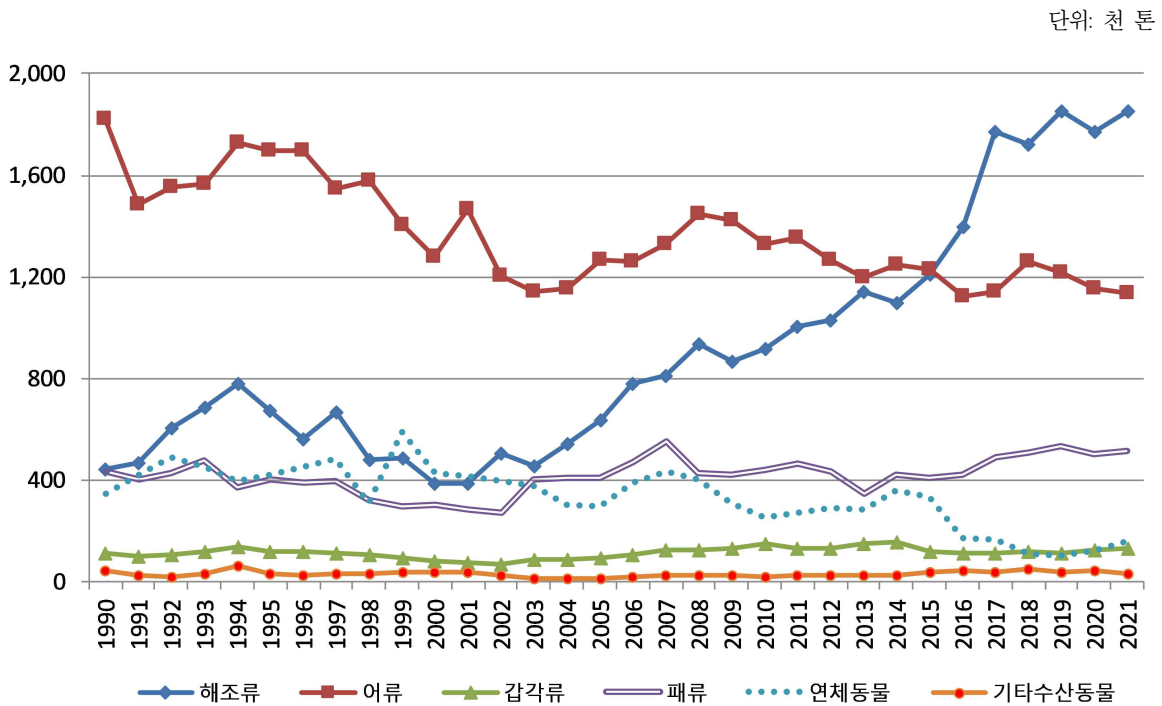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1) 2021년 생산량은 잠정치임
 2)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다른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았음

2. 어업별·부류별 생산

-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해조류의 생산 비중은 높아졌고, 연체동물과 어류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 해조류: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185.4만 톤
- 어류: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1.7% 감소한 113.3만 톤
- 패류: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7% 증가한 51.4만 톤
- 연체동물: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9.5% 증가한 16.0만 톤
- 갑각류: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3.5% 증가한 12.9만 톤
- 기타수생동물: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대비 30.3% 감소한 2.9만 톤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	해조류	합계
2011년(A)	1,356	130	467	269	28	1,007	3,256
비중	41.6	4.0	14.3	8.3	0.9	30.9	100.0
2012년	1,268	135	433	293	23	1,032	3,183
비중	39.8	4.2	13.6	9.2	0.7	32.4	100.0
2013년	1,195	149	346	282	23	1,140	3,135
비중	38.1	4.8	11.0	9.0	0.7	36.4	100.0
2014년	1,246	160	419	357	27	1,097	3,304
비중	37.7	4.8	12.7	10.8	0.8	33.2	100.0
2015년	1,226	117	409	335	37	1,213	3,337
비중	36.7	3.5	12.2	10.0	1.1	36.3	100.0
2016년	1,125	113	421	170	45	1,395	3,269
비중	34.4	3.5	12.9	5.2	1.4	42.7	100.0
2017년	1,143	116	490	165	41	1,770	3,725
비중	30.7	3.1	13.2	4.4	1.1	47.5	100.0
2018년	1,259	116	512	112	49	1,722	3,770
비중	33.4	3.1	13.6	3.0	1.3	45.7	100.0
2019년	1,219	115	533	105	37	1,851	3,861
비중	31.6	3.0	13.8	2.7	1.0	47.9	100.0
2020년	1,153	125	501	124	41	1,769	3,713
비중	31.0	3.4	13.5	3.3	1.1	47.7	100.0
2021년(B)	1,133	129	514	160	29	1,854	3,820
비중	29.7	3.4	13.5	3.3	1.1	47.7	100.0
전년 대비 증감	-1.7	3.5	2.7	29.5	-30.3	4.8	2.9
평년 대비 증감	-4.0	10.2	4.7	18.6	-32.4	9.0	4.2
연평균 증감(B/A)	-1.8	0.0	1.0	-5.1	0.4	6.3	1.6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가. 일반해면어업 품목별 생산량 증감 3)

- 2021년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94만 1천 톤이었으며, 전체 생산량의 24.6%를 차지했음
 - 수온이 상승하면서 자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류, 꽃게, 살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어류 생산량은 67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고등어(56.9%), 전갱이류(7.5%), 망치고등어(451.2%)

3) 품목별 생산량 증감 요인은 통계청,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2022.02 와 국립수산물과학원, 보도자료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2022.0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로 주 어장인 서해 남부, 제주 주변 해역으로 회유하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형 선망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일수 증가함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멸치(-33.8%), 갈치(-4.1%), 삼치류(-6.1%), 참조기(-23.1%)
- 멸치는 가을철 어획되는 어군의 주산란기인 7~8월에 남서해 연안의 고수온의 영향으로 어린 개체군의 성장이 지연되고, 초기 생존율 또한 낮아 어군형성이 순조롭지 못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 연체동물류는 9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살오징어(6.8%), 갑오징어류(29.1%), 낙지류(6.6%), 문어류(2.8%)
 - 오징어는 2021년 봄, 여름철 서해안 수온 상승에 따른 남쪽 오징어 어군의 이동으로 서해안 생산량이 증가했고, 동해안 또한 주 조업시기가 시작되면서 북측 수역에 머물던 오징어 어군의 남하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쭈꾸미(-22.5%)
- 갑각류는 8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꽃게(27.9%), 붉은대게(25.7%), 젓새우류(2.7%)
 - 꽃게는 2020년에 여름철 강수량 증가에 따른 영양염류, 플랑크톤 등의 먹이 생물 풍부 등으로 어린 개체수가 늘었음. 그 결과 봄, 가을 어기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어군이 연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예년과 달리 어기가 12월까지 이어졌음
- 패류는 7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키조개(23.3%), 소라(7.4%), 동죽(93.5%)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바지락(-20.6%), 굴류(-7.0%), 고등류(-6.0%)
- 해조류는 8,778톤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미역류(24.5%), 파래류(200.7%)
- 기타 수산동물은 5,934톤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성게류(21.3%), 해삼(2.9%)

〈표 2-2〉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712,873	3,820,048	100.0	2.9
일반해면	933,880	941,069	24.6	0.8
어류	684,652	678,488	17.8	-0.9
가오리류	1,027	974	0.0	-5.2
가자미류	16,360	17,683	0.5	8.1
기름가자미	5,561	5,010	0.1	-9.9
갈치	65,719	63,056	1.7	-4.1
강달이류	2,506	2,634	0.1	5.1
고등어	77,603	121,770	3.2	56.9
망치고등어	5,236	28,859	0.8	451.2
꽁치	644	986	0.0	53.1
학공치	759	545	0.0	-28.2
넙치류	3,182	2,923	0.1	-8.1
농어류	1,675	1,856	0.0	10.8
눈볼대	3,041	3,067	0.1	0.9
능성어	60	69	0.0	15.0
참다랑어	606	506	0.0	-16.5
기타다랑어류	4,363	1,624	0.0	-62.8
도루묵	5,114	2,760	0.1	-46.0
대구	5,507	5,629	0.1	2.2
감성돔	983	1,062	0.0	8.0
옥돔	940	1,144	0.0	21.7
자리돔	336	389	0.0	15.8
참돔	2,196	2,394	0.1	9.0
돌돔	333	181	0.0	-45.6
기타돔류	1,945	2,130	0.1	9.5
망둑어류	333	267	0.0	-19.8
멸치	216,748	143,413	3.8	-33.8
반지	556	1,174	0.0	111.2
명태	-	-	-	-
민어	4,121	4,824	0.1	17.1
방어류	13,051	15,046	0.4	15.3
밴댕이	1,177	2,828	0.1	140.3
병어류	7,637	8,194	0.2	7.3
보구치	3,233	3,011	0.1	-6.9
복어류	2,636	3,716	0.1	41.0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조피볼락	1,643	1,617	0.0	-1.6
기타볼락류	2,062	1,673	0.0	-18.9
노래미류	925	984	0.0	6.4
부세	307	208	0.0	-32.2
삼치류	32,949	30,950	0.8	-6.1
상어류	208	233	0.0	12.0
서대류	2,246	2,016	0.1	-10.2
성대류	2,379	1,801	0.0	-24.3
송어류	0	0	0.0	-
삼세기	369	278	0.0	-24.7
송어류	4,114	4,484	0.1	9.0
아귀류	13,448	16,854	0.4	25.3
까나리	13,196	17,776	0.5	34.7
양태류	1,381	1,516	0.0	9.8
연어	99	158	0.0	59.6
임연수어	629	3,415	0.1	442.9
갯장어	1,168	1,226	0.0	5.0
먹장어	118	83	0.0	-29.7
붕장어	13,229	12,692	0.3	-4.1
전갱이류	46,207	49,660	1.3	7.5
전어	9,261	11,204	0.3	21.0
정어리	1,139	90	0.0	-92.1
참조기	41,039	31,562	0.8	-23.1
기타조기류	351	319	0.0	-9.1
준치	61	125	0.0	104.9
쥐치류	2,010	1,913	0.1	-4.8
청어	21,035	14,025	0.4	-33.3
참홍어	2,054	3,121	0.1	51.9
홍어류	2,063	2,428	0.1	17.7
꼼치류	3,658	4,412	0.1	20.6
기타어류	10,110	11,939	0.3	18.1
갑각류	71,756	81,289	2.1	13.3
꽃게	15,417	19,713	0.5	27.9
대게	1,740	1,971	0.1	13.3
붉은대게	15,548	19,540	0.5	25.7
민꽃게	2,785	2,973	0.1	6.8
기타게류	2,510	2,329	0.1	-7.2
꽃새우	2,555	3,204	0.1	25.4
닭새우류	1	5	0.0	400.0
대하	77	144	0.0	87.0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보리새우	67	92	0.0	37.3
젓새우류	19,422	19,946	0.5	2.7
중하	1,479	1,259	0.0	-14.9
기타새우류	9,443	9,539	0.2	1.0
기타갑각류	712	574	0.0	-19.4
패류	79,065	75,615	2.0	-4.4
굴류	25,805	24,006	0.6	-7.0
소라	2,376	2,552	0.1	7.4
고둥류	9,530	8,954	0.2	-6.0
오분자기	4	3	0.0	-25.0
전복류	103	99	0.0	-3.9
가리비류	131	119	0.0	-9.2
가무락	128	385	0.0	200.8
개량조개류	70	116	0.0	65.7
꼬막	18	55	0.0	205.6
새꼬막	707	789	0.0	11.6
동죽	2,062	3,991	0.1	93.5
맛류	939	892	0.0	-5.0
바지락	27,701	21,997	0.6	-20.6
백합류	33	84	0.0	154.5
새조개	439	447	0.0	1.8
키조개	4,970	6,130	0.2	23.3
피조개	250	331	0.0	32.4
홍합류	633	393	0.0	-37.9
개조개	1,289	1,114	0.0	-13.6
기타패류	1,879	3,158	0.1	68.1
연체동물류	85,063	90,964	2.4	6.9
갑오징어류	5,183	6,693	0.2	29.1
꼰뚜기류	1,326	1,344	0.0	1.4
낙지류	6,071	6,472	0.2	6.6
문어류	8,988	9,239	0.2	2.8
주꾸미	4,306	3,338	0.1	-22.5
살오징어(오징어)	56,989	60,851	1.6	6.8
한치류	1,909	2,655	0.1	39.1
기타연체동물류	290	372	0.0	28.3
기타수산동물	5,778	5,934	0.2	2.7
미더덕	0	1	0.0	-
성게류	1,576	1,911	0.1	21.3
우렁쉥이	903	926	0.0	2.5
해삼	1,610	1,656	0.0	2.9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오만동이	5	5	0.0	0.0
기타수산동물류	1,685	1,435	0.0	-14.8
해조류	7,565	8,778	0.2	16.0
김류	214	366	0.0	71.0
꼬시래기류	16	4	0.0	-75.0
개꼬시래기	0	-	-	-
다시마류	0	0	0.0	-
도박류	9	11	0.0	22.2
모자반(말)류	58	36	0.0	-37.9
모자반(물)	1	10	0.0	900.0
미역류	5,119	6,374	0.2	24.5
우뚝가사리	485	413	0.0	-14.8
청각	94	46	0.0	-51.1
툃	442	443	0.0	0.2
파래류	303	911	0.0	200.7
매생이	0	1	0.0	-
기타해조류	-	0	0.0	-

주: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나. 천해양식어업 품목별 생산량 증감⁴⁾

- 2021년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40만 톤이었음. 전체 생산량의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해조류 생산량은 1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음. 해조류는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중에서도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도 48.3%를 차지함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다시마류(0.4%), 미역류(14.6%), 김류(2.1%)
 - 김은 갯생이 모자반 유입 등 해황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이 다소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다소 늘었음
 - 미역은 상반기에 적정한 양성 수온이 유지되면서 작황이 좋았으며, 기상여건도 채취에 적합하여 생산량이 늘었음

4) 품목별 생산량 증감 요인은 해양수산전망대회 2022, 양식 수산물 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툃(-26.8%)
- 패류 생산량은 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굴류(1.9%), 홍합(2.7%), 바지락(31.9%), 전복류(15.7%)
 - 홍합은 양성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와 시설철거가 많았던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이 늘었음⁵⁾
 - 전복은 상반기 동안 예년보다 먹이활동이 활발했고, 양성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하여 개체당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었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가리비류(-8.7%), 새꼬막(-33.0%)
- 어류 생산량은 8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가자미류(86.3%), 연어(22.5%)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넙치류(-4.6%), 조피볼락(-19.0%)
 - 넙치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출하가능물량 부족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음
 - 조피볼락은 여름철 고수온 발생으로 인해 폐사가 많았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에 사용되는 400g 이하 작은 크기의 우럭의 출하가 2020년에 집중되면서 2021년에 출하가능물량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했음
- 기타 수산동물의 생산량은 2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35.6% 감소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미더덕(109.7%)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우렁챙이(-43.2%), 오만등이(-28.1%)
 - 우렁챙이는 주생산지인 경남에서 전년 여름 이상해황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하여 초기 시설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양성상태 또한 좋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했음
- 갑각류 생산량은 9,545톤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음
 -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흰다리새우의 생산량 증가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임

5) 해양수산전문대회 2022, 양식 종합 수급동향과 전망의 내용임

〈표 2-3〉 우리나라 천해양식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712,873	3,820,048	100.0	2.9
천해양식	2,308,407	2,397,490	62.8	3.9
어류	88,285	89,436	2.3	1.3
가자미류	3,336	6,214	0.2	86.3
고등어	247	231	0.0	-6.5
넙치류	43,813	41,791	1.1	-4.6
농어류	843	1,212	0.0	43.8
능성어	79	86	0.0	8.9
참다랑어	26	28	0.0	7.7
감성돔	611	1,009	0.0	65.1
참돔	5,745	8,313	0.2	44.7
돌돔	682	829	0.0	21.6
기타돔류	69	92	0.0	33.3
민어	57	93	0.0	63.2
방어류	772	442	0.0	-42.7
복어류	19	6	0.0	-68.4
조피볼락	21,568	17,473	0.5	-19.0
기타볼락류	247	226	0.0	-8.5
노래미류	3	-	-	-
송어류	-	3	0.0	-
송어류	89	91	0.0	2.2
연어	8,449	10,352	0.3	22.5
붕장어	7	42	0.0	500.0
전갱이류	30	23	0.0	-23.3
전어	789	145	0.0	-81.6
참조기	112	12	0.0	-89.3
쥐치류	693	725	0.0	4.6
갑각류	8,125	9,545	0.2	17.5
대하	1	-	-	-
흰다리새우	8,124	9,545	0.2	17.5
패류	414,770	429,921	11.3	3.7
굴류	300,084	305,914	8.0	1.9
고등류	-	-	-	-
전복류	20,059	23,199	0.6	15.7
가리비류	5,591	5,107	0.1	-8.7
가무락	-	-	-	-
꼬막	40	143	0.0	257.5
새꼬막	6,725	4,507	0.1	-33.0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동족	-	-	-	-
바지락	18,054	23,818	0.6	31.9
백합류	-	3	0.0	-
새조개	-	-	-	-
키조개	-	2,147	0.1	-
피조개	2,248	1,409	0.0	-37.3
홍합류	61,968	63,672	1.7	2.7
개조개	-	-	-	-
기타패류	-	0	0.0	-
기타수산동물	35,590	22,907	0.6	-35.6
미더덕	1,414	2,965	0.1	109.7
우렁쉥이	30,613	17,400	0.5	-43.2
해삼	50	16	0.0	-68.0
오만둥이	3,512	2,524	0.1	-28.1
기타수산동물류	-	0	0.0	-
해조류	1,761,637	1,845,682	48.3	4.8
김류	536,127	547,587	14.3	2.1
꼬시래기류	-	-	-	-
개꼬시래기	3,672	932	0.0	-74.6
다시마류	675,074	677,537	17.7	0.4
모자반(말)류	-	-	-	-
모자반(물)	274	342	0.0	24.8
미역류	501,501	574,585	15.0	14.6
청각	7,108	11,317	0.3	59.2
툃	27,575	20,180	0.5	-26.8
파래류	8,242	7,958	0.2	-3.4
매생이	2,063	2,981	0.1	44.5
기타해조류	-	-	-	-

주: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다. 원양어업 부류별 생산량 증감

-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2020년 대비 0.5% 증가한 43만 8,825톤이었음
 - 주요 증가 품종 : 어황 호조로 오징어류(86.9%), 황다랑어(1.6%) 어획량 증가, 명태(2.1%), 눈다랑어(0.5%)

- 주요 감소 품종 : 참치 선망어업의 조업어선 감소, 어황 부진⁶⁾으로 가다랑어 (-11.8%), 꽁치(-27.2%)가 전년 대비 감소했음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712,873	3,820,048	100.0	2.9
원양어업	436,617	438,825	11.5	0.5
어류	353,261	331,383	8.7	-6.2
가오리류	863	1,050	0.0	21.7
가자미류	-	-	-	-
갈치류	5	0	0.0	-100.0
고등어류	-	-	-	-
꽁치	5,993	4,365	0.1	-27.2
능성어류	-	-	-	-
가다랑어	214,685	189,425	5.0	-11.8
날개다랑어	1,430	1,721	0.0	20.3
남방참다랑어	1,082	1,086	0.0	0.4
눈다랑어	22,952	23,066	0.6	0.5
북방참다랑어	213	209	0.0	-1.9
황다랑어	59,315	60,237	1.6	1.6
기타다랑어류	24	20	0.0	-16.7
달고기류	7	2	0.0	-71.4
대구	4,823	3,474	0.1	-28.0
민대구류	5,574	9,382	0.2	68.3
붉은대구	3	3	0.0	0.0
은민대구	-	-	0.0	-
기타대구류	31	66	0.0	112.9
갈돔류	-	-	-	-
금눈돔류	-	-	-	-
셋돔류	-	-	-	-
통돔류	-	-	-	-
하스돔류	-	-	-	-
기타돔류	3	0	0.0	-100.0
명태	27,196	27,779	0.7	2.1
메로(이빨고기)류	3,098	4,393	0.1	41.8
물치다래	-	-	0.0	-
민어류	367	172	0.0	-53.1
꼬리민태류	738	174	0.0	-76.4

6) 통계청,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2022.02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새꼬리민태	-	-	-	-
붉은메기	187	625	0.0	234.2
방어류	-	-	-	-
복어류	7	1	0.0	-85.7
볼락류	-	-	-	-
붕장어류	-	-	0.0	-
삼치류	36	44	0.0	22.2
통치(은삼치)	-	-	-	-
상어류	136	28	0.0	-79.4
녹새치	1,318	1,072	0.0	-18.7
돛새치	36	24	0.0	-33.3
백새치	8	1	0.0	-87.5
청새치	120	154	0.0	28.3
황새치	1,076	941	0.0	-12.5
흑새치	30	13	0.0	-56.7
기타새치류	96	63	0.0	-34.4
서대류	62	37	0.0	-40.3
성대류	-	-	-	-
적어류	-	-	-	-
정어리	-	-	0.0	-
전갱이류	2	1	0.0	-50.0
조기류	8	0	0.0	-100.0
청어	22	64	0.0	190.9
홍어류	231	631	0.0	173.2
기타장어류	182	-	-	-
기타어류	1,302	1,059	0.0	-18.7
갑각류	44,579	38,007	1.0	-14.7
게류	-	-	-	-
남빙양크릴	44,567	37,984	1.0	-14.8
기타새우류	12	23	0.0	91.7
연체동물	38,778	69,435	1.8	79.1
갑오징어류	0	1	0.0	#DIV/0!
문어류	-	-	-	-
오징어류	36,540	68,301	1.8	86.9
한치류	2,237	1,134	0.0	-49.3
기타연체동물류	-	-	-	-

주: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라. 내수면어업 부류별 생산량 증감

- 내수면어업의 2021년 생산량은 4만 2,663톤으로 2020년 대비 25.6% 증가했음. 어류 및 패류는 전년 대비 각각 26% 늘었으나, 갑각류 및 기타 수산동물은 각각 12.6%, 15.3% 줄었음
- 주요 증가 품종 : 뱀장어(61.1%), 왕우렁이(32.7%), 붕어(16.8%), 송어류(2.9%)
- 내수면어업 생산량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뱀장어는 실뱀장어 공급 증가로 인해 많은 양의 뱀장어가 출하됨
- 송어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행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출하가 증가했으나, 평년보다는 적었음
- 주요 감소 품종 : 메기(-4.3%)

〈표 2-5〉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712,873	3,820,048	100.0	2.9
내수면어업	33,968	42,663	1.1	25.6
어류	26,593	33,497	0.9	26.0
가물치	157	168	0.0	7.0
농어류	124	241	0.0	94.4
동자개류	389	417	0.0	7.2
메기	3,951	3,783	0.1	-4.3
미꾸라지류	690	678	0.0	-1.7
틸라피아(민물돔)	197	184	0.0	-6.6
뱀장어	9,788	15,764	0.4	61.1
블루길	789	584	0.0	-26.0
큰입우럭(베스)	105	70	0.0	-33.3
금붕어	32	30	0.0	-6.3
붕어	2,489	2,907	0.1	16.8
떡붕어	120	70	0.0	-41.7
빙어	328	372	0.0	13.4
산천어	201	178	0.0	-11.4
송어류	2,414	2,483	0.1	2.9
송어류	295	626	0.0	112.2
쏘가리	137	131	0.0	-4.4
연어류	66	91	0.0	37.9

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생산량	비중	
웅어	38	13	0.0	-65.8
은어	34	23	0.0	-32.4
비단잉어	30	29	0.0	-3.3
잉어	1,278	1,477	0.0	15.6
향어	1,678	2,028	0.1	20.9
피라미	82	114	0.0	39.0
황복	10	9	0.0	-10.0
철갑상어류	33	66	0.0	100.0
기타어류	1,139	963	0.0	-15.5
갑각류	286	250	0.0	-12.6
계류	107	158	0.0	47.7
새우류	178	90	0.0	-49.4
기타갑각류	0	2	0.0	-
패류	7,031	8,866	0.2	26.1
논우렁이	38	44	0.0	15.8
왕우렁이	6,035	8,011	0.2	32.7
재첩	230	258	0.0	12.2
다슬기류	728	553	0.0	-24.0
기타패류	-	-	-	-
기타수산동물	59	50	0.0	-15.3
자라	59	50	0.0	-15.3

주: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식품수급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9.8kg였음⁷⁾
- 한편, 2021년 추정 수산물 소비량은 65.6kg으로⁸⁾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였음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중 해조류의 비중은 42.5%(27.9kg)로 가장 높았고 어류는 34.1%(22.4kg), 패류 23.4%(15.3kg) 순이었음
 - 2011년 대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 원인은 해조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15.7kg에서 2021년 27.9kg으로 12kg 이상 늘었으며,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반면, 어류의 1인당 소비량은 2011년 대비 연평균 0.9%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패류는 연평균 0.8% 감소했음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 kg, %, %p

구분	어류		패류		해조류		수산물 소비량
	어류	비중	패류	비중	해조류	비중	
2000년	20.2	55.1	10.5	28.5	6.1	16.5	36.7
2005년	27.0	54.5	12.9	26.1	9.6	19.4	49.5
2010년	22.7	44.3	13.9	27.1	14.7	28.7	51.2
2011년(A)	20.6	38.9	16.5	31.3	15.7	29.8	52.8
2015년	23.8	41.7	14.7	25.7	18.6	32.6	57.1
2016년	20.9	36.4	15.5	26.9	21.1	36.7	57.4
2017년	23.1	35.1	15.1	22.9	27.7	42.0	65.9
2018년	25.1	36.6	16.8	24.5	26.6	38.9	68.4
2019년	25.6	36.6	16.7	23.9	27.6	39.5	69.8
2020년	22.9	35.2	14.9	23.0	27.2	41.8	65.0
2021년(B)	22.4	34.1	15.3	23.4	27.9	42.5	65.6
전년 대비 증감	-2.2	-3.1	2.7	1.7	2.6	1.7	0.9
평년 대비 증감	-4.7	-5.2	-3.1	-3.5	7.2	6.8	0.5
연평균 증감(B/A)	0.9	-1.3	-0.8	-2.9	5.9	3.6	2.2

주: 1) '패류 등'에는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들이 모두 포함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2000~201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0~2021년은 KMI 자체 추정치

7) 현재 수산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식품수급표」의 식용공급량에서 뼈, 내장 등 비가식 부위를 제외한 '순 식용공급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연간 순식용공급량'을 소비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함

8) 식품수급표의 공표 주기의 한계로 2020년과 2021년은 KMI가 자체 추정한 결과를 사용함

-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육류, 유지류, 수산물은 2010년 대비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와 수산물의 소비량은 수산물이 69.8kg으로 육류(68.1kg)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나, 해조류 제외시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42.3kg로 상대적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육류보다 낮았음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현황

단위 : kg, %

구분	국민 1인당 연간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1990년	2000년	2010년 (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연평균 증감율 (B/A)
곡류	175.4	166.8	145.1	133.1	132.8	137.7	136.9	133.2	-0.9
서류	11	11.8	13.8	12.5	11.9	11.1	11.7	11.6	-1.9
설탕류	15.3	17.9	22.7	22.4	22.5	24.1	22.7	24.4	0.8
두류	10.3	10.7	10.4	10.1	9.9	8.5	8.4	8.1	-2.8
건과류	0.5	1.5	1.5	1.8	1.9	1.7	1.7	1.6	0.8
종실류	0.7	0.7	0.7	0.8	0.9	0.9	0.7	0.8	1.8
채소류	132.6	165.9	132.2	142.8	133.6	143.5	150.5	144.9	1.0
과실류	29	40.7	44.2	48.5	42.9	41.8	38.7	39.9	-1.1
육류	23.6	37.5	43.5	53.5	56.1	60.1	64.3	68.1	5.1
계란류	7.9	8.6	9.9	10.9	11.6	9.6	10.6	10.8	1.0
우유류	31.8	49.3	57	63.6	64.3	68.6	69.0	71.0	2.5
유지류	14.3	15.9	20.1	20.8	21.2	22.9	24.5	27.5	3.6
수산물	36.2	36.7	51.2	57.1	57.4	72.7	68.1	69.8	3.5

주: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식품수급표」, 2021.08

2. 수산물 소비 변화 현황

가. 인구구조의 변화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32.8%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20.4%임
- 1인 가구 및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기준 전체의 각각 15.5%, 7.2%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050년에는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비중이 각각 40%,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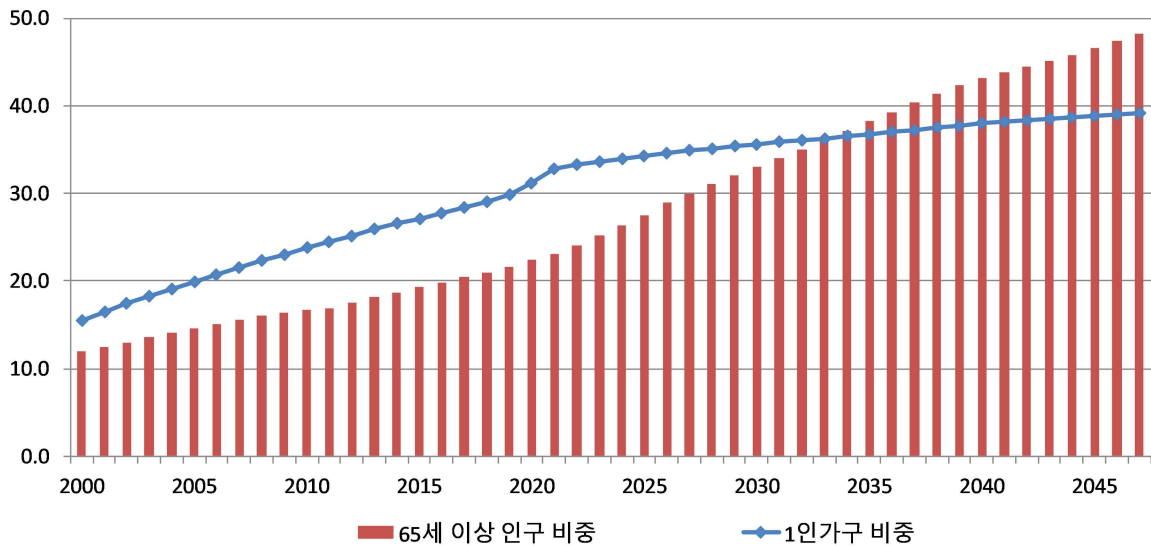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연도	총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2000년(A)	14,507,010	2,255,298	2,763,836	3,033,749	6,454,127
2005년	16,038,858	3,185,621	3,523,633	3,365,447	5,964,157
2010년	17,494,884	4,174,073	4,183,385	3,739,037	5,398,389
2015년	19,012,895	5,137,971	4,939,845	4,078,388	4,856,691
2016년	19,281,443	5,332,365	5,042,516	4,134,655	4,771,907
2017년	19,570,670	5,544,152	5,195,244	4,169,561	4,661,713
2018년	19,876,352	5,771,150	5,383,228	4,195,322	4,526,652
2019년	20,220,447	6,046,695	5,589,994	4,213,039	4,370,719
2020년	20,730,614	6,476,735	5,796,910	4,206,379	4,250,590
2021년(B)	21,278,321	6,984,891	6,010,929	4,177,685	4,104,816
연평균 증감률 (B/A)	1.8	5.5	3.8	1.5	-2.1
2025년	22,308,987	7,653,333	6,668,970	4,289,917	3,696,767
2030년	23,180,129	8,255,041	7,370,459	4,345,471	3,209,158
2035년	23,709,485	8,718,949	7,891,854	4,309,007	2,789,675
2040년	23,866,166	9,054,787	8,231,173	4,171,425	2,408,781
2045년	23,572,163	9,156,041	8,371,733	3,997,365	2,047,024
2050년	22,849,142	9,053,860	8,272,359	3,797,340	1,725,58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

- 식품 소비 트렌드 또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식품시장은 소포장 및 간편 조리가 가능한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음. 수산 식품의 경우 원물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훈제 품, 통조림 등 반조리 형태의 가공 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정간편식(HMR), 밀 키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의 소비로 변화하고 있음

나. 소매업태 판매 변화

- 2021년 전체 소매업 판매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19조 원 규모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음
- 주요 소매업태별 판매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소매점이 130조 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이어 무점포 소매업(113조 원), 슈퍼마켓(45조 원), 대형마트(35조 원, 백화점(34조 원), 편의점(28조 원) 순이었음
 -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 판매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백화점과 무점포 소매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2.9%, 14.4% 증가하면서 판매액 증가폭이 컸음
 - 2017년 대비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무점포 소매가 16.6%의 증가율로 성장했으며, 이어 편의점이 6.3%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의 영향이 전년에 이어 계속되면서 인터넷 쇼핑, 홈쇼핑, 배달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무점포 소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근거리 소비 선호, 소포장 수요 증가, 가정간편식의 다양화 등의 이유로 편의점 매출 또한 증가세에 있음

<표 2-9> 소매업체별 판매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구분	2017년 (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전년 대비	증감률 (B/A)
전체	44,029	46,500	47,318	47,523	51,853	9.1	4.2
백화점	2,932	2,997	3,039	2,742	3,369	22.9	3.5
대형마트	3,380	3,345	3,242	3,378	3,457	2.3	0.6
슈퍼마켓	4,559	4,646	4,418	4,647	4,544	-2.2	-0.1
편의점	2,224	2,441	2,569	2,652	2,842	7.2	6.3
전문소매점	13,912	13,988	13,541	12,200	12,957	6.2	-1.8
무점포 소매	6,124	7,032	7,958	9,883	11,302	14.4	16.6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업체별 판매액, 각 연도

- 세부적으로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온라인 식품시장(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5조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온라인 식품시장의 연평균 증가율(2017년 대비)은 24% 수준으로 전품목 증가율(1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 중 2021년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7조 1천억 원이었는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이 76%를 차지했음
 - 농축수산물의 모바일 판매는 2017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5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세 배 이상으로 규모가 성장했음. 특히 2021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판매액이 30.7% 증가했으며 음식료품 및 전품목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컸음

<표 2-1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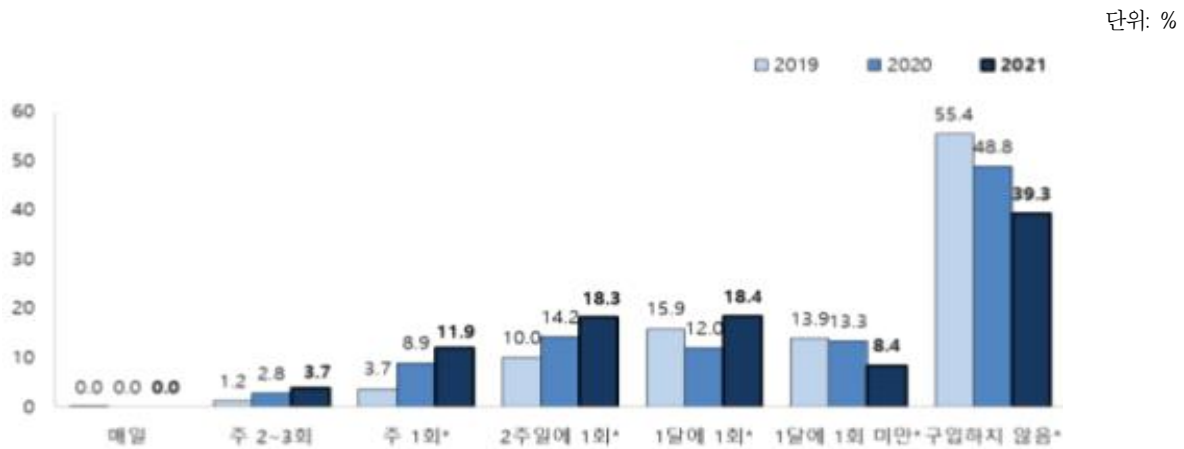
단위 : 백억 원, %

구분	합계(온라인 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2017년(A)	9,419	800	242	4,128	304	93	5,291	496	150
2018년	11,331	1,049	294	4,411	360	101	6,921	689	193
2019년	13,660	1,345	372	4,924	433	115	8,736	912	257
2020년	15,732	1,950	579	4,925	523	167	10,807	1,427	413
2021년(B)	18,708	2,429	712	5,156	625	172	13,552	1,805	539
전년 대비	18.9	24.6	22.9	4.7	19.4	3.5	25.4	26.4	30.7
연평균 증감률 (B/A)	14.7	24.9	24.0	4.6	15.5	13.2	20.7	29.5	29.2

자료: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가구는 전체의 60.7%로 비중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구입 주기 또한 잦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비중은 39.3%로 전년 대비 9.5%p 감소한 39.3%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음
 - ‘2주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8.0%p 증가한 33.9%로 나타남

〈그림 2-4〉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22.04

- 유통·물류여건 개선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매업태의 변화가 수산 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 원물 및 단순 가공품에서 벗어나 신선(회), 조리식품, 간편식, 밀키트 등의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음
 - 온라인 종합쇼핑몰에서 뿐만 아니라 신선제품 전문 플랫폼, 실시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등의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서도 수산물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3. 수산물 소비 동향 변화 조사

가. 가계의 수산식품 소비

- 2021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식품 관련 지출 중 외식비 지출 비중은 45.0%였음
 - 가계 식품관련 지출 중 외식비 비중은 1990년 23.0%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 47.4%로 늘어났음. 2019년에는 50.1%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매년 2.2%의 증가율을 보였음
- 한편,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 중 수산식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15.1%에서 연평균 1.1%의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0.6%로 하락했음
 -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 내 수산 식품의 비중은 감소했으나, 가계 식품 지출 내 외식비 비중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수산식품의 외식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2-11〉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계 식품 관련 지출 중 외식비 비중 ¹⁾	23.0	42.6	47.4	48.2	50.1	44.8	45.0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 중 수산식품 비중 ²⁾	15.1	14.4	12.3	11.2	10.7	10.8	10.6

주: 1) 가계의 식품 관련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과 식사비 지출의 합계임

2) 수산식품에는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 각 연도.

- 2021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통 채널 중 지출액을 기준으로 구입이 많은 가공식품 품목군은 육류가공품이었음⁹⁾
 - 조미수산가공품은 7위(4.9%), 염건수산가공품은 9위(3.7%)를 차지했으며¹⁰⁾,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2021.12.

10) 조미수산가공품의 경우 어육가공품, 수산물통조림이 포함되며, 염건수산가공품은 젓갈류, 해조가공품, 염·건수산동물이 포함됨

〈그림 2-5〉 지출액 기준 구입 많은 가공식품 품목군

단위 : %



주: 1~3순위의 문항을 가장평균한 값으로 20개 중분류로 구분되며, 상위 12개만 제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21.12.

나. 부류별 수산물 구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소비행태를 살펴 보았음
-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 빈도를 어류, 해조류, 패류, 연체류, 건어물인 부류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어류를 가장 자주 조달하고(‘주 1회 이상’ 20.3%), 갑각류를 가장 드물게 구입하는 것(‘주 1회 이상’ 1.0%)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매일’ 구입한다는 응답은 건어물 0.7%, 해조류 0.6%이며, ‘주 2~3회’는 건어물 2.9%, 해조류 2.7%, 어류 1.7%, 연체류 0.5%, 패류 0.2%, 갑각류 0.1%로 나타남
 - 어류의 구입빈도는 ‘2주 1회’가 35.9%로 가장 높았고, ‘월 1회’ 24.1%, ‘주 1회’ 18.6%, ‘월 1회보다 드물게’ 13.7%이었음.
 - 해조류의 구입빈도는 ‘월 1회’ 35.4%, ‘2주 1회’ 21.9%, ‘월 1회보다 드물게’ 25.7% 순이었음
 - 연체류, 패류, 갑각류, 건어물 구입 빈도 비중은 ‘월 1회보다 드물게’가 가장 높았으며, ‘월 1회’, ‘2주 1회’ 순이었음
- ‘주 1회 이상’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의 경우, 모든 부류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어류 및 해조류는 각각 20.3%, 12.7%로 전년 대비 각각 31.1%, 21.2% 줄었음

<표 2-12>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2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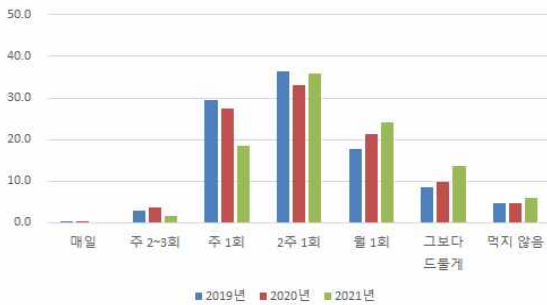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어류	0.0	1.7	18.6	35.9	24.1	13.7	5.8
해조류	0.6	2.7	9.4	21.9	35.4	25.7	4.3
패류	0.0	0.2	5.0	17.3	26.1	39.3	12.0
연체류	0.0	0.5	4.7	16.1	34.2	35.7	8.8
갑각류	0.0	0.1	0.9	7.6	25.1	52.6	13.7
건어물	0.7	2.9	7.1	15.2	28.1	39.7	6.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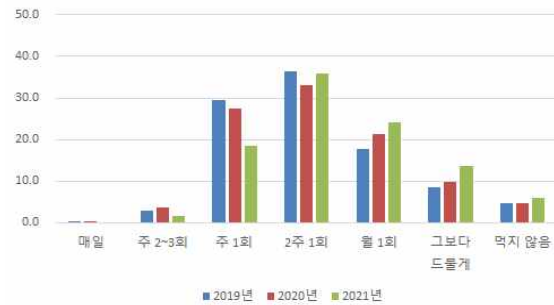
- 주 2~3회 이상 구매하는 경우는 모든 부류에서 4% 미만이었으며,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부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린내, 조리 및 처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김, 연육, 국물용 멸치 등 주로 부식의 형태로 섭취함에 따라 수산물로서 인식하지 못한 채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그림 2-6>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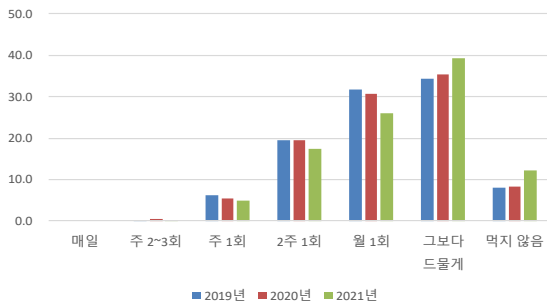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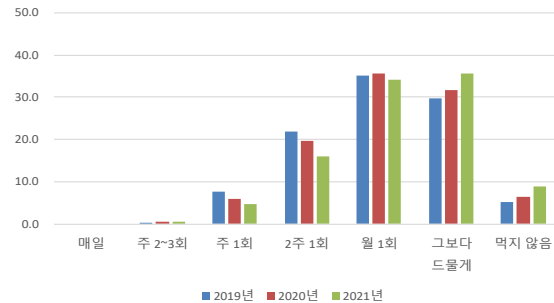
<어류 구입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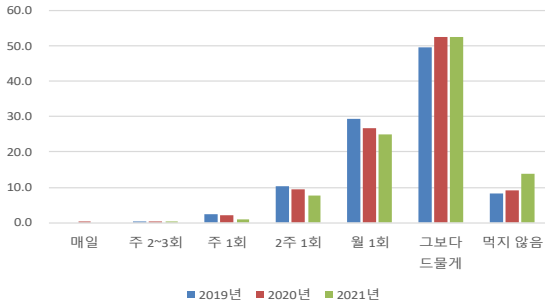
<해조류 구입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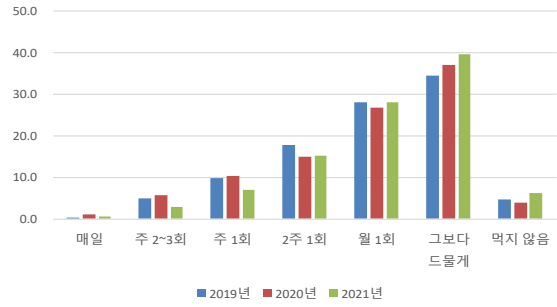
<패류 구입빈도>



<연체류 구입빈도>



<갑각류 구입빈도>



<건어물 구입빈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다. 가구원수별 연령별 수산물 구입(어류 기준)

- 2021년 기준 어류의 구입 빈도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2주에 1회’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음
 - 3인 이하의 가구는 ‘2주에 1회’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1회’ 순이었음
 - 4인 이상 기구의 어류 구입 빈도는 작년과는 달리 ‘2주 1회’, ‘주 1회’ 순으로 2021년 들어 구입 빈도가 낮아졌음

<표 2-13>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1인	2019년	0.2	1.5	21.2	31.1	19.0	14.1	12.8
	2020년	0.2	2.4	20.0	25.5	20.0	18.0	13.7
	2021년	0.0	1.2	13.1	25.5	23.0	22.5	14.7
2인	2019년	0.0	4.3	33.4	35.3	18.3	6.0	2.7
	2020년	0.0	4.0	28.5	38.4	20.8	7.0	1.2
	2021년	0.1	2.5	19.3	37.5	28.2	9.6	2.8
3인	2019년	0.0	2.5	33.2	40.6	17.7	4.6	1.4
	2020년	0.1	4.1	29.8	39.2	21.1	4.6	1.0
	2021년	0.1	1.5	20.9	46.5	23.8	6.1	1.1
4인	2019년	0.3	3.5	30.3	41.7	16.6	7.2	0.4
	2020년	0.0	3.4	34.0	31.5	22.6	7.7	0.8
	2021년	0.0	1.6	23.2	38.5	20.2	14.9	1.5
5인 이상	2019년	1.0	6.1	37.7	22.8	11.7	20.6	0.0
	2020년	0.0	8.2	27.1	23.0	31.6	9.5	0.6
	2021년	0.0	1.0	30.1	36.4	28.0	3.6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경우 먹지 않거나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젊은 세대의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수산물 조리 및 처리의 편의성 향상 및 관련 가공 식품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함
- 가공을 통해 비린내, 가시 제거 등의 거부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의 간편식 및 밀키트 개발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소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표 2-14〉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39세 이하	2019년	0.2	1.3	22.9	32.5	19.3	12.4	11.3
	2020년	0.0	1.6	21.2	24.4	22.9	15.8	14.1
	2021년	0.0	0.2	12.0	26.5	25.0	21.2	15.1
40대	2019년	0.1	2.9	31.3	39.5	16.1	6.6	3.4
	2020년	0.0	2.3	30.4	34.8	19.9	10.5	2.1
	2021년	0.0	0.6	19.4	37.7	23.9	13.6	4.6
50대	2019년	0.3	4.3	31.5	37.6	16.7	8.5	1.2
	2020년	0.1	5.6	29.3	34.1	22.1	7.4	1.4
	2021년	0.2	2.3	22.0	41.3	21.6	10.5	2.1
60세 이상	2019년	0.0	3.5	32.5	36.0	19.0	6.6	2.3
	2020년	0.2	4.6	29.0	39.0	20.1	6.1	1.1
	2021년	0.0	3.3	21.0	38.1	25.7	10.0	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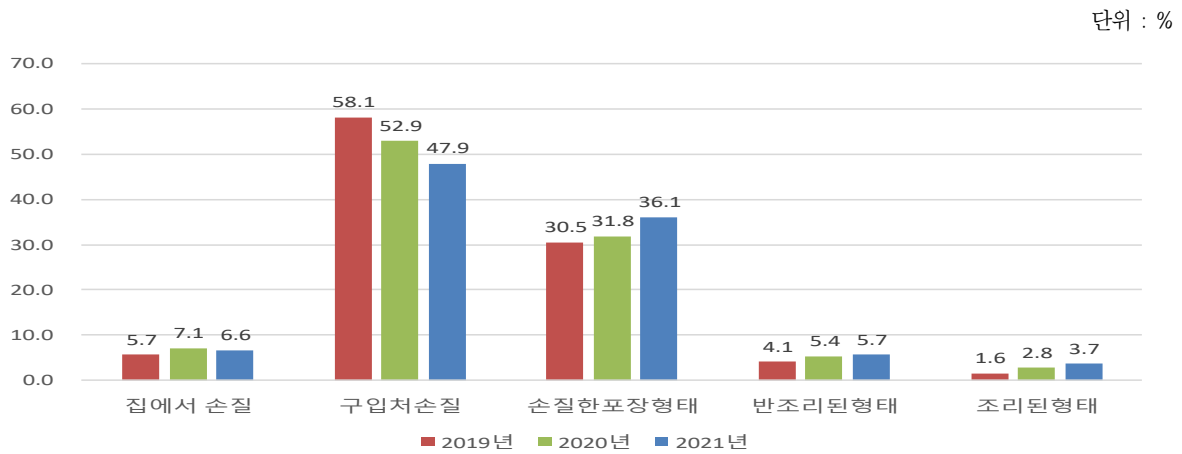
라. 수산물 구입 형태 및 요인

1) 구입 형태

- 수산물 구입 형태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구입처 손질 형태’로 구매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손질한 포장한 형태’, ‘집에서 손질’,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 순이었음
- 수산물 구입 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구입처에서 손질한 형태’로 수산물 구입이 2021년 기준 4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음

- ‘손질한 포장 형태’ 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비중은 2019년 30.5%에서 2021년 36.1%로 크게 늘었으며,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음
- ‘집에서 직접 수산물을 손질한다’ 는 응답의 경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6%였음
- ‘반조리 형태’ 로의 구매는 2019년 4.1%에서 2021년 5.7%로 증가세를 보였음. 조리된 형태로의 구매 또한 비중은 적었으나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7%를 차지했음

〈그림 2-7〉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반조리된 형태’ 및 ‘조리된 형태’ 의 비중은 낮았음
 -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손질 비중보다 ‘반조리된 형태’ 및 ‘조리된 형태’ 의 비중이 높았음
- 반면,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구입처 손질의 비중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던 반면, 손질 포장한 형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인 이하 가구의 구입 형태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음

〈표 2-15〉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

구분		집에서 손질	구입처 손질	손질한 포장 형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
1인	2019년	5.6	51.1	33.0	6.2	4.2
	2020년	4.5	44.7	35.8	7.9	7.1
	2021년	5.8	41.0	36.7	8.7	7.8
2인	2019년	6.6	60.0	28.1	4.5	0.8
	2020년	11.2	53.1	27.5	6.2	2.1
	2021년	7.4	53.0	32.1	4.2	3.2
3인	2019년	5.4	57.6	32.5	3.9	0.6
	2020년	7.1	53.5	33.6	4.9	1.0
	2021년	8.0	46.3	38.5	6.0	1.3
4인	2019년	4.8	65.2	28.2	1.6	0.2
	2020년	5.6	61.6	30.8	1.8	0.2
	2021년	5.7	50.9	39.2	3.4	0.9
5인 이상	2019년	9.1	54.7	32.0	1.6	2.5
	2020년	4.6	67.9	24.8	2.7	0.0
	2021년	2.8	73.7	21.4	0.0	2.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202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를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경우 ‘손질한 포장 형태’가 전체 구입 형태 중 43.3%로 가장 높았음
- 반면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상일 경우 ‘구입처 손질’이 구입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이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에서는 40세 미만에서 각각 10.6%, 9.5%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았음
- 반면, ‘집에서 손질’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 연령 대비 가장 높은 세대로 나타났음

〈표 2-16〉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

구분		집에서 손질	구입처 손질	손질한 포장 형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
39세 이하	2019년	3.2	47.1	36.7	8.2	4.7
	2020년	2.7	38.0	38.3	12.0	9.0
	2021년	3.6	33.0	43.3	10.6	9.5
40대	2019년	4.2	56.0	34.8	3.9	1.1
	2020년	7.7	49.9	36.5	4.8	1.0
	2021년	7.5	45.4	36.4	6.3	4.3
50대	2019년	5.9	61.9	29.3	2.5	0.4
	2020년	6.0	57.6	31.7	3.6	1.1
	2021년	7.1	50.7	37.5	3.4	1.3
60세 이상	2019년	9.7	67.2	21.2	1.8	0.1
	2020년	11.9	64.4	21.7	1.7	0.3
	2021년	8.1	60.3	28.3	3.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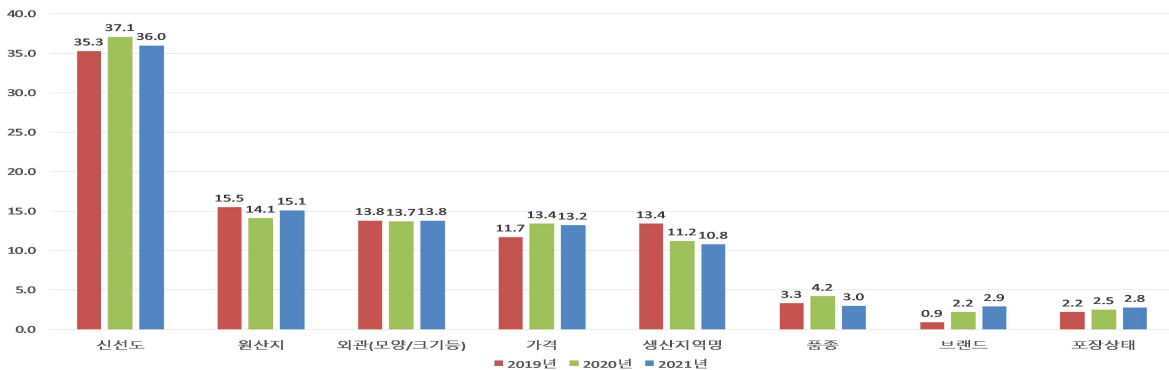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2) 구입 요인

- 2021년 기준, 가계에서 수산물 구입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를 조사했을 때, 전체의 36.0%가 ‘신선도’로 응답했음. 그 외 ‘원산지’, ‘외관(모양/크기)’, ‘가격’, ‘생산지역명’, ‘품종’, ‘브랜드’ 순이었음¹¹⁾
- ‘신선도’의 응답비율은 전년 대비 1.1%p 낮아진 반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1.0%p 높아졌음

〈그림 2-8〉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단위 : %



주: 우선순위(1순위)만 응답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3+2순위×2+3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22.

- 가구원 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와 5인 이상인 경우는 ‘신선도’ 를 확인하는 비중이 각각 36.7%, 39.9%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가구주의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일 경우 ‘신선도’ 를 확인하는 비중이 37.9%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맛별이 여부에 따라서는, 맛별이 가구가 맛별이를 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가격’ 을 확인하는 비중이 3.8%p 낮았고, ‘원산지’ 와 ‘외관’ 을 확인하는 비중은 각각 0.3%p, 0.4%p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1년 소비자들이 수산가공품을 구매시 우선 확인하는 사항은 ‘브랜드 및 상표’ 였던 작년과는 달리 ‘가격’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브랜드 및 상표’ , ‘원산지’ , ‘유통기한’ , ‘용량’ , ‘영양성분’ 등의 순이었음
 - 모든 형태의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에서 ‘가격’이 구매시 우선 확인 사항으로 나타났음
 - 1인 가구의 경우 수산가공품 구매시 ‘가격’을 우선 확인하는 비중이 전체 중 가장 높았으나, ‘식품첨가물’ 이나 ‘원재료 및 성분함량’을 고려하는 비중은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가격’을 우선 확인하는 비중이 전체 중 가장 높았으나, ‘포장 및 디자인’을 고려하는 비중은 다른 가구에 비해 낮았음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입 시 우선 확인 사항

단위: %

구분	용량	유통 기한	원산지	영양 성분	식품 첨가물	브랜드/ 상표	가격	포장/ 디자인	품질 인증	원재료/ 성분함량	
전체	10.3	11.7	12.9	8.3	2.8	14.7	19.4	1.4	7.5	7.8	
가구원 수	1인	12.3	9.4	12.6	8.7	2.2	16.8	21.5	1.2	6.2	5.8
	2~3인	9.1	12.5	13.1	7.9	3.2	14.6	18.4	1.0	8.0	8.3
	4인이상	10.7	12.2	12.5	9.0	2.6	12.5	19.2	2.3	7.6	8.9
가구주 연령	20~30대	12.9	8.8	12.2	8.0	2.4	15.7	18.2	2.3	7.0	8.5
	40~50대	9.6	13.1	13.3	8.3	2.8	14.6	18.6	1.2	7.9	7.6
	60대이상	9.1	11.8	12.6	8.8	3.1	13.8	21.8	0.7	7.1	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통계보고서」, 2021.12.

- 조미 및 염건 수산가공품의 소비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이어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제품’, ‘소포장 및 조리간편화된 제품’,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가격’ 순이었음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염건) 소비자 선호도(소비 트렌드 동조성)

단위 : %

구분	가격이 비싸도 아래의 조건에 구입				저렴한 가격만 구입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제품	안전성 확보된 제품	소포장 및 조리간편화된 제품	
조미수산가공품	11.1	28.7	32.1	20.7	7.3
염건수산가공품	10.0	29.3	32.4	22.1	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통계보고서」, 2021.12.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1. 세계 수산물 수급 및 가격, 교역 현황

가. 세계 수산물 수급 현황

-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코로나 19’ 와 같은 질병 확산, 경기 변동 등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 식품 수급 또한 생산, 수출입, 소비, 재고 비축 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2백만 톤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보였음
 - 어획어업과 양식어업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51%와 49%였음. 특히 양식어업 생산량은 동기간 내 연평균 3.7%씩 증가했으며, 어획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곡물 및 육류의 생산량 증감률(각각 2.0%, 1.7%)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폭이 컸음
- 2021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61백만 톤으로 최근 11년간 연평균 0.7% 증가세를 보였음
 - 곡물 및 육류 교역량의 경우 동기간 내 연평균 각각 4.8%, 4.2% 증가했으나, 수산물은 증가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2021년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0.5kg였음. 2010년에는 18.6kg였으나 2015년 이후 20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곡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최근 11년간 연평균 0.2% 감소 추세에 있으며, 육류는 0.5%씩 증가했음. 수산물의 경우 동기간 내 연평균 0.9%씩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육류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음
 - 특히, 양식수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0년 8.7kg이었으나, 2021년에는 11.4kg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내 연평균 2.5% 증가세를 보였음

〈표 2-19〉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단위 : 백만 톤, kg/년

구분		2010년 (A)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B/A)
곡물	세계 생산량	2,258.8	2,534.3	2,707.0	2,776.9	2,800.8	0.9	2.0
	식용 소비량	1,058.1	1,089.4	1,153.4	1,166.4	1,179.2	1.1	1.0
	세계 교역량	285.0	393.3	438.4	479.3	475.4	-0.8	4.8
	1인당 소비량	153.1	148.2	149.5	149.6	149.7	0.1	-0.2
육류	세계 생산량	294.2	320.5	339.0	340.3	355.3	4.4	1.7
	세계 교역량	26.7	29.9	36.2	41.7	42.1	1.0	4.2
	1인당 소비량	42.5	43.5	43.6	43.4	44.9	3.5	0.5
수산물	세계 생산량	148.5	169.2	175.9	177.8	181.8	2.2	1.9
	-어획어업	88.6	92.6	91.8	90.3	92.2	2.1	0.4
	-양식어업	59.9	76.6	84.1	87.5	89.6	2.4	3.7
	식용 소비량	128.3	148.8	156.4	157.4	161.7	2.7	2.1
	세계 교역량	56.7	59.4	66.0	59.8	61.4	2.7	0.7
	1인당 소비량	18.6	20.3	20.3	20.2	20.5	1.5	0.9
	-어획수산물	9.9	9.9	9.4	9.0	9.2	2.2	-0.7
	-양식수산물	8.7	10.5	10.9	11.2	11.4	1.8	2.5

주: 1) 2021년은 추정치임
 2) 곡물은 밀, 쌀 등을 포함하며, 교역량은 수출량을 기준으로 함
 자료: FAO, Food Outlook, 각 연도

나. 세계 수산물 가격 현황

- FAO의 식품 물가 지수(Food price index)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0.5% 하락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21년 식품 물가 지수는 125.7로 전년 대비 28.1% 상승했으며, 모든 식품군의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음
 - 특히, 식물유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5.9%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산물 물가 지수는 102.0으로 전년 대비 7.4% 상승하여 타식품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적었음
- 식품군별 최근 10년간 연평균 등락률을 살펴보면, 당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군이 1% 내의 변동성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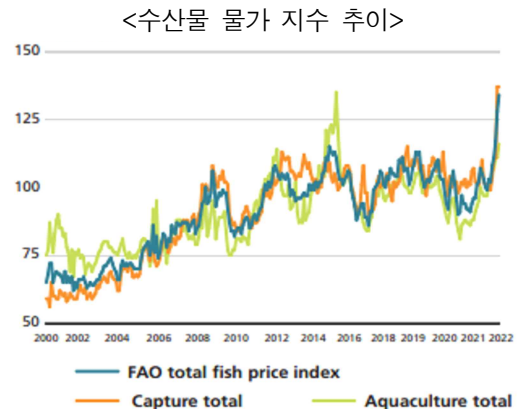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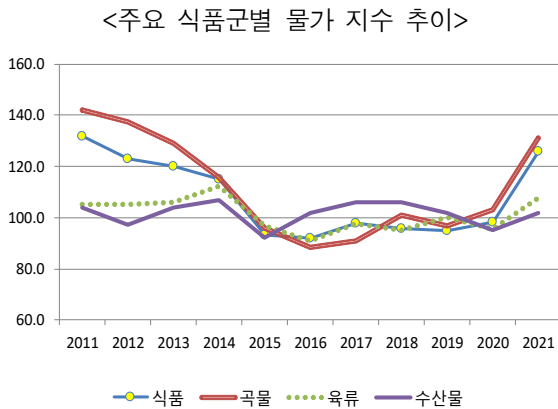
- 수산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0.2% 하락세를 보였으며, 물가 변동폭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표 2-20> 식품군별 물가 지수 현황(FAO 기준)

연도	식품	식품					수산물
		육류	유제품	곡물	식물유	당류	
2011년(A)	131.9	105.3	129.9	142.2	156.5	160.9	104.0
2012년	122.8	105.0	111.7	137.4	138.3	133.3	97.0
2013년	120.1	106.2	140.9	129.1	119.5	109.5	104.0
2014년	115.0	112.2	130.2	115.8	110.6	105.2	107.0
2015년	93.1	96.7	87.1	95.9	89.9	83.2	92.0
2016년	91.9	91.0	82.6	88.3	99.4	111.6	102.0
2017년	98.0	97.7	108	91.0	101.9	99.1	106.0
2018년	95.9	94.9	107.3	100.8	87.8	77.4	106.0
2019년	95.1	100.0	102.8	96.6	83.2	78.6	102.0
2020년	98.1	95.5	101.8	103.1	99.4	79.5	95.0
2021년(B)	125.7	107.7	119.1	131.2	164.9	109.3	102.0
전년 대비	28.1	12.8	17.0	27.3	65.9	37.5	7.4
연평균 등락률 (B/A, %)	-0.5	0.2	-0.9	-0.8	0.5	-3.8	-0.2
표준편차	15.1	6.8	17.8	18.8	22.6	27.0	5.5

주: 1) 식품 물가지수(Food Price Index)는 육류, 유제품, 곡물, 식물유, 당류 물가 지수의 평균임
 2) 2014~2016년 평균=100 기준임
 3)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FAO 홈페이지

<그림 2-9> 식품군별 물가 지수 변화 추이



주: 2014~2016년 평균=100 기준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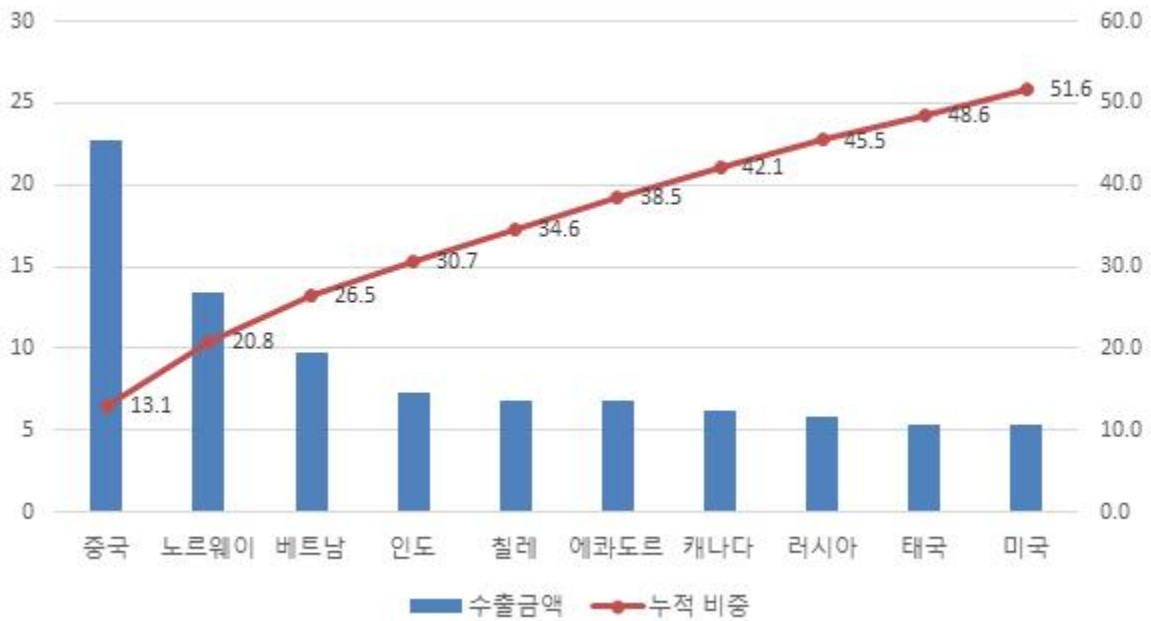
다. 세계 수산물 교역 현황

- 2021년 국제 수산물 무역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수출은 1,733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1,70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2019년 중·미간 무역 긴장 고조 및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국제 수산물 무역이 부진했으나, 2021년에는 거래 물량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3% 정도 늘었음
- <그림 2-10>은 2021년 수출금액 기준, 세계 수산물 교역 상위 10개국(EU제외)의 수출금액과 각각의 누적 비중을 나타냄
 - 중국(13.1%), 노르웨이(7.7%), 베트남(5.7%), 인도(4.2%), 칠레(3.9%), 에콰도르(3.9%), 캐나다(3.6%), 러시아(3.3%), 태국(3.1%), 미국(3.1%) 순으로 상위 10개국의 누적 금액 비중은 51.6%를 차지함
 - EU의 경우 단일 국가 순위에서 제외했으며, 수산물 수출금액은 372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음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수출국 비중(2021년 금액 기준)

단위 : 십억 달러, %



주 : EU 제외
 자료: FAO, Food Outlook, 202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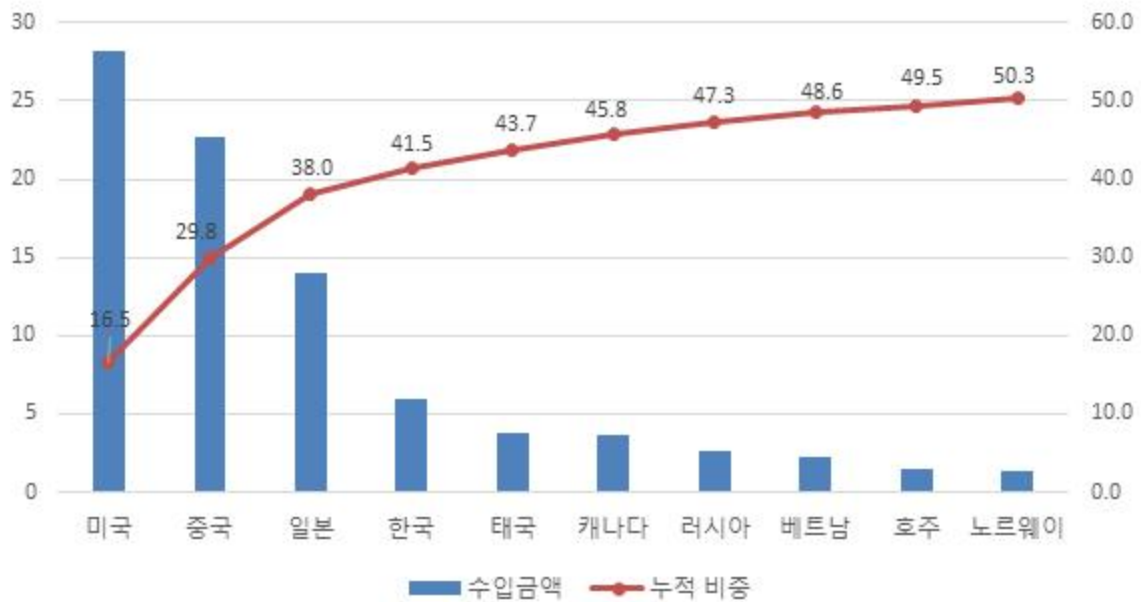
- <그림 2-11> 또한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세계 수산물 교역 상위 10개국의 수입금액과 각각의 누적 비중임
 - 미국(16.5%), 중국(13.3%), 일본(8.2%), 한국(3.5%), 태국(2.2%), 캐나다(2.1%), 러시아(1.5%), 베트남(1.3%), 호주(0.9%), 노르웨이(0.8%)순이었으며 상위 10개

국의 누적 금액 비중은 전체의 50.3%였음

- 중국의 경우 수입물량으로는 미국보다 앞서며, 자국 내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 수입을 통해 자국 소비 및 가공 후 재수출함
- EU는 578억 달러를 수입하여 가장 큰 규모였으나 단일국가 순위에서 제외됨. 전체 수입금액의 33.8%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출 비중보다도 높았음

<그림 2-11> 세계 수산물 수입국 비중(2021년 금액 기준)

단위 : 십억 달러, %



주 : EU 제외
 자료: FAO, Food Outlook, 2022.07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가. 수산물 수출입 총괄

- 국내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출량은 81만 3천 톤이었으며, 수출금액은 28억 달러였음
 - 전년 대비 각각 32.3%, 22.2% 증가했으며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음
- 소금을 제외한 수입량의 경우 164만 8천 톤이었으며, 수입금액은 60억 달러로 수출의 두 배 이상 규모임

- 전년 대비 각각 7.6%, 9.4%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금액의 경우 2011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4.2%로 동기간 수출금액 연평균 증가률(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소금포함	소금제외	소금포함	소금제외
2011년(A)	687	2,308	4,846	1,363	4,192	3,971
2012년	708	2,364	4,832	1,296	3,984	3,789
2013년	687	2,155	5,387	1,212	3,902	3,693
2014년	702	2,067	5,233	1,360	4,506	4,323
2015년	651	1,929	5,504	1,408	4,564	4,406
2016년	612	2,131	5,374	1,444	4,799	4,658
2017년	540	2,329	5,492	1,478	5,268	5,136
2018년	632	2,377	6,419	1,555	6,125	5,963
2019년	688	2,505	5,606	1,528	5,794	5,627
2020년	614	2,306	5,518	1,533	5,621	5,456
2021년(B)	813	2,817	6,375	1,648	6,182	5,967
5개년 평균	657	2,467	5,882	1,548	5,798	5,630
전년 대비	32.3	22.2	15.5	7.6	10.0	9.4
평년대비 증감률	31.7	20.9	12.2	9.4	12.0	11.2
연평균증감률(B/A)	1.7	2.0	2.8	1.9	4.0	4.2

주: 1) 수출은 소금을 포함한 값으로 2008년부터 소금이 수출입 통계에서 집계됨. 수입의 경우 소금이 차지하는 중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분하여 제시함

2) 5개년 평균은 2017~2021년 평균, 평년은 2016~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 2021년 금액 기준 수산물 수출 상위 5개국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순이었으며 전체의 73.0%를 차지했음
 - 전년의 경우 상위 5개국은 동일했으나,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의 수출금액이 늘면서 순위가 변동되었음
- 수산물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이었으며 전체의 67.2%를 차지했음
 - 전년과 수산물 수입 상위 5개국의 순위가 동일했으나 러시아 및 노르웨이의 비중이 소폭 늘었음

〈표 2-22〉 2021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위	중국	726	25.8	1위	중국	1,301	21.0
2위	일본	635	22.5	2위	러시아	1,220	19.7
3위	미국	394	14.0	3위	베트남	808	13.1
4위	베트남	177	6.3	4위	노르웨이	576	9.3
5위	태국	142	5.0	5위	미국	252	4.1
1~5위 소계		2,074	73.6	1~5위 소계		4,157	67.2
전체 수출 합계		2,817	100.0	전체 수입 합계		5,621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다. 부류별 수산물 수출입

- 2021년 수산물 부류별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어류가 14억 달러로 전체의 49.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해조류 7억 8천만 달러(27.7%), 패류 5억 달러(17.8%), 기타 1억 3천만 달러(4.6%) 순이었음
- 모든 수산물 부류의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어류는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비중 또한 전년 대비 3.1%p 늘었음
- 국외 수요 증가로 김 수출이 강세를 보이면서 해조류 수출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

〈표 2-23〉 부류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어류	1,080	1,183	1,224	1,213	1,077	1,404	49.8	1,220
패류	477	458	439	489	431	502	17.8	464
해조류	441	601	615	676	688	782	27.7	672
기타	130	88	99	127	110	129	4.6	111
계	2,128	2,329	2,377	2,505	2,306	2,817	100.0	2,467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2021년 수산물 부류별 수입금액은 패류가 28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5.6%를 차지했음. 이어 어류가 27억 9천만 달러(45.1%), 기타 5억 4천만 달러(8.8%), 해조류 3천만 달러(0.5%)였음
 -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부류의 수산물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 패류 수입금액은 2017년까지 어류보다 적었으나 2018년 이후 이를 넘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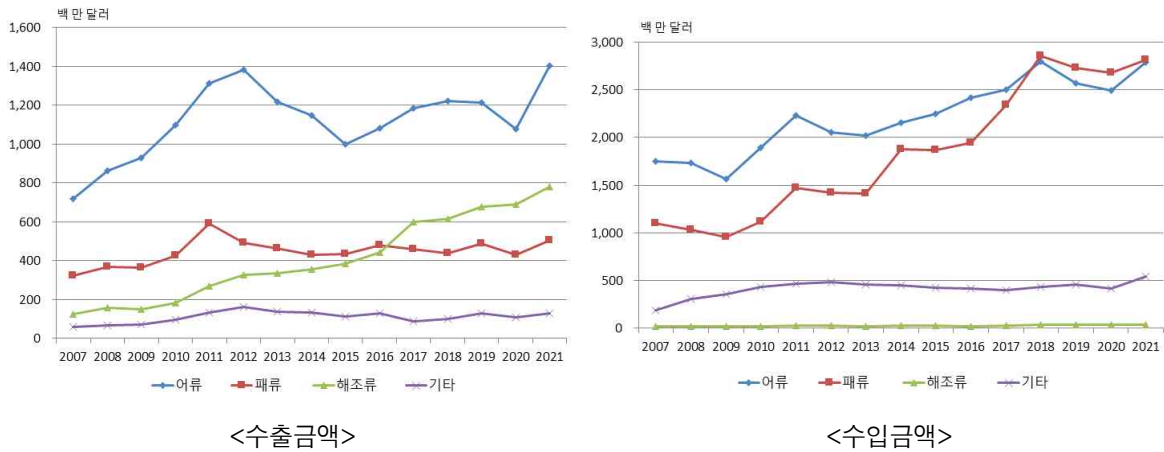
<표 2-24> 부류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어류	2,419	2,506	2,795	2,567	2,493	2,789	45.1	2,630
패류	1,942	2,342	2,859	2,732	2,676	2,814	45.6	2,685
해조류	22	25	35	35	35	31	0.5	32
기타	415	394	436	460	415	544	8.8	450
계	4,798	5,267	6,124	5,793	5,619	6,178	100.0	5,796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그림 2-12> 수산물 부류별 교역액 추이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라. 품종별 수산물 수출입

1)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금액 누적 비중) 2021년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79.1%로 2020년의 81.0%에 비해 0.9%p 줄었음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금액 준)

단위: 톤, 천 달러, %

순위	품종	2020년				품종	2021년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1	김	24,960	600,421	26.0	26.0	김	29,545	692,915	24.6	24.6
2	참치	216,022	527,971	22.9	48.9	참치	177,225	579,214	20.6	45.2
3	어류가공품	22,281	103,491	4.5	53.4	명태	139,952	151,945	5.4	50.5
4	기타계	2,561	101,268	4.4	57.8	어류가공품	22,110	106,557	3.8	54.3
5	기타어류	25,185	92,835	4.0	61.9	대구	30,484	98,232	3.5	57.8
6	굴	9,457	71,484	3.1	65.0	기타어류	26,328	88,640	3.1	61.0
7	대구	19,745	56,482	2.4	67.4	굴	10,127	80,074	2.8	63.8
8	전복	1,914	51,874	2.2	69.7	오징어	21,727	74,297	2.6	66.4
9	기타수산물분	53,363	44,591	1.9	71.6	기타계	1,288	65,925	2.3	68.8
10	넙치	4,781	43,115	1.9	73.5	넙치	4,537	54,982	2.0	70.7
11	미역	16,050	37,105	1.6	75.1	전복	2,136	54,431	1.9	72.7
12	고등어	36,352	35,541	1.5	76.6	삼치	20,162	48,632	1.7	74.4
13	삼치	11,605	34,554	1.5	78.1	기타수산물분	54,884	47,530	1.7	76.1
14	오징어	7,172	33,993	1.5	79.6	이빨고기	2,191	45,161	1.6	77.7
15	바지락	10,777	33,442	1.5	81.0	연어	19,021	41,115	1.5	79.1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금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출금액 대비임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순위 변화) 2021년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을 2020년의 순위와 비교하면 1위의 경우 전년에 이어 김이 차지했음
 - 2020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명태(순위 외→3위), 대구(7위→5위), 오징어(14위→8위), 삼치(13순위 외→12위), 이빨고기(순위 외→14위) 연어(순위 외→15위)
 - 2020년 대비 순위 하락 품목: 어류가공품(3위→4위), 기타어류(5위→6위), 굴(6위→7위), 기타계(4위→9위), 전복(8위→11위), 기타수산물분(9위→13위), 고등어(12순위→순위 외), 바지락(15순위→순위 외)
- (상위 15개 수출품종 수출금액 변화) 2020년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의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2020년의 18.7억 달러에 비해 19.3% 증가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기타어류 및 기타계였으며, 그 외 모든 품목의 경우 수출액이 증가했음
- 김은 중국으로의 물량 증가 폭이 컸으며, 수출량 및 수출금액 모두 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 명태의 경우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검역 조치 강화로 러시아산 명태가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재수출되면서 수출 물량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¹²⁾

2)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

- (상위 15개 수입품종의 누적 비중) 2021년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67.8%로 2020년의 66.8%에 비해 1.0%p 늘었음
- (상위 15개 수입품종의 순위 변화) 2021년 수산물 수입 상위 품종 중에서는 1위였던 오징어가 5위로 하락하고 2위였던 명태가 1위를 차지했음
 - 2020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명태(2위→1위), 연어(5위→2위), 참치(9위→8위), 대게(11위→9위), 소금(12위→11위), 기타수산물분(순위 외→13위)
 - 2020년 대비 순위하락 품목: 오징어(1위→5위), 기타계(8위→10위), 주꾸미(10위→12위), 실장어(13위→순위 외)
- (상위 15개 수입품종 수입액 변화) 2021년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의 수출액은 41.9억 달러였으며, 2020년 대비(37.6억 달러) 11.5% 감소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오징어, 기타계였으며, 이 외 품목은 모두 수입액이 증가함
 -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음
 - 명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원물 수입이 크게 늘었음
 - 연어는 주요 수입국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물량이 증가함¹³⁾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수산물 & 이슈, Vol. 58, 2022. 01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2021. 4분기호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금액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순위	품종	2020년				품종	2021년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1	오징어	155,577	462,845	8.2	8.2	명태	321,586	500,917	8.1	8.1
2	명태	209,729	407,758	7.3	15.5	연어	62,730	476,210	7.7	15.8
3	새우	65,221	368,955	6.6	22.1	새우	65,502	414,042	6.7	22.5
4	기타어류	168,988	362,124	6.4	28.5	기타어류	184,131	367,561	5.9	28.4
5	연어	42,609	357,696	6.4	34.9	오징어	134,225	350,401	5.7	34.1
6	새우살	32,872	275,092	4.9	39.8	새우살	36,962	330,915	5.4	39.5
7	낙지	31,772	261,979	4.7	44.4	낙지	32,065	282,731	4.6	44.0
8	기타게	11,801	239,729	4.3	48.7	참치	21,985	236,835	3.8	47.9
9	참치	21,314	213,816	3.8	52.5	대게	7,768	231,239	3.7	51.6
10	주꾸미	29,952	182,571	3.2	55.7	기타게	9,153	225,809	3.7	55.3
11	대게	8,390	171,005	3.0	58.8	소금	4,726,315	215,743	3.5	58.8
12	소금	3,985,263	165,091	2.9	61.7	주꾸미	31,395	209,767	3.4	62.1
13	실장어	14	106,845	1.9	63.6	기타수산물분	69,587	124,033	2.0	64.2
14	어란	27,847	91,290	1.6	65.2	어란	26,988	113,236	1.8	66.0
15	바다가재	4,399	90,802	1.6	66.8	바다가재	4,448	110,907	1.8	67.8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금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입금액 대비임
 자료: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1.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정책 및 수급관련 정책

가. 핵심정책

-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 핵심정책은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수산·어촌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이 대표적임
-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 수산업 활력·지속가능성 확보를 비롯해 해양수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도형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제4차('21~'25)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 어구 일제회수제도 및 어구보증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및 「수산업법」 개정 추진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물 스마트 유통·가공 R&D, AI 어업관리시스템 추진

나. 수산물 수급관련 정책

- 2021년에는 수산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수산정책을 발표하였으며, ①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②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시행, ③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시행, ④ 14개 어종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수립함

①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가격 간의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촉진 사업 확대
 - 수산물 소비쿠폰 예산 1.9배(210억 원→390억 원) 확대 및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지원 20배(3억 원→60억 원) 확대

- 연 8회 이상 소비촉진 할인 행사 개최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의 행사 진행
 -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정
- ②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시행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1.3)으로 수산직불제도 확대·개편
 - 2021년 3월부터 4대 분야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 등 공익기능 활성화
 -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
- ③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시행
 -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반려해변 제도’ 시행
 -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부표 지원을 약 3배 확대
 - 친환경 부표 보급을 2020년 200만 개(70억 원)에서 2021년 570만 개(200억 원)로 확대
 - 친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지속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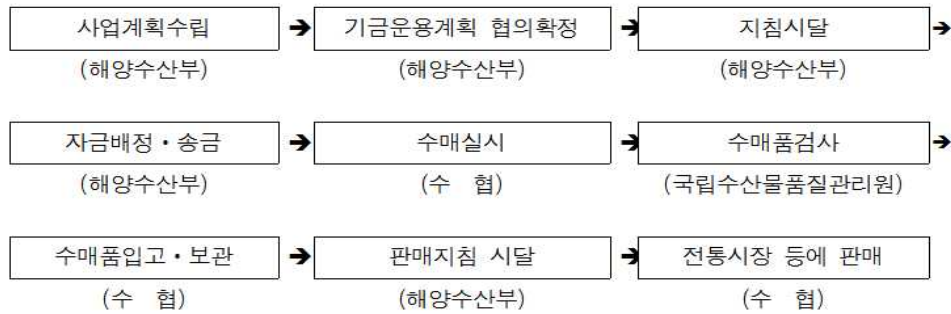
④ 14개 어종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1월 1일부터 시행
 - 금어기 3종(삼치, 감성돔, 참문어) 신설
 - 금어기 1종(대구) 일원화
 - 금지체장 3종(청어,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신설
 - 금지체장 7종(살오징어, 넙치, 참가자미 등) 강화
-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수산물 비축사업

-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주 생산 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사업 수행
 - 비축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에 근거하여 시행
- 집행주체는 수협중앙회이며, 수매품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해양수산부는 비축사업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자금의 배정·송금, 판매지침 등을 시달
 - 수협중앙회는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품의 입고 및 보관, 비축 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수행
 - 수매품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그림 2-13〉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0.12.

- 2021년은 비축 예산을 모두 소진하며 대중성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 수산물 수매비축은 품목별 주 생산시기에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중성 수산물 수매를 기본원칙으로 함
 - 2021년 수매실적은 23,674톤, 수매금액은 1,005억 1,500만 원으로 정부비축 배정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음
 - 생산량이 증가한 오징어, 조기 등은 계획물량을 상회하였으며, 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한 명태 역시 계획물량보다 수매를 늘렸음
 - 반면 고등어, 멸치는 계획 대비 비축물량을 축소함

〈표 2-27〉 2021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단위: 톤, 백만 원

품 목	계획		조정		실적		재고현황 (‘21.12.3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9,224	100,515	23,674	100,515	23,674	100,515	27,063
고등어	2,018	8,394	1,280	6,133	1,280	6,133	2,037
오징어	2,717	23,784	4,157	21,427	4,157	21,427	4,546
명 태	10,792	21,398	14,590	26,707	14,590	26,707	16,128
갈 치	1,459	20,264	1,477	19,601	1,477	19,601	1,512
조 기	1,349	18,327	2,091	24,209	2,091	24,209	2,131
멸 치	398	5,244	61	993	61	993	97
천일염		600	-	409	-	409	594
마른오징어		-	18	1,036	18	1,036	18
유보금	491	2,504	-	-	-	-	-

주: 천일염은 기존 재고에 대한 부대비용 예산만 편성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2년 3월 제공)

-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28〉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75,910	70,815	70,815	70,815
국 고	75,910	70,815	70,815	70,815
지방비	-	-	-	-
자부담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1.12.

3. 수산물 자조금지원 사업

-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 및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자조금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자조금단체가 사업계획서 승인 시 공급조절과 관련된 사업비를 품목별 자조금사업 예산의 40%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도모함
 - 공급조절 사업은 사업계획서 구성 11개 항¹⁴⁾ 중에서 수급안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지수매, 시장격리 및 용도전환(가공, 사료) 등의 사업이 해당함
-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29〉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7,302	7,302	7,302	7,302
국 고	3,516	3,516	3,516	3,516
자부담	3,516	3,516	3,516	3,516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1.12.

14)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선거, 징수수료, 운영관리, 예비비

4.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실시
 - 수매지원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의 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생산자단체 포함)에게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하기 위함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에 근거
 - 산지 가격 안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민간(생산자 단체, 유통·가공업체 등)의 수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30〉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42,000	148,253	148,253	148,253
국 고	113,583	118,602	118,602	118,602
지방비	-	-	-	-
자부담	28,417	29,651	29,651	29,651

주: 2022년 총사업비 113,583백만 원 중 67,743백만 원은 수산금융이차보전으로 집행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1.12.

Ⅲ 제3장 Ⅲ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제3장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를 토대로 공급 및 수요측면의 항목별 구성과 총공급, 총수요, 자급률 도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국내소비는 ‘수요=공급’이라는 항등식 관계를 통해 추정되며, 생산·수입·수출·재고(이입 및 이월)는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계됨
 - 총공급량인 국내 생산과 수입, 이입(재고)을 합한 수치에서 이월(재고), 수출, 사료, 종자, 감모, 가공용(비식용)으로 이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것이 식용공급량임
 -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식품수급표에는 식용공급량 산출 과정에서 사료·종자·가공용 유통 물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0으로 처리하고 있음
 - 식용공급량에서 통상 비가식 부위¹⁵⁾로 폐기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섭취하는 ‘순식용 공급량’이 도출됨
 - 한편 ‘순식용 공급량’이라는 용어의 직관성이 낮아 편의상 ‘수산물 소비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임
 - 총공급 = 총수요의 항등식 관계에 따라 ‘국내소비량¹⁶⁾ = 총공급량 - 수출 - 이월’로 계산됨

15) 비가식 부위는 통상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머리, 뼈, 내장 등)를 의미하며, 가식부분 중에 손상되거나 병충해를 입은 부분 등 고유의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제조 공정 중 부적절한 가공처리로 손상된 부분을 포함을 의미함

16) 국내소비량은 영어로 Domestic Supply로 표기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국내로 공급된 양”을 의미하며, 이 국내공급량이 모두 소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국내소비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용 공급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앞서 유도된 식에 따라 ‘총공급량 = 식용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 +감모+가공용’ 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사료+종자+감모+가공용’ 이 유도됨
- 따라서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비식용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 총공급과 총수요의 세부 항목이 유도되면, 이를 토대로 해당 식품의 자급률(=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100)이 도출됨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생산	수입	이입	총공급량	이월	수출	사료	종자	감모	가공용		식용공급량	폐기율	순식용공급량
									식용	비식용			
↓				↓									
총공급 = 생산 + 수입 + 이입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 - (이월+수출+사료+종자+감모+가공용) 순식용공급량 = 식용공급량에 폐기율 적용하여 산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가공용+사료용+종자용+감모용 총수요 = 국내소비량+수출+이월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순식용공급량 / 우리나라 전체 인구									
↓				↓									
↓				↓									
자급률(%) =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를 바탕으로 작성

2. 수산물 생산 현황

- 1970~2020년의 약 50년간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우리나라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970년대: 일반해면어업 중심의 수산물 생산(70% 이상)
 - 1980년대: 일반해면어업 중심으로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도 증가하여 일반해면

어업 비중 감소

- 1990년대: 일반해면어업은 정체기인 반면,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급성장
- 2000년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 증가세 지속
- 2010년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은 보합세, 양식어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이 50% 이상 차지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총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1970년	934	100	724	77.6	119	12.8	90	9.6	0	0.0
1980년	2,408	100	1,370	56.9	541	22.4	458	19.0	39	1.6
1990년	3,198	100	1,472	46.0	773	24.2	919	28.7	34	1.1
2000년	2,514	100	1,189	47.3	653	26.0	651	25.9	21	0.8
2010년	3,111	100	1,133	36.4	1,355	43.6	592	19.0	31	1.0
2011년	3,256	100	1,235	37.9	1,478	45.4	511	15.7	32	1.0
2012년	3,183	100	1,091	34.3	1,489	46.8	575	18.1	28	0.9
2013년	3,135	100	1,045	33.3	1,515	48.3	550	17.5	25	0.8
2014년	3,304	100	1,059	32.0	1,547	46.8	669	20.3	30	0.9
2015년	3,337	100	1,058	31.7	1,668	50.0	578	17.3	33	1.0
2016년	3,269	100	908	27.8	1,872	57.3	454	13.9	35	1.1
2017년	3,725	100	927	24.9	2,316	62.2	446	12.0	36	1.0
2018년	3,770	100	1,012	26.8	2,250	59.7	474	12.6	35	0.9
2019년	3,861	100	912	23.6	2,410	62.4	504	13.0	35	0.9
2020년	3,713	100	934	25.2	2,308	62.2	437	11.8	34	0.9
2021년	3,820	100	941	24.6	2,397	62.8	439	11.5	43	1.1
5개년 평균	3,778	-	945	-	2,336	-	460	-	37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수산물 생산량은 382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9%(약 10만 톤) 증가
 - (일반해면어업)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94.1만 톤으로 2020년에 비해 약 7만 톤(0.8%) 증가했음
 - (양식어업) 반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에 있는 양식수산

- 물은 2021년에도 2020년 대비 3.9% 증가한 240만 톤을 기록함
- (원양어업)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인 원양어업 생산량은 2021년 439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내수면어업) 최근 10년간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던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2021년 4.3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음
- 최근 5개년(2017~2021년) 일반해면어업의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멸치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어, 살오징어, 갈치, 전갱이류 등의 순이었음
- 일반해면어업의 상위 10대 품종 중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류, 망치고등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음
- 반면 멸치, 갈치, 삼치류, 참조기, 굴류, 바지락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이 중 멸치의 경우 전년 대비 33.8%로 감소폭이 가장 컸음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멸치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86,293	-33.8	-22.8
2	고등어	103,870	141,530	101,121	77,603	121,770	109,179	56.9	9.2
3	살오징어	87,024	46,274	51,817	56,989	60,851	60,591	6.8	-16.4
4	갈치	54,481	49,450	43,479	65,719	63,056	55,237	-4.1	28.4
5	전갱이류	21,294	27,050	43,053	46,207	49,660	37,453	7.5	55.9
6	삼치류	38,306	32,089	37,841	32,949	30,950	34,427	-6.1	-12.6
7	참조기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28,203	-23.1	22.6
8	망치고등어	11,390	74,403	20,252	5,236	28,859	28,028	451.2	8.1
9	굴류	14,539	37,176	31,092	25,805	24,006	26,524	-7.0	-2.2
10	바지락	14,539	37,176	31,092	25,805	24,006	26,524	-7.0	-2.2
1~10위 소계(A)		575,784	657,106	557,165	594,100	578,133	592,458	-2.7	-1.7
일반해면어업 생산량(B)		926,941	1,011,536	911,852	933,880	941,069	945,056	0.8	0.3
비중(A/B)		62.1	65.0	61.1	63.6	61.4	62.7	-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개년(2017~2021년) 천해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시마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류, 미역류, 굴류, 홍합류, 넙치류 등의 순이었음

- 천해양식 수산물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다시마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약 68만 톤이었음
- 천해양식어업의 상위 10대 품종 중 김류, 미역류, 굴류, 홍합류, 전복류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넙치류, 톳, 우렁쉥이, 조피볼락은 감소했음
- 평년에 비해서는 다시마류와 전복류의 증가폭이 컸으며, 감소폭이 큰 품목은 톳, 우렁쉥이였음
- 한편, 2021년도 상위 10대 품목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생산 비중은 96.2%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음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다시마류	542,285	572,600	662,558	675,074	677,537	626,011	0.4	17.4
2	김류	523,648	567,162	605,767	536,127	547,587	556,058	2.1	3.6
3	미역류	622,613	515,666	520,267	501,501	574,585	546,926	14.6	8.2
4	굴류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310,125	1.9	1.1
5	홍합류	76,161	49,485	59,759	61,968	63,672	62,209	2.7	5.4
6	넙치류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41,482	-4.6	0.8
7	톳	54,624	36,170	39,214	27,575	20,180	35,553	-26.8	-47.0
8	우렁쉥이	26,273	37,312	26,040	30,613	17,400	27,528	-43.2	-42.6
9	조피볼락	22,344	22,702	20,348	21,568	17,473	20,887	-19.0	-16.8
10	전복류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19,555	15.7	33.5
1~10위 소계(A)		2,240,437	2,161,574	2,321,939	2,218,382	2,289,338	2,246,334	3.2	6.6
천해양식어업 생산량(B)		2,315,775	2,249,605	2,410,040	2,308,407	2,397,490	2,336,263	3.9	7.5
비중(A/B)		96.7	96.1	96.3	96.1	95.5	96.2	-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7~2021년 원양어업 수산물 생산량은 가다랑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황다랑어, 오징어류, 남빙양크릴, 명태 등의 순이었음
 - 원양어업 품종 가운데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가다랑어는 2020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0.3% 적었음
 - 2021년 원양어업 상위 10대 품목 중 오징어류 생산량이 6만 8천여 톤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6.9%, 114.5% 늘었음

- 반면 2021년에는 콩치류와 대구가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음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가다랑어	204,123	246,719	279,032	214,685	189,425	226,797	-11.8	-20.3
2	황다랑어	66,189	43,510	56,881	59,315	60,237	57,226	1.6	5.1
3	오징어류	47,028	35,074	20,540	36,540	68,301	41,497	86.9	114.5
4	남방양크릴	34,506	36,005	42,939	44,567	37,984	39,200	-14.8	4.9
5	명태	23,497	23,993	23,915	27,196	27,779	25,276	2.1	17.0
6	눈다랑어	20,842	23,571	23,592	22,952	23,066	22,805	0.5	2.0
7	콩치	14,801	23,701	10,465	5,993	4,365	11,865	-27.2	-69.7
8	민대구류	5,124	8,312	12,623	5,574	9,382	8,203	68.3	32.9
9	대구	3,501	4,000	4,400	4,823	3,474	4,040	-28.0	-14.4
10	메로(이빨고 기)류	3,329	3,252	3,114	3,098	4,393	3,437	41.8	36.2
1~10위 소계(A)		422,940	448,137	477,501	424,743	428,406	440,345	0.9	-2.2
원양어업 생산량(B)		445,726	473,589	503,795	436,617	438,825	459,710	0.5	-5.2
비중(A/B)		94.9	94.6	94.8	97.3	97.6	95.8	-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7~2021년 내수면어업의 수산물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뱀장어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왕우렁이, 메기, 송어류, 붕어 등의 순이었음
 - 내수면 수산물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뱀장어의 경우 전년 대비 61.1% 증가하여 상위 10대 품목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음
 - 한편, 왕우렁이, 송어류, 붕어, 향어, 잉어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메기, 다슬기류, 미꾸라지, 블루길은 감소했음
 - 2021년 내수면 어업 상위 10대 품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2% 증가했으며, 생산 비중은 87.3%를 기록했음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뱀장어	11,144	10,589	10,942	9,788	15,764	11,645	61.1	50.5
2	왕우렁이	4,516	5,823	5,406	6,035	8,011	5,958	32.7	53.8
3	메기	5,330	4,846	4,269	3,951	3,783	4,436	-4.3	-19.0
4	송어류	3,358	3,179	3,285	2,414	2,483	2,944	2.9	-18.9
5	붕어	1,657	1,946	2,058	2,489	2,907	2,211	16.8	47.4
6	향어	1,658	1,579	1,523	1,678	2,028	1,693	20.9	24.2
7	잉어	991	905	1,125	1,278	1,477	1,155	15.6	30.3
8	다슬기류	574	742	945	728	553	708	-24.0	-19.0
9	미꾸라지류	826	668	645	690	678	701	-1.7	-7.4
10	블루길	259	734	643	789	584	602	-26.0	6.2
1~10위 소계(A)		30,313	31,011	30,841	29,840	38,268	32,055	28.2	27.1
내수면어업 생산량(B)		36,270	35,326	35,282	33,968	42,663	36,702	25.6	21.0
비중(A/B)		83.6	87.8	87.4	87.8	89.7	87.3	-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 202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18.5% 증가했음.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전년 대비 22.7%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농림수산물식품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비중은 0.4%였음
 - 2021년 수산물 수출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으며, 전년 대비 1%p 증가하였으나, 최근 5개년 평균보다는 낮았음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수출	우리나라 전체	573,694	604,860	542,233	512,498	644,400	575,537	25.7	18.1
	농림수산물(A)	7,020	7,403	7,673	7,979	9,456	7,906	18.5	30.9
	농산물	4,495	4,771	4,924	5,366	6,289	5,169	17.2	33.7
	축산물	203	273	289	346	387	300	11.6	37.1
	임산물	35	34	29	26	31	31	17.7	-0.8
	수산물(B)	2,288	2,325	2,432	2,241	2,750	2,407	22.7	24.4
	비중(B/A)	32.6	31.4	31.7	28.1	29.1	30.6	-	-
수입	우리나라 전체	478,478	535,202	503,343	467,633	615,093	519,950	31.5	28.6
	농림수산물(C)	24,082	26,251	26,483	26,818	31,617	27,050	17.9	27.1
	농산물	12,603	13,083	13,319	14,033	16,756	13,959	19.4	29.7
	축산물	5,979	6,868	7,154	7,015	8,463	7,096	20.6	31.5
	임산물	447	451	438	416	487	448	17.1	11.8
	수산물(D)	5,054	5,850	5,571	5,354	5,911	5,548	10.4	16.0
	비중(D/C)	21.0	22.3	21.0	20.0	18.7	20.6	-	-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2021년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 수입액은 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입액 모두 늘었음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 농림수산물식품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비롯해 농·축·임산물 모두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였음
 - 2021년 수산물 수입액은 약 5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4%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6.0% 많았음
 - 수산물 수입이 농림수산물식품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1.0%였으나, 2021년에는 18.7%로 2.4%p 감소하였음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일본	758,579	746,872	717,969	645,372	619,806	697,719	-4.0	-12.4
2 중국	371,306	387,891	508,255	439,466	724,612	486,306	64.9	84.6
3 미국	279,517	277,829	296,788	313,251	392,761	312,029	25.4	43.2
4 태국	238,425	223,083	194,098	164,773	135,924	191,260	-17.5	-31.4
5 베트남	96,224	120,490	137,177	128,848	152,845	127,117	18.6	40.2
6 홍콩	52,098	52,533	60,159	59,046	53,959	55,559	-8.6	2.3
7 대만	50,028	56,055	55,755	54,510	56,062	54,482	2.8	15.4
8 프랑스	62,610	52,376	45,926	36,669	66,187	52,754	80.5	35.6
9 이탈리아	46,060	39,745	36,968	34,568	52,952	42,058	53.2	35.8
10 캐나다	34,205	35,177	38,073	35,437	41,653	36,909	17.5	29.2
소계(A)	1,989,051	1,992,049	2,091,168	1,911,938	2,296,761	2,056,193	20.1	20.7
수산물 수출(B)	2,287,608	2,325,253	2,431,696	2,240,559	2,749,584	2,406,940	22.7	24.4
비중(A/B)	86.9	85.7	86.0	85.3	83.5	85.4	-	-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2021년 기준 국가별 수산물 수출실적은 일본이 6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음
 - 2021년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의 83.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1.8%p 낮아졌음
 -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출상대국인 일본으로는 2021년 약 6억 2천만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가량 감소한 것임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수요가 감소한 전년에 비해 2021년에는 전반적인 수출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일본, 태국, 홍콩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액은 2020년 대비 증가했음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1 중국	1,226,093	1,499,959	1,312,393	1,230,195	1,263,520	1,306,432	2.7	1.0
2 러시아	858,799	909,817	922,145	924,220	1,216,891	966,374	31.7	49.6
3 베트남	742,225	853,641	793,711	746,541	799,378	787,099	7.1	11.4
4 노르웨이	336,731	407,760	418,248	428,813	572,169	432,744	33.4	53.6
5 미국	234,021	264,374	234,839	217,953	221,657	234,569	1.7	-2.2
6 태국	167,718	178,963	141,353	151,266	192,113	166,283	27.0	28.2
7 페루	100,192	160,674	200,595	194,148	150,868	161,295	-22.3	2.8
8 일본	143,029	145,451	134,239	127,919	163,623	142,852	27.9	18.9
9 캐나다	99,666	118,101	119,679	93,664	113,240	108,870	20.9	21.1
10 대만	105,951	104,493	104,482	72,412	112,967	100,061	56.0	18.5
소계(A)	4,014,424	4,643,234	4,381,684	4,187,128	4,806,426	4,406,579	14.8	20.0
수산물 수입(B)	5,054,105	5,849,558	5,571,334	5,353,756	5,910,750	5,547,900	10.4	16.0
비중(A/B)	79.4	79.4	78.6	78.2	81.3	79.4	-	-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2021년 기준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은 중국이 12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이었음
- 상위 10개국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산물 수입가운데 81.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3.1%p 증가했음
- 국가별로는 2021년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2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21.4%를 차지했음
- 수산물 수입 역시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여 상위 10개국 중 페루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의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

4. 수산물 재고 현황

- 수산물 재고 현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은 11개 품목임
- 고등어(식용), 명태, 조기, 갈치(국내산, 수입산), 오징어(연안산, 원양산), 꽁

치, 전갱이, 삼치, 꽃게, 마른멸치, 병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종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전국 240개의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전화나 팩스 조사를 수행 중임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고등어	식용 50,309	68,722	49,656	36,107	70,077	54,974	94.1	24.9
명태	99,399	104,343	67,946	87,243	106,217	93,030	21.7	15.0
조기	14,322	15,014	18,798	17,242	15,542	16,183	-9.9	-12.0
갈치	국내산 7,203	6,956	4,174	6,364	8,205	6,580	28.9	29.1
	수입산 12,489	10,374	6,304	7,798	8,329	9,059	6.8	-15.1
오징어	연안산 15,073	15,972	16,747	24,352	24,947	19,418	2.4	37.3
	원양산 22,192	27,809	23,558	51,838	50,219	35,123	-3.1	69.8
꽂치	42,303	45,630	26,302	10,519	13,286	27,608	26.3	-60.0
전갱이	653	2,309	1,380	3,101	3,186	2,126	2.8	82.4
삼치	8,429	10,444	12,528	12,798	7,208	10,281	-43.7	-34.0
꽃게	13,242	14,973	14,362	16,092	20,492	15,832	27.3	37.5
마른멸치	1,428	2,320	2,023	2,967	1,662	2,080	-44.0	-23.1
기타	266,074	279,935	296,080	360,068	309,957	302,423	-13.9	4.7
병어	-	-	164	61	125	-	104.9	11.1
합계	553,116	604,802	540,021	636,549	639,452	594,788	17.9	8.6

주: 1) 병어는 2019년 2분기(6월 30일)부터 재고현황이 집계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최근 5년간 수산물 품종별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4분기 수산물 재고 현황은 64만 톤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었음
- 조기, 오징어(원양산), 삼치, 마른멸치를 제외한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연안산) 등 주요 대중성 품종의 2021년도 재고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특히, 고등어의 경우 2020년 대비 두 배가량 많은 재고 수준을 보였음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 감모란 “총공급량 가운데 생산에서 조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서 손실된 양” 을 의미하며, 식품수급표에서는 어패류, 해조류 모두 일괄적으로 5%로 적용되고 있음¹⁷⁾
- 폐기율은 “식용 공급량 중 통상 비가식 부분으로 폐기하는 양의 비율” 을 의미하며, 현재 2018년 식품수급표 상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식품성분표를 참조하여 어류, 패류, 해조류 품종별로 폐기율을 제시하고 있음¹⁸⁾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단위: %

식품별	2018년 식품수급표 명시 식품별 감모율		
	식용공급량에 대한 감모율	생산량에 대한 감모율	이입·수입량에 대한 감모율
설탕류	1	-	-
건과류	2.6	-	-
종실류	2.8	-	-
육류	2	-	-
계란류	2	-	-
우유류	1	-	-
어패류	5	-	-
해조류	5	-	-
식물성 유지류	1	-	-
동물성 유지류	1	-	-

주: 식용공급량=총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가공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식품수급표」, 2021. 3

6. 수산물 수급 현황¹⁹⁾

- 2000년대 들 양식업 성장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 역시 생산과 마찬가지로 증가세에 있었으나 최근 2년간 감소함
 - 생산은 2020년 3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음
 - 한편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는 2018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17) 식품수급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18) 식품성분표 자료가 과거 1970~80년대 조사치가 많고, 해외 자료를 인용한 수치도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19) 본 연구에서는 2019년까지의 자료는 식품수급표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이후의 자료는 “2022 KMI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2부 수산(자료집)” 및 KMI 자체 집계 추정치임

- 으며, 2020년은 5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음
- 2018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수출은 2019년에 크게 늘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140만 톤을 기록하였음
 - 2020년 수산물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287만 톤이었음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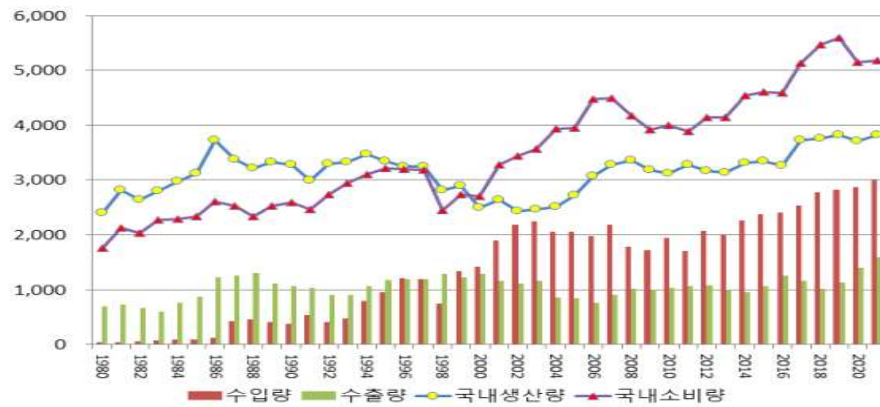
구분	공급			총 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1990년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126.8
1995년	3,348	949	463	4,759	3,216	1,172	372	104.1
2000년	2,503	1,419	586	4,508	2,705	1,292	510	92.5
2005년	2,714	2,062	531	5,307	3,947	848	512	68.8
2010년	3,111	1,938	330	5,379	3,990	1,035	354	78.0
2015년	3,337	2,379	468	6,184	4,605	1,071	508	72.5
2016년	3,270	2,413	481	6,163	4,582	1,250	331	71.4
2017년(A)	3,728	2,528	331	6,587	5,140	1,161	286	72.5
2018년	3,760	2,781	265	6,806	5,461	1,023	323	68.9
2019년	3,820	2,818	323	6,961	5,588	1,131	242	68.4
2020년(B)	3,713	2,867	242	6,822	5,145	1,400	276	72.2
2021년(C)	3,820	2,996	276	7,092	5,176	1,587	329	73.8
전년대비 증감률(C/B)	2.9	4.5	14.0	4.0	0.6	13.4	19.2	-
연평균 증감률(C/A)	0.6	4.3	-4.4	1.9	0.2	8.1	3.6	-

주: 1) 수출입은 원어 환산량이며, 소금은 제외하고 집계함
 2) 자급률은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으로 계산함
 3) 2020, 2021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1) 1990~201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0~2021년은 KMI 자체 추정치(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www.kati.net);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각 연도.)

- 2021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09만 톤이었으며, 자급률은 전년 대비 1.8%p 증가한 73.8% 였음
- 2017~2021년 수산물 공급량은 연평균 1.9%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량이 연평균 각각 0.6%, 4.3% 증가하였음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및 연구진 추정치

- 2021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추정량은 2020년 65.0kg에서 소폭 증가한 65.6kg으로 추정됨
- 2021년 수산물 자급률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73.8%로 추정됨²⁰⁾
 - 201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던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과 2019년에 70% 미만으로 하락했으나, 2020년부터 증가하여 다시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단위: kg, %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2000년	36.7	92.5	2017년	65.9	72.5
2005년	49.5	68.8	2018년	68.4	68.9
2010년	51.2	78.0	2019년	69.8	68.4
2015년	57.1	72.5	2020년(p)	65.0	72.2
2016년	57.4	71.4	2021년(p)	65.6	73.8

주: 수산물 소비량은 수산물 순식용공급량임
 자료: 1) 2000~201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0, 2021년은 KMI 자체 추정치임

20) 2020, 2021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20년 주요 품종별(9개)²¹⁾의 수급 현황은 <표 3-13>와 같음
 - 갈치: 2020년 자급률은 83.7%로, 2019년 대비 국내생산은 51.0%, 소비는 26.1% 증가함
 - 고등어: 2019년 대비 생산은 23.4% 감소했으나, 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소비는 약 14.4% 감소했음. 2020년 자급률은 76.7%를 기록, 2019년 대비 하락함²²⁾
 - 명태: 원양산 생산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 국내 소비는 2020년 34만 톤가량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자급률은 7.9%였음
 - 오징어: 2015년 이후 동해안 살오징어와 포클랜드 해역의 원양오징어 생산이 급격히 줄면서 자급률도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29.1%를 기록했음
 - 조기: 생산 증가세를 보이던 조기는 2020년 약 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9.4% 증가함에 따라 소비도 29.0% 증가했으며, 자급률 역시 64.6%로 상승함
 - 마른멸치: 2019년 생산이 감소한 마른멸치는 2020년 다시 24.0% 증가하였으며, 소비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음. 한편 자급률은 2018년 이후 100%를 상회하고 있음
 - 넙치: 매년 100% 이상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생산과 소비는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음
 - 전복: 생산과 수입 증가로 국내 소비는 13%가량 증가했으나, 전년도까지 100%를 상회하던 자급률은 2020년 들어 98.7%로 낮아졌음
 - 굴: 생산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소비 및 국외 수요 또한 전년 대비 줄었음. 자급률은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음

21) 주요 품종은 대중성품종 6개종과 넙치, 전복, 굴을 포함

22) 고등어 수치는 망치고등어를 제외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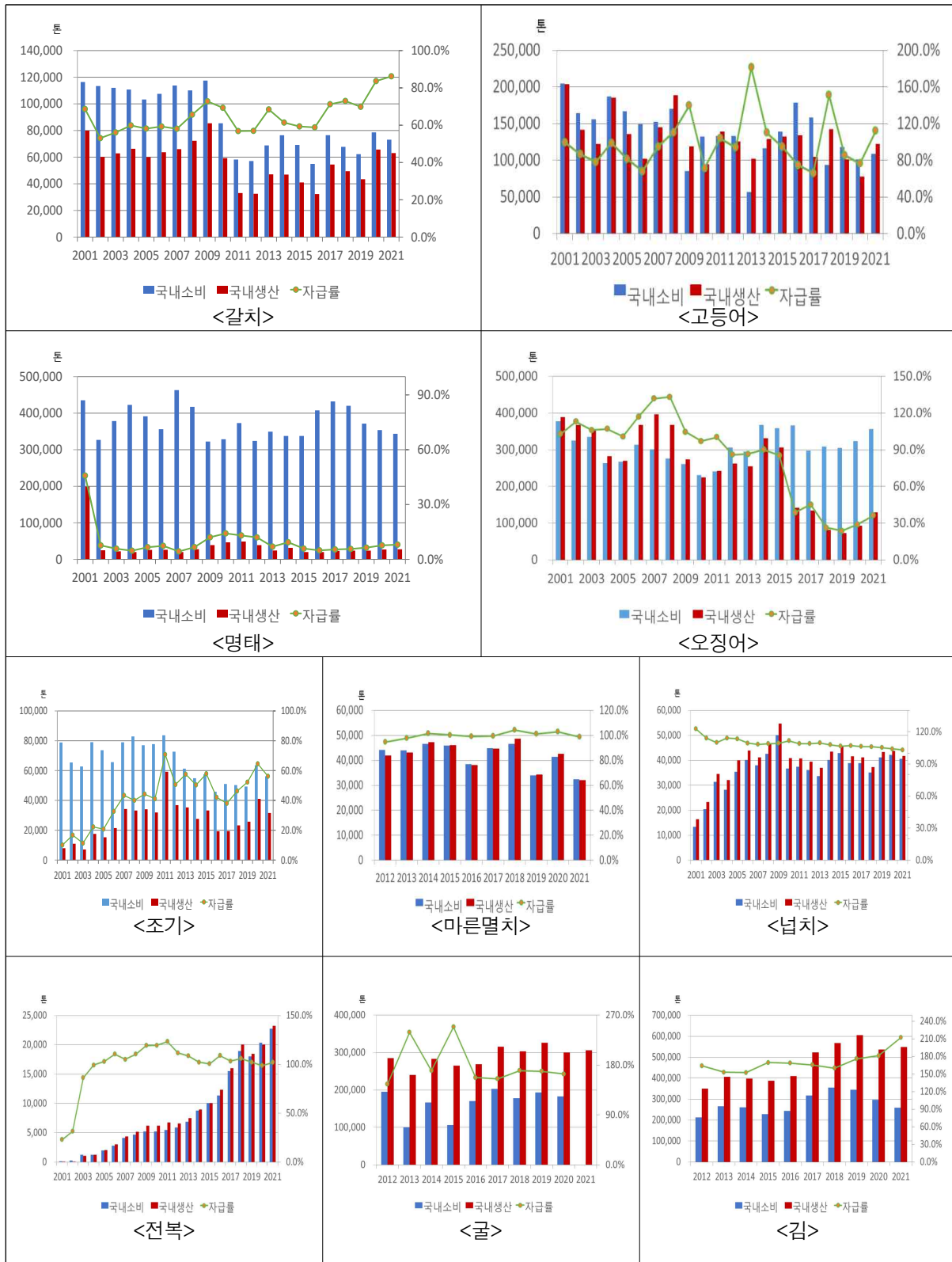
〈표 3-13〉 최근 5개년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공급			총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갈치	2017년	54,521	23,432	19,152	97,105	76,540	873	19,692	71.2
	2018년	49,514	17,722	19,692	86,928	67,841	1,758	17,329	73.0
	2019년	43,516	15,659	17,329	76,504	62,283	3,743	10,478	69.9
	2020년	65,724	19,302	10,478	95,504	78,545	2,798	14,161	83.7
	2021년	63,056	15,522	14,161	92,739	73,226	2,981	16,532	86.1
고등어	2017년	104,523	45,268	75,814	225,605	158,370	16,926	50,309	66.0
	2018년	142,205	42,188	50,309	234,702	94,099	71,881	68,722	151.1
	2019년	101,372	43,092	68,722	213,186	118,350	45,180	49,656	85.7
	2020년	77,850	47,095	49,656	174,601	101,494	37,004	36,103	76.7
	2021년	122,001	54,700	36,100	212,801	108,765	34,592	69,444	112.2
명태	2017년	23,498	417,550	102,962	544,010	432,032	12,579	99,399	5.4
	2018년	24,002	414,650	99,399	538,051	420,073	13,635	104,343	5.7
	2019년	23,915	326,173	104,343	454,431	371,336	15,149	67,946	6.4
	2020년	27,196	353,487	67,946	448,629	353,675	7,711	87,243	7.7
	2021년	27,779	491,045	87,243	606,067	343,500	156,350	106,217	8.1
오징어	2017년	134,052	183,164	41,173	358,389	296,936	24,188	37,265	45.1
	2018년	81,348	243,944	37,265	362,557	309,418	9,358	43,781	26.3
	2019년	72,357	239,706	43,781	355,844	305,348	10,191	40,305	23.7
	2020년	93,529	275,789	40,305	409,623	323,711	9,722	76,190	28.9
	2021년	129,152	251,909	76,190	457,251	356,670	25,415	75,166	36.2
조기	2017년	19,398	23,198	22,962	65,558	51,027	209	14,322	38.0
	2018년	23,274	27,798	14,322	65,394	50,291	89	15,014	46.3
	2019년	25,741	27,459	15,014	68,214	49,288	128	18,798	52.2
	2020년	41,039	21,173	18,798	81,010	63,570	198	17,242	64.6
	2021년	31,562	23,168	17,242	71,972	56,194	236	15,542	56.2
마른멸치	2017년	44,677	281	2,077	47,035	44,933	674	1,428	99.4
	2018년	48,589	179	1,428	50,196	46,534	1,342	2,320	104.4
	2019년	34,382	160	2,320	36,862	33,958	881	2,023	101.2
	2020년	42,619	51	2,023	44,693	41,358	788	2,547	103.0
	2021년	32,006	41	2,547	34,594	32,412	742	1,440	98.7
넙치	2017년	41,207	312	-	41,519	38,823	2,696	-	107.1
	2018년	37,241	362	-	37,603	35,128	2,475	-	106.1
	2019년	43,360	554	-	43,914	41,213	2,701	-	106.0
	2020년	43,813	529	-	44,342	42,109	2,233	-	105.2
	2021년	41,791	614	-	42,405	40,548	1,857	-	104.0
전복	2017년	16,027	1,303	-	17,330	15,522	1,808	-	103.3
	2018년	20,053	1,462	-	21,515	18,916	2,599	-	106.0
	2019년	18,436	1,976	-	20,412	18,034	2,378	-	102.2
	2020년	20,059	2,304	-	22,363	20,331	2,032	-	98.7
	2021년	23,199	1,793	-	24,992	22,761	2,231	-	101.9
굴	2017년	315,255	908	-	316,163	203,253	112,910	-	155.1
	2018년	303,183	719	-	303,902	178,274	125,629	-	170.1
	2019년	326,190	754	-	326,944	193,434	133,510	-	168.6
	2020년	300,084	494	-	300,578	183,061	117,517	-	163.9
	2021년	305,914	115	-	306,029	178,144	127,885	-	171.7

주: 넙치·전복·굴은 양성물량 및 활어의 재고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수급에서 이입과 이월을 제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그림 3-3>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주: 마른멸치, 전복, 굴의 수출입 통계는 HS Code 범위가 세분화된 2012년부터 집계함
 자료: 품종별 생산, 수출입, 재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가. 어업별 수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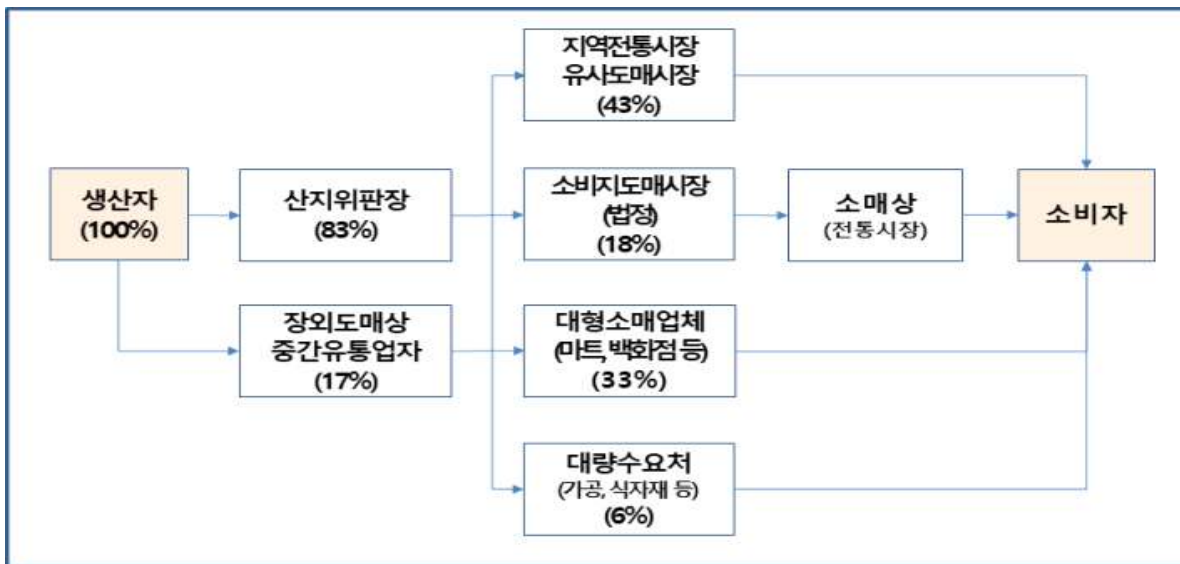
- 코로나19 지속되며 비대면 거래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는 느려져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에는 수산물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소비 패턴이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거래가 증가함
 - 2021년에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수산물 소비패턴은 전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비대면 거래방식 역시 성장세를 보였음
 - 그러나 전년과 같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20년 급감했던 전통시장 유통 비중 다소 증가
 -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비자들은 대형소매점, 슈퍼마켓 등을 비롯해 전통시장 이외의 소비를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거래방식인 온라인 및 인터넷거래를 통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조치로 인해 전통시장 소비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였음
 - 그러나 위축되었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급감했던 전통시장 소비 역시 회복세를 보였음

1) 일반해면어업 수산물 유통경로

- (산지 유통) 2021년 일반해면어업 수산물 중 산지수협 위판장을 경유하여 소비지법정(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냉동냉장창고,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되는 비중은 약 83%로 전년 대비 1%p 증가했음. 그리고 장외도매상(벤더, 중간유통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중은 17%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

- 산지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된 비중(계통출하 비중)은 '20년 82%에 비해 1%p. 상승했음
- 산지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수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지역전통시장, 유사도매시장 등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오프라인 방식의 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해당 경로를 통해 유통된 비중은 '20년(40%)에 비해 증가한 약 4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산지위판장을 경유한 수산물(수입산 제외) 중 법정(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비중은 18% 수준으로 '2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3-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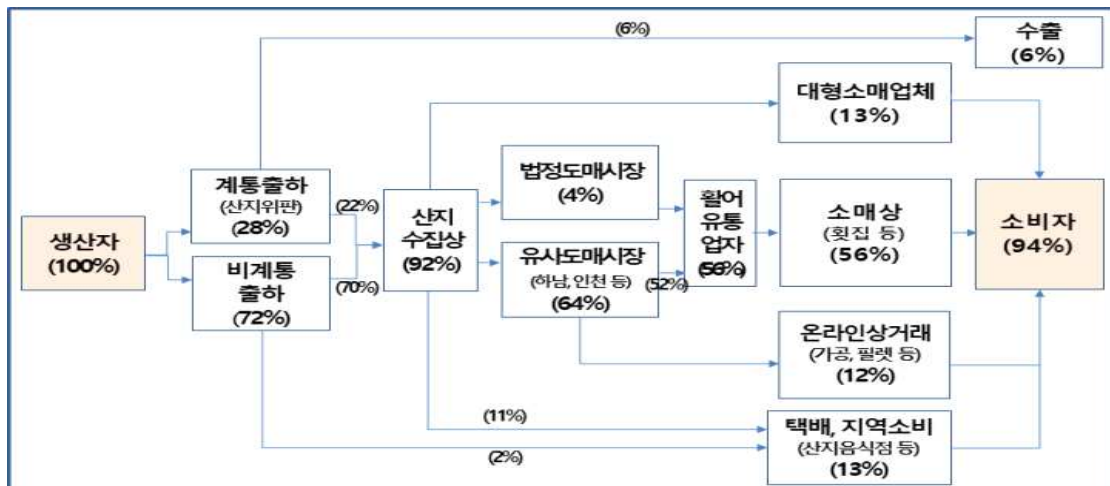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지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 2000년대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규모 증가로 대부분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매하고 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내식 소비가 늘면서 대형소매업체로의 수산물 유통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거래량은 많았으나 전통시장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33% 정도로 추정되었음
- 대량수요처(가공, 식자재 등)에서는 급식 수요가 전년에 이어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면 수업이 일부 재개되면서 유통 비중은 '20년(5%) 대비 소폭 증가한 약 6%로 추정됨

2) 양식산 수산물 유통경로

- 전통적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계통출하 비중이 낮은 활어 중심의 양식 수산물의 계통출하 비중은 약 2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양식 활어: 계통 비중 약 28%²³⁾ 정도임(양식어류만 적용)
 - 양식 해조류: 김을 제외한 다시마, 미역의 경우 전복 먹이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아 계통출하 비중 낮음
 - 양식 패류: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으며, 굴, 홍합, 바지락, 전복 등이 대표적임
- 양식 수산물은 품종에 따라 유통경로가 다양하여 비계통 출하 이후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표적인 양식 품목인 넙치, 전복을 대상으로 생산자, 수집상 등의 면접조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파악함

〈그림 3-5〉 양식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자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 산지수집상을 거친 물량 중 법정(공영) 소비자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비중은 4%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그 외 64% 정도가 인천, 하남, 부산(민락동) 등과 같은 비제도권(유사)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음²⁴⁾
- 코로나 19 이후 횃감용 수산물도 비대면 거래방식, 특히 온라인을 통한 택배, 배달 거래가 증가함

23) 이 계통비중도 산지수협 위판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래보고만을 하는 것으로 제주해수어류양식의 넙치가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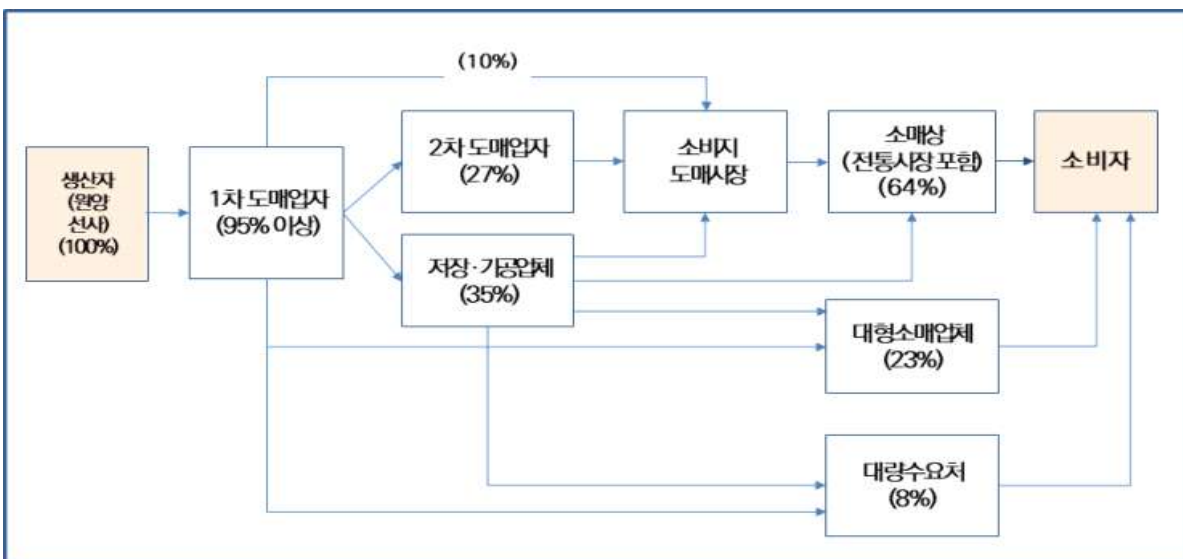
24) 수산업관측센터, 활어양식업자 의견 조회

- 횃집 등 소매상을 통한 양식수산물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가공제품 및 필렛 등 온라인 상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약 4%p 증가한 12%였으며, 택배(지역소비 포함) 거래 비중도 13%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

3)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

- 원양산 수산물의 유통경로별 비중은 대체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전통시장 등 소매상 거래가 소폭 증가했음
 - 1차 도매업자의 거래물량 비중은 95%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음
 - 1차 도매업자 이후 소비지도매시장(법정)으로 가는 물량은 10% 정도임. 1차 도매업자를 거쳐 2차 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물량이 전체의 27% 정도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
 -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물량은 35% 정도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대형소매업체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23%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3-6〉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주: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원양선사,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정치임

나. 유통단계별 수산물 거래동향

1) 산지시장(산지 수협 중심)

- 2021년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계통출하 비중은 40.5%였으며, 어업별 계통출하(수협 위판장) 비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2-14〉 수산물 계통출하율 추이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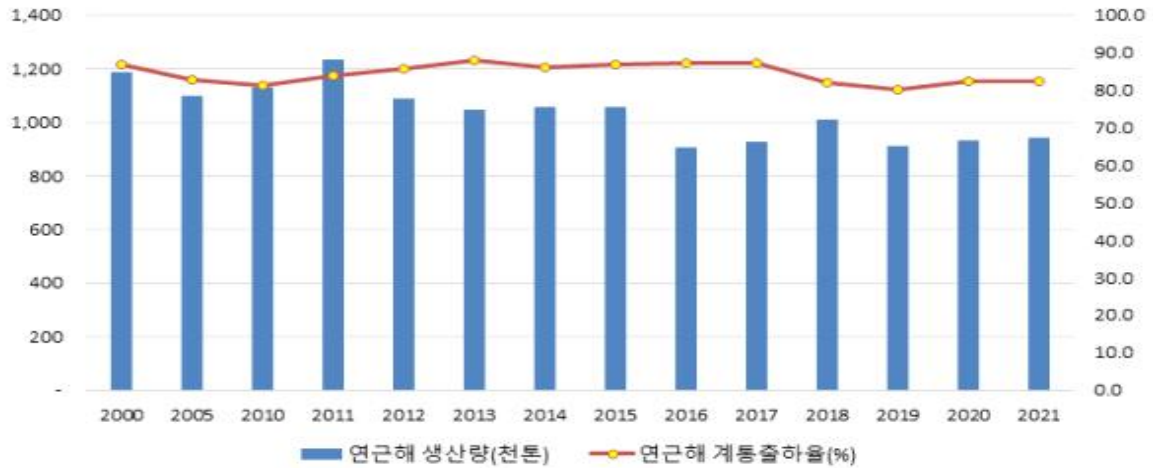
구분	일반해면어업(A)		양식어업(B)		일반해면·양식어업(A+B)		수산업 전체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2000년	1,189	86.8	653	46.8	1,842	72.6	2,514	53.2
2005년	1,097	82.8	1,041	26.2	2,138	55.3	2,714	43.5
2010년(A)	1,133	81.2	1,355	27.1	2,488	51.7	3,111	41.4
2011년	1,235	83.8	1,478	30.7	2,713	54.9	3,256	45.7
2012년	1,091	85.7	1,489	35.9	2,580	57.0	3,183	46.2
2013년	1,045	87.9	1,515	35.0	2,560	56.6	3,135	46.2
2014년	1,059	86.1	1,547	39.0	2,605	58.1	3,304	45.8
2015년	1,058	87.0	1,668	35.7	2,726	55.6	3,337	45.4
2016년	908	87.3	1,872	33.7	2,780	51.2	3,269	43.5
2017년	927	87.3	2,316	28.8	3,243	45.5	3,725	39.6
2018년	1,012	81.9	2,250	34.7	3,261	49.3	3,770	42.7
2019년	912	80.2	2,410	33.4	3,322	46.2	3,861	39.8
2020년	934	82.5	2,308	31.2	3,242	45.9	3,713	40.1
2021년(B)	941	82.6	2,397	32.1	3,339	46.3	3,820	40.5
5개년 평균	945	82.9	2,336	32.0	3,281	46.7	3,778	40.5
전년대비 증감률	0.8	0.2	3.9	3.0	3.0	0.8	2.9	0.9
평년대비 증감률	0.3	-1.5	7.5	-0.8	5.3	-2.7	4.2	-1.6
연평균증감률(B/A)	-1.7	0.2	5.3	1.5	2.7	-1.0	1.9	-0.2

주: 1) 5개년 평균은 2017~2021년 평균, 평년은 2016~2020년 평균을 의미함

2) 수산물 전체는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과 더불어 비계통출하 비중이 높은 원양어업 및 내수면어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소폭 증가했으며, 계통출하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함
 - 2021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94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0.3% 많았음
 - 연근해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82.9%로 전년에 비해 0.2% 증가했으나 평년 보다는 1.5%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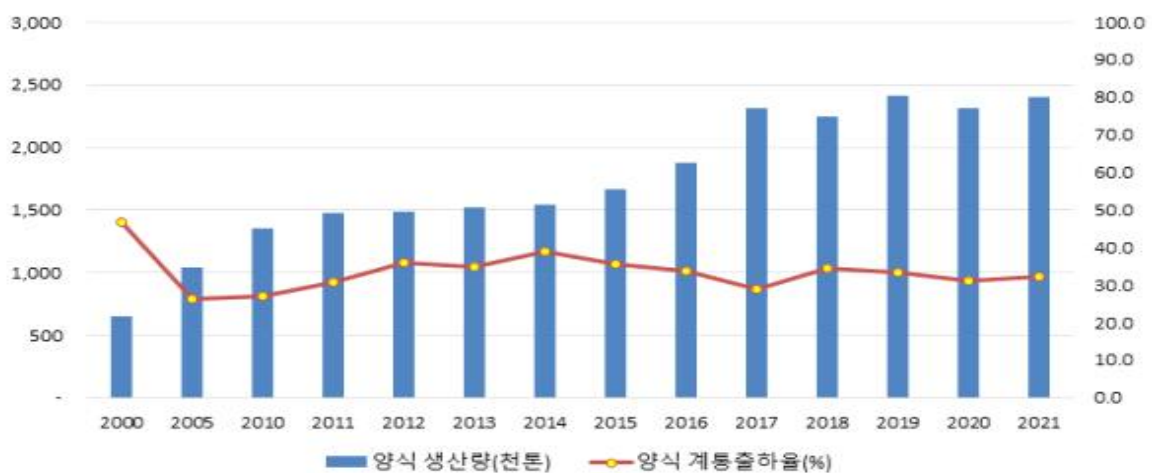
〈그림 3-7〉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대부분의 품종이 비계통출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2021년 계통출하율은 32.1% 수준이었음
 - 양식수산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3.9% 증가한 239만 7천 톤을 기록했음
 - 김, 굴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비계통 출하가 이루어지는 양식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2020년 31.2%에서 2021년에는 32.1%로 상승했음

〈그림 3-8〉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판장 및 공판장 수는 총 221개소로 파악되며, 지역별로는 경남이 53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50개소, 강원 28개소, 충남 25개소, 경북 21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3-15>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위판장				공판장수	
		소계 (비중)	중앙회	조합	기타	중앙회	조합
합계	221	213 (100)	1	210	2	5	3
경인	11	9 (4.2)	1	8	-	1	1
서울	2	-	-	-	-	2	-
부산	12	11 (5.2)	-	10	1	-	1
대구	-	-	-	-	-	-	-
광주	1	-	-	-	-	1	-
울산	1	-	-	-	-	-	1
강원	28	28 (13.1)	-	28	-	-	-
충남	25	25 (11.7)	-	24	1	-	-
전북	7	6 (2.8)	-	6	-	1	-
전남	50	50 (23.5)	-	50	-	-	-
경북	21	21 (9.9)	-	21	-	-	-
경남	53	53 (24.9)	-	53	-	-	-
제주	10	10 (4.7)	-	10	-	-	-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2년 5월 제공)

- 2021년 지역별 수협 계통판매 통계를 보면, 위판물량 비중은 전남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남(21.7%), 부산(15.2%), 충청(5.2%) 등의 순이었으며, 위판금액은 전남(28.5%), 제주(17.6%), 경남(15.0%), 부산(11.8%) 등의 순이었음

<표 3-16>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지역	위판물량(톤)		위판금액(백만 원)	
			비중		비중
1	전남	591,901	40.9	1,135,109	28.5
2	제주	71,241	4.9	700,344	17.6
3	경남	313,352	21.7	598,789	15.0
4	부산	219,091	15.2	469,833	11.8
5	경북	63,674	4.4	364,591	9.2
6	충청	75,269	5.2	276,295	6.9
7	강원	33,325	2.3	190,979	4.8

구분	지역	위판물량(톤)		위판금액(백만 원)	
			비중		비중
8	경인	42,586	2.9	166,330	4.2
9	전북	35,367	2.4	80,149	2.0
총계		1,445,806	100.0	3,982,419	100.0

주: 수산정보포털의 계통판매통계정보에는 지역별 수산물 계통 판매고 정보를 제공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2021년 수협 회원조합별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2,000억 원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은 민물장어양식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이며, 1,500~1,999억 원에 해당하는 조합은 목포, 여수, 한림, 신안, 부산, 고흥 등 6개소임
- 2020년에는 2,000억 원 이상의 위판실적을 기록한 조합이 목포수협을 포함한 3개소였으나, 2021년에는 목포수협 위판실적이 감소했음

<표 3-1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21년 기준)

구분	회원조합명
2,000억 원 이상	제주어류양식, 민물장어양식
1,500~1,999억 원	목포, 신안군, 여수, 한림, 부산시, 고흥군
1,000~1,499억 원	진도군, 고창군, 서귀포, 통영, 영광군, 성산포, 굴수하식
500~999억 원	삼천포, 군산시, 보령, 후포, 서산, 구룡포, 완도금일, 인천, 해남군, 웅진, 멸치권현망, 죽변, 제주시, 서남해수어류양식, 포항, 서천서부
200~499억 원	마산, 모슬포, 강원고성군, 남해군, 울산, 서천군, 강릉시, 하동군, 경주시, 제1-2구 잠수기, 강구, 완도소안, 속초시, 경기남부, 장흥군, 동해시, 거제, 삼척, 대천서부, 나로도, 안면도, 옥지, 영덕북부
100~199억 원	부경신항, 죽왕, 전남서부어류양식, 강진군, 거문도, 양양군, 영흥, 제3-4구잠수기
100억 원 미만	경남고성군, 근해통발, 경남정치망, 진해, 원덕, 기장, 경인북부, 추자도, 태안남부, 울릉군, 부안, 멩계수하식, 대포, 사천, 사랑, 패류살포양식, 창원서부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2년 5월 제공)

2) 소비지시장(소비지 공영도매시장)

- 2020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에는 총 49개소의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로 구성되어 있음²⁵⁾

25)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임. 일반법정도매시장은 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이며,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을 말함

〈표 3-18〉 전국 도매시장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시장명	
공영 (33개소)	중앙(10개소)	서울가락농수산물, 부산염곡농산물, 부산국제수산물, 대구북부농수산물, 인천남촌농산물, 인천삼산농산물, 광주각화농산물, 대전오정농수산물, 대전노은농수산물, 울산농수산물
	지방(23개소)	서울강서농산물, 부산반여농산물, 광주서부농수산물, 수원농수산물, 안양농수산물, 안산농수산물, 구리농수산물, 춘천농수산물, 원주농수산물, 강릉농산물, 청주농수산물, 충주농수산물, 천안농수산물, 전주농수산물, 익산농수산물, 정읍농산물, 순천농산물, 포항농산물, 안동농수산물, 구미농산물, 창원팔용농산물, 창원내서농산물, 진주농산물
일반법정 (13개소)	중앙(1개소)	서울노량진수산물
	지방(12개소)	서울양재양곡, 대구축산, 대구한약재, 인천가좌축산물, 광주축산, 목포농산물, 여수농산물, 포항수산물, 경주농산물, 김천농산물, 영천농산물, 영천약초
민영(3개소)	상주민영농산물, 안양민영축산물, 영주민영농산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1. 10

- 2019년 기준 전국의 도매시장의 법인은 총 185개소로, 도매시장 법인 122개소, 시장도매인 63개소로 집계됨
 - 이 중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법인은 27개소로, 공영 도매시장 법인 25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법인 2개소였음
 - 그리고 수산물 취급 시장도매인은 3개소로 모두 공영도매시장이었음

〈표 3-19〉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법인 소계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소계	청과	수산	약용	소계
계	187	89	27	4	-	1	121	60	5	1	66
공영도매시장	173	82	25	-	-	-	107	60	5	1	66
일반법정도매시장	11	5	2	3	-	1	11	-	-	-	-
민영도매시장	3	2	-	1	-	-	3	-	-	-	-

주: 공영도매시장 법인 수는 법인과 공판장 수의 합계임. 청과82개소(법인49, 공판장33), 수산25개소(법인17, 공판장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1. 10

- 2020년 기준 전국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9개소로,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20년 기준,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이 전체의 2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8.8%,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17.1%,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5% 등의 순이었음

-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가락시장이 34.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20.7%,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14.9% 순이었음
- 전년에 비해 서울 가락시장은 거래물량 및 금액 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며,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 비중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금액은 감소했음

〈표 3-20〉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20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도매시장	거래 물량	거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비중	금액	비중		
공영	서울 가락	91,472	28.8	543,558	34.8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수협가락(공)
	부산 국제	92,763	29.3	231,786	14.9	부산감천항수산, 삼성아이에프엠, 부산수산물(공), 부산수협 감천(공)
	구리시	27,108	8.5	130,142	8.3	강북수산, 수협구리(공)
	대구 북부	9,294	2.9	77,833	5.0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신화수산, 매천수산
	안양시	6,016	1.9	40,641	2.6	안양평촌수산
	광주 서부	3,558	1.1	34,003	2.2	수협광주(공)
	울산시	7,836	2.5	30,484	2.0	울산중앙수산, 울산건해산물, 울산수협(공)
	대전 오정	4,114	1.3	29,501	1.9	한밭수산
	대전 노은	2,429	0.8	23,736	1.5	대전노은진영수산
	수원시	3,450	1.1	22,887	1.5	수원수산물시장, 남부수협(공)
	안산시	3,238	1.0	16,539	1.1	안산수산
	안동시	814	0.3	10,876	0.7	안동수산물시장
	전주시	1,472	0.5	9,214	0.6	전주수산물시장, 수협전주(공)
	익산시	1,779	0.6	8,585	0.6	이리수산물시장
	천안시	904	0.3	7,524	0.5	해랑수산
	청주시	1,218	0.4	7,086	0.5	청주수산물시장
충주시	370	0.1	1,974	0.1	중원수산, 목행수산	
일반 법정	서울 노량진	54,225	17.1	323,275	20.7	노량진수산
	포항시	5,055	1.6	10,705	0.7	신포항수산
합계	317,115	100.0	1,560,349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1. 10

- 도매시장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거래물량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산부류 역시 2016년 이후 감소세임
 - 최근 5년간 평균 도매시장의 농축수산물의 거래물량은 756만 톤, 거래금액은 13조 6,299억 원이었으며,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임
 - 2020년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31만 7천 톤, 거래금액은 1조 5,604억 원임. 도매시장 전체 거래실적에서 수산부류의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는 4.4%, 금액 기준으로는 10.5%를 차지하고 있음
 -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거래물량은 평년대비 18.5% 하락하였으나, 거래 금액은 평년대비 3.7%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매시장 거래물량의 감소는 택배거래 등 비대면거래 증가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1>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단위: 천 톤, 억 원, %

구분	도매시장 총괄		수산부류			
	물량	금액	물량	비중	금액	비중
2000년	6,130	61,549	409	6.7	9,019	14.7
2005년	6,628	85,203	357	5.4	10,187	12.0
2010년	6,873	123,196	395	5.7	13,657	11.1
2011년	7,095	116,224	422	5.9	14,504	12.5
2012년	7,124	125,386	429	6.0	13,935	11.1
2013년	7,467	129,456	393	5.3	13,261	10.2
2014년	7,813	122,940	398	5.1	14,269	11.6
2015년	7,716	131,686	410	5.3	14,058	10.7
2016년	7,630	139,362	414	5.4	14,731	10.6
2017년	7,587	137,402	400	5.3	16,007	11.6
2018년	7,393	138,786	384	5.2	15,414	11.1
2019년	7,454	134,259	338	4.5	15,054	11.2
2020년	7,135	148,682	317	4.4	15,604	10.5
5개년 평균	7,440	139,698	371	5.0	15,362	11.0
전년 대비 증감	-4.3	10.7	-6.2	-2.0	3.7	-6.4
평년 대비 증감	-5.6	9.1	-18.5	-13.7	3.7	-5.0

주: 5개년 평균은 2016년~2020년 평균,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2020년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수산물의 거래물량은 14만 2,195톤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거래금액 역시 1.7% 줄어든 5,665억 원이었음
 - 수입수산물 거래량 및 거래금액 감소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은 17만 7,767톤이었으며 거래금액은 5,776억 원이었음

〈표 3-22〉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계(A+B)		공영도매시장(A)		일반법정도매시장(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70,168	167,205	55,269	118,702	14,899	48,503
2005년	103,983	301,957	67,663	177,825	36,320	124,132
2010년	145,543	466,563	118,533	358,829	27,010	107,734
2011년	171,905	479,473	147,749	376,315	24,156	103,158
2012년	201,703	520,804	175,622	424,523	26,081	96,281
2013년	154,002	438,597	128,830	336,797	25,172	101,800
2014년	146,176	453,015	118,838	340,795	27,338	112,220
2015년	169,615	516,919	141,293	395,488	28,322	121,431
2016년	206,206	575,333	184,820	470,196	21,386	105,137
2017년	198,119	575,580	180,705	471,110	17,414	104,470
2018년	191,057	594,031	174,646	484,550	16,411	109,481
2019년	150,788	576,552	134,250	457,903	16,538	118,649
2020년	142,195	566,507	127,163	448,769	15,032	117,738
5개년 평균	177,673	577,601	160,317	466,506	17,356	111,095
전년 대비 증감	-5.7	-1.7	-5.3	-2.0	-9.1	-0.8
평년 대비 증감	-22.4	-0.2	-22.1	-1.6	-24.9	5.3

주: 5개년 평균은 2016년~2020년 평균,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도매시장의 출하선별 수산물 유통실적은 생산자 개인출하가 가장 많고, 생산자 공동출하가 가장 적음
 - 2020년 기준 도매시장 출하선은 생산자 개인출하가 5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지 유통인출하가 41.7%, 수협 계통출하 6.3% 등임
 - 생산자 개인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산지유통인 출하는 18.9% 감소함

〈표 3-23〉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단위: 톤, %

구분	합계	생산자 개인출하	생산자 공동출하	수협 계통출하	산지 유통인출하	기타 출하
2010년 (비중)	394,568 (100.0)	258,505 (65.5)	4,398 (1.1)	2,088 (0.5)	123,616 (31.3)	5,961 (1.5)
2011년	422,523	199,896	754	41,388	176,615	3,870
2012년	429,515	253,883	5,152	3,433	163,689	3,358
2013년	392,617	234,309	1,178	3,888	147,398	5,844
2014년	381,848	185,830	1,599	49,617	136,382	8,420
2015년	391,792	161,073	1,520	52,565	165,857	10,777
2016년	396,962	201,593	10,603	57,522	114,778	12,466
2017년	382,857	210,744	3,373	27,745	136,315	4,680
2018년	362,207	195,736	924	26,376	137,058	2,113
2019년	325,924	135,264	936	26,721	158,001	5,002
2020년 (비중)	307,005 (100.0)	153,876 (50.1)	902 (0.3)	19,208 (6.3)	128,060 (41.7)	4,959 (1.6)
5개년 평균	354,991	179,443	3,348	31,514	134,842	5,844
전년대비 증감	-5.8	13.8	-3.6	-28.1	-18.9	-0.9
평년대비 증감	-17.5	-14.9	-74.0	-49.7	-10.1	-29.2

주: 1) 5개년 평균은 2016년~2020년 평균,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2) 수협 계통출하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중도매인들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로이며, 산지 유통인 출하는 장외(비계통)시장의 산지유통인들이 출하하는 경로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전국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실태를 거래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취급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 비중은 2011년 40.5% 였으나, 2020년에는 46.0%로 증가했음
- 그러나 수산부류의 경우 취급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이 2011년 25.8%였으나 2020년에는 26.6%로 증가폭이 미미했음
- 2020년 기준 수산부류의 경우 취급 규모 ‘5~10억 원’의 중도매인 비중이 28.9%로 가장 많았음

〈표 3-24〉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20년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1억 원 미만	458	5.6	138	9.5	405	5.0	125	8.5
1~3억 원	1,045	12.8	287	19.8	769	9.4	236	16.1
3~5억 원	1,319	16.1	304	21.0	1,133	13.9	290	19.8

구분	2011년				2020년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5~10억 원	2,049	25.0	344	23.8	2,096	25.7	423	28.9
10~20억 원	1,864	22.8	210	14.5	1,878	23.0	250	17.1
20~30억 원	706	8.6	77	5.3	828	10.2	68	4.6
30억 원 이상	746	9.1	87	6.0	1,042	12.8	72	4.9
총계	8,187	100.0	1,447	100.0	8,151	100.0	1,46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1년도 및 2020년도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 국내 수산물(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함
 - 2020년 기준 사업체수는 수산물 도매업이 23,130개소,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534개소, 소매업은 25,695개소로 집계됨

〈표 3-25〉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냉동 및 기타
2011년	10,126	-	-	619	20,268	-	-
2012년	11,163	-	-	762	20,821	-	-
2013년	12,349	-	-	807	20,731	-	-
2014년	14,355	-	-	943	21,245	-	-
2015년	15,158	-	-	984	21,451	-	-
2016년	13,854	2,938	10,916	1,065	21,604	6,948	14,656
2017년	13,811	2,829	10,982	1,113	21,581	6,916	14,665
2018년	13,909	2,883	11,026	1,086	22,365	7,109	15,256
2019년	14,079	2,914	11,165	1,115	22,108	7,084	15,024
2020년	23,130	5,180	17,950	2,534	25,695	8,576	17,119
전년대비 증감률	64.3	77.8	60.8	127.3	16.2	21.1	13.9
평년대비 증감률	63.3	79.2	62.9	136.2	17.7	22.3	14.9

주: 1)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2020년 기준 종사자수는 수산물 도매업이 52,097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0,297명, 소매업은 38,755명으로 집계됨

〈표 3-2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1년	30,221	-	-	4,119	33,001	-	-
2012년	31,998	-	-	4,754	34,446	-	-
2013년	35,613	-	-	5,045	34,284	-	-
2014년	41,745	-	-	5,109	35,770	-	-
2015년	44,369	-	-	5,703	35,599	-	-
2016년	40,050	8,571	31,479	5,740	35,399	11,323	24,076
2017년	41,259	8,417	32,842	6,033	37,255	11,457	25,798
2018년	41,644	8,817	32,827	5,638	39,145	11,964	27,181
2019년	42,716	9,095	33,621	6,340	40,438	12,446	27,992
2020년	52,097	11,364	40,733	10,297	38,755	12,673	26,082
전년대비 증감률	22.0	24.9	21.2	62.4	-4.2	1.8	-6.8
평년대비 증감률	24.0	30.2	24.6	74.8	3.2	7.4	-0.7

주: 1)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2019년 매출액은 수산물 도매업이 32조 2,108억 원,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3조 6165억 원, 소매업은 5조 8,762억 원으로 집계됨

〈표 3-27〉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1년	146,854	-	-	12,659	20,705	-	-
2012년	154,241	-	-	13,736	18,963	-	-
2013년	151,931	-	-	14,210	19,161	-	-
2014년	165,311	-	-	15,291	20,010	-	-
2015년	212,301	-	-	20,067	31,897	-	-
2016년	224,617	28,653	195,964	22,161	34,419	9,221	25,198
2017년	243,418	30,612	212,806	24,760	37,907	9,593	28,314
2018년	246,319	31,821	214,498	24,805	41,312	10,652	30,660
2019년	274,389	30,924	215,834	27,631	41,892	10,852	31,040
2020년	322,108	49,107	273,001	36,165	58,762	15,296	43,466
전년대비 증감률	17.4	58.8	26.5	30.9	40.3	41.0	40.0
평년대비 증감률	34.1	61.0	30.1	51.4	56.8	51.8	50.9

주: 1)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물 도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71.5%, 수산물 소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50.7%를 차지함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산성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산성냉동 및 기타
50백만 원 미만	2,199 (9.5)	602	1,597	399 (15.7)	8,483 (33.0)	3,538	4,945
50~100	1,765 (7.6)	462	1,303	209 (8.2)	4,543 (17.7)	1,518	3,025
100~500	8,354 (36.1)	2,051	6,303	968 (38.2)	9,917 (38.6)	2,911	7,006
500~1,000	4,227 (18.3)	911	3,316	404 (15.9)	1,882 (7.3)	411	1,471
1,000~5,000	5,362 (23.2)	1,000	4,362	447 (17.6)	827 (3.2)	187	640
5,000~10,000	737 (3.2)	106	631	70 (2.8)	31 (0.1)	10	21
10,000~20,000	333 (1.4)	35	298	23 (0.9)	11 (0.0)	1	10
20,000~30,000	71 (0.3)	6	65	5 (0.2)	1 (0.0)		1
30,000백만 원 이상	82 (0.4)	7	75	9 (0.4)	0 (-)		
계	23,130 (100.0)	5,180	17,950	2,534 (100.0)	25,695 (100.0)	8,576	17,119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수산물 도매업에서 4인 이하의 사업체 비중은 91.7%,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90.1%, 수산물 소매업에서는 50.7%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산성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산성냉동 및 기타
1 - 4명	21,201 (91.7)	4,812	16,389	2282 (90.1)	25,322 (98.5)	8,470	16,852
5 - 9명	1,395 (6.0)	232	1,163	158 (6.2)	329 (1.3)	87	242
10 - 19명	377 (1.6)	94	283	64 (2.5)	32 (0.1)	14	18
20 - 49명	129 (0.6)	33	96	19 (0.7)	12 (0.0)	5	7
50 - 99명	24 (0.1)	9	15	5 (0.2)	0 (0.0)	-	-
100 - 299명	4 (0.0)	-	4	5 (0.2)	- (-)	-	-
300명 이상	- (-)	-	-	1 (0.0)	- (-)	-	-
계	23,130 (100.0)	5,180	17,950	2,534 (100.0)	25,695 (100.0)	8,576	17,119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과 수산부문을 비교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83.5%, 종사자당 매출액은 104.2% 수준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에서 수산부문은 사업체당 매출액 107.8%, 종사자당 매출액은 93.9% 수준으로 나타남
 - 식료품 소매업 평균과 수산부문을 비교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91.8%, 종사자당 매출액은 83.4%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0〉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20년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 원, %

구분		사업 체수	종사 자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평균 대비	종사자당 매출액	평균 대비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16,559	44,461	27,970,068	1,667	100	593	100
	과실 및 채소	25,176	66,427	38,352,771	1,523	91.4	577	97.3
	육류	15,358	51,954	38,039,066	2,477	148.6	732	123.4
	수산물	23,130	52,097	32,210,760	1,393	83.5	618	104.2
	기타비가공식품	2,572	7,367	3,277,675	1,274	76.5	445	75.0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7,853	26,077	10,532,999	1,323	100	374	100
	육류	2,816	10,302	4,666,847	1,657	125.2	453	121.2
	수산물	2,534	10,297	3,616,512	1,427	107.8	351	93.9
	빵 및 과자	4,680	14,323	5,033,488	1,076	81.3	351	94.0
	낙농품	6,653	19,837	6,738,690	1,013	76.5	340	90.9
	기타 가공식품	22,580	75,626	32,609,456	1,444	109.1	431	115.3
식료품 소매업	평균	17,505	28,627	4,658,051	249	100	182	100
	곡물	5,586	8,309	1,566,176	280	112.6	188	103.7
	육류	26,129	47,614	12,163,585	466	186.9	255	140.6
	수산물	25,695	38,755	5,876,175	229	91.8	152	83.4
	과실 및 채소	27,993	44,601	5,853,712	209	84.0	131	72.2
	빵 및 과자류	7,851	10,994	786,573	100	40.2	72	39.4
	건강보조식품	11,796	19,560	3,469,186	294	118.1	177	97.6
	기타 식료품	17,483	30,554	2,890,953	165	66.4	95	52.1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및 연구진 재가공

3. 수산물 유통종사자 현황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10만 1,899명으로 2019년 대비 3,698명 감소함(2019년 10만 5,597명, 2018년 11만 2,385명)
 -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수산업 유통업 종사자는 다시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9만 9,977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921명으로 구분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근거한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중분류(중개 및 도소매업, 운송 및 보관업)까지 제공함

〈표 3-31〉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수산부문 종사자수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자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수산물 생산업(A)	438,276	44,377	39,068	327,987	26,508	335
어로어업	78,784	27,522	27,097	9,676	14,397	92
양식어업	357,205	15,926	11,722	318,294	11,242	21
어업 관련 서비스업	396	77	92	3	2	222
소금채취업	1,891	852	159	14	866	0
수산물 가공업(B)	43,696	5,644	32,878	2,557	2,541	75
수산물 유통업(C)	101,899	41,796	42,192	2,535	15,288	89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99,977	41,585	40,653	2,390	15,261	8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921	211	1,539	145	27	0
계(A+B+C)	583,871	91,817	114,138	333,079	44,337	499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수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과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으로 구분됨²⁶⁾
 -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은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으로 분류함
 -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수산물 운송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 으로 분류하고 있음

26)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는 2020년과 동일하여 2020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준용함

- 수산물 유통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수산분야로 한정된 분야는 ‘건어물 및 젓갈류 도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으로 볼 수 있음
- 이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별 범위는 타 산업 분야를 포괄함

<표 3-3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수산물 유통업 (6)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61)	수산물 중개업 (611)	수산물 국내 중개업(611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수산물 해외 중개업(6112)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611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수산물 도소매업 (612)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6121)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6121)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463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6315)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6122)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47213)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7214)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612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46322)
					기타 식료품 소매업(47219)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소매업(6129)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46492)			
		비료 및 농약 도매업(4673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613)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6130)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4784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62)	수산물 운송업 (621)	수산물 육상 운송업(6211)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수산물 해상 운송업(6212)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3)			
		외항 화물 운송업(50112)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0)		내항 화물 운송업(50122)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및 산업분류 연계표

-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개정 자료를 통해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종사자수를 집계해보면, 2020년 3개 업종 전체 종사자 수는 102,832명으로 집계됨(2019년 89,494명)

<표 3-33>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단위: 명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수산물 (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4,822	21,495	수산물 (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32,280	32,280
	상용종사자	22,580	23,981		상용종사자	4,348	4,348
	임시 및 일용근로자	4,555	6,392		임시 및 일용근로자	3,747	3,747
	기타종사자	759	229		기타종사자	63	63
	합계	42,716	52,097		합계	40,438	40,438
수산물 가공식 품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028	2,133	3개 업종 전체 합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48,130	55,908
	상용종사자	4,660	6,731		상용종사자	31,588	35,060
	임시 및 일용근로자	580	1,380		임시 및 일용근로자	8,882	11,519
	기타종사자	72	53		기타종사자	894	345
	합계	6,340	10,297		합계	89,494	102,832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산업세세분류별/종사상지위별 현황

- 수산물 산지 및 도매시장의 수산종사자도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로 볼 수 있음
 - 수협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에서 산지 유통종사자는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부산공동어시장 유통종사자를 포함한 산지유통종사자 수는 4,591명으로 추정됨(2020년 4,865명, 2019년 4,557명)

<표 3-34>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매수인			경매사
	합계	중도매인	매참인	
중앙회	302	287	15	28
회원조합	3,800	3,597	203	359
부산공동어시장	95	86	9	7
합계	4,197	3,970	227	394

주: '중앙회'는 중앙회 공판장 집계자료임, 부산공동어시장은 '20년 자료를 사용함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2년 6월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내부자료(2021년 6월 제공)

- 산지 수산물 유통에서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외에도 위판장이나 시장에서 양륙, 배열, 하역,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노무인력 또한 상당수임
- 단순 노무인력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전국항운노조연맹을 통해 지역별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제공 받음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2021년 전국 수산물 유통 관련 단순 노무인력은 1,596명으로 파악됨(2020년 1,660, 2019년 1,718명)

〈표 3-35〉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단위: 명

조합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산	903	808	799	779	778	753	725	659	636	614
인천	159	159	159	159	159	159	145	191	190	188
경북	60	56	58	52	46	46	46	47	43	26
울산	27	25	23	24	23	23	20	19	17	17
서울경기	29	29	29	28	28	28	26	31	30	30
경남	147	106	134	123	120	117	161	153	150	152
전남서부	88	88	87	82	75	69	91	89	86	83
전북서부	55	67	54	48	46	48	46	49	36	34
충남서부	93	92	92	104	81	76	87	84	82	77
종합수산	158	158	158	158	155	155	154	154	154	119
농수산	157	135	127	125	125	125	125	124	125	125
속초	17	18	19	18	16	15	11	17	16	17
고성	23	21	18	19	16	11	12	24	18	16
여수수산물	90	91	89	87	80	70	67	77	77	98
합계	2,006	1,853	1,845	1,806	1,748	1,695	1,716	1,718	1,660	1,596

주: 수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비조합원 수치는 제외됨

자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내부자료(2022년 6월 제공)

- 「2020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에는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유통종사자수를 3,019명으로 집계하고 있음
 - 이 중 중도매인은 1,464명으로 전체의 48.5%로 가장 많으며, 하역인 760명(25.2%), 도매법인 임직원 457명(15.1%) 순으로 집계됨

〈표 3-36〉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매법인 임직원	595	581	454	477	459	526	495	495	489	471	457(15.1)
중도매인	1,464	1,447	1,442	1,455	1,462	1,474	1,507	1,458	1,450	1,451	1,464(48.5)
매매참가인	161	169	161	190	182	198	199	290	295	330	299(9.9)
하역인	649	615	566	680	533	820	768	1,083	581	945	760(25.2)
관리사무소 (공사) 직원	23	23	24	31	35	34	46	32	33	39	39(1.3)
관련상인	1,349	1,329	1,332	1,131	462	438	340	38	-	-	-
합계	4,241	4,164	3,979	3,964	3,133	3,490	3,355	3,396	2,848	3,236	3,019(100.0)

주: 1) 2018년도부터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황에 관련상인이 제외됨

2) 수산부문 유통종사자 수는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1. 10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수산업 실태조사에서의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10만 1,899명, 수산물 도소매업 통계(전국사업체조사)로 식별되는 종사자수는 10만 2,832명, 산지 및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유통인(단순 노무인력 포함) 종사자수는 8,934명으로 파악됨

〈표 3-37〉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20년 기준)

구분	종사자수	비고
해양수산업통계조사	101,899명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추정
전국사업체조사	102,832명	· 통계자료로 식별되는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3개 업종의 종사자수만을 집계한 결과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산지: 5,915명 도매: 3,019명 합계: 8,934명	· 산지: 수협 위공판장 현황에서 집계하고 있는 중도매인, 매매인, 경매사+ 전국항운노조연맹의 단순노무인력 · 도매: 도매시장 통계연보에서 집계하는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Ⅰ 제4장 Ⅰ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의 조사개요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 조사

제3절 명태 유통실태 조사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 조사

제5절 갈치 유통실태 조사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 조사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 조사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 조사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 조사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 조사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 조사

제4장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시행되었음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전반의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필요함
 - 현재 유통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가 파편적이거나 일부 유통업종 조사 자료에 한정되어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산물 유통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계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유통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수산물 유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유통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하기 위함임

2.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가. 대상 품목의 선정

- 전체 수산물 공급(생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대중성 품종, 정부의 수급 관리 대상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나. 유통 실태 조사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 유통 실태 기본 조사 설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6단계를 통해 실시하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표 4-1>에 정리하였음
 - 1단계: 품목별 기초 자료 수집 - 생산(월별, 업종별), 수출입, 재고, 가격 등
 - 2단계: 기초 자료 분석 - 핵심 유통 경로 분석 및 성어기를 반영한 조사 시기 결정
 - 3단계: 품목 유통 경로 특징을 반영한 조사표 초안 작성 및 자문
 - 4단계: 조사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 5단계: 조사 결과 정리
 - 6단계: 전문가 위원회 자료 검증 및 최종보고서 작성

〈표 4-1〉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연도별, 월별, 어업별, 업종별, 지역별) • 주요 생산 크기별 기준, 위판 형태 • 계통 및 비계통 출하량, 수협별 위판 실적(5년, 월별) • 수출입량(연도별, 국가별, HS코드별) • 연도별 수급(이입재고, 생산, 수입 / 국내소비, 수출, 이월재고) • 월별 산지·도매·소비자가격(신선, 냉동, 필요시 활어)
<2단계> 기초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경로 분석 • 품목별·제품별 주된 유통경로 분석 • 유통 실태 현장 조사 시기 결정을 위한 성어기 분석
<3단계> 조사표 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파악된 주 유통 경로를 토대로 한 유통 실태 조사표 초안 작성 • 작성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 조사표 최종 확정
<4단계> 조사대상 선정 및 현장조사	<p><산지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 부산공동어시장 • 갈치: 부산(부산공동어시장), 제주(서귀포, 성산포) • 오징어: 활신선냉장(후포, 구룡포, 속초), 냉동(국제수산물도매시장) • 명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목포수협) • 마른멸치: 기선권현망 수협(통영) • 넙치: 제주 • 전복: 완도 • 굴: 통영 • 김: 고흥 <p><도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굴: 노랑진수산물시장, 가락시장 • 넙치, 전복: 인천활어시장, 하남활어시장 <p><소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소매점 3사, 백화점(롯데, AK, 신세계), 전통시장 등 <p><현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9월~익년 2월 • 갈치/명태: 7월~익년 2월 • 넙치, 전복, 굴, 김: 9월~익년 2월
<5단계>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의 집계 및 분석
<6단계> 결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검증: 12월~익년 4~5월 수행 • 산지, 도매, 소매단계의 취급물량이 많은 업체 관계자, 수산물 유통 전문가 대상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1년 고등어류 총생산량은 15만 860톤으로 겨울철 성어기 어획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81.6% 증가했으며,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9.6% 많았음
- 망치고등어는 전년 대비 451.2% 증가한 2만 8,859톤으로, 망치고등어 및 소형어 어획량 비중이 높았음

〈표 4-2〉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96,297	96,297 (-)	100.0	-	0.0	-	-
1995년	200,481	200,481 (-)	100.0	-	0.0	-	-
2000년	145,945	145,908 (-)	100.0	-	0.0	37	0.0
2005년	135,806	135,596 (-)	99.8	80	0.1	130	0.1
2010년	99,890	99,534 (5,203)	99.6	285	0.3	71	0.1
2015년	140,979	140,624 (8,889)	99.7	113	0.1	242	0.2
2016년	156,224	155,443 (22,244)	99.5	247	0.2	533	0.3
2017년	115,913	115,261 (11,390)	99.4	203	0.2	450	0.4
2018년	216,608	215,933 (74,403)	99.7	280	0.1	395	0.2
2019년	121,624	121,373 (20,252)	99.8	230	0.2	21	0.0
2020년	83,086	82,838 (5,236)	99.7	247	0.3	-	0.0
2021년	150,860	150,629 (28,859)	99.8	231	0.2	-	0.0
5개년 평균	137,618	137,207 (28,028)	99.7	238	0.2	289	0.2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의 생산 비중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 (99.7%)보다 소폭 증가했음
 - 그 외 천해양식어업 생산 비중은 0.2%이었으며, 원양어업은 거의 없었음
- 2021년 국내 고등어류 평균 생산금액은 2,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2% 높았음
 - 생산량 증가율보다는 생산금액의 증가율이 낮았는데, 이는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마리당 300g이상) 비중이 적었기 때문임
 - 망치고등어 생산금액은 2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1% 증가했음

〈표 4-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54,715	54,715 (-)	100.0	-	-	-	-
1995년	130,150	130,150 (-)	100.0	-	-	-	-
2000년	148,785	148,771 (-)	100.0	-	-	13	-
2005년	168,128	167,382 (-)	99.6	724	0.4	22	0.0
2010년	178,587	175,328 (7,452)	98.2	3,232	1.8	27	0.0
2015년	219,695	217,748 (12,943)	99.1	1,808	0.8	140	0.1
2016년	190,996	186,647 (19,444)	97.7	4,137	2.2	212	0.1
2017년	146,409	142,732 (12,590)	97.5	3,433	2.3	244	0.2
2018년	216,366	212,013 (55,597)	98.0	4,165	1.9	189	0.1
2019년	152,068	148,817 (19,209)	97.9	3,243	2.1	8	0.0
2020년	176,890	173,030 (9,237)	97.8	3,860	2.2	-	0.0
2021년	219,767	216,339 (22,273)	98.4	3,428	1.6	-	0.0
5개년 평균	182,300	178,586 (23,781)	98.0	3,626	2.0	147	0.0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21년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은 겨울철 어황 호조로 어획량이 크게 늘었음
 - 3~4월 어획량은 고등어 금어기 시행을 앞두고 전년 및 평년 대비 많았음. 특히 4월의 경우 2021년 금어기가 전년보다 늦은 4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어획량이 전년 대비 389.1% 많았음
 - 9월부터 연말까지는 겨울철 성어기로 어황 호조가 이어지며 어획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많았으며, 한때 일시적으로 고등어 물량이 늘면서 분류 작업 인력난으로 위판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표 4-4>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474	10,834	18,319	30,165	6,004	12,051	15,475	100.7	-26.3
2월	2,425	3,213	4,438	3,657	10,178	7,308	5,759	-28.2	52.8
3월	3,762	1,766	11,958	3,152	3,817	5,886	5,316	54.2	20.3
4월	5,614	238	3,518	1,644	599	2,930	1,786	389.1	26.2
5월	2,273	863	304	585	536	338	525	-36.9	-62.9
6월	2,253	2,185	908	732	1,449	1,088	1,272	-24.9	-27.7
7월	6,051	8,006	15,284	2,565	7,516	4,135	7,501	-45.0	-47.6
8월	14,097	14,977	22,995	8,188	5,950	9,151	12,252	53.8	-30.9
9월	21,207	15,125	44,424	8,414	8,194	19,776	19,187	141.3	1.6
10월	24,554	8,128	30,801	9,766	11,281	26,257	17,247	132.8	55.3
11월	33,386	13,624	44,111	12,588	14,627	22,123	21,415	51.2	-6.5
12월	24,126	36,957	19,545	40,167	12,934	39,816	29,884	207.8	48.9
합계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0,860	137,618	81.6	8.8

주: 1)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고등어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생산량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4-1>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톤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중·대형어(마리당 300g이상) 비중은 18.7%로 전년(27.2%) 대비 낮았음
 - 연초에는 중·대형어 비중이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금어기 이후 어획량은 증가했지만 중·대형어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았음
- 2021년 고등어 부류별 비중은 선어로 양륙·위판되는 비중이 98.0%로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전년(97.8%)보다 늘었음
 - 어획이 부진했던 전년에 비해 신선냉장 물량이 늘면서 냉동 고등어 비중은 1.3%로 전년(1.7%) 대비 낮았음

〈표 4-5〉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301	246	401	328	440	1,014	0.7	486
선어	155,261	114,771	215,574	119,595	81,046	147,887	98.0	135,775
냉동	661	896	633	1701	1,600	1,959	1.3	1,358
합계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0,860	100.0	137,618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국내 고등어류의 계통출하 비중은 98.6%로 전년(98.5%)과 비슷했음
 - 부류별로 보면, 선어의 경우 계통출하 비중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활어는 계통출하 비중이 4.8%로 전년(19.5%) 대비 낮았음

〈표 4-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45	35	114	97	86	49	4.8	76
	비계통	256	211	287	231	354	966	95.3	410
	소계	301	246	401	328	440	1,014	100.0	486
선어	계통	155,144	114,298	212,505	116,818	80,132	146,770	99.2	134,105
	비계통	117	473	3,069	2,777	915	1,117	0.8	1,670
	소계	155,261	114,771	215,574	119,595	81,046	147,887	100.0	135,775
냉동	계통	128	444	238	1,680	1,600	1,959	100.0	1,184
	비계통	533	451	395	21	0	0	0.0	173
	소계	661	896	633	1,701	1,600	1,959	100.0	1,358
합계	계통	155,317	114,777	212,857	118,595	81,818	148,778	98.6	135,365
	비계통	906	1,135	3,751	3,029	1,269	2,083	1.4	2,253
	합계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0,860	100.0	137,618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21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은 부산광역시가 총생산량의 80.7%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83.1%)보다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음
- 경상남도의 생산 비중은 11.8%로 전년(6.3%)보다 높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되면서 인력난으로 위판이 지연되며 어선들이 가까운 경남지역의 위판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임

<표 4-7>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133,920	93,906	176,489	100,356	69,092	121,712	80.7	112,311
인천광역시	7	2	3	8	45	40	0.0	20
울산광역시	167	211	134	102	59	103	0.1	122
경기도	0	2	0	0	0	0	0.0	0
강원도	322	168	5,193	3,352	1,120	803	0.5	2,127
충청남도	8	11	19	265	391	93	0.1	156
전라북도	891	456	398	844	800	979	0.6	695
전라남도	938	1,051	940	2,072	2,485	4,492	3.0	2,208
경상북도	674	1,072	8,282	2,347	541	422	0.3	2,533
경상남도	9,755	14,312	17,513	8,872	5,210	17,809	11.8	12,743
제주도	9,009	4,272	7,242	3,385	3,340	4,408	2.9	4,529
원양산	533	450	395	21	0	0	0.0	173
합계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0,860	100.0	138,651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형선망어업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91.9%로 전년(86.3%) 대비 증가하며, 가장 많았음

<표 4-8>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비중	평균
대형선망	149,253	102,874	194,366	108,087	71,499	138,614	91.9	123,088
정치망	1010	2,978	12,406	6,325	1,689	1,484	1.0	4,976
대형트롤	28	380	226	1938	467	285	0.2	659
소형선망	2,536	1,272	2,332	1,357	2,234	4,360	2.9	2,311
근해자망	631	717	849	1195	2,645	1,683	1.1	1,418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88	2840	1,241	675	345	127	0.1	1,046
기타	2,678	4,852	5,188	2,047	4,207	4,307	2.9	4,120
계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0,860	100.0	137,618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나. 수출입 현황

- 2021년 고등어 수출량은 3만 4,057톤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0.0% 적었음
 - 반면, 수출금액은 3,6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높았음. 이는 신선냉장 및 염장·염수장품 등의 수출단가는 낮아졌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냉동품의 단가가 kg당 1.0달러로 전년(0.9달러/kg) 대비 소폭 상승했기 때문임
- 2021년 고등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5만 3,945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수입량 증가와 함께 수입금액도 전년 대비 20.2% 상승한 10,577만 달러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이었음
 -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4만 5,197톤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운송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반입이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춰지기도 하였으나 높은 수요로 인해 수입량은 늘었음
 - 2021년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0달러로 2020년(2.1달러/kg) 대비 소폭 하락했음

〈표 4-9〉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21,129	23,778	1.1	44,564	73,991	1.7
2017년	16,654	19,776	1.2	44,952	75,748	1.7
2018년	70,207	68,469	1.0	41,748	73,572	1.8
2019년	44,778	49,521	1.1	42,581	83,493	2.0
2020년	36,352	35,541	1.0	46,119	88,031	1.9
2021년	34,057	36,958	1.1	53,945	105,772	2.0
5개년 평균	40,410	42,053	1.0	45,869	85,323	1.9
전년 대비	-6.3	4.0	11.0	17.0	20.2	2.7
평년 대비	-10.0	-6.2	4.1	22.6	33.9	9.2

주: 1) 수출입 중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제품형태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품의 수출량이 전체의 98.2%로 가장 많았고, 신선냉장품이 0.8%로 전년(0.7%)보다 소폭 높았음
- 수입의 경우에도 냉동품이 전체 수입량의 99.2%로 전년(98.6%) 대비 17.7% 증가했으며, 이 외 신선냉장, 염장·염수장, 조제·밀폐용기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표 4-10>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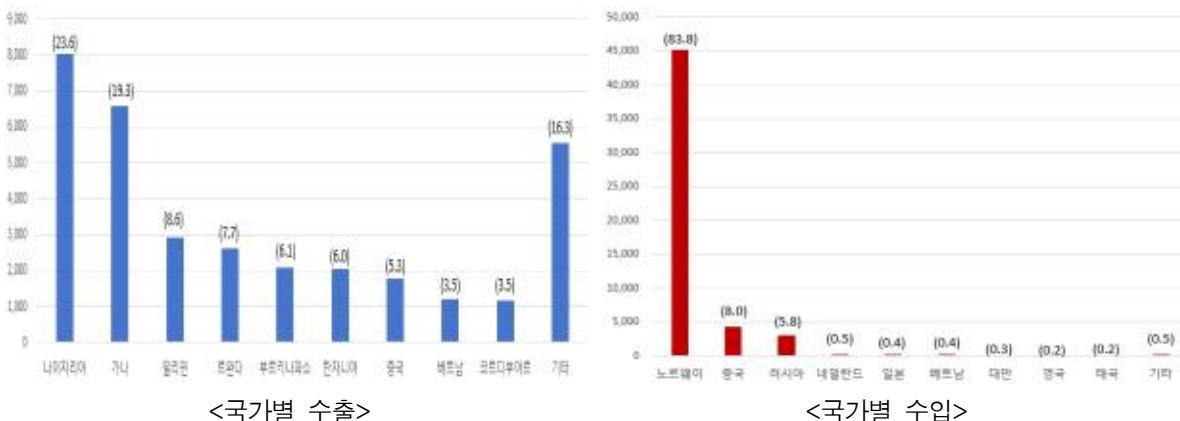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종량	비중	금액	비중	종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440000	262	0.8	1,509	4.1	12	0.0	33	0.0
냉동	0303540000	33,437	98.2	33,115	89.6	53,538	99.2	103,808	98.1
염장·염수장	0305695000	207	0.6	1,606	4.3	-	0.0	-	0.0
조제·밀폐용기	1604151000	123	0.4	595	1.6	368	0.7	1,772	1.7
기타	1604159000	29	0.1	133	0.4	27	0.0	159	0.2
합계		34,057	100.0	36,958	100.0	53,945	100.0	105,772	100.0

주: 수출입 종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주요 수출국으로는 나이지리아(23.6%)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나(19.3%), 필리핀(8.6%), 르완다(7.7%), 부르키나파소(6.1%), 탄자니아(6.0%) 등이었음
 - 망치고등어 및 소형어 어획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약 69%를 차지했음
- 수입량은 노르웨이산이 전체 수입량의 83.8%로 전년(78.9%)보다 높았으며, 이외에는 중국(8.0%), 러시아(5.8%), 네덜란드(0.5%) 등이었음

<그림 4-2>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21년 고등어 총 공급량은 21만 2,801톤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음
 - 어획 부진으로 전년도의 이입 재고량이 전년 대비 27.3% 감소했으나 2021년의 겨울철 어획 호조 및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 증가로 총 공급량이 늘었음
 - 총 공급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44.5%)보다도 높았음. 수입은 25.7%로 전년(27.0%)에 비해 낮았음
- 2021년 국내 고등어 소비량은 10만 8,765톤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0.1% 적었음
 - 중·대형어 비중이 적었던데다 국내 소비가 줄면서 재고량이 전년 대비 92.3%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3.7% 많았음
 - 총 공급량에서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1%로 전년(58.1%)보다 적었으며, 수출은 16.3%, 이월 재고량은 32.6%였음

〈표 4-11〉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133,980	44,877	97,267	276,124	178,847	21,463	75,814	74.9
2017년	104,523	45,268	75,814	225,605	158,370	16,926	50,309	66.0
2018년	142,205	42,188	50,309	234,702	94,099	71,881	68,722	151.1
2019년	101,372	43,092	68,722	213,186	118,350	45,180	49,656	85.7
2020년	77,850	47,095	49,656	174,601	101,494	37,004	36,103	76.7
2021년	122,001	54,700	36,100	212,801	108,765	34,592	69,444	112.2
전년 대비	56.7	16.1	-27.3	21.9	7.2	-6.5	92.3	-
평년 대비	8.9	22.9	-47.2	-5.4	-16.5	-10.1	23.7	-

주: 1) 국내생산은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한 생산량의 합이며, 망치고등어는 제외하였음

2)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고등어 산지가격은 대형선망수협이 고등어 중품²⁷⁾ 크기의 가격으로 추정하였음
- 2021년 고등어 산지가격은 연평균 kg당 3,661원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음
 - 어획 부진으로 2020년 고등어 산지가격이 연평균 3,900원대에 형성되었던 기저효과로 2021년 산지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겨울철 어황 호조로 신선냉장 물량이 늘면서 하반기 산지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표 4-12〉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562	4,249	4,196	1,981	4,675	4,626	3,945	-1.0	23.9
2월	3,825	4,562	4,161	3,486	4,077	4,193	4,096	2.9	4.2
3월	4,435	4,013	4,294	3,697	5,577	4,348	4,386	-22.0	-1.3
4월	4,855	-	4,227	4,222	6,243	3,735	4,607	-40.2	-23.6
5월	5005.6	4,512	-	-	-	-	4,512	-	-
6월	3,333	4,239	-	-	-	5282	4,760	-	39.5
7월	2,146	3,346	1,545	2,164	2,279	3,713	2,609	62.9	61.7
8월	1,819	1,803	1,579	2,046	3,139	2,961	2,306	-5.7	42.5
9월	1,693	1,984	1,499	2,391	3,151	2,557	2,316	-18.9	19.3
10월	1,918	2,318	2,039	2,880	3,519	2,410	2,633	-31.5	-4.9
11월	2,471	4,869	2,354	3,054	3,467	3,337	3,416	-3.7	2.9
12월	3,022	3,635	2,068	3,689	3,412	3,104	3,182	-9.0	-1.9
연평균	3,174	3,594	2,796	2,961	3,954	3,661	3,393	-7.4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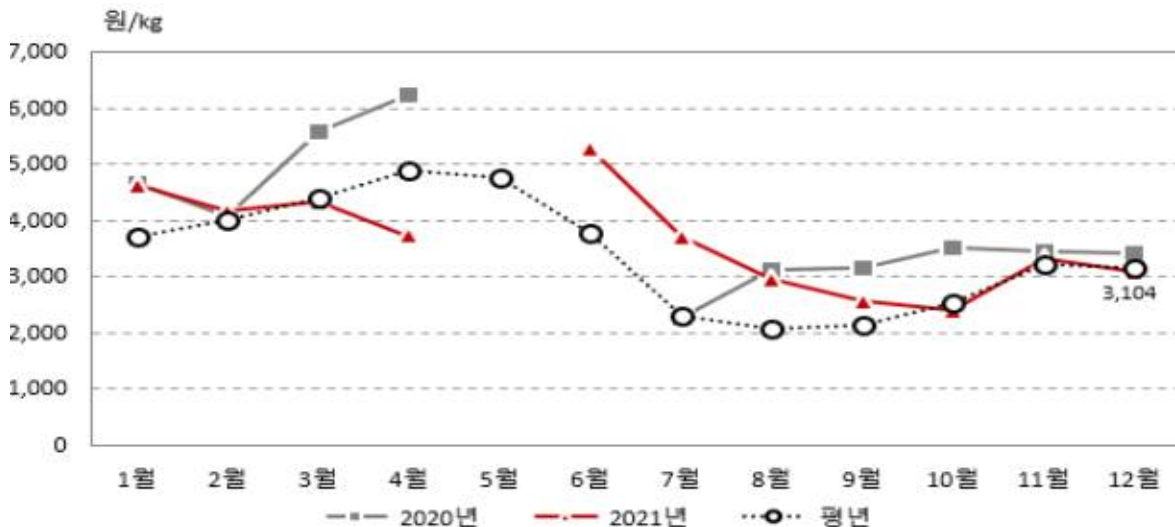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관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관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월별로는 대체로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으며, 특히 겨울철 어황 호조로 하반기 산지가격은 하락세였음

27) 대형선망수협의 고등어 중품가격은 갈고(마리당 300-350g), 갈소고(마리당 350-450g) 크기의 위관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위관가격임

- 1~2월 산지가격은 전년 어획 부진에 따른 재고 부족 및 어한기로 전년과는 비슷했으나 평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으며, 3~4월에는 품질 하락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21.4.26~6.28) 기간은 전년과 동일하게 약 2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위판이 진행되지 않아 산지가격은 형성되지 않았음
- 자율휴어기 직후인 7월 산지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다가 8월 들어 연안 수온 상승으로 인한 고등어 품질 저하로 산지 중도매인들의 매수세가 줄어 전년 대비 하락했음
- 9월부터 연말까지는 성어기로 어황 호조가 이어지며 신선냉장 물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세였음

〈그림 4-3〉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판가격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통계청의 2021년 고등어 생산단가는 전년 대비 8.5% 하락한 kg당 2,108원이었으며, 대형선망수협 위판단가(3,166원/kg)보다 33.4%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통계청의 생산단가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연평균 생산을 대상으로 추정하였고, 대형선망수협의 위판단가는 중품(마리당 300~450g)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함

〈표 4-13〉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944	1,067	636	1,030	1,274	2,293	1,260	80.0	131.6
2월	2,482	1,981	1,658	1,864	1,830	1,920	1,851	4.9	-2.2
3월	1,790	3,112	815	2,158	2,214	1,529	1,966	-30.9	-24.2
4월	1,235	3,683	1,314	2,420	3,109	2,023	2,510	-34.9	-14.0
5월	1,342	2,665	4,143	2,864	3,441	4,617	3,546	34.2	59.7
6월	2,846	2,693	2,648	2,822	2,495	3,478	2,827	39.4	28.8
7월	1,676	1,437	1,086	1,888	1,696	1,877	1,597	10.7	20.6
8월	1,230	1,139	1,018	1,378	2,132	1,794	1,492	-15.9	30.1
9월	1,155	1,490	1,018	1,467	3,014	1,599	1,718	-46.9	-1.8
10월	1,235	1,851	1,383	1,783	2,215	1,461	1,739	-34.0	-13.7
11월	1,252	994	1,253	1,704	2,410	1,589	1,590	-34.1	4.4
12월	1,077	930	1,301	903	1,814	1,120	1,214	-38.3	-7.1
연평균	1,522	1,920	1,523	1,857	2,304	2,108	1,942	-8.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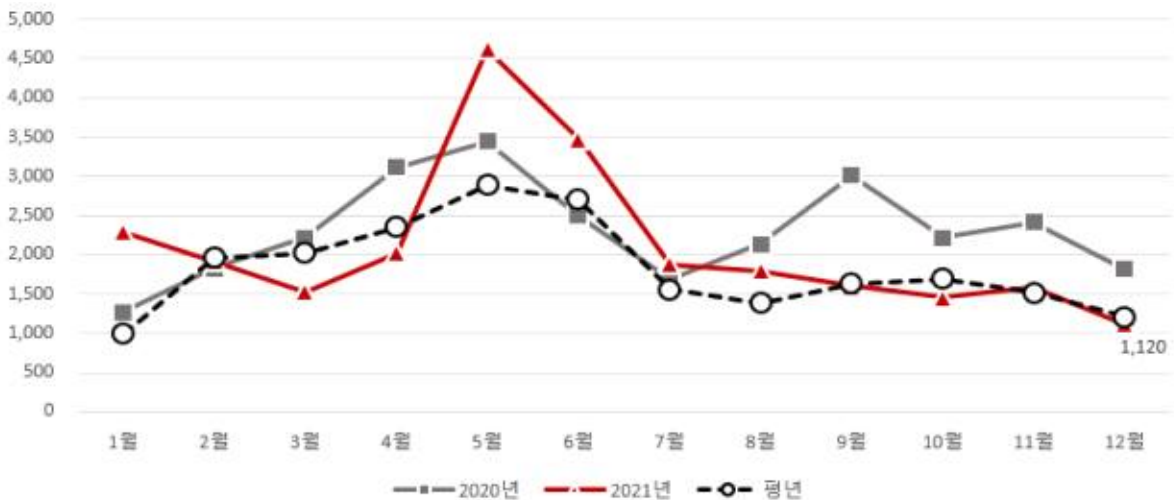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4〉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원/kg



주: 1) 일반해면어업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2021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은 연평균 kg당 5,428원으로 전년 대비 8.3%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7.2% 높았음
- 어획 부진으로 신선냉장 물량이 적었던 전년도의 영향과 더불어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 비중이 줄면서 중도매인들의 매수세가 높아져 2021년 도매가격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 물량이 많았던 9월 영향으로 10월 도매가격이 kg당 4,932원에 거래된 것을 제외하고는 kg당 5,000원대를 형성했음

〈표 4-14〉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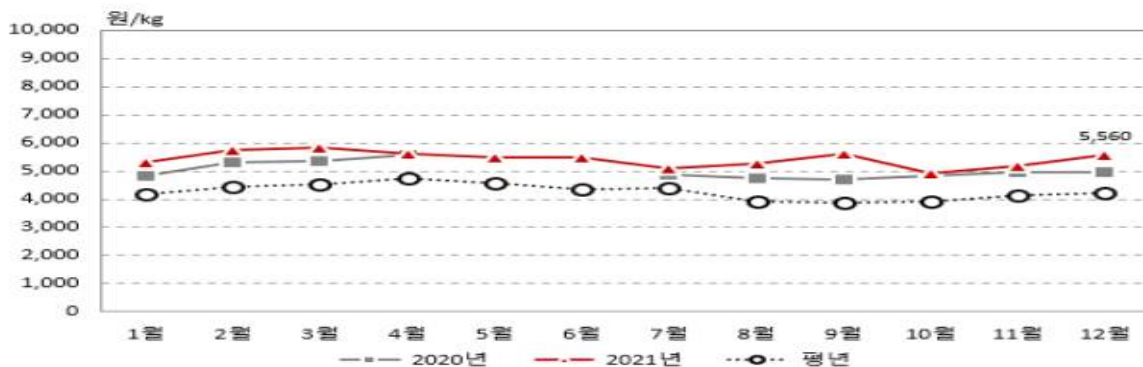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934	4,298	4,465	3,394	4,811	5,291	4,452	10.0	26.6
2월	4,404	4,580	4,460	3,452	5,307	5,748	4,709	8.3	29.4
3월	4,620	4,767	4,420	3,524	5,372	5,830	4,783	8.5	28.4
4월	4,898	5,040	4,450	3,775	5,560	5,628	4,891	1.2	18.6
5월	4,925	4,960	-	3,853	-	5,473	4,762	-	19.5
6월	4,309	4,739	-	3,968	-	5,501	4,736	-	26.8
7월	4,445	4,342	-	4,010	4,860	5,107	4,580	5.1	15.7
8월	4,004	3,758	3,560	3,568	4,751	5,275	4,182	11.0	34.3
9월	3,785	3,807	3,461	3,583	4,704	5,597	4,230	19.0	44.7
10월	3,879	3,893	3,351	3,595	4,821	4,932	4,118	2.3	26.2
11월	4,176	4,186	3,482	3,819	4,969	5,190	4,329	4.4	25.8
12월	4,152	4,441	3,486	4,058	4,957	5,560	4,500	12.2	31.8
연평균	4,294	4,401	3,904	3,717	5,011	5,428	4,492	8.3	27.2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6~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은 연평균 kg 4,444원으로 전년 대비 19.6% 상승했음
 - 신선냉장 물량이 전년에 비해 많았음에도 가공 및 수출용 수요가 늘면서 도매가격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 또한, 인건비 등 간접비 상승으로 도매가격은 평년에 비해서도 34.5%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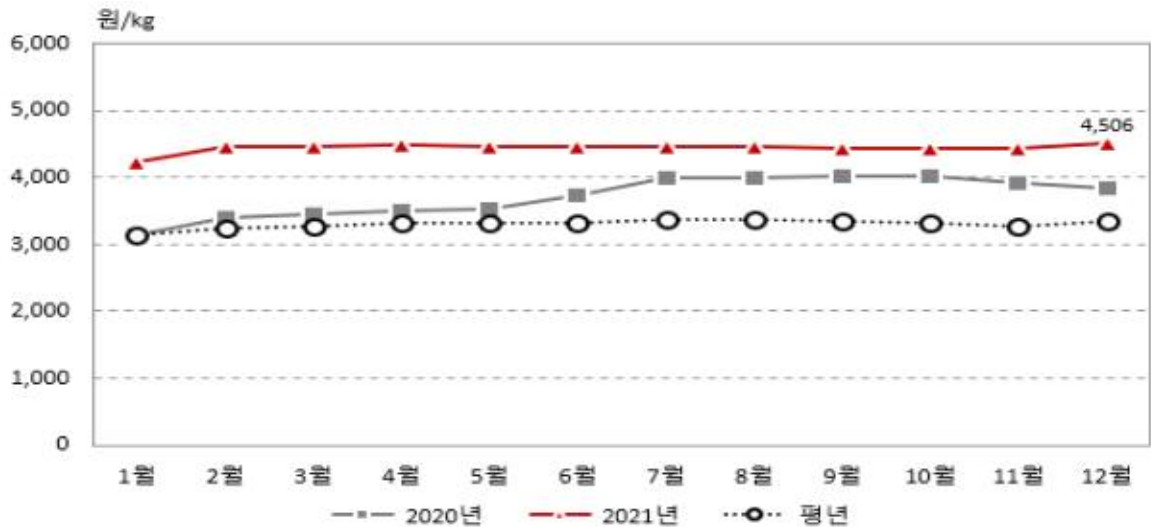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820	3,197	3,459	3,111	3,138	4,237	3,428	35.0	34.7
2월	2,952	3,219	3,617	3,033	3,395	4,474	3,548	31.8	38.0
3월	2,944	3,280	3,617	3,040	3,455	4,474	3,573	29.5	36.9
4월	2,910	3,467	3,620	3,040	3,511	4,479	3,623	27.6	35.3
5월	2,940	3,506	3,620	3,011	3,523	4,471	3,626	26.9	34.7
6월	2,940	3,391	3,510	2,980	3,742	4,452	3,615	19.0	34.4
7월	2,976	3,365	3,553	2,992	4,009	4,452	3,674	11.1	31.8
8월	3,016	3,380	3,580	2,948	3,999	4,464	3,674	11.6	31.9
9월	3,027	3,374	3,488	2,830	4,027	4,440	3,632	10.3	32.6
10월	3,141	3,360	3,297	2,822	4,013	4,426	3,584	10.3	33.0
11월	3,240	3,220	3,151	2,847	3,916	4,448	3,516	13.6	35.8
12월	3,206	3,310	3,410	2,922	3,839	4,506	3,597	17.4	35.0
연평균	3,009	3,339	3,494	2,965	3,714	4,444	3,591	19.6	34.5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6〉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1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kg당 10,097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3%, 20.3% 상승했음
 - 2018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했던 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2019년에 한 차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음
 -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더불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소매업체의 비용 증가 영향으로 소비자가격이 평년에 비해서도 높게 형성되었음

〈표 4-16〉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029	7,900	8,726	6,806	9,226	8,900	8,311	-3.5	9.4
2월	8,451	8,374	8,786	6,743	10,251	9,434	8,718	-8.0	10.7
3월	8,769	8,654	8,946	7,074	10,417	10,231	9,065	-1.8	16.6
4월	9,031	8,434	9,434	7,069	9,651	9,931	8,904	2.9	13.8
5월	9,491	9,480	9,054	7,103	-	11,820	9,364	-	34.6
6월	8,403	8,840	9,554	-	-	11,266	9,887	-	26.1
7월	8,480	8,177	8,503	8,594	9,351	10,743	9,074	14.9	24.6
8월	8,417	7,869	7,906	7,466	8,303	9,803	8,269	18.1	22.7
9월	8,374	7,803	7,506	7,543	8,877	10,054	8,357	13.3	25.4
10월	8,206	8,069	7,523	7,726	8,620	9,149	8,217	6.1	14.0
11월	8,149	8,163	7,463	8,114	8,854	9,951	8,509	12.4	22.1
12월	7,989	8,503	6,997	8,663	8,786	9,880	8,566	12.5	20.7
연평균	8,482	8,355	8,366	7,536	9,234	10,097	8,718	9.3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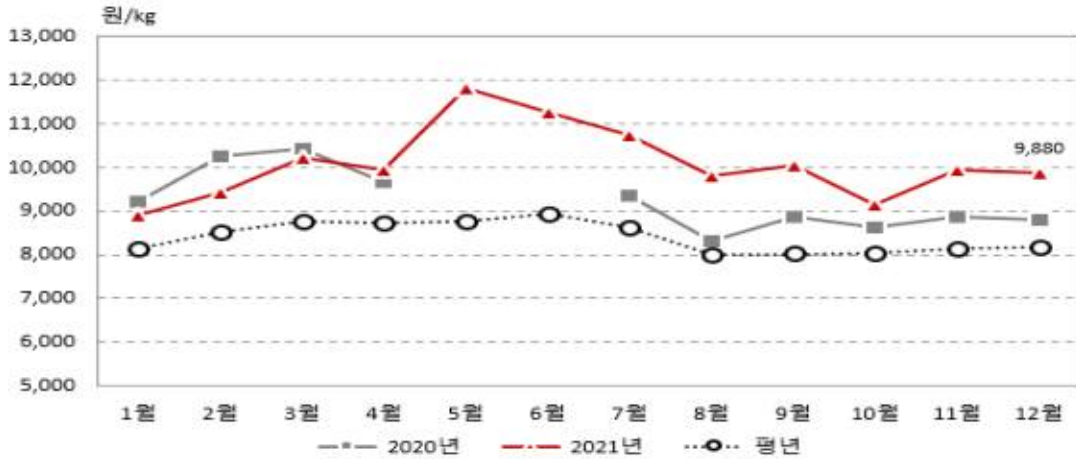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으로는 상반기 평균 가격이 kg당 10,264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8% 상승했음
 -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 동안 소비자가격이 생산 감소로 1만 원 넘게 거래되면서 상반기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도 18.7% 높았음
 - 하반기에는 성어기로 대체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2021년에는 신선냉장 물량이 많이 늘었음에도 전년 및 평년 대비 12.9%, 21.6% 상승했음

<그림 4-7>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8,302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0% 높았음
 - 2019년 이후 냉동품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26.4%↑)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소비쿠폰' 정책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7>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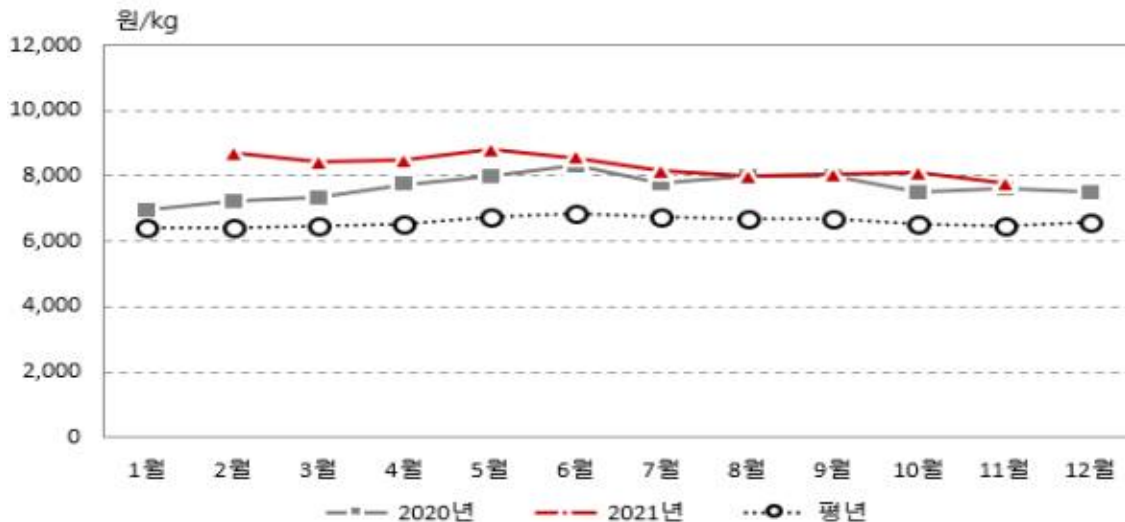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480	6,306	6,629	5,660	6,977	-	6,393	-	-
2월	6,409	6,403	6,394	5,617	7,217	8,703	6,867	20.6	35.8
3월	6,431	6,466	6,397	5,623	7,331	8,426	6,849	14.9	30.6
4월	6,409	6,489	6,366	5,614	7,746	8,497	6,942	9.7	30.2
5월	6,266	6,743	6,326	6,354	7,969	8,814	7,241	10.6	30.9
6월	6,223	6,677	6,494	6,437	8,300	8,563	7,294	3.2	25.4
7월	6,363	6,423	6,609	6,429	7,757	8,154	7,074	5.1	21.4
8월	6,329	6,469	6,829	5,923	7,980	7,969	7,034	-0.1	18.8
9월	6,334	6,406	6,471	6,171	7,997	8,049	7,019	0.6	20.6
10월	6,354	6,523	6,054	6,120	7,523	8,080	6,860	7.4	24.0
11월	6,317	6,571	5,923	6,009	7,600	7,763	6,773	2.1	19.7
12월	6,414	6,474	5,854	6,720	7,486	-	6,633	-	-
연평균	6,361	6,496	6,362	6,056	7,657	8,302	6,975	8.4	26.0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질이 쉬운 필렛(순살) 또는 자반 등의 원료인 냉동 고등어 수요가 꾸준히 높았음
- 월별로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평균 kg당 8,601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9.0% 높았음
 - 2020년도의 이입 재고량이 적었던데다 신선냉장 물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임
 - 하반기에는 신선냉장 물량이 늘면서 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8,003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락했으며, 8~9월에는 전년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였음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반입이 통상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코로나19로 운송이 지연되어 11월 이후부터 수입되면서 10월 소비자가격이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음

〈그림 4-8〉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고등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2021년 국내에서 어획된 고등어는 전체 물량의 98.0%가 선어 형태로 산지 위판장에 하역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선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또한, 고등어(선어) 생산량의 99.2%가 계통 출하되므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제도권 내 시장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어(선어)의 계통출하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산지의 어선 입항에서 경매까지의 과정은 장기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 산지단계에서의 고등어 양륙 및 유통과정은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었음
 - 양륙 및 배열반이 운반선의 어창에서 물과 얼음이 적재된 어항을 이동하여 양륙하고, 배열장으로 이동함
 - 배열장에서는 야간부녀반이 고등어를 크기별·품질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함. 이 작업은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의 경우에는 보통 22시 이후부터 진행되며, 분류된 고등어는 경매장으로 이동 및 진열됨
-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된 고등어는 산지 중도매인이 서울 가락 및 노량진 시장 등 수도권 및 타 지역의 도매시장, 대형소매업체 등으로 출하함
 - 주간부녀반이 각 유통경로에 맞게 고등어를 재선별 및 재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작업이 완료된 고등어는 하조반 등에 의해 배송차량에 상차되어 출하됨
- 도매단계에서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고등어를 경매장에서 하역하고, 산지 위판장과는 별개로 2차 경매가 이루어짐
 - 서울 가락 및 노량진시장은 부류별로 경매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선어류는 밤 11시부터 경매²⁸⁾가 진행됨
 - 도매시장에서 2차로 위판된 고등어는 소매상, 지역 전통시장, 가공 및 식자재 등으로 유통되며, 각 유통경로에 알맞은 재선별 및 재포장을 거치게 됨

28)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시간은 패류 01:00~, 고급선어 01:30~, 대중부류 00:00~, 고급활어 03:00~, 냉동부류 03:00~ 이며, 가락시장(강동수산)은 대중선어 23:00~, 패류 00:30~, 활어 03:00~ 임

- 정리하면, 고등어(선어)의 제도권 시장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 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를 거침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앞서 설명한 바, 고등어(선어)가 전체 고등어류 생산량의 9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물량의 계통출하율은 99.2%로 본 조사에서는 제도권 내 유통경로를 살펴보고자 함
 - 이에 고등어(선어)의 계통출하 물량인 14만 6,770톤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를 추정하였으며, 유통단계별 물량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18〉 고등어(선어)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통 출하(산지위판장)		146,770	100.0
냉동 창고	수출	55,773	38.0
	가공(통조림, 자반 등), 식자재 등	31,009	21.0
	사료용, 미끼용	17,612	12.0
	소비지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	5,871	4.0
소비지 도매시장		11,742	8.0
대형 소매업체(할인마트, 백화점)		10,274	7.0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13,209	9.0
정부비축		1,28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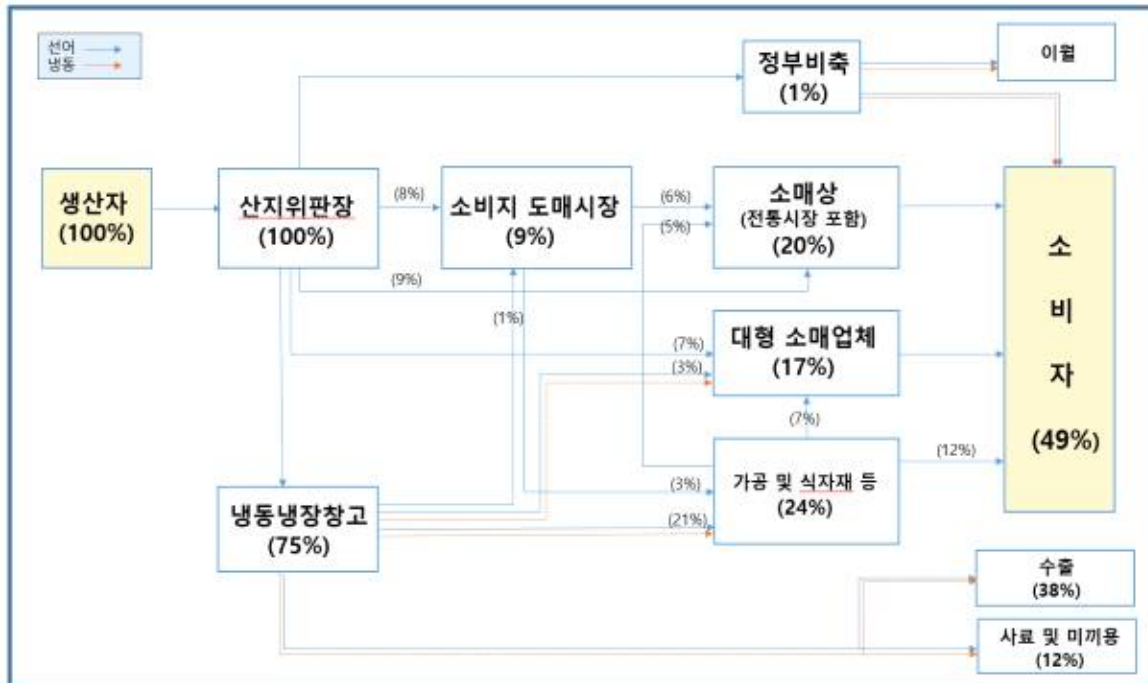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고등어의 약 75%가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며, 저장된 후 가공용(통조림, 식자재), 양식장 사료용, 어업 미끼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됨
 -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고등어 물량비중은 전년(74%)보다 소폭 높았음. 이는 고등어 어획량이 전년보다 늘면서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냉동품으로 가공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임
 - 냉동·냉장창고에 보관 및 저장된 고등어 중에는 수출용(38%)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나, 전년(45%) 대비 줄었음. 다음으로는 가공 및 식자재 등(21%)이

- 었으며 전년(19%)보다 늘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관하기 쉽고 손질이 편한 피레트 또는 자반고등어 수요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임
 - 또한, 2021년에는 소형어 및 망치고등어 어획량이 많아 사료 및 미끼용(12%)의 유통이 전년(9%)에 비해 늘었음
- 산지 위판장에서 냉동·냉장창고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도매시장(8%), 지역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9%), 대형소매업체(7%)로 유통되는 비중은 24%로 추정되며 전년과 유사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에 위판된 고등어는 가공 및 식자재 등(3%)으로 유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매상(6%)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
 - 소매상(지역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위판받은 물량 외에도 가공용으로 손질된 물량과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받은 물량이 혼재되어 판매되었음
 - 대형소매업체는 산지 위판장의 중도매인들을 통해 받는 물량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는 가공된 고등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공용(7%)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한편, 2021년도 정부비축사업 수매한 고등어량은 1,280톤으로 어획량이 늘었음에도 전년 대비 소폭 줄었음
- ‘20년 이입 재고량은 1,485톤이었고, 2021년 고등어 비축물량 판매량이 728톤으로 ‘21년 말 기준 재고량은 2,037톤으로 파악되었음
- 결과적으로 고등어(선어)는 산지 위판장을 거쳐 냉동·냉장창고,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대형소매업체, 정부비축 등으로 유통되는 구조로 전년도와 유사했음
- 그러나 가공용 수요가 늘면서 가공 및 식자재 등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소매상 및 대형소매업체로의 유통도 늘면서 국내 소비자가 소비한 비중은 49%로 전년(45%)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4-9〉 고등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이며, 고등어의 비계통출하 비율이 1.1%로 유통경로 산정 시 제외하였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3. 고등어 유통비용

가.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양륙 및 배열비, 야간부녀반 노임, 위판 수수료 등이며, 이는 생산자(선사)가 부담함
 - 양륙 및 배열반에 의해 고등어는 어선에서 육지로 옮겨지고, 야간부녀반이 고등어를 4호 목상자에 크기별·품질별 분류하여 적재하면, 배열반이 경매장으로 운송함
- 양륙 및 배열비(양배반) 노임은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동조합, 야간부녀반 노임은 대형선망수협과 부산항운노조 사이의 노임협약(매년 4~5월경)을 통해 결정됨
 - 2021년 양륙 및 배열비 노임은 고등어 적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호 목상자(18kg) 기준으로 전년(514원) 대비 상승한 525원임

- 또한, 건강보험료, 복지기금, 국민연금, 산재기금, 퇴직충당금 등이 기본 노임에 추가 적용되어 양륙 및 배열반 노임은 상자당 약 695원으로 조사되었음
- 대형선망수협과 부산항운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1년 야간부녀반 작업 노임과 부대근로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9〉 2021년 야간부녀반 작업 노임

단위: 원/일

구분		비용	비고
일반작업	정조합원	88,300	전년 대비 3,500원 인상
	임시조합원	76,000	전년 대비 3,500원 인상
경매이후 추가노임(시간당)	정조합원	14,400	전년과 동일
	임시조합원	11,800	전년과 동일
대기비	정조합원	14,400	공휴일 대기시 50% 할증
	임시조합원	11,800	

주: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2021년 4월 대형선망수협과 부산항운노조 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 내 선망 어획물 작업에 종사하는 야간부녀반 노임은 정조합원의 경우에는 일당 88,300원이며, 임시조합원은 76,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00원 인상되었음
- 전년과 비슷하게 1일 1만개 작업당 평균 70명 여성 부녀반이 고용되었으며, 이를 환산하면 정조합원 기준 고등어 1kg을 작업하는데 드는 노임은 약 72.2원 수준으로 추정됨
-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수수료는 위판금액의 3.4%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12월 평균 고등어(중품) 위판가격은 kg당 3,62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판수수료는 약 123원으로 추정되었음
 - 2021년 고등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중·대형어 비중이 줄면서 중품 위판가격이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음
- 경매 이후에는 선별비, 상차비, 운반비 등을 포함한 노임과 어상자, 얼음, 물류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경매 이후 목상자에 적재된 고등어를 크기별·품질별로 선별하여 덮개가 없

- 는 스티로폼 상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주간부녀반 노임은 스티로폼 10kg 상자 기준으로 약 68.6원으로 조사되었음
- 선별을 위한 비움 및 포장작업을 포함한 하조반과 운반을 위한 상차반의 노임은 약 92.2원이었음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으로의 물류비용은 10kg 상자 기준으로 약 165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산지 중도매인이 산지위판장에서 위판받은 고등어를 소비지도매시장에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판매가격에서 제외한 수수료, 즉 이윤은 판매가격의 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12월 평균 산지 출하가격(판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4,338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이에 산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약 190.9원으로 전년(178.8원/10kg) 대비 높았음
 - 그러나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산지 중도매인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전년(2.0%)보다 소폭 낮았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고등어(선어)가 산지 위판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경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상·하차비, 물류비, 경매 수수료, 간접비 등이며, 이는 소비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소비지도매시장에 도착한 고등어를 내리는 하차비는 10kg 상자당 16.8원이었으며, 경매한 이후 소매상(전통시장 포함)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싣는 비용(상차비)도 하차비와 동일한 10kg 상자당 16.8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운송할 때마다 고등어를 덮개가 없는 스티로폼 어상자에 얼음을 충분히 넣어 선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어상자 및 얼음가격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매 이후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상자당 130원으로 전년(120원/10kg)보다 높았음

- 가락시장 내 강동수산의 고등어 위탁 판매수수료²⁹⁾는 선어의 경우는 경락단가의 4%, 냉동은 2%로 전년과 동일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의 위판가격은 2021년 12월 평균 kg당 4,52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약 181.4원이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고등어를 소매상(전통시장 포함) 등으로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판매가격의 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평균 소비지 중도매인의 판매가격은 kg당 5,716원이었음
 - 이에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약 285.8원으로 전년(248.3원/10kg)보다 높았음. 그러나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전년(2.9%)보다 낮았음

3) 소매 단계

-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음, 판매봉투, 집기 등을 포함한 직접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간접비로 구분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직접비는 약 330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간접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5.4% 상승하며, 전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로 전년(19.3%)보다 높았음
 - aT KAMIS 소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2021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이 12월 평균 kg당 9,951원이었음
 -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5% 이상으로 나타나 약 1,949원으로 추정되며,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로 전년(20.6%)보다 낮았음

29) 가락시장 내 강동수산의 고등어 위탁 판매수수료는 경락단가의 2~4% 내외(냉동 2~3%, 선어 4%)로 전년과 동일함

〈표 4-20〉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763.7	3,387.2	33.9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8.0	38.6	0.4	양배비 노임 525원/18kg, 건강보험료, 복지기금, 국민연금, 산재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69.4	72.2	0.7	1만개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101.0	123.1	1.2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972.1	3,621.1	36.2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참조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30.0	140.0	1.4	1,200~1,500원/10kg 상자	
	얼음대	60.0	60.0	0.6	600원/10kg 상자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64.3	68.6	0.7	1,608원/10kg 상자
		비움작업, 포장, 상차반, 하조반, 운반비, 기타	91.9	92.2	0.9	
	물류비	150.0	165.0	1.7	1,650원/10kg 상자 (부산→가락시장)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78.8	190.9	1.9	판매가격의 5% 내외	
	산지출하(판매) 가격	3,647.1	4,337.8	43.4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16.7	16.8	0.2	168원/10kg 상자	
	경매수수료	153.7	181.4	1.8	경매 낙찰가의 4.0%	
	경매 낙찰가격	3,817.5	4,536.0	45.3	중품 고등어(24~30미) 가락시장 경락가격	
소비자 중도매인	상차비	16.7	16.8	0.2	168원/10kg 상자	
	물류비	12.0	13.0	0.1	130원/10kg 상자 (가락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844.5	863.9	8.7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이윤	248.3	285.8	2.5	판매가격의 5% 내외	
	중도매인 판매가격	4,939.0	5,715.5	56.8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329.0	330.0	3.3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1,696.0	1,957.0	19.7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804.0	1,948.5	19.6	판매가격의 5% 이상	
	판매가격	8,768.0	9,951.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나.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 대형소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의 유통비중은 전체 경로별 유통비중의 17%로 전년(16%)보다 소폭 증가했음
 - 가공된 고등어 수요가 꾸준히 높아 대형소매업체는 손질된 가공용 고등어의 구입이 전년보다 늘었음
- 산지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은 선어 상태로 위판 및 낙찰되어 유통되고, 경로별 유통비용은 대부분 동일했음
 - 그러나 대형소매업체에 판매되는 고등어의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스티로폼 어상자(1,800~1,900원/10kg)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지도매시장에 판매할 때 보다 어상자대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고등어는 주간부너반의 선별작업 시, 소비지도매시장과 달리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 박스에 테이핑 작업을 하는 등 작업 공정이 많이 소요되어, 상자당 2,357원이었음
 - 이는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전년(2,177원/10kg)보다 상승했음
- 산지중도매인은 낙찰받은 고등어를 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로 운송하고, 대부분 물류비·물류대행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 위판장→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 상자당 180원이었으며, [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각 지점(점포)]로 이동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납품가격의 6.5%~8.5%로 업체별로 상이하여 평균적으로 약 349.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지중도매인 판매가격이 kg당 5,175원이었으며, 판매수수료(이윤)은 약 514.4원으로 조사되어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였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는 점포 유지관리비(각종 세금 등), 인건비, 마케팅 비용, 택배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를 부담함

- 간접비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 상승하며 전년(2,829원/kg) 대비 상승한 약 3,389원이었음
- 고등어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10,600원에 거래되면서, 대형소매업체의 이윤도 높았음
- 그러나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대형소매업체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전년(20.6%) 대비 감소했음

〈표 4-21〉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763.7	3,387.2	32.0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8.0	38.6	0.4		양배비 노임 525원/18kg, 건강보험료, 복지기금, 국민연금, 산재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69.4	72.2	0.7		1만개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101.0	123.1	1.2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972.1	3,621.1	34.2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참조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90.0	190.0	1.8		1,800원~1,900원/10kg 상자 및 뚜껑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90.9	102.1	1.0	2,357원/10kg 상자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87.4	93.0	0.9		
		운반비	29.0	30.2	0.3		
		기타(빙운반비 등)	10.4	10.4	0.1		
	얼음	60.0	60.0	0.6		600원/10kg 상자	
	비닐	15.0	15.0	0.1		150원/10kg 상자	
	테이프	9.0	9.0	0.1		90원/10kg 상자	
	물류비	175.0	180.0	1.7		1,500원~2,000원/10kg 상자 (부산→대형소매점 물류센터)	
	물류 대행비	311.0	349.8	3.3		납품가격의 6.5~8.5% 내외 (대형소매점 물류센터→지점)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492.7	514.4	4.9		판매가격의 5% 이상	
산지출하(판매) 가격	4,442.5	5,175.0	48.8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소매업 체	간접비	2,829.0	3,388.7	32.0		인건비, 각 지점별 운송비, 유지관리비(각종 세금) 등	
	이윤	1,886.0	2,036.3	19.2		판매가격의 5% 이상	
	판매가격	9,157.5	10,600.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참조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다.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냉동·냉장창고에 동결·저장한 후 소비지 도매시장, 대형소매업체 그리고 수출 및 사료용 등으로 유통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산지위판장에서 고등어를 위판하고, 산지중도매인이 냉동·냉장창고에 동결하기 전까지의 산지단계 유통비용은 선어와 유사했음

2) 소비지 단계

-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시장에서 발생하는 노임, 상·하차비, 창고비용, 각종 부대비용(비닐, 파레트), 물류비 등이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선별된 고등어는 어상자에 담겨 동결처리를 위한 비닐을 깔아 포장되며, 파레트를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상·하차비는 20kg당 18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냉동·냉장창고에 고등어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에 따른 동결비(850원/20kg)는 전년과 동일했으며, 입출고비 및 발취비는 각각 20kg당 25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이동 시 20kg당 700원으로 전년(600원/20kg)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높았으나,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kg당 269원으로 전년 대비 낮았으며,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로 전년(5.0%)보다 낮았음

3) 소매 단계

- 소비지소매시장의 유통비용은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을 포함한 직접비(3.8%)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16.8%)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kg당 1,353원이었으며, 비용 상승으로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로 전년(16.9%)보다 낮았음

〈표 4-22〉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763.7	3,257.2	38.7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8.0	38.6	0.5		양배비 노임 525원/18kg, 건강보험료, 복지기금, 국민연금, 산재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69.4	72.2	0.9		1만개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101.0	118.5	1.4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972.1	3,486.5	41.5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참조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종이상자)	54.3	55.0	0.7		1,100원/20kg 상자 및 덮개	
	노임 (어시 장)	주간부녀반 (선별비 등)	57.2	58.5	0.7		1,170원/20kg 상자
		하조반(남자노임)	28.0	31.0	0.4		620원/20kg 상자
		상차비	19.4	24.2	0.3		484원/20kg 상자
		상차시 추가노임 (파레트 사용시)	10.1	10.1	0.1		101원/20kg 상자
		기타	15.0	15.0	0.2		300원/20kg 상자
	비닐	7.9	7.9	0.1		156원/20kg 상자	
	파렛트 비용	60.0	60.0	0.7		1,200원/20kg 상자	
	물류비	32.4	40.0	0.5		800원/20kg 상자 (공동어시장→감천항)	
	노임 (창고)	상차비	7.5	9.0	0.1		180원/20kg 상자
		하차비	7.5	9.0	0.1		180원/20kg 상자
	창고 (비용)	동결비	42.5	45.0	0.5		850원/20kg
		입고비	11.0	12.5	0.1		250원/20kg
		출고비	11.0	12.5	0.1		250원/20kg
		발체비	11.0	12.5	0.1		250원/20kg
	창고 보관료	45.0 (90일기준)	45.0 (90일기준)	0.5		업체평균 10원/일(20kg상자)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216.5	207.0	2.5		납품가격의 5% 내외	
판매가격	3,608.4	4,140.7	49.3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7.5	18.0	0.2		360원/20kg 상자	
	경매수수료	74.0	84.9	1.0		낙찰가의 2%(냉동)	
	경매 낙찰가격	3,699.9	4,243.6	50.5		가락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7.5	18.0	0.2		360원/20kg 상자	
	운반비	30.0	35.0	0.4		700원/20kg 상자 (도매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800.1	818.5	9.7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이윤	390.6	269.2	3.2		판매가격의 5% 내외	
	중도매인 판매가격	4,839.0	5,384.3	64.1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310.9	320	3.8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1,383.6	1,411.3	16.8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353.1	1,290.1	15.3		판매가격의 3.3% 이상	
	판매가격	7,985.7	8,405.7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라.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마리당 400~600g 크기가 주로 소비됨에 따라 전년에 이어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400~600g)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국내 연안 고등어와 비교했을 때 맛, 가격 등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아 노르웨이산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음³⁰⁾
 - 수입 냉동고등어는 대부분 피레트(순살)나 자반용으로 가공되며, 전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외식업체보다 가정식 반찬용으로서의 소비가 많았음
- 전년과 유사하게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주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가공업체]를 거쳐 대형소매업체, 인터넷 및 홈쇼핑, 소비지 소매상 등으로 판매되었음
- 본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강동수산)을 경유하는 경로인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소비지 소매상으로서의 유통실태를 살펴보았음

1) 수입 단계

-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수입관세는 10%이나, 국내 생산이 많은 고등어는 수입산 고등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 TRQ)³¹⁾을 연간 500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해당 물량은 대형선망수협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대부분은 2021년 12월 중 수입이 완료되었음
 - 그러나 고등어 TRQ 물량은 총 고등어 수입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며, 수입산 고등어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산이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본 조사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관세율인 10%가 적용된 물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30) 대형소매업체의 수산파트 바이어와의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31) 국가별로 수입 민감 품목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배정, 관세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으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노르웨이 고등어의 주 어기는 10월 ~ 익년 1월까지로 2021년에 어획된 고등어는 해상으로 운송되며, 약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함
 -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운송이 지연되면서 노르웨이산의 본격적인 반입이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졌음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상자당 20kg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며, 40FT 컨테이너³²⁾당 약 24톤(1,195 상자³³⁾이 적재되어 전년과 유사했음
- 수입업체는 CFR 가격(운임 포함 인도조건)에 관세 및 통관 비용을 추가하여, 이를 수입원가로 취급함
 - 2021년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CFR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상승했음. 운임 포함 인도조건으로 톤당 가격은 전년과 유사했으나 환율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높았음
 - 수입산 고등어를 통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서류작성비(Document Fee), 부두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s), 부두사용료(Wharfage), 컨테이너 청소비용(Container Cleaning Charges), 내륙운송비용(Trucking Charge), 통관수수료(Customs Clearance Fee), 검역수수료(Inspection Fee) 등으로 총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kg당 38.6원이었음
 - 수입된 고등어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물류창고에 도착한 후, 물품내역이 기록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냉동 창고에 적재되며, 본 과정에서 LABEL 비용은 전년과 유사하나, 상·하차 노임(160원/20kg) 및 입·출고비(200원/20kg), 창고보관료³⁴⁾ 등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합하면 kg당 85.5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 노르웨이 고등어의 창고 비용은 10원(1일/20kg)으로 창고 보관일수가 동일할 경우 연근해 고등어(냉동)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수입업체는 중간 유통업체에게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를 판매할 경우 20kg 상자당 500~5,000원의 수수료(이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유사한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됨

32) 40피트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12m(가로) X 2.35m(세로) X 2.39m(높이)임

33) 2021년 조사에서는 2020년과 동일한 1,195개(약 24톤)를 적재한 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34) 창고보관료는 상자당 1일 10~20원 수준으로 보관물량 및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의해 차이를 보임

- 수입업체의 수수료(이윤) 비중은 CFR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데다 노임을 포함한 비용이 상승하면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전년(1.9%)보다 소폭 상승했음

2) 소비지 도·소매 단계

-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경락단가는 박스당 63,000~78,000원에 형성되었으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단가도 이와 유사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하차비는 kg당 360원이었으며, 도매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유통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kg당 650원으로 전년(600원/20kg)보다 높았음. 한편, 이 비용은 국산 연근해 고등어(냉동)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 비중은 운송비 및 간접비 상승 등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2.8%를 차지하며 전년(2.9%)보다 다소 낮았음
- 수입고등어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 비중은 최종 판매가격의 13.8%인 것으로 추정됨
 - 전년보다 국내 연안 고등어 생산이 증가했으며, 수입가격(CFR 가격)도 전년에 비해 9% 정도 높게 형성되었음.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지 소매상의 유통마진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

〈표 4-23〉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수입업체	수입원가	CFR 가격	2,215.1	2,426.0	32.7	운임 포함 인도조건 가격 톤당 2,000\$~2,050\$	
		수입관세	221.5	242.6	3.3	관세 10%	
		운송서류(BL) 발급비용	1.9	1.9	0.0	45,000원/1 컨테이너	
		부두사용 및 처리비용	14.6	14.6	0.2	350,000원/1 컨테이너	
		컨테이너 청소비용	2.1	2.1	0.0	50,000원/1 컨테이너	
		내륙운송비용	15.0	15.0	0.2	360,000원/1 컨테이너	
		관세사 비용	통관수수료	5.0	5.0	0.1	100,000원/1 컨테이너 미만
			검역수수료				30,000원/1 컨테이너
	소계	2475.2	2,707.2	36.5	조사가격		
		LABEL 비용	1.5	1.5	0.0	30원/20kg 상자	
	참고 비용	노 임	LABEL부착비	2.8	3.0	0.0	60원/20kg 상자
			상차비	7.5	8.0	0.1	160원/20kg 상자
			하차비	7.5	8.0	0.1	160원/20kg 상자
			입고비	9.5	10.0	0.1	200원/20kg 상자
		출고비	9.5	10.0	0.1	200원/20kg 상자	
		참고 보관료(90일기준)	45.0	45.0	0.6	10원/일(20kg 상자)	
		수입업자 수수료(이윤)	133.8	147.0	2.0	판매가격의 5% 내외	
		판매가격	2,692.3	2,939.7	39.7	조사가격	
	도매업자	운송비	150.0	165.0	2.2	3,300원/20kg 상자 (물류비, 감천→서울)	
중도매인 수수료		149.5	163.4	2.2	판매가격의 5% 내외		
판매가격		2,991.8	3268.1	44.1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7.5	18.0	0.2	360원/20kg 상자		
	경매수수료	61.4	67.1	0.9	낙찰가의 2%(냉동)		
	경매 낙찰가격	3,070.7	3353.2	45.2	가락시장 경락가격 67,064/20kg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7.5	18.0	0.2	360원/20kg 상자		
	운송비(물류비)	30.0	32.5	0.4	650원/20kg 상자 (도매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800.1	1056.1	14.2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소비지 중도매인 이윤	206.2	210.1	2.8	판매가격의 5% 내외		
	판매가격	4,124.5	4669.9	63.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274.8	357.2	4.8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1,180.1	1,361.8	18.4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이윤	1,652.0	1,025.1	13.8	판매가격의 5% 이상		
	판매가격	7,231.4	7,414.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조사대상은 마리당 400~600g 크기이며,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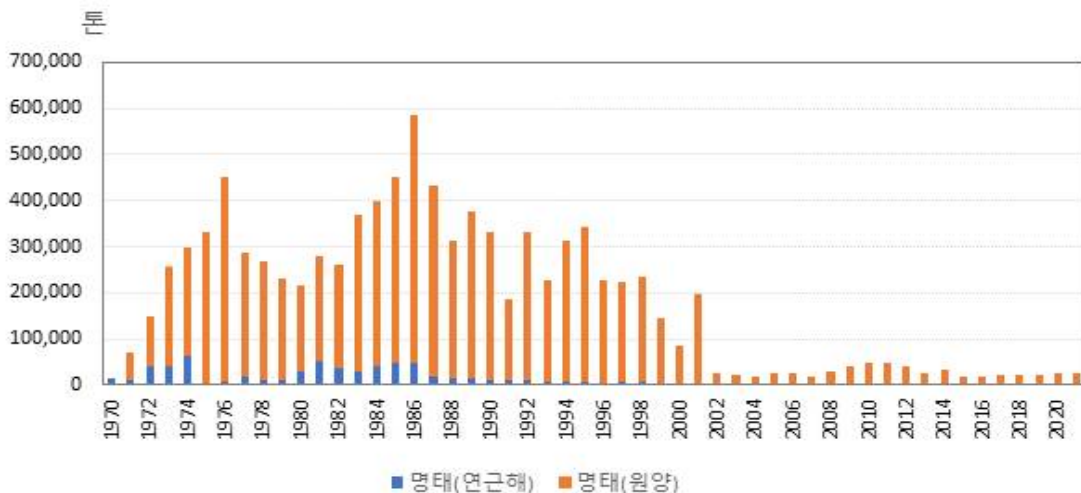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 명태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국내 연근해 수산물 중 대표적인 어종이었던 명태는 2000년대부터 어획량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9년부터는 연근해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내 수급은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러시아로부터 쿼터를 확보하여 어획하고 있는 원양산과 러시아 및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수입산임

<그림 4-10>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생산량은 27,779톤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전량 원양산이었음
- 원양산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매년 명태 조업할당량(쿼터)을 배정받아 조업하는데, 2021년에는 전년과 같이 원양트러어선 3척이 베링해에서 조업했음
 - 2021년 우리나라에 배정된 명태 조업쿼터는 전년(28,800톤)보다 소폭 감소한 28,400톤이었음

- 쿼터 소진률은 전년(94.4%)에 비해 증가한 97.8%였으며, 전년의 경우 조업 선원의 검역기간이 추가되어 조업일수가 적었던 반면 올해는 완화되었기 때문임
- 2021년 명태 생산금액은 399억 원으로 전체금액은 원양어업 생산이었음

〈표 4-24〉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1990년	331,974	9,798	3.0	322,176	97.0
1995년	343,713	6,903	2.0	336,810	98.0
2000년	86,832	766	0.9	86,066	99.1
2005년	26,029	25	0.1	26,004	99.9
2010년	46,795	1	0.0	46,794	100.0
2016년	20,129	6	0.0	20,123	100.0
2017년	23,498	1	0.0	23,497	100.0
2018년	24,002	9	0.0	23,993	100.0
2019년	23,916	0	0.0	23,916	100.0
2020년	27,196	0	0.0	27,196	100.0
2021년	27,779	0	0.0	27,779	100.0
5개년 평균	25,278	2	0.0	25,276	100.0
전년 대비	2.1	-	-	2.1	0.0
평년 대비	17.0	-100.0	-	17.0	0.0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25〉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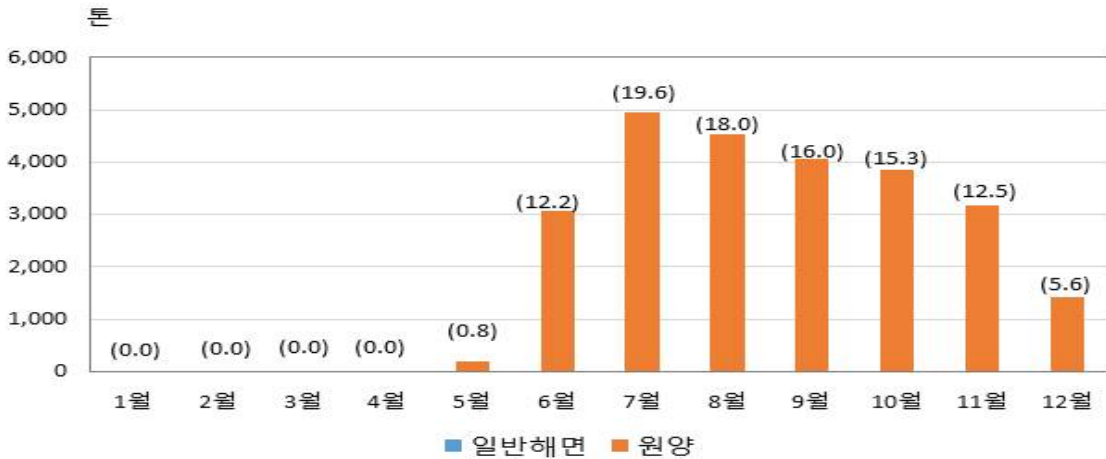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1990년	70,646	8,812	12.5	61,834	87.5
1995년	112,000	19,626	17.5	92,374	82.5
2000년	75,458	3,585	4.8	71,873	95.2
2005년	26,962	206	0.8	26,756	99.2
2010년	64,378	19	0.0	64,359	100.0
2016년	26,133	66	0.3	26,066	99.7
2017년	25,062	38	0.2	25,024	99.8
2018년	25,665	112	0.4	25,553	99.6
2019년	27,336	2	0.0	27,334	100.0
2020년	39,018	0	0	39,018	100.0
2021년	39,919	0	100	39,919	100.0
5개년 평균	31,400	30	0.1	31,370	99.9
전년 대비	2.3	-	-	2.3	0.0
평년 대비	39.4	-100.0	55,455.6	39.6	0.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명태의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5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되었으며, 주 어기는 6월~11월로 연간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함

<그림 4-11>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최근 5년 평균과는 다소 상이했음. 2021년에는 8월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였으며, 9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10월에 다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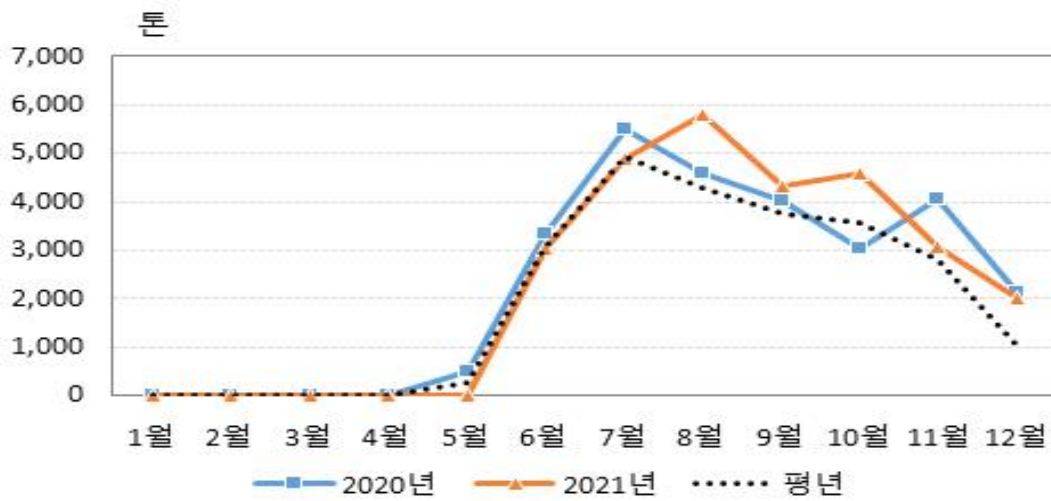
<표 4-26>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0	0	0	0	0	0	0	-	-
2월	1	0	0	0	0	0	0	-	-
3월	2	0	0	0	0	0	0	-	-
4월	0	0	0	0	0	0	0	-	-
5월	323	0	325	182	499	0	201	-100.0	-100.0
6월	3,081	3,136	1,754	4,112	3,328	3,039	3,074	-8.7	-1.4
7월	4,865	4,952	3,622	5,788	5,502	4,887	4,950	-11.2	-1.2
8월	4,503	4,493	4,848	2,981	4,600	5,799	4,544	26.1	35.3
9월	2,942	4,160	4,443	3,280	4,034	4,340	4,051	7.6	15.1
10월	3,060	3,120	5,182	3,368	3,028	4,606	3,861	52.1	29.7
11월	1,352	2,146	3,654	2,882	4,072	3,091	3,169	-24.1	9.6
12월	0	1,491	174	1,322	2,133	2,017	1,427	-5.4	97.0
합계	20,129	23,498	24,002	23,915	27,196	27,779	25,278	2.1	17.0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12〉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에도 부류별 명태 생산량을 살펴보면 원양에서 어획되어 반입되기 때문에 전량 냉동이었음
- 2019년부터는 연근해에서 명태의 포획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선어 생산량은 기록되지 않았음

〈표 4-27〉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0	0	0	0	0	0	0.0	0
선어	6	1	9	0	0	0	0.0	2
냉동	20,123	23,497	23,993	23,915	27,196	27,779	100.0	25,276
합계	20,129	23,498	24,002	23,915	27,196	27,779	100.0	25,278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어법별로는 원양산 명태 전량이 원양트롤어업으로 어획되며, 모두 부산지역으로 반입되어 비계통으로 출하되고 있음

나.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명태 수출량은 2012년 14만 6천 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였으며, 2015년부터는 2만 톤 이하가 수출되었음
 -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명태 가공품 수요가 줄어 수출량은 7,711톤에 불과했음
- 그러나 2021년에는 명태 수출량이 156,350톤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였음
 - 2020년 9월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중국 정부는 러시아 선적의 입항을 금지하였음
 - 이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던 러시아산 명태가 우리나라를 통해 재수출 되었기 때문임
- 2021년에는 명태 수입 역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양인 321,586톤을 기록했음
 - 러시아산 명태의 중국 재수출로 인해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수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국내 소비를 위한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19.9% 하락한 kg당 1.56달러였는데, 이는 중국 재수출 명태의 경우 단가가 낮은 가공용 원료였기 때문임

<표 4-28>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15,064	19,978	1.33	255,766	419,173	1.64
2017년	8,409	14,001	1.67	259,252	420,285	1.62
2018년	10,487	18,070	1.72	253,951	428,736	1.69
2019년	12,520	23,625	1.89	180,354	371,560	2.06
2020년	5,439	14,200	2.61	209,729	407,758	1.94
2021년	139,952	151,945	1.09	321,586	500,917	1.56
5개년 평균	35,361	44,368	1.79	244,975	425,851	1.77
전년 대비	2473.3	970.0	-58.4	53.3	22.8	-19.9
평년 대비	1247.8	745.3	-41.1	38.7	22.3	-13.0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제품유형별 수출 비중은 냉동명태가 134,522톤(9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냉동필렛(3.3%), 건조(0.3%) 등의 순이었음
- 수입 역시 냉동이 263,182톤(81.8%)으로 가장 많았고, 냉동필렛 24,596톤(7.6%), 냉동연육 24,307톤(7.6%) 등이 수입되었음
 - 수입금액은 냉동(51.4%), 냉동연육(17.8%), 건조(15.3%), 냉동필렛(14.2%)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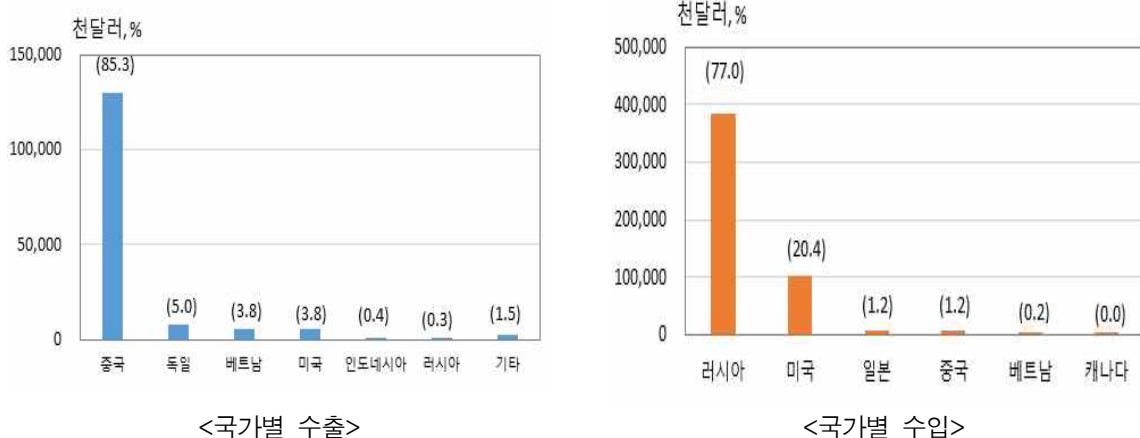
〈표 4-29〉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증량	비중	금액	비중	증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550000	0	0.0	0	0.0	1,658	0.5	6,100	1.2
냉동	0303670000	134,522	96.1	133,266	87.7	263,182	81.8	257,637	51.4
냉동연육	0304941000	329	0.2	1,214	0.8	24,307	7.6	89,244	17.8
냉동필렛	0304750000	4,551	3.3	11,870	7.8	24,596	7.6	70,885	14.2
훈제	0305492000	19	0.0	139	0.1	0	0.0	1	0.0
건조	0305593000	355	0.3	5,170	3.4	7,579	2.4	76,508	15.3
기타	0304949000	176	0.1	287	0.2	264	0.1	542	0.1
합계		139,952	100	151,945	100	321,586	100	500,917	100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4-13〉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주: ()는 수출입 금액 비중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명태 수출대상국은 48개국으로 전년에 비해 7개 국가가 늘었으며, 수출금액 기준 주요 대상국은 중국(85.3%), 독일(5.0%), 베트남(3.8%) 등의 순이었음
 -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입항 금지 조치에 따라 한국을 경유한 재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한편 명태 수입은 전년보다 1개 국가가 늘어난 6개 국가로부터 이루어졌음. 수입국 별 수입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20.4%, 일본 1.2% 등의 순이었음

다. 수급 구조

- 명태의 소비는 30~40만 톤 규모로 국내 수산물 소비량 중 가장 많은 품목 중 하나지만,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낮음
- 2021년 명태 공급량은 606,067톤으로 전년에 비해 냉동명태 수입 및 전년도 이입 재고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1%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0.6% 많았음

<표 4-30>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20,129	398,342	110,099	528,570	407,689	17,919	102,962	4.9
2017년	23,498	417,550	102,962	544,010	432,032	12,579	99,399	5.4
2018년	24,002	414,650	99,399	538,051	420,073	13,635	104,343	5.7
2019년	23,915	326,173	104,343	454,431	371,336	15,149	67,946	6.4
2020년	27,196	353,487	67,946	448,629	353,675	7,711	87,243	7.7
2021년	27,779	491,045	87,243	606,067	343,500	156,350	106,217	8.1
5년 평균	25,278	400,581	92,379	518,238	384,123	41,085	93,030	6.6
전년 대비	2.1	38.9	28.4	35.1	-2.9	1927.6	21.7	5.2
평년 대비	17.0	28.5	-10.0	20.6	-13.5	1066.9	15.0	33.8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 40만 톤 이상을 보이던 명태 소비량은 2019년부터 40만 톤 이하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도 34만 톤 정도로 소비 감소추세가 이어졌음

- 국내 소비량은 343,500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9%, 13.5% 감소했으나, 이월재고는 전년 대비 증가한 106,217톤이었음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명태 산지가격은 부산지역에서 형성되는 원양산 비계통 출하 가격이 기준이며, 최근 5년 평균가격은 kg당 1,167원임
 - 산지가격은 주로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조업 일정에 따라 6월에 형성되기도 함
- 2021년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1,437원이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20.2% 높았음
 - 재고 부족으로 상승한 2020년의 산지가격이 2021년에도 유지되었음

〈표 4-31〉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	-	-	-	-	-	-	-
2월	-	-	-	-	-	-	-	-	-
3월	-	-	-	-	-	-	-	-	-
4월	-	-	-	-	-	-	-	-	-
5월	1,065	-	1,065	1,140	1,436	-	728	-100.0	-100.0
6월	1,065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24.4
7월	1,260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20.4
8월	1,300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19.6
9월	1,455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16.5
10월	1,467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16.3
11월	1,251	1,065	1,065	1,143	1,437	1,437	1,229	0.0	20.6
12월	-	1,065	1,064	1,143	1,437	1,437	1,229	0.0	52.6
연평균	1,266	1,065	1,065	1,143	1,437	1,437	1,167	0.0	20.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2021년 냉동명태 도매가격은 1kg당 2,170원으로 전년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2.3% 높았음
- 냉동명태 도매가격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0년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수입 상황이 원활해지면서 하락했음
- 2021년 월별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전년의 영향으로 연초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3월부터는 평년수준을 연중 유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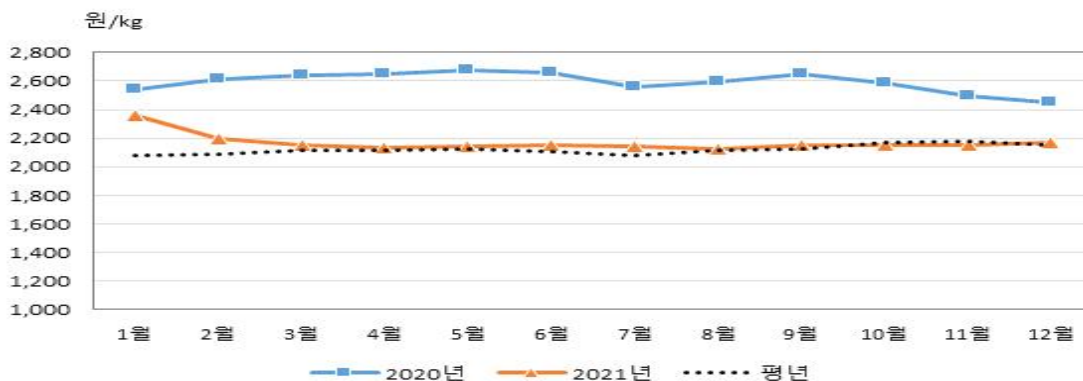
<표 4-32>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060	2,021	1,948	1,853	2,537	2,357	2,143	-7.1	13.1
2월	2,060	2,031	1,930	1,830	2,614	2,194	2,120	-16.1	4.8
3월	2,124	2,025	1,947	1,830	2,636	2,150	2,118	-18.4	1.8
4월	2,178	2,027	1,980	1,747	2,650	2,136	2,108	-19.4	0.9
5월	2,192	2,040	1,980	1,724	2,678	2,145	2,113	-19.9	1.0
6월	2,133	2,051	1,979	1,690	2,660	2,152	2,106	-19.1	2.3
7월	2,106	2,068	1,960	1,720	2,559	2,143	2,090	-16.3	2.9
8월	2,066	2,070	1,960	1,878	2,595	2,129	2,126	-18.0	0.7
9월	2,050	2,047	1,942	1,950	2,645	2,150	2,147	-18.7	1.1
10월	2,050	2,038	1,960	2,214	2,587	2,156	2,191	-16.7	-0.6
11월	2,116	2,010	1,905	2,360	2,499	2,156	2,186	-13.7	-1.0
12월	2,076	1,961	1,830	2,425	2,447	2,166	2,166	-11.5	0.8
연평균	2,101	2,032	1,943	1,935	2,592	2,170	2,135	-16.3	2.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 중품(20kg) 도매가격을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4>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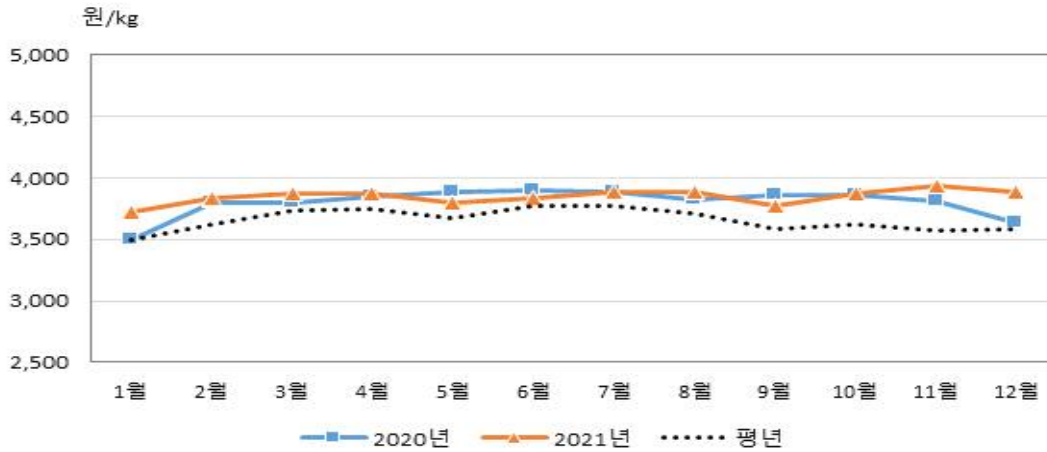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냉동명태 소비자가격은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냉동명태 중품 소비자가격은 1kg당 평균 3,742원이었음

〈그림 4-15〉 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추이(냉동)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33〉 연도별·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397	3,533	3,836	3,222	3,496	3,718	3,561	6.4	6.3
2월	3,457	3,610	3,825	3,393	3,797	3,842	3,694	1.2	6.2
3월	3,488	3,707	3,870	3,788	3,801	3,872	3,808	1.9	3.8
4월	3,446	3,699	3,879	3,843	3,851	3,876	3,830	0.7	3.5
5월	3,082	3,730	3,921	3,775	3,887	3,800	3,822	-2.2	3.3
6월	3,473	3,754	4,127	3,622	3,901	3,837	3,848	-1.7	1.6
7월	3,410	3,797	4,097	3,699	3,893	3,887	3,874	-0.1	2.9
8월	3,381	3,806	4,046	3,478	3,819	3,887	3,807	1.8	4.9
9월	3,403	3,737	3,764	3,175	3,863	3,776	3,663	-2.2	5.2
10월	3,563	3,660	3,701	3,361	3,857	3,870	3,690	0.3	6.7
11월	3,442	3,558	3,557	3,472	3,813	3,940	3,668	3.3	10.4
12월	3,619	3,679	3,575	3,422	3,636	3,888	3,640	6.9	8.4
연평균	3,430	3,689	3,850	3,521	3,801	3,849	3,742	1.3	5.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중품) 소비자가격은 1마리(580g) 가격으로 제공되며, 이를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냉동명태 소비자가격은 kg당 3,849원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5.2% 상승했음
 - 설성수기, 어한기, 추석성수기를 맞아 정부비축물량 방출행사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2. 명태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국내에서 유통되는 냉동명태는 크게 원양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됨. 특히 냉동명태는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수입 물량 중 일부가 미국에서 어획됨. 그리고 미국산 가운데는 필렛, 연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국내 냉동명태 수급은 합작선사에 의한 러시아산 수입 물량이 대부분임
 - '21년을 제외한 평년의 경우 국내에 공급되는 냉동명태는 20만 톤 정도였으나 '21년의 경우 중국 재수출용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30만 톤가량이 수입되었음
- 냉동명태는 전량 트롤어업으로 어획되며, 어획 후 선상에서 냉동되어 감천항으로 양륙되는데, 여기중에는 운반선, 어기 종료 후에는 본선을 이용하여 부산항으로 운반됨
- 수입을 제외한 원양산은 국내 원양선사가 입어료를 지급하고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한 물라이며, 어획 이후 부산항으로 반입되며 그 물량은 조업할당량(쿼터)과 어획 동향에 따라 다르나 대략 2만 톤임
 - 3~4월경 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조업할당량(쿼터)이 정해지면 5월말~6월초 베링해에서 조업이 시작되며, 해상 여건과 쿼터 소진에 따라 12월까지 조업함
 - '21년 배정된 쿼터는 28,400톤이었으며, 전년의 경우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역 문제로 조업 시작이 늦어졌으나, '21년에는 평년과 비슷한 5월부터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수입산은 러시아와의 합작(선사) 등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음
 - 합작선은 매년 1월 1일~4월 9일까지 러시아 오토츠크 해에서 명태 A시즌 조업을 함

- 이후 부산항으로 돌아와 어선 수리, 정비, 선용품 등을 공급받은 후 5월말~6월초부터 명태 B시즌 베링 해 조업이 시작됨
- 2021년에는 극동수산, 동남수산 등 7개사 소속에서 11척의 트롤어선이 합작조업을 했음
- 한편 미국산 명태 수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쿼터 물량(TRQ)³⁵⁾이 적용되어 선착순 방식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됨
- 원양산 및 수입산 냉동명태의 경우 국내 반입 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차 도매업자에게 유통됨. 2021년에도 선사 자체 경매(시장 외 경로)와 법인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각각 27%, 73% 정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국내로 반입된 명태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사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1차 도매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됨
- 경매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며, 합작수산물³⁶⁾의 경우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별로 관세감면 추천 물량을 배정하여 관세가 면제됨
- 1차 도매업자(선사)는 2차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지시장, 식자재 업체, 명태 가공공장 등으로 판매함
 - 소비지시장은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등이며, 식자재 업체로는 명태포, 절단명태 등이 유통되며, 가공공장용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북어, 황태, 코다리 등을 가공하는 용도임
 - 최근에는 1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의 역할을 겸하는 추세인데, 선사로부터 직접 구매 후 용도(공장, 급식, 소비지 등)에 따라 도매업자별로 용도가 더욱 세분화하여 판매함. 그리고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선사가 직접 판매하기도 함
 - 1차 도매업자가 냉동명태를 판매한 이후에도 물건 자체는 냉동냉장창고에서 보관되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가공업체는 1차 중매인을 통해 부산에서 명태 매입 후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가공(할복) 전까지 보관을 함
- 러시아산 명태는 팬으로 냉동시켜 BAG에 포장되어 국내로 반입됨. 팬의 규격은 큰 팬(21.5kg), 작은 팬(11.5kg)으로 나누어짐
 - 작은 팬(11.5kg)을 이용하는 이유는 급속동결을 통해 더 좋은 선도의 상품을 생

35) HS코드 0303-67-0000, 0303-69-9000, 0303-99-0000을 대상으로 적용됨

3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50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 산하기 위험인데, 비용적인 면에서 용이한 것은 아님
- 그러나 작은 팬으로 동결된 제품의 경우 해동 후 상품을 진열할 때 손실 (LOSS)이 적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에서 선호함
 - 작은 팬으로 동결된 명태는 생산량의 10%~20%정도로, 선사가 대형소매업체와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음
- 원양산과 수입산(합작생산) 명태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조업시기 및 조업해역에 따라 용도와 가격에 차이가 발생함
- 원양산 및 수입산 명태 모두 동일 어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어획 및 선상 동결되기 되며, 수입산의 경우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A시즌 오호츠크해에서 어획된 명태(포란태)는 체장이 베링해 명태보다 길며, 대부분 황태로 가공되어 판매됨. 또한 명란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비쌈
 - 반면 B시즌 베링해에서 조업된 명태는 가공용보다 시판용으로 선호됨
 - 명태 규격은 3통~16통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표준규격은 8통(34마리~36마리)~9통(42마리~45마리) 크기임
 - 품질은 팬 단위로 급냉 시 명태의 배열 형태(휩 정도), 클레이징, 선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수(크기)별 사용 용도는 <표 4-36>과 같음
 - 특히 원양 및 합작선사에서 작업하는 명태는 크기별로 구분되어 냉동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해외선사의 명태보다 국내 유통업자들이 더 선호함

<표 4-34>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구분(마리수)	오호츠크해 명태	베링해 명태	비고
3통 (12)	포	포	베링 제품 선호
4통 (16)	포, 시장판매 (토막 판매)	포, 시장판매(토막), 묵호태(묵호지역 황태 생산)	베링 제품 선호
5통 (20)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6통 (24)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일부 시판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7통 (29~30)	황태(통말이 판매) 일부 시판(식당)	떡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일부 시판(식당)	황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떡태: 베링 제품 선호

구분(마리수)	오호츠크해 명태	베링해 명태	비고
8통 (34~36)	황태(채, 동말이 묶음판매), 일부 시판(식당), 깔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떡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일부 시판(식당)	베링 제품 선호
9통 (42~45)	깔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일부 시판	깔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일부 시판	베링 제품 선호
10통 (52~54)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일부 시판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일부 시판	베링 제품 선호
11통 (59~62)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2통 (70~75)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3통 (80~90)	-	역걸이(자연풍 건조, 영덕)	-
14~16통 (100 이상)	-	노가리 (삼척, 떡태로 대체중)	-

자료: 원양선사 A사 내부자료., 2019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명태는 러시아 해역에서 어획되어 반입된 원양산 2만 7,779톤과 수입산 냉동명태 26만 3,181톤으로 총 29만 960톤임
 - 2021년 명태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산 명태의 중국 재수출 물량 증가로 수입 및 수출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것임
 - 이로 인해 총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음
- 원양산 어획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조업할당량(쿼터) 소진율도 상승했음
 - 러시아 어업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2021년산 조업할당량(쿼터)은 전년보다 증가한 2만 8,400톤이 배정되었음
 - 조업 기간 동안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명태 어획은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였음
 - 조업은 12월까지 이어졌으며, 최종 소진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97.8%였음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21년에는 재수출로 인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재수출량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 2021년의 경우 냉동명태의 중국 재수출이 전년(4,014톤) 대비 크게 증가한

136,982톤이었음

- 따라서 이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을 추정할 경우 전년과 동등 비교가 불가하므로 2021년 재수출량을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표 4-35>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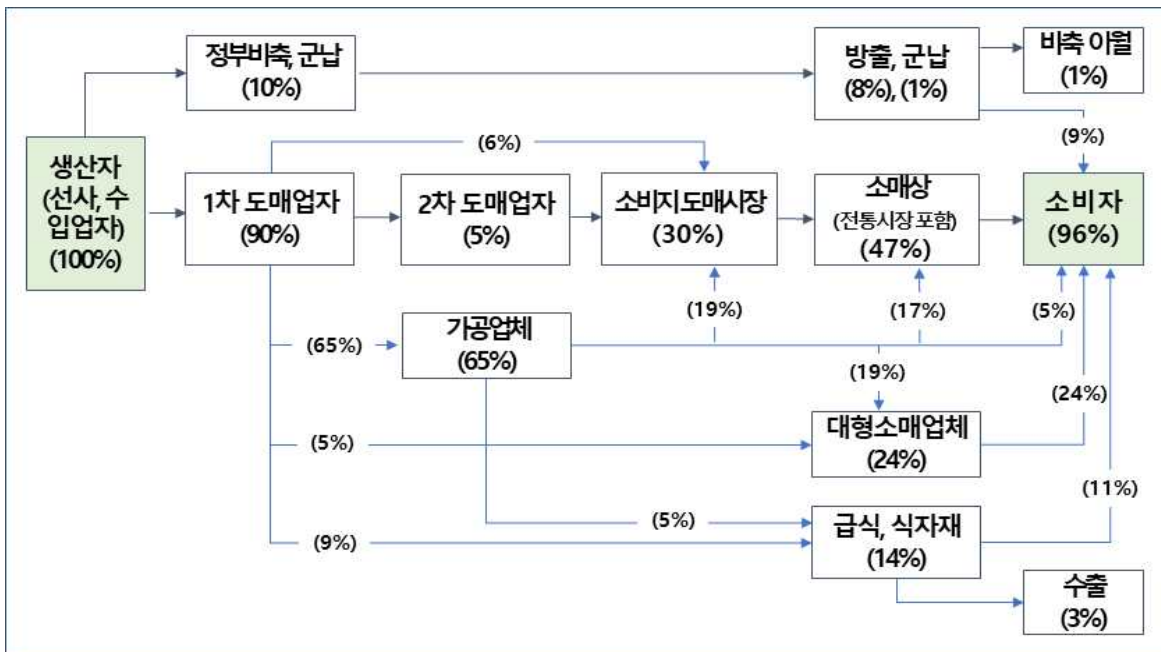
구분		취급량	비율(%)
국내 반입 및 수입		157,992	100.0
정부비축 구매 물량		14,590	9.2
군납 구매 물량		1,900	1.2
1차 도매업자 유통	2차 도매업자유통	7,565	4.8
	소비지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8,893	5.6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등)	8,340	5.3
	가공업체	101,946	64.5
	대량수요처(급식, 식자재, 수출 등)	14,758	9.4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재수출 물량이 작년 수준일 경우 2021년 냉동명태 유통경로의 가장 큰 특징은 급식·식자재 등 대량 수요처의 유통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임
 - 국내에 공급된 명태 중 2021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판된 물량은 7만 8,593톤이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수입량 및 선사가 1차 도매업자 및 가공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유통경로별 물량 자료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급식·식자재 등 대량수요처의 물량 비중 감소로 볼 수 있음. 전년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요처의 유통 비중이 전체의 17% 정도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비대면 수업 확산 등으로 거래물량이 감소하여 11% 수준에 그쳤음
 - 냉동명태는 수협 비축물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차(2차)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되는데, 2021년에는 정부비축물량이 전년(7,514톤)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14,590톤이었으며, 군납용은 대략 1,900톤으로 전년(1,946톤)과 비슷한 규모가 수매되었음

- 주요 유통경로인 1차(2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로 판매하여 소비지도매시장(전통시장 포함)으로 유통하는 물량은 약 16,458톤으로 비중은 11% 정도였음. 전년(34,048톤)에 비해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거래량 감소로 물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 물량 비중이 커졌기 때문임
- 그리고 황태, 떡태, 코다리, 북어채 등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거래물량 역시 전반적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16,174톤)보다 감소하였으나, 비축물량 증가 등 1차 도매업자의 총 거래물량 감소로 가공업체 거래 비중은 65%로 증가했음

<그림 4-1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명태는 수입 및 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명태 유통비용

가.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1) 수입 단계

- 2021년 세계 명태 공급량은 러시아 명태 어획의 호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에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어 국제가격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했음

- 국내 명태 공급은 원양산 어획 및 수입이 원활했고, 중국 재수출용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국내 명태 재고가 연중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많은 수준을 보였음
 - ‘코로나19’ 로 인한 휴교 등으로 학교 급식 등 단체식 수요가 전년에 이어 낮은 수준이었음
 - 또한 외식 수요 역시 감소하여 대형 가공업체에서 명태 수요가 감소했음
 - 중국의 러시아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조치로 인해 한국을 통한 재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수출용 수입물량이 국내 냉동창고에 보관되면서 재고가 증가했음
- 원양산 및 수입산 냉동명태가 부산으로 반입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이 중 하역비, 하차비, 냉장료 등이 소폭 상승했음
 - 비용 항목은 부두 하역비, 검수비, 부두에서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상운송비, 냉동창고에 입고과정에서 하차비, 냉동창고 입고료 등이 있으며, 냉동창고 입고 후에는 매일 냉장료가 발생함
 - 중도매인들은 하역 및 통관 후 경매 2일 전 견본거래가 가능한 냉동냉장창고에서 샘플(4개)을 통해 배열, 선도 등을 직접 검품하며, 견본거래 신청서를 받아서 응찰함
 - 경매 및 수의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1차 도매업자가 부담하며, 소유권이 이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냉동창고 냉장보관료, 재판매를 위한 출고비, 상차비, 운반비 등임

2) 도소매 단계

- 최근 2차 도매업자의 유통경로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도매업자를 통한 경로를 유통비용에서 제외하고 산정했음
- 또한 1차 도매업자의 분배 역할도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대신 선사로부터 물량을 직접 공급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1차 도매업자는 명태 크기(통수)에 따라 시장에 상품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시판용으로 선호되는 크기는 소비지도매시장에 위탁 판매함

- 이때 부산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소비지시장까지 운송료가 발생하며,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위탁판매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됨
- 한편, 1,2차 도매업자가 소비지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상과 소비자로 거래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임
- 1차 도매업자가 소비지 도매시장에 판매하기 까지 비용 중 냉장료와, 상차비, 운송비 등 직접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
 - 냉장료가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폭였으며, 상차비는 8%, 운송비는 7% 상승함
- 소비지 도매시장 단계에서도 경매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간접비가 증가하여 중도매인의 이윤폭은 감소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와 경매수수료율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운반비와 상차비 역시 큰 변화는 없었음
 - 그러나 도매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인건비 등 간접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 중도매인의 이윤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음
- 소매상 단계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증가함
 - 소비지 소매상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비 비중이 직접비에 비해 높음
 - 2021년 명태 소매 단계에서의 비용은 직·간접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중이 높은 간접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산지와 도매단계에서 판매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과는 달리 소비자 가격은 소폭 상승했음
 -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상 이윤은 전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6>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원양선사 (수입업자)	냉동명태 원가	1,259.5	1,170.7	33.8	1kg 기준(간접비 포함)
	부두 하역비	30.5	32.6	0.9	1팬(21.5kg)당 655원
	육상운반비	10.0	10.2	0.3	1팬당 214원
	검수비	10.0	10.0	0.3	1팬당 214원
	하차비	8.8	9.1	0.3	1팬당 189원
	창고 입고비	9.3	9.5	0.3	1팬당 199원
	냉장료	78.0	83.7	2.4	1팬당 1일 27원(부가세 포함), 2개월(60일) 보관 기준
	위판수수료	10.7	10.1	0.3	위판금액의 0.7%
	이윤	106.6	100.5	2.9	판매가격의 5~8% 수준
	선사 판매가격	1,523.3	1,436.40	41.5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32,750원/21.5kg)
1차 도매업체	냉장료	14.0	16.7	0.5	1팬당 1일 10원(부가세 포함), 1개월(30일) 보관 기준
	창고 출고비	10.3	10.3	0.3	1팬당 222원
	상차비	7.8	8.4	0.2	1팬당 167원
	운송비 (부산→서울)	69.8	74.4	2.1	1팬당 1,500원
	간접비	64.5	68.4	2.0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47.6	23.4	0.7	-
	1차 도매업자 판매가격	1,737.1	1,638.00	47.3	AT 도매가격 및 1차 도매업체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4.4	14.4	0.4	1팬당 309원
	경매수수료	78.7	74.2	2.1	경매 낙찰가의 4.3%
	경락가격	1,830.2	1,726.6	49.8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19.3	19.3	0.6	1팬당 376원
	상차비	14.4	14.4	0.4	1팬당 309원
	간접비	203.1	213.3	6.2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20.0	88.6	2.6	-
	소비지 중도매인 판매가격	2,187.0	2,062.20	59.5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80.5	220.0	6.4	소매상 조사결과
	간접비	662.3	750.0	21.6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361.2	432.3	12.5	-
	판매가격	3,391.0	3,464.46	100	AT 소비자가격 및 전통시장 소매상 조사가격 참조

주: 8통(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하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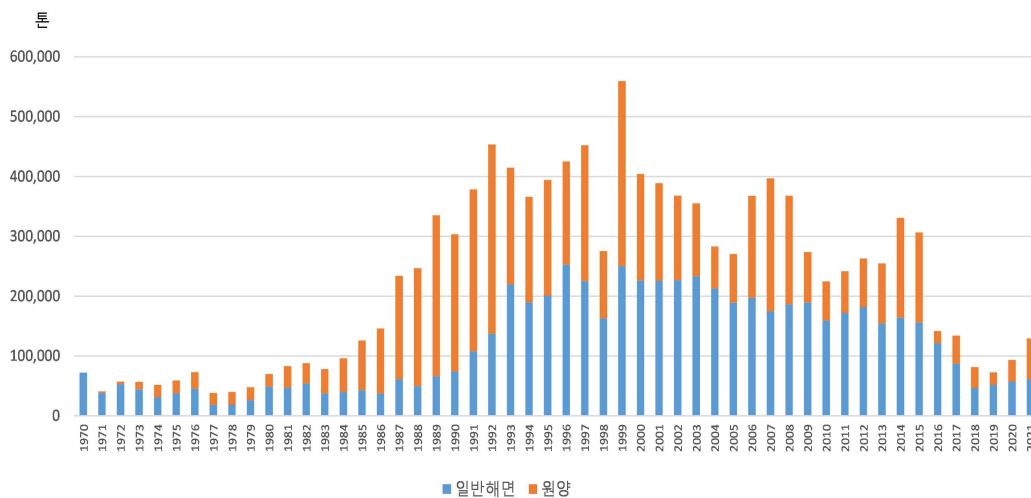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우리나라 오징어는 크게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으로 생산되는데, 이 중 원양산은 남서대서양 해역에서 주로 조업하여 국내로 반입됨
- 2021년 우리나라 오징어 총 생산량은 12만 9,152톤으로, 일반해면어업 생산 비중은 47.1%, 원양어업은 52.9%를 차지했음
 - 우리나라 연간 오징어 생산 변동성은 원양산 생산량 증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연근해산 생산은 2000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10만 톤 이하로 급격히 줄었으며, 원양산 생산은 매년 큰 폭의 변동을 보였음

<그림 4-17>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8.1% 증가했으며, 평년보다도 23.5% 많았음
 - 연근해산과 원양산 생산량 모두 전년보다는 증가했으며, 특히 원양산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늘었음

- 연근해산 생산량은 6만 851톤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은 수준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16.4% 적었음
- 원양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86.9% 증가한 6만 8,301톤이었으며 평년보다도 두 배 이상 많았음
- 원양산의 경우 2015년에 15만 톤이 생산된 이후로 세계적인 오징어 어획 부진이 계속되면서 2020년까지 생산량이 5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어황이 개선되면서 6만 톤 이상 생산되었음

<표 4-37>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303,320	74,172	24.5	229,148	75.5
1995년	394,021	200,897	51.0	193,124	49.0
2000년	404,152	226,309	56.0	177,843	44.0
2005년	270,298	189,126	70.0	81,172	30.0
2010년	224,546	159,130	70.9	65,416	29.1
2015년	306,578	155,743	50.8	150,835	49.2
2016년	141,723	121,691	85.9	20,032	14.1
2017년	134,052	87,024	64.9	47,028	35.1
2018년	81,348	46,274	56.9	35,074	43.1
2019년	72,357	51,817	71.6	20,540	28.4
2020년	93,529	56,989	60.9	36,540	39.1
2021년	129,152	60,851	47.1	68,301	52.9
5개년 평균	102,088	60,591	59.4	41,497	40.6
전년 대비	38.1	6.8	-	86.9	-
평년 대비	23.5	-16.4	-	114.5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오징어 총생산금액 중 일반해면어업 생산금액은 총생산금액의 51.3%를,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48.7%를 차지했음
 - 원양산 생산량이 적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남서대서양에서의 어획량이 늘면서 원양어업 생산금액 비중이 전년보다 17.9%p. 증가했음
- 2021년 오징어 총생산금액은 9,019억 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3.2%, 53.2% 증가했음

〈표 4-3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286,934	146,372	51.0	140,562	49.0
1995년	383,198	311,038	81.2	72,160	18.8
2000년	490,034	279,595	57.1	210,439	42.9
2005년	523,700	405,949	77.5	117,751	22.5
2010년	712,940	567,828	79.6	145,113	20.4
2015년	596,521	413,217	69.3	183,304	30.7
2016년	532,888	483,122	90.7	49,766	9.3
2017년	680,072	492,658	72.4	187,414	27.6
2018년	521,905	382,055	73.2	139,849	26.8
2019년	477,168	384,354	80.5	92,814	19.5
2020년	731,872	506,153	69.2	225,719	30.8
2021년	901,862	462,623	51.3	439,239	48.7
5개년 평균	662,576	445,569	67.2	217,007	32.8
전년 대비	23.2	-8.6	-	94.6	-
평년 대비	53.2	2.9	-	215.7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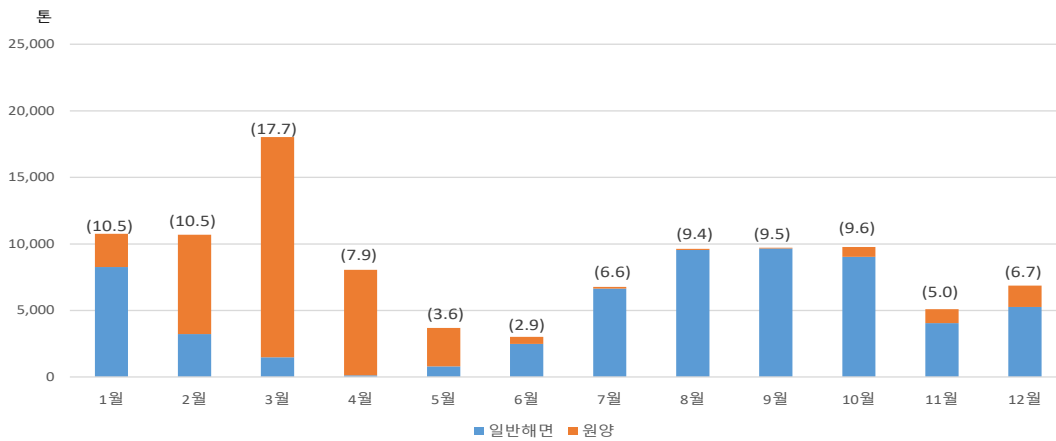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5월까지는 주로 원양어업을 통해 오징어 조업이 이루어지며, 6월부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짐
 - 연근해산 오징어 어한기에 원양산이 반입되면서 부족한 공급량을 채워줌
- 일반해면어업 오징어 생산의 주어기는 8월부터 이듬해 1월로, 동해에서 성장 및 회유하며 북상했던 오징어 어군은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남하하면서 국내 어장에서 조업됨. 2월부터는 산란을 위해 오징어 어군이 일본해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4~5월은 금어기³⁷⁾로 조업이 원활하지 않음
 - 최근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는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서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안 오징어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동해안에서도 수온 상승으로 2020년부터는 어한기인 6월에도 오징어 어장이 이르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금어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한해 실시함.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림 4-18>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월별 연근해 생산량을 살펴보면, 연초에 생산이 다소 감소했으나, 여름철 생산은 전년보다 많았으며, 성어기 동해안에서의 생산은 10월까지 크게 증가했으나, 11월부터는 평년보다 매우 부진했음

<표 4-39>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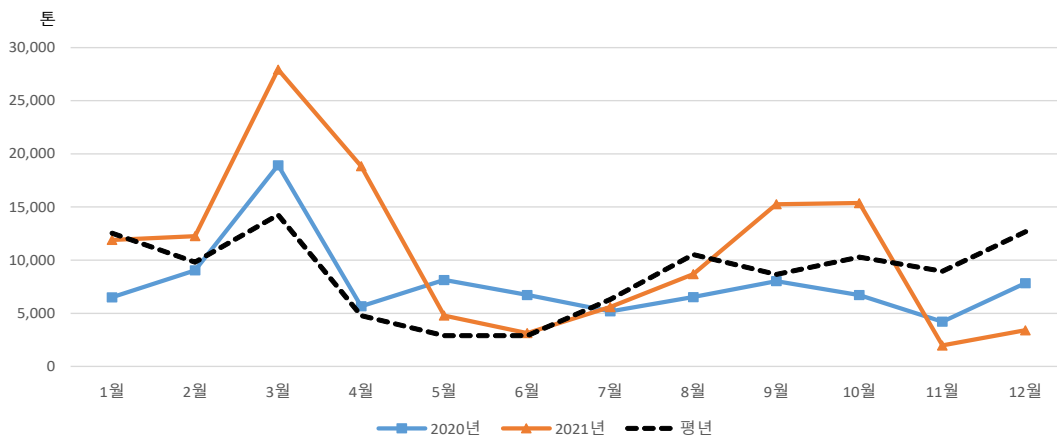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9,759	13,596	6,248	9,852	5,455	6,137	8,258	12.5	-44.1
2월	4,361	3,607	774	4,823	4,794	2,164	3,232	-54.9	-41.1
3월	947	701	217	1,264	4,512	748	1,488	-83.4	-51
4월	244	198	52	96	302	14	132	-95.4	-92.1
5월	673	586	736	884	1,012	793	802	-21.6	1.9
6월	2,340	1,278	1,572	2,212	4,389	2,979	2,486	-32.1	26.3
7월	3,162	6,488	5,325	10,738	5,161	5,495	6,641	6.5	-11
8월	12,777	16,834	5,182	10,794	6,528	8,434	9,554	29.2	-19.1
9월	9,718	11,380	7,053	6,627	8,032	15,230	9,664	89.6	77.9
10월	16,746	9,760	11,309	1,987	6,719	15,368	9,029	128.7	65.2
11월	20,191	10,888	2,708	456	4,187	1,979	4,044	-52.7	-74.3
12월	30,773	11,709	5,099	2,085	5,897	1,511	5,260	-74.4	-86.4
합계	121,691	87,024	46,274	51,817	56,989	60,851	60,591	6.8	-16.4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1~3월까지의 동해안의 어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4~5월은 금어기로 생산이 거의 없었음

- 특히 2021년부터는 정치망 어업 또한 금어기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4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줄었음
- 금어기 이후 2020년과 같이 6월 초 동해안의 수온 상승에 따른 오징어 어군 북상으로 평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7~8월에는 서해안에서의 조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전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 성어기에 접어드는 9월부터 10월까지의 동해안의 어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11월부터는 어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2월까지 가파른 생산 감소세를 보였음

〈그림 4-19〉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냉동 비중이 7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선어 25.7%, 활어 4.1% 순이었음
 - 전량 냉동 형태로 반입되는 원양산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냉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에 비해서도 15.0%p. 증가했음
 - 한편, 연근해에서 생산된 물량의 경우 선어가 54.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냉동 36.8%, 활어 8.7% 순이었음

<표 4-40>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5개년	
							비중	평균
활어	7,433	6,352	4,935	6,353	8,090	5,288	4.1	6,204
선어	91,138	50,790	18,003	23,749	33,816	33,140	25.7	31,900
냉동	43,152	76,910	58,410	42,255	51,623	90,724	70.2	63,984
합계	141,723	134,052	81,348	72,357	93,529	129,152	100.0	102,088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부류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계통출하 비중은 약 59% 수준임
- 일반해면어업은 활어, 선어, 냉동 모두 99% 이상 계통출하되고 있으나, 원양산 오징어는 냉동으로 100% 비계통출하되고 있음

<표 4-4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비중	평균
일반해면	활어	계통	7,409	6,282	4,891	6,301	8,037	5,262	99.5	6,155
		비계통	24	71	45	53	54	26	0.5	50
		소계	7,433	6,353	4,936	6,353	8,091	5,288	100.0	6,204
	선어	계통	90,984	50,298	17,888	23,492	33,147	32,849	99.1	31,535
		비계통	154	493	115	258	669	291	0.9	365
		소계	91,138	50,790	18,003	23,749	33,816	33,140	100.0	31,900
	냉동	계통	23,120	29,395	23,336	21,639	15,042	22,423	100.0	22,367
		비계통	0	486	0	75	40	0	0.0	200
		소계	23,120	29,882	23,336	21,715	15,083	22,423	100.0	22,488
	계	계통	121,513	85,975	46,115	51,432	56,226	60,534	99.5	60,056
		비계통	177	1,050	160	386	763	317	0.5	535
		소계	121,691	87,024	46,274	51,817	56,990	60,851	100.0	60,591
원양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20,032	47,028	35,074	20,540	36,540	68,301	100.0	41,497
		소계	20,032	47,028	35,074	20,540	36,540	68,301	100.0	41,497
합계	계통	121,513	85,975	46,115	51,432	56,226	60,534	46.9	60,056	
	비계통	20,209	48,078	35,234	20,926	37,303	68,618	53.1	42,032	
	합계	141,723	134,052	81,348	72,357	93,530	129,152	100.0	102,088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생산량³⁸⁾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주 생산지는 부산 및 경북지역이었음
 - 원양산을 제외하고 경북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1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지역 13.7%, 강원지역 4.8% 등의 순이었음
- 2021년 지역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강원 및 경남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생산이 감소했음. 반면, 서해안 지역은 여름철 어군 형성으로 생산이 늘었으며, 남해안 지역의 생산량 또한 증가했음
 - 강원지역 및 경남지역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8.3%, 11.6% 감소했는데, 이는 동해안 지역의 성어기인 11~12월의 어황이 급격히 부진했기 때문임
 - 반면, 충남지역 및 인천지역의 생산량은 여름철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음
 - 특히 부산지역 및 경남지역의 생산 증가폭이 컸는데, 이들 지역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51.4%, 41.3% 많았음

〈표 4-42〉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52,510	31,376	14,343	15,350	11,659	17,657	13.7	18,077
인천광역시	29	23	62	46	11	83	0.1	45
울산광역시	1,086	428	566	222	717	696	0.5	526
강원도	6,745	5,073	4,146	4,022	8,691	6,232	4.8	5,633
충청남도	1,067	2,018	834	2,334	2,903	3,855	3.0	2,389
전라북도	795	609	239	806	1,161	1,261	1.0	815
전라남도	6,208	10,307	2,434	6,906	5,208	5,170	4.0	6,005
경상북도	44,203	27,427	15,903	13,858	21,768	19,246	14.9	19,640
경상남도	8,318	8,928	7,229	7,321	4,293	6,064	4.7	6,767
제주도	730	835	519	952	578	586	0.5	694
원양산	20,032	47,028	35,074	20,540	36,540	68,301	52.8	41,497
합계	141,723	134,052	81,348	72,357	93,529	129,152	100.0	102,088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채낚기어업이 전체 생산의 28.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형트롤어업 21.3%,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17.3% 등의 순이었음

38)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오징어가 실제로 어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소매로 판매된 것을 의미함

〈표 4-43〉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근해채낚기	26,788	22,617	14,007	14,996	18,562	17,163	17,469	-7.5	-11.5
대형트롤	45,642	26,596	10,813	11,496	6,669	9,005	12,916	35.0	-55.5
동해구중형트롤	25,641	14,561	5,744	3,755	6,194	6,771	7,405	9.3	-39.4
정 치 망	2,416	2,347	1,782	3,487	5,558	3,011	3,237	-45.8	-3.4
쌍끌이대형저인망	11,578	16,997	8,122	9,688	5,290	12,419	10,503	134.8	20.2
근해자망	261	340	484	2496	5,136	5,478	2,787	6.7	214.3
연안자망	728	345	614	470	2,833	2,358	1,324	-16.8	136.3
외끌이대형저인망	1764	373	120	1,540	2,662	142	967	-94.7	-89.0
연안복합	1511	838	486	1,084	1,750	1,188	1,069	-32.1	4.8
기타	5,362	2,010	4,102	2,805	2,335	3,316	2,914	42.0	-0.2
합계	121,691	87,024	46,274	51,817	56,989	60,851	60,591	6.8	-16.4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에는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조업한 오징어 생산량이 1만 7,16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1만 2,419톤, 대형트롤어업 9,005톤, 동해구중형트롤어업 6,771톤 등의 순이었음
 - 근해채낚기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며, 정치망어업 또한 금어기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45.8% 적었음
 - 반면, 대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0% 증가했으며, 특히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음

나.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오징어 수출량은 중국의 오징어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연간 7만 톤 정도 수출되었으나 2016년부터 국내 오징어 생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량이 급감했음
 - 그러나 수출단가는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생산이 부진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음

- 이러한 기조와 달리 2021년 오징어 수출량은 2만 1,821톤으로 전년 대비 세 배 가량 증가했으며, 평년보다도 18.1% 많았음
 - 이는 전년과 달리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수출금액 또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1.6% 증가한 7,686만 달러였음
 - 2021년 수출단가는 kg당 3.52달러로 전년 대비 28.9% 하락했으나, 평년보다는 11.4% 높았음
- 오징어 수입량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매년 10만 톤 이상이 수입되었음
 - 201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살오징어 및 일렉스 오징어의 대체재로 칠레 및 페루산 대왕오징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2021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13만 4,471톤으로 평년에 비해서는 19.2% 많았음
 - 수입 금액은 3억 5,387만 달러로 수입량이 줄면서 전년 대비 24.2%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9.0% 많았음
 - 한편, 수입단가는 kg당 2.63달러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2.3%, 8.7% 하락했음

〈표 4-44〉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46,671	112,467	2.41	75,982	201,776	2.66
2017년	22,680	78,516	3.46	81,906	180,886	2.21
2018년	7,547	30,922	4.10	116,892	347,260	2.97
2019년	8,206	34,223	4.17	133,515	425,701	3.19
2020년	7,239	35,854	4.95	155,868	467,046	3.00
2021년	21,821	76,861	3.52	134,471	353,867	2.63
5개년 평균	13,499	51,275	3.80	124,530	354,952	2.85
전년 대비	201.4	114.4	-28.9	-13.7	-24.2	-12.3
평년 대비	18.1	31.6	11.4	19.2	9.0	-8.7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오징어 수출량을 제품유형별로 살펴보면, 냉동(기타) 수출량이 1만 8,504톤으로 전체 물량의 68.9%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냉동 1,986톤(9.5%), 기타 586톤(2.7%), 조미오징어 576톤(2.6%) 등이 수출되었음
- 2021년 수입량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냉동(기타)의 수입량이 20만 5,02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입 물량의 57.9%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기타 9만 2,543톤(26.2%), 조미오징어 3만 5,568톤(10.1%), 냉동 1만 7,103톤(4.8%) 등의 순이었음

<표 4-45>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7422010	0	0.0	0	0.0	0	0.0	0	0.0
냉동 ³⁹⁾	0307432010	1,986	9.1	7,289	9.5	3,975	3.0	17,103	4.8
기타(훈제)	0307494090	3	0.0	112	0.1	0	0.0	1	0.0
기타(건조)	0307493090	94	0.4	2,564	3.3	246	0.2	3,466	1.0
조제·저장처리	1605542010	71	0.3	585	0.8	7	0.0	164	0.0
조미	1605542091	576	2.6	8,924	11.6	8,254	6.1	35,568	10.1
냉동(기타)	0307432090	18,504	84.9	52,944	68.9	94,946	70.6	205,022	57.9
신선·냉장(기타)	0307422090	1	0.0	21	0.0	0	0.0	0	0.0
기타	1605542099	586	2.7	4,422	5.8	27,043	20.1	92,543	26.2
합계		21,821	100.0	76,861	100.0	134,471	100.0	353,8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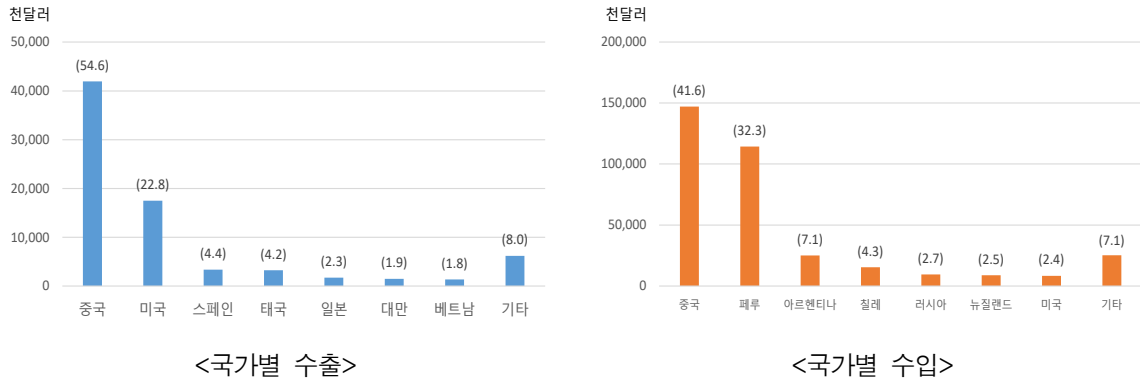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 및 수입 모든 방면에서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6개국에 오징어를 수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4.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미국(22.8%), 스페인(4.4%), 태국(4.2%), 일본(2.3%) 등으로 수출되었음
- 오징어 수입의 경우 총 27개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중국산 오징어 수입 비중이 41.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페루(32.3%), 아르헨티나(7.1%), 칠레(4.3%) 등의 순이었음

39) 냉동 오징어(음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그림 4-20〉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19년까지 오징어 총공급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이는 국내 연근해산 생산뿐만 아니라 남서대서양에서 어획되는 원양산 오징어 생산도 감소세에 있었으며,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인해 수입으로도 공급 부족분을 채우기 힘들었기 때문임

〈표 4-46〉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141,723	163,257	152,129	457,109	366,484	49,452	41,173	38.7
2017년	134,052	183,164	41,173	358,389	296,936	24,188	37,265	45.1
2018년	81,348	243,944	37,265	362,557	309,418	9,358	43,781	26.3
2019년	72,357	239,706	43,781	355,844	305,348	10,191	40,305	23.7
2020년	93,529	275,789	40,305	409,623	323,711	9,722	76,190	28.9
2021년	129,152	251,909	76,190	457,251	356,670	25,415	75,166	36.2
전년 대비	38.1	-8.7	89.0	11.6	10.2	161.4	-1.3	-
평년 대비	-10.6	24.7	-36.0	5.4	1.0	-52.8	59.6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이며, 원어환산량으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 정보와 다를 수 있음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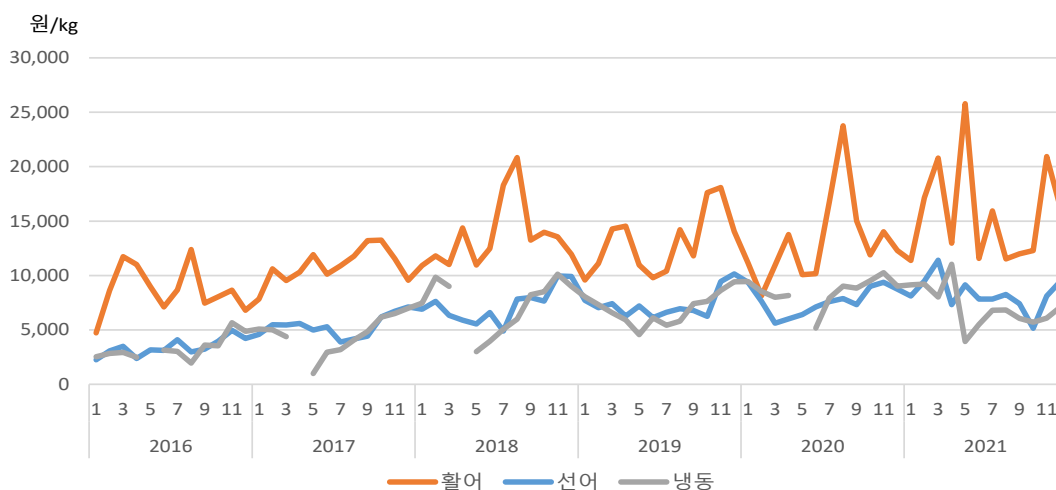
- 그러나 2021년에는 수입량은 전년보다 적었으나 원양산 생산이 크게 늘면서 전체 공급량은 전년 대비 11.6%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5.4% 많았음
- 수출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총 공급량이 늘면서 국내소비는 전년 대비 10.2% 늘었으며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통한 오징어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연근해산 오징어의 생산단가는 활어, 선어, 냉동으로 구분됨
 -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활어의 경우 가격 변동이 매우 컸으며, 3~5월 어한기 및 금어기 시기와 여름철 8월에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어는 활어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9월 주 생산어기에 초에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주 생산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하락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냉동도 선어와 마찬가지로 주 생산어기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음

<그림 4-2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한편, 오징어 생산단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활어, 선어, 냉동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에는 생산량이 크게 늘었던 10월에 생산단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11~12월에 동해안의 어황 부진 심화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단가가 급격히 상승했음
- 오징어(선어) 생산단가는 2017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 연평균 가격은 kg당 8,293원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0.2% 높았음
- 이는 연초부터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11월부터 급격한 어획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표 4-47〉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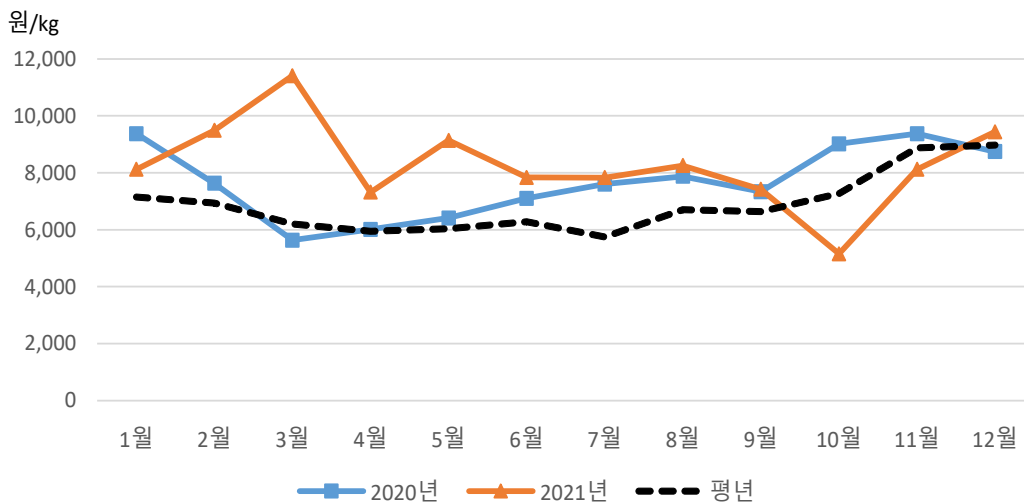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258	4,593	6,901	7,717	9,371	8,118	7,340	-13.4	13.6
2월	3,076	5,480	7,619	7,037	7,627	9,488	7,450	24.4	36.7
3월	3,506	5,446	6,342	7,405	5,629	11,407	7,246	102.6	83.8
4월	2,381	5,586	5,902	6,276	6,011	7,319	6,219	21.8	23.1
5월	3,170	4,994	5,540	7,201	6,408	9,140	6,657	42.6	51.4
6월	3,125	5,290	6,598	6,125	7,103	7,834	6,590	10.3	24.8
7월	4,102	3,889	4,893	6,613	7,602	7,827	6,165	3.0	36.1
8월	2,980	4,162	7,829	6,948	7,873	8,252	7,013	4.8	23.1
9월	3,236	4,434	7,982	6,779	7,332	7,417	6,789	1.2	11.8
10월	3,966	6,203	7,641	6,245	9,013	5,153	6,851	-42.8	-29.2
11월	4,959	6,715	9,970	9,438	9,369	8,121	8,723	-13.3	-8.5
12월	4,209	7,101	9,904	10,149	8,745	9,437	9,067	7.9	5.1
연평균	3,414	5,324	7,260	7,328	7,674	8,293	7,176	8.1	20.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오징어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월별 생산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등락을 달리했으나, 대체로 연중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 2~3월에는 어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어기인 4~5월에도 계속되었음

- 6월에는 대부분 업종의 금어기가 종료되고 동해안에서 어군이 일찍 형성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7~8월에도 서해안에서의 조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음
- 성어기인 9~10월에 동해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0월에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5.8%, 29.2% 낮은 kg당 5,153원까지 하락했으나, 11월부터 어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격은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음

<그림 4-22>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선어 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부터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나, 2020년에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에 다시 소폭 상승했음
 - 2021년 선어 오징어 도매가격은 kg당 10,670원으로 전년 대비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평년보다는 18.3% 높았음
 - 선어 오징어 도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생산이 적은 2~9월까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생산이 증가하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에는 어한기 및 금어기인 2~5월까지의 생산 물량이 적어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6월까지도 이어졌음

- 7~8월에는 여름철 오징어 생산이 늘었고, 9~10월에는 성어기 오징어 어황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음
- 그러나 11월부터 급격한 어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12월에는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표 4-48〉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410	6,975	9,456	10,718	-	11,335	9,621	-	43.7
2월	4,580	7,335	9,556	10,571	-	11,840	9,826	-	47.8
3월	4,682	7,629	9,700	10,890	-	11,973	10,048	-	45.6
4월	4,710	8,101	9,700	10,500	-	11,850	10,038	-	43.6
5월	4,852	8,214	9,955	10,500	-	11,547	10,054	-	37.8
6월	5,331	9,182	10,431	10,711	9,070	11,313	10,141	24.7	26.5
7월	5,615	9,503	10,738	10,796	9,198	10,384	10,124	12.9	13.2
8월	5,486	8,963	10,620	10,676	9,345	8,565	9,634	-8.3	-5.0
9월	5,986	9,669	10,973	10,532	11,263	8,902	10,268	-21.0	-8.1
10월	6,123	9,834	10,649	11,190	10,832	8,259	10,153	-23.8	-15.1
11월	7,122	9,699	10,954	12,719	11,857	9,943	11,034	-16.1	-5.0
12월	6,918	9,486	10,932	13,190	12,006	11,855	11,494	-1.3	12.8
연평균	5,503	8,707	10,301	10,967	10,578	10,670	10,203	0.9	18.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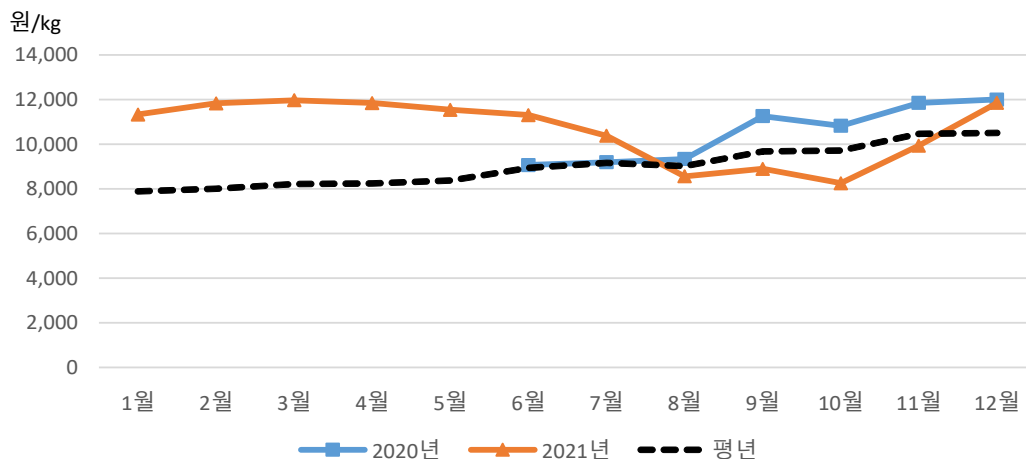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4) '-'는 공급물량이 적어 시장 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23〉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 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의 경우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20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9% 하락했음
 - 일반적으로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원양산이 주로 반입되는 2~5월까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근해산이 생산되는 6월 이후로는 선어 위주로 유통되면서 냉동 도매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2020년부터는 1~8월까지 kg당 10,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며, 2021년 9월에 kg당 9,720원으로 하락한 이후 12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음

<표 4-4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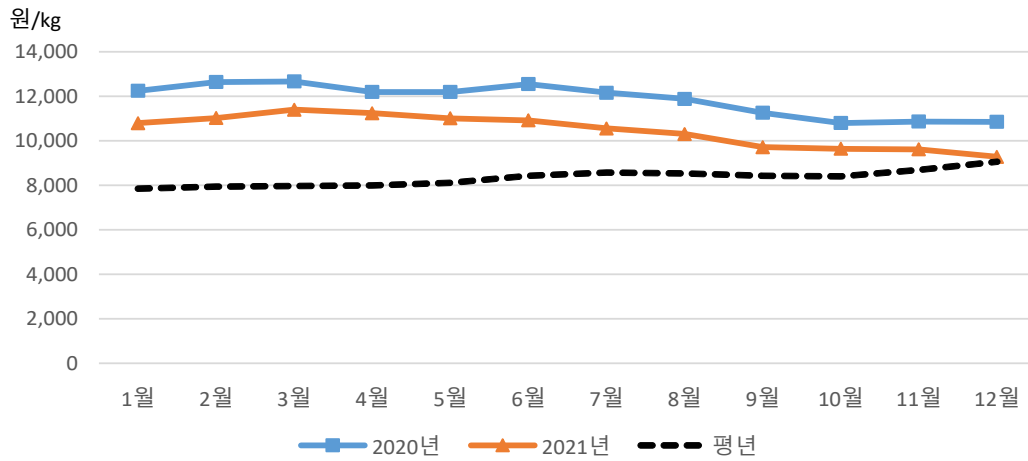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691	6,126	8,600	8,609	12,250	10,795	9,276	-11.9	37.4
2월	3,820	6,274	8,600	8,400	12,645	11,026	9,389	-12.8	38.7
3월	3,762	6,435	8,600	8,400	12,675	11,403	9,503	-10.0	43.0
4월	3,814	6,985	8,600	8,400	12,200	11,242	9,485	-7.9	40.5
5월	4,041	7,244	8,600	8,495	12,200	11,015	9,511	-9.7	35.7
6월	4,000	8,216	8,663	8,705	12,556	10,924	9,813	-13.0	29.6
7월	4,095	8,707	8,800	9,104	12,168	10,559	9,868	-13.2	23.1
8월	4,255	8,700	8,800	9,038	11,888	10,310	9,747	-13.3	20.8
9월	4,463	8,671	8,800	8,926	11,265	9,720	9,476	-13.7	15.4
10월	4,710	8,580	8,838	9,100	10,805	9,646	9,394	-10.7	14.7
11월	5,839	8,518	8,664	9,590	10,867	9,620	9,452	-11.5	10.6
12월	6,171	8,537	9,000	10,736	10,859	9,283	9,683	-14.5	2.5
연평균	4,403	7,748	8,712	8,963	11,873	10,463	9,550	-11.9	25.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냉동품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며, 원양산 반입과 겨울철 연근해 생산량에 일부 영향을 받음
 - 2021년에도 2020년과 유사한 가격 변동을 보였으며, 연중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했음

〈그림 4-24〉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선어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연근 해산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했음
- 2021년 선어 오징어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16,827원으로 전년 대비 약보합 세였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333% 높았음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900	10,440	14,417	18,427	18,937	19,430	16,330	2.6	38.5
2월	8,550	11,003	14,570	15,403	15,337	20,097	15,282	31.0	54.9
3월	9,127	11,177	14,200	15,303	14,583	20,520	15,157	40.7	59.3
4월	8,397	10,043	-	-	15,903	-	12,973	-	-
5월	8,287	10,117	-	-	-	-	10,117	-	-
6월	8,333	-	-	-	-	-	-	-	-
7월	8,260	10,340	-	-	12,310	12,803	11,818	4.0	24.3
8월	7,970	10,010	-	11,487	13,517	13,390	12,101	-0.9	24.6
9월	8,643	12,527	-	13,237	17,590	13,653	14,252	-22.4	5.0
10월	8,977	14,820	16,620	13,793	18,733	14,580	15,709	-22.2	-0.1
11월	10,127	15,893	20,067	-	19,493	15,743	17,799	-19.2	-4.0
12월	10,523	15,190	21,203	20,683	20,580	18,833	19,298	-8.5	6.8
연평균	8,770	12,033	17,313	14,780	16,920	16,827	14,621	-0.5	33.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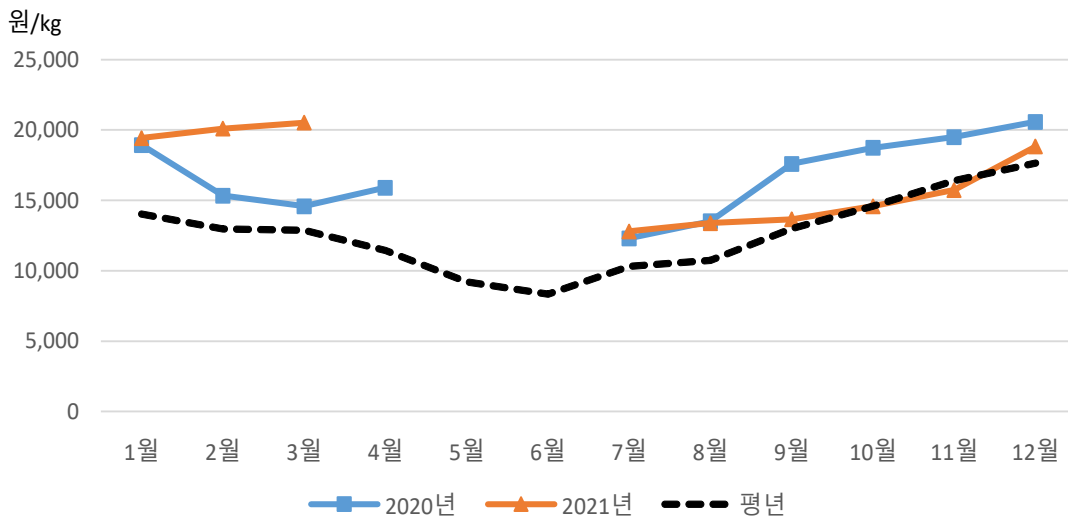
3) 오징어(선어)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4) '-'는 공급 물량이 적어 시장 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1~3월까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상승세로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4~5월에는 금어기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줄면서 가격 형성이 원활하지 않았음
- 6월에는 금어기가 종료되고 조업이 재개되었으나 300g 미만의 소형오징어가 주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 9월 이후에는 성어기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11월부터 어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12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음

<그림 4-25>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5,490원으로 전년 대비 17.0%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40.3% 높았음
- 2021년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대체로 연중 전년 및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는데, kg당 15,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음
- 특히 6월에는 kg당 15,810원으로 연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였으며, 9~10월에는 선어 위주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표 4-5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303	8,200	11,520	12,997	13,617	13,657	11,998	0.3	29.7
2월	6,303	8,907	11,940	12,763	13,523	15,007	12,428	11.0	40.4
3월	6,597	9,483	11,940	12,557	13,217	15,710	12,581	18.9	46.0
4월	6,503	9,947	12,507	12,737	13,163	15,700	12,811	19.3	43.1
5월	6,067	9,837	12,220	12,883	13,660	15,417	12,803	12.9	41.0
6월	6,820	10,713	12,197	13,073	13,093	15,810	12,977	20.8	41.4
7월	6,980	10,730	11,940	13,383	12,973	15,623	12,930	20.4	39.5
8월	6,743	10,143	12,030	12,557	12,707	15,437	12,575	21.5	42.5
9월	6,470	9,990	12,407	12,393	13,160	-	11,988	-	-
10월	6,857	10,507	12,700	12,447	12,933	-	12,147	-	-
11월	7,723	10,910	12,823	12,513	13,343	15,290	12,976	14.6	33.4
12월	8,037	11,833	12,937	13,270	13,573	14,953	13,313	10.2	25.3
연평균	6,800	10,093	12,257	12,803	13,237	15,490	12,627	17.0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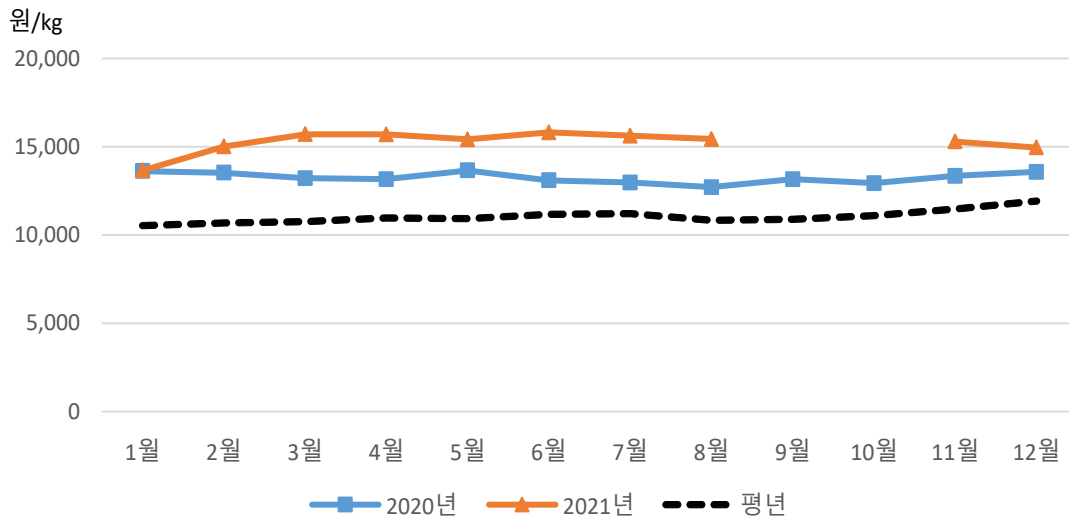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냉동)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했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26〉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오징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어획 방법(업종별) 및 부류별로 차이를 보임
- 오징어(활어)의 경우 근해채낚기어업을 통해서 대부분이 생산되며, 일부 정치망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등에서 생산되고 있음
- 활어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중간유통업자(활어차) → 소매상(횃집) → 소비자로 이어짐
 - 활어는 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선 내에 위치한 어창(어획물 보관창고)에 담겨진 상태 그대로 산지위판장에서 경매가 진행됨
 -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에서 10마리씩 별도로 담아 활어차로 운반되며, 활어차를 통해 각 지역 소비지로 유통됨
 - 속초 및 주문진 등 관광지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에서는 활오징어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활오징어 생산이 가장 많은 후포와 구룡포 등 경북 지역에서는 지역 내 소비보다는 전국 각 지역 소매점(횃집)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많음
 - 활어 상태로 위판된 물량 중 일부는 선어화 되어 스티로폼박스에 담겨져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였으나,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 이후로는 선어화 되어 유통된 비중은 거의 없었음

〈그림 4-27〉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자료: 현지 출장 자료

- 오징어(선어)의 경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어업 등을 통해서 조업되며, 조업방법에 따라서 유통에 차이가 있음
-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조업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상자에 포장되어 위판되며, 활오징어가 경매 후 판매가 되지 않은 활오징어를 선어화시켜 스티로폼상자에 포장하여 위판하기도 함
 - 스티로폼 상자당 20마리씩 포장되고 무게는 약 6~8kg 정도이며, 채낚기어업 방식으로 어획되었기 때문에 오징어의 상태와 신선도가 좋음
- 채낚기어업에서 조업된 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첫째,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짐
 - 이 유통경로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운반되어 재경매를 통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형태로 가장 전통적인 오징어 유통형태임
 -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 도·소매상으로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경로도 있음
- 둘째,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짐
 - 이 유통경로는 산지에서 산지 중도매인을 거쳐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오징어를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형태임.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모든 물량이 소비지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었으나, 대형소매업체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유통형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대형자본과 소비자들의 높은 접근성에 의한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오징어를 공급하는 산지 중도매인들은 대형소매업체로의 유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전통시장으로의 유통은 다소 긴 유통과정(소비지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을 가지는 반면, 산지 중도매인을 통한 대형소매업체로의 직접적인 유통 방식은 유통과정이 짧아 오징어의 선도 유지에 용이함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어업으로 조업된 오징어는 플라스틱상자에 담겨져 선어 상태로 위판이 이루어짐

- 플라스틱상자 당 무게는 약 50~60kg이며, 채낚기어업에서 어획된 오징어보다 상태 및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조미·건오징어로 가공되어 소비됨
- 플라스틱상자에 위판되는 오징어의 경우,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가짐
- 이 유통경로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거래 되거나 중간유통업자, 벤더 등을 거친 후 가공업체로 전달됨
- 이후 가공업체에서는 할복 및 재포장(20kg) 작업을 통해 냉동 창고에 얼리거나 조미, 훈제상품 등으로 가공하여 이를 각 지역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업체에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임
- 그 외 일부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군납이나 급식 등의 식자재용으로도 유통되고 있음

<그림 4-2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자료: 현지 출장 자료

- 오징어(냉동)의 경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으로 생산되는 양이 많음
- 대형트롤어업과 동해구중형트롤어업으로 조업된 냉동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주로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짐
-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거래 되거나 중간유통업자 등을 통해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았으며, 선어오징어와 같이 소비지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를 걸쳐 소비자로도 유통됨

- 한편, 포클랜드해역에서 조업되는 원양산 냉동오징어는 원양어선에서 조업 후 20kg/FAN으로 급속 냉동하여 운반선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 연근해산 오징어와 달리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배에서 하역 후 냉동 창고에 보관되며, 아래와 같이 주로 1차 도매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첫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2차 도매업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둘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
 - 셋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가공업체 → 소매상 → 소비자

<그림 4-29>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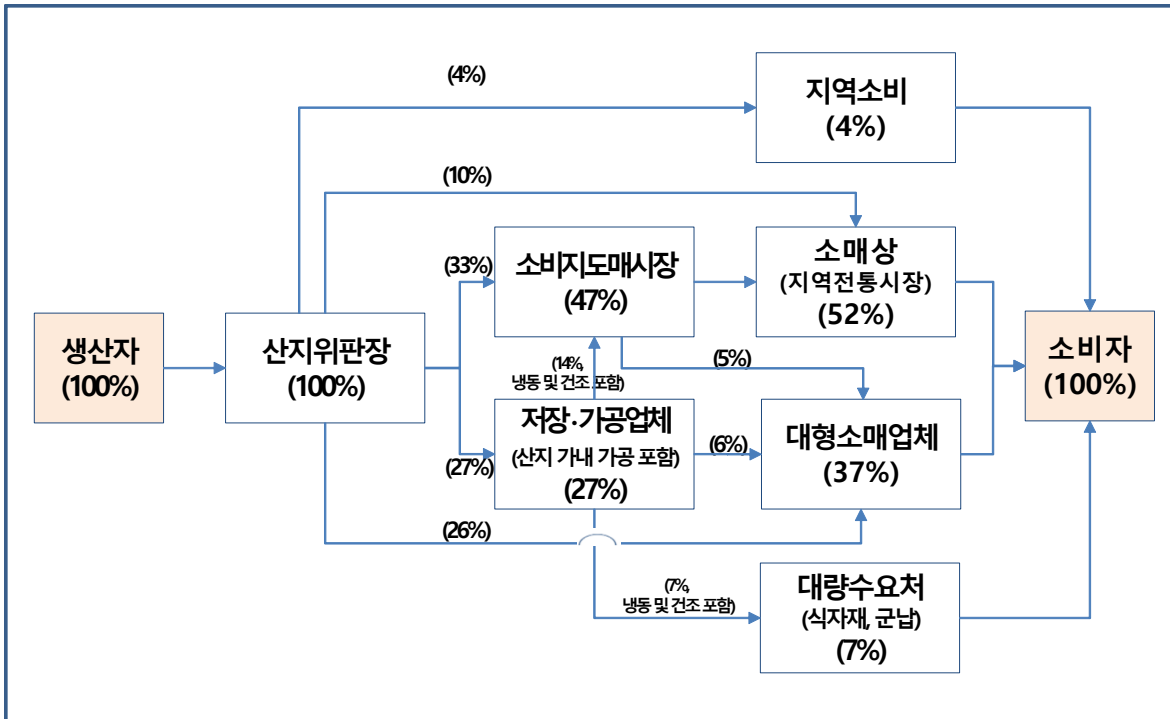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 기준 오징어 총 생산량은 12만 9,152톤으로, 연근해산은 6만 851톤, 원양산은 6만 8,301톤이 생산되었음
 - 이를 활오징어, 선어오징어, 냉동오징어로 나누어 유통경로별로 취급물량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활오징어는 거의 대부분 전국의 횡집 및 지역소비로 유통되며, 선어오징어는 소비지 도매시장, 저장·가공업체(가내 소규모 가공 포함), 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됨

- 2021년에는 활오징어의 97%가 물차를 통해 전국 횡집 및 지역 횡집으로 이동하여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됨
- '20년 활오징어 유통 비중과 동일했으나, 활오징어 위판량이 줄면서 취급량 자체는 전년보다 적었음
- 선어 오징어의 경우 조업방법에 따라서 유통에 차이가 있었음
 - 선도가 좋은 오징어의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산지중도매인이 대형소매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유통하는 경우는 26% 수준이었음
 - 전년에 크게 감소했던 소비지도매시장 및 소매상(지역전통시장)으로의 선어 유통 비중은 '21년에 소폭 증가했으며, 대형소매업체로의 유통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음

<그림 4-30>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1) 선어로 위판된 물량에 대한 유통경로임
 2) 오징어(선어)의 경우 비계통출하 비율이 0.5%에 그쳐 전체를 계통출하로 산정
 3)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한편, 그 외 시판되지 않은 오징어는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등으로 27% 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년 대비 원양산 반입량이 크게 늘면서 '21년 저장·가공업체로의 선어 유통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음
- 냉동오징어는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로 유통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형소매업체였음
 - '21년 대형소매업체로의 냉동오징어 유통 비중은 24%로 전년(64%) 대비 크게 줄었는데, 이는 손질된 식재료에 대한 선호 증가, 점포 내 수산물 손질 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대형소매업체에서 원물 자체를 취급하기보다는 가공업체에서 손질된 오징어를 취급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로의 유통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음
 - 정부비축 물량은 4,157톤으로 원양산이 포함되어있으며, 냉동 유통 물량 중 4.6%를 차지했음

〈표 4-52〉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활오징어		선어오징어		냉동오징어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산지위판장 / 원양선사	5,288	100.0	33,140	100.0	90,724	100.0
전국 횃집(소매), 지역 소비	5,129	97.0	1,226	4.0	-	-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	-	8,948	27.0	50,323	55.5
소비지 도매시장	-	-	10,903	33.0	14,396	15.8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	-	3,314	10.0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159	3.0	8,749	26.0	21,848	24.1
정부비축 구매 물량	-	-	-	-	4,157	4.6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오징어 유통비용

가.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 활오징어는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선상경매가 이루어지며, 경매 이후 어창에 있던 활오징어는 바구니를 통해 활어차로 옮겨지게 됨
 - 타 어종과 달리 선원들이 직접 어선에서 오징어를 옮기기 때문에 양륙비, 배열비 등의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수협 위판수수료만 경매금액에서 4%가 발생함
 - 중간유통업자(활어차)는 산지 중도매인에게 마리당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기본 가격인 2,000원 이하는 마리당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이후 마리당 경매가격이 1,000원 단위로 상승하게 되면 수수료도 50원씩 올라가게 됨. 그러나 수급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음
 - 활어차에 옮겨진 오징어는 전국의 횃집으로 운반되며, 마리당 가격은 시세에 따라 중간유통업자(활어차)의 의지대로 책정됨. 출하가격에서 마리당 1,000~2,000원을 가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21년 11월 중순에는 오징어 어획 부진이 매우 심화되었던 시기로, 활오징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음
 - 활오징어는 2020년 대비 어획량이 35% 줄었고, 10월 말부터 급격한 어획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간에 비해 높은 가격에 위판되었으며, 그 외 산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음
 - 중간유통업자에게서 발생하는 유류비, 물·가스비 등 직접비는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이윤은 전년보다 적었음
 - 소비자 소매상(횃집)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 및 점포세 등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나, ‘코로나 19’로 외식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이윤은 하락했음

〈표 4-53〉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928	13,920	65.7	-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372	580	2.7	위판금액의 4%
	위판가격	9,300	14,500	68.4	후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700	700	3.3	기본 마리당 가격 2,000원 이하는 150원, 천원 단위로 올라가면 50원씩 상승
	판매가격	10,000	15,200	71.7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중간유통 업자 (활어차)	유류비	300	350	1.7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물·가스비	150	200	0.9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이윤	1,150	1,050	5.0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중간유통업자 판매가격	11,600	16,800	79.2	산지가격에서 마리당 1,000~2,000원 가산하여 판매
소비지 소매상 (횃집)	간접비	2,500	2,700	12.7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이윤	1,800	1,700	8.0	-
	판매가격	15,900	21,200	100.0	조사가격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나.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 선어오징어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획되었으나, 조사 시점인 11월 중순에는 급격한 어획 부진으로 어획량이 매우 적어 산지에서 전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음
 - 산지위판장에서의 비용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산지중도매인에서의 비용은 운송비 및 상하차비가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도매시장 및 소비지중도매인에서도 상하차비가 상승했음
-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 운송비 등의 직접비와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의 소비지 도매시장 경유 경로의 가격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조업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에 담겨져서 양륙됨. 양륙하고 배열하는 과정은 모두 어선 선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짐. 따라서 오징어의 경우 선상에서 선별 및 상자 구성이 되어서 위판되기 때문에 선별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자비용은 위판가격의 4%인 위판수수료만 발생함
 - 참고로, 구룡포수협에 등록된 조합 어선은 4%, 그 외 비조합 어선은 4.5%의 위판수수료가 발생함
- 2021년 산지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노임인 운반비, 박스 작업비는 전년에 이어 생산이 부진하면서 2020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 산지중도매인의 전체 이윤이 줄어들어 따라 산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동결되었음
 - 경매가 끝난 이후 단계에서는, 중도매인 비용으로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스티로폼박스에 20마리씩 포장되어 위판되는 경우 항운노조에 의해 운반비, 상차비 등의 비용이 발생함
 - 이 중 운반비는 2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상차비는 300원으로 전년(280원/6kg 상자)보다 상승했으며, 산지 단계에서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도매인 이윤은 전년보다 하락했음
 - 한편, 어선에서 활오징어 상태로 위판되어 선어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스티로폼박스 1,300원, 얼음 300원, 작업 노임비 440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중도매인이 비용을 부담함. 그러나 전년과 같이 2021년에도 어획량이 적어 활오징어 상태로 위판되어 선어화된 경우는 없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선어오징어를 운송할 경우 상자 당 가격으로 비용이 청구되며, 2021년 운송비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상자당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상승했음

- 이와 함께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하차비, 경매수수료는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2021년 소비지 도매 단계에서의 상·하차비는 상자 당 171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음
- 경매수수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도매시장에 직접 상장 시 위탁수수료인 4%만 지불하면 되지만 수의계약 시 위탁수수료뿐만 아니라 상외수수료(4~5%)가 추가적으로 발생함

3) 소매 단계

- 소비지 중도매인은 경매로 오징어를 낙찰 받은 이후 상차비, 간접비와 함께 이윤을 고려하여 소매상으로 판매함
 - 소비지 중도매인은 낙찰 받은 가격에 소매상으로 5%가량 이윤을 붙여 판매함
 -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운반 시 운반비가 발생하지만, 가락시장에서는 운반비가 부과되지 않음
- 소비지 소매상에서의 비용은 운송비 등의 직접비와 점포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윤은 하락했음
- 산지를 비롯하여 소매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비용이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어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지유통 단계에서의 상차비를 비롯해 소비지 유통단계에서의 상차비, 간접비 등 전 유통단계에서 다수의 비용이 전년 대비 상승했음
 - 그러나 하반기 어획부진의 영향으로 어가수취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의 인상률은 산지가격 인상률보다 낮았음.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개별 유통비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통비용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4〉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808.3	13,696.3	63.7	빙장(중품)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	해당사항 없음	
	배열비	/	/	/	해당사항 없음	
	위판수수료	533.7	570.7	2.7	위판금액의 4%	
	위판가격	13,342.0	14,267.0	66.4	구룡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선별비	/	/	/	해당사항 없음	
	운반비	33.3	33.3	0.2	200원/6kg 박스	
	박스작업 (선어화)	스티로폼박스	-	-	-	1,300원/6kg 박스
		얼음	-	-	-	300원/6kg 박스
		작업 노임	-	-	-	440원/6kg 박스
	상차비	46.7	50.0	0.2	280→300원/6kg 박스	
	운송비(산지→소비지)	233.3	266.7	1.2	1,400→1,600원/6kg 박스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589.0	570.0	2.7	판매가격의 약 4% 내외	
산지출하(판매)가격	14,244.3	15,187.0	70.6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8.3	28.5	0.1	170→171원/6kg 박스	
	경매수수료	591.6	646.1	3.0	경락가격의 4%	
	경락가격	14,864.2	15,861.6	73.8	도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	-	-	가락시장 운반비 없음	
	상차비	28.3	28.5	0.1	170→171원/6kg 박스	
	간접비	922.0	931.2	4.3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857.7	831.0	3.9	약 5% 수준	
	판매가격	17,189.8	17,652.3	82.1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75.4	184.2	0.9	운송비 등	
	간접비	2,110.5	2,216.0	10.3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524.3	1,447.5	6.7	-	
	판매가격	21,000.0	21,500.0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다.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가 산지에서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의 가격형성 과정은 산지단계까지는 동일함
 - 산지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 상차단계까지의 비용은 동일하며, 이후 산지에서 유통센터로 이동하는 운송비와 중도매인 수수료는 대형소매업체에서 정해진 비용이 청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중도매인 단계에서의 상차비는 상자당 3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운송비 또한 납품가격의 3~4% 내외로 책정되었던 것과 달리 '21년에는 4~5%로 상승했음
 - 중도매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납품 가격의 3.3~3.5%를 부과하여 대형소매업체로 납품함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에서는 유통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인건비, 홍보비, 운영관리비, 소모품비 등 간접비가 발생됨
 - 대형소매업체에서는 다른 유통경로에 비해서 이윤 비중을 높게 책정함
 -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단계에서 생기는 감모비용인 할인, 폐기, 시식 등이 포함되기 때문임
- 2021년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의 경우 대형소매업체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상승하였으나 이윤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오징어 산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격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할인가가 적용되어 이윤 부문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표 4-55>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808.3	13,696.3	71.6	빙장(중품)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0.0	해당사항 없음	
	배열비	-	-	0.0	해당사항 없음	
	위판수수료	533.7	570.7	2.9	위판금액의 4%	
	위판가격	13,342.0	14,267.0	74.5	구룡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운반비	33.3	33.3	0.1	200원/6kg 박스	
	박스작업 (선어화 시 추가 비용)	스티로폼박스	-	-	-	1,300원/6kg 박스
		얼음	-	-	-	300원/6kg 박스
		작업 노임	-	-	-	300원/6kg 박스
	상차비	47.0	50.0	0.2	280→300원/6kg 박스	
	운송비(산지→유동센터)	242.0	255.0	1.2	납품가격의 3~4% 내외 → 4~5% 내외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503.0	493.0	2.5	납품가격의 3.3~3.5%	
산지출하(판매)가격	14,167.3	14,950.3	78.5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2,295.5	2,307.0	12.0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4,450.2	1,831.7	9.5	-	
	판매가격	20,913.0	19,089.0	100.0	AT KAMIS 대형소매업체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라.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1) 수입 단계

- 수입산 오징어는 20kg씩 팬(PAN)으로 냉동되어 BAG에 포장되어 냉동상태로 수입됨. 대부분의 수산물 CFR⁴⁰조건이며, 오징어도 동일하게 적용됨
 - 컨테이너 1대 당 약 24톤 물량이 선적 가능한데 20kg BAG 1,100~1,200개가 선적되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1대 당 24톤 전량을 채워서 수입함
 - 오징어 수입원가는 2020년 3,607원/kg에서 2021년 3,371원/kg으로 7% 하락했는데, 이는 현지 조업량이 늘면서 수입 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임
 - 수입 관세율은 22%(조정관세 ; 기본관세 20%)로 전년과 같았음

40) CFR(Cost and Freight)이란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

- 수입업자 비용의 경우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부두 하역비는 '20년(324원/IBAG)에 비해 약 13% 상승한 367원/IBAG이었으며, 통관 이후 부두에서 냉동 창고까지의 육상운반비는 268원/IBAG으로 전년(236원/IBAG)보다 높았음
- 그 외 상·하차비는 163원/IBAG으로 전년 144원/IBAG보다 6% 상승했으며, 창고입·출고비 또한 전년(191원/IBAG) 대비 높은 202원/IBAG이었음
- 창고보관비(냉장료)는 1일당 11원으로 전년 9.9원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창고보관료의 경우 수입업자의 재량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가격의 3%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IBAG당 2,700~3,000원 수준임
-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소비지도매시장까지 운송비는 전년 대비 약 5% 상승한 IBAG 당 1,600~1,800원이 발생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2021년 11월 기준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 1BAG의 경락가격은 90,000~95,000원으로 '20년에 비해 하락했음
 - 소비지도매시장 하차비는 1BAG당 326원으로 '20년(324원/IBAG)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경매수수료는 4%가 발생함.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는 소비지 중도매인에 의해 약 5% 이윤이 부과되어 각 소매상으로 판매됨
- 현지 조업량 증가로 오징어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동기간 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금액 또한 전년보다 5% 낮은 11,280원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운송비 등 직접비와 점포 유지관리비 등의 간접비는 '20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지 중도매인 및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6〉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수입업자	수입원가	3,607.1	3,371.0	29.9	24톤 컨테이너 1대 20kg BAG 1,200개 선적 1 BAG 기준 67,000원
	수입관세	1,019.5	952.7	8.4	냉동오징어 관세 22%
	수입가격	4,626.6	4,323.7	38.3	-
	부두하역비	16.2	18.4	0.2	1 BAG 기준 324→367원
	육상운반비(부두→창고)	11.8	13.4	0.1	1 BAG 기준 225→268원
	하차비	7.2	7.7	0.1	1 BAG 기준 144→163원
	창고 입고비	9.5	10.1	0.1	1 BAG 기준 191→202원
	창고 출고비	9.5	10.1	0.1	1 BAG 기준 191→202원
	냉장료	14.9	16.5	0.1	1일 9.9~11원(부가세 포함) 1개월(30일) 보관 기준
	상차비	7.2	7.7	0.1	1 BAG 기준 144→163원
	운송비(부산→서울)	84.0	88.0	0.8	1 BAG 당 1,600~1,700원 → 1,600~1,800원
	수입업자 이윤	160.0	150.0	1.3	1BAG 당 3% 내외
	수입업자 판매가격	4,946.9	4,645.6	41.2	수입업자 조사가격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16.2	16.3	0.1	1 BAG 기준 324→326원
	경매수수료	222.8	209.5	1.9	경락가격의 3%
	경락가격	5,185.9	4,871.4	43.2	도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자 중도매인	운반비	-	-	-	가락시장은 운반비 없음
	상차비	16.2	16.3	0.1	1 BAG 기준 324→326원
	간접비	1,026.8	972.3	8.6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670.0	631.0	5.6	약 5% 수준
	소비자 중도매인 판매가격	6,898.9	6,491.0	57.5	조사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131.0	130.0	1.2	운송비 등
	간접비	1,800.0	1,900.0	16.8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이윤	3,102.1	2,759.0	24.5	-
	소매상 판매가격	11,932.0	11,280.0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1년 갈치 총 생산량은 63,056톤이며, 전량 일반해면어업 생산으로 원양생산은 없었음
 - 최근 10년간 갈치 생산량은 3년에 한 번 정도 호어황을 보이며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21년에는 생산량이 많았던 전년(65,719톤)에 이어 생산량이 6만톤 이상을 기록하였음
- 2021년 갈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28.4% 많았음
 - 갈치는 겨울철에는 동중국해(월동장) 주변으로 회유하였다가, 수온이 상승하는 4, 5월부터 북상회유를 시작함
 - 그러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연초 제주도 주변수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음
 - 이에 따라 동중국해로 회유하지 않고 제주도 주변에서 어장이 형성되어 갈치 어황이 좋았음
 - 이후에도 갈치 어획은 연중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다만 11월부터 전년에 비해 기상 및 어황 여건이 다소 나빠져 연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음
-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2021년 갈치 생산금액도 평년에 비해 23.7% 증가했음
 - 전체 생산금액은 4,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3.7% 증가했음
 - 갈치 생산금액은 모두 일반해면어업이었음

<표 4-57>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112,166	103,736	92.5	8,430	7.5
1995년	102,019	94,596	92.7	7,423	7.3
2000년	93,185	81,050	87.0	12,135	13.0
2005년	62,151	60,086	96.7	2,065	3.3
2010년	59,822	59,242	99.0	580	1.0
2016년	32,359	32,331	99.9	28	0.1
2017년	54,521	54,481	99.9	40	0.1
2018년	49,514	49,450	99.9	64	0.1
2019년	43,516	43,479	99.9	37	0.1
2020년	65,724	65,719	100	5	0.0
2021년	63,056	63,056	100.0	0	0.0
5개년 평균	55,266	55,237	99.9	29	0.1
전년 대비	-4.1	-4.1	-	-100.0	-
평년 대비	28.4	28.4	-	-100.0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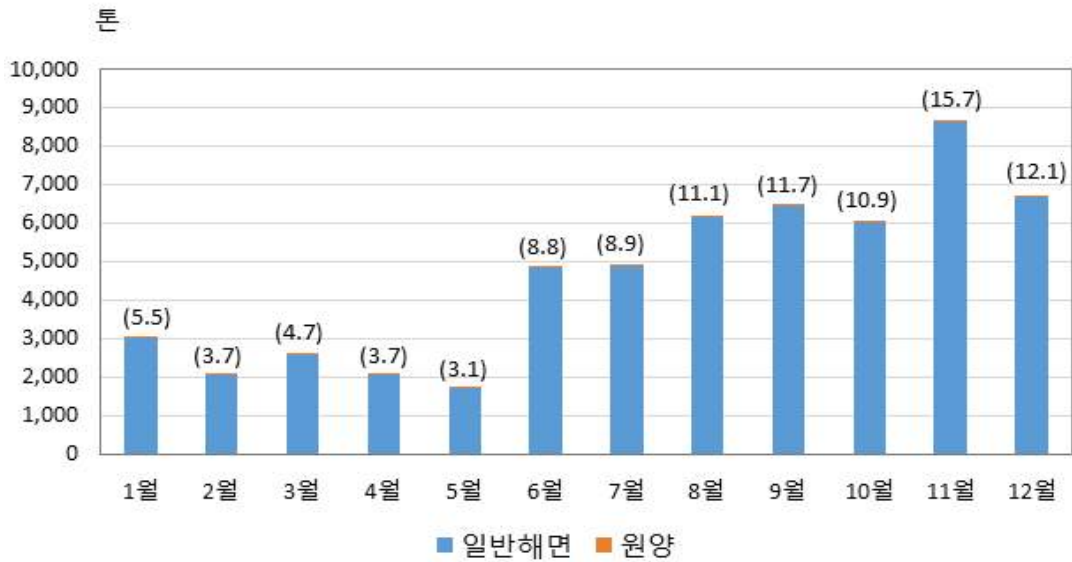
<표 4-58>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126,755	123,689	97.6	3,066	2.4
1995년	223,500	220,684	98.7	2,816	1.3
2000년	217,077	203,707	93.8	13,370	6.2
2005년	226,950	225,004	99.1	1,946	0.9
2010년	301,922	300,903	99.7	1,019	0.3
2016년	274,253	274,201	100	53	0
2017년	438,835	438,739	100	96	0
2018년	352,148	351,995	100	153	0
2019년	302,689	302,600	100	89	0
2020년	466,037	466,031	100	6	0
2021년	453,686	453,686	100	0	0.0
5개년 평균	402,679	402,610	100.0	69	0.0
전년 대비	-2.7	-2.6	-	-100.0	-
평년 대비	23.7	23.7	-	-100.0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31〉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는 월별 비중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59〉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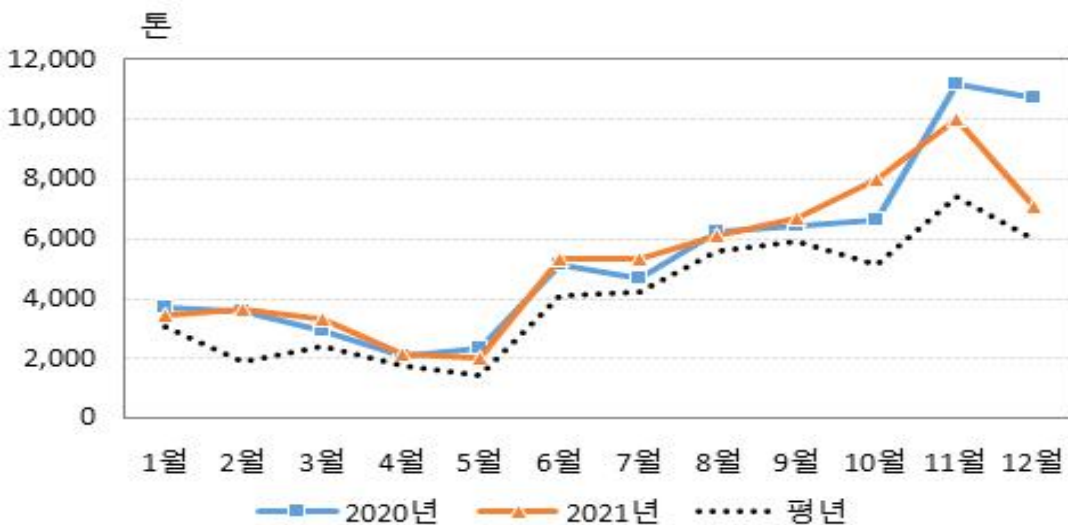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177	3,576	2,017	2,920	3,111	3,727	3,431	3,041	-7.9
2월	1,957	2,872	915	1,725	499	3,572	3,642	2,071	2.0
3월	1,754	2,575	1,931	3,173	1,562	2,944	3,319	2,586	12.7
4월	1,851	694	2,578	2,288	1,180	2,098	2,160	2,061	3.0
5월	208	653	2,099	1,438	808	2,343	1,995	1,737	-14.9
6월	503	1,691	5,623	5,108	3,057	5,136	5,341	4,853	4.0
7월	2,255	1,991	5,983	4,762	3,765	4,720	5,352	4,916	13.4
8월	8,811	3,224	9,505	4,336	4,605	6,259	6,105	6,162	-2.5
9월	7,065	4,009	8,368	6,649	4,197	6,411	6,674	6,460	4.1
10월	5,048	3,716	3,786	5,879	5,855	6,610	7,988	6,024	20.8
11월	5,390	3,800	7,274	6,096	8,695	11,201	9,986	8,650	-10.8
12월	4,066	3,558	4,442	5,140	6,182	10,703	7,063	6,706	-34.0
합계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55,266	-4.1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월별 생산량을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갈치는 연중 어획되는 품목이지만,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주 어획 시기임
 - 최근 5년 평균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1월이 전체 물량의 15.7%로 어획량이 가장 많았음
 - 과거에는 여름철 생산이 많았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11~12월 비중이 높아졌음
- 2021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년 월별 생산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생산량이 많았던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7월과 10월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음
 - 그러나 11월부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적은 양이 어획되었음

<그림 4-32> 2021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부류별로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선어 어획량은 전체 생산량의 80.1%인 50,529톤이었으며, 냉동은 12,527톤으로 전체의 19.9%였음
 - 전년에 비해 냉동 비중이 2.4%p 감소했음. 이는 전년부터 이어진 어황호조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냉동품 재고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근해연승 어선들이 냉동보다 선어 생산을 늘렸기 때문임

〈표 4-60〉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0	0	0	0	1	0	0	0
선어	28,063	47,373	41,607	35,445	51,057	50,529	80.1	45,202
냉동	4,296	7,148	7,907	8,071	14,666	12,527	19.9	10,064
합계	32,359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100	55,266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연근해산은 97.3%가 계통으로 출하되었으나 원양산은 전량 비계통으로 출하되었음

〈표 4-61〉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일반 해면	활어	계통	0	0	0	0	0	0	0	
		비계통	0	0	0	0	1	0	0	
		소계	0	0	0	0	1	0	0	
	선어	계통	27,924	47,108	40,771	34,248	49,678	48,846	96.7	44,130
		비계통	140	265	835	1,197	1,379	1,683	3.3	1,072
		소계	28,064	47,373	41,606	35,445	51,057	50,529	100	45,202
	냉동	계통	3,975	6,750	7,844	8,034	14,661	12,527	100.0	9,963
		비계통	292	358	0	0	0	0	0.0	72
		소계	4,267	7,108	7,844	8,034	14,661	12,527	100	10,035
	계	계통	31,899	53,858	48,615	42,282	64,339	61,373	97.3	54,093
		비계통	432	623	835	1,197	1,380	1,683	2.7	1,144
		소계	32,331	54,481	49,450	43,479	65,719	63,056	100	55,237
원양	냉동	계통	0	0	0	0	0	0	0	
		비계통	28	40	64	37	5	0	0	29
		소계	28	40	64	37	5	0	0	29
합계	계통	31,899	53,858	48,615	42,282	64,339	61,373	97.3	54,093	
	비계통	460	663	899	1,234	1,385	1,683	2.7	1,173	
	합계	32,359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100	55,266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양륙량⁴¹⁾을 살펴보면, 제주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순이었음
 - 제주도가 25,852톤(46.8%)으로 지역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1,268톤(20.4%), 전라남도 8,662톤(15.7%), 경상남도 7,105톤(12.9%) 등의 순이었음
- 그러나 2021년에는 최근 5년 평균과는 달리 제주도에 이어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부산광역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음
 - 제주도가 전체 양륙량의 44.1%인 27,857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20.1%인 12,674톤이었음
 - 다음은 부산광역시로 19.9%인 12,566톤이 양륙되었으며, 경상남도로는 전체 물량의 10.9%인 6,904톤이 양륙되었음

<표 4-62>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8,424	11,840	7,940	8,958	15,035	12,566	19.9	11,268
인천광역시	192	260	612	360	626	878	1.4	547
울산광역시	28	103	9	22	3	24	0.0	32
강원도	1	1	0	0	0	1	0.0	0
충청남도	281	265	763	442	455	746	1.2	534
전라북도	1,195	1,569	1,333	759	925	1242	2.0	1,166
전라남도	3,806	5,493	8,378	7,366	9,398	12,674	20.1	8,662
경상북도	351	50	4	110	24	164	0.3	70
경상남도	4,124	8,639	5,536	4,182	10,264	6,904	10.9	7,105
제주도	13,929	26,261	24,875	21,280	28,989	27,857	44.2	25,852
원양산	28	40	64	37	5	0	0.0	29
합계	32,359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100.0	55,266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1)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인데, 실제 갈치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비계통으로 판매된 것임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갈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연승어업이 전체 생산량의 25.4%로 가장 많았으며, 연안복합어업(13.8%), 근해안강망어업(13.4%), 대형선망어업(9.3%) 등의 순이었음
- 2021년에도 근해연승어업의 생산량이 25.4%인 16,041톤이 어획되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는 최근 5년과는 달리 근해안강망이 15.8%(9,967톤)를 차지하며 연안복합(12.1%, 7,638톤)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 한편 전년에 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대형트롤어업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정도로 감소했음
 - 이처럼 전년과 달리 부산,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근해어업 생산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라남도지역보다 경상남도지역으로의 양륙량이 감소한 것임

〈표 4-63〉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대형트롤	713	1033	1,438	5,312	8,454	4,142	6.6	4,076
연안복합	4,487	9,684	7,025	6,116	7,632	7,638	12.1	7,619
근해안강망	4,301	6,199	7,739	5,581	7,522	9,967	15.8	7,40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993	2504	2,153	1,944	6,547	3,098	4.9	3,249
근해채낚기	2,741	4,931	3,830	3,235	4,557	4,018	6.4	4,114
쌍끌이대형저인망	3,304	4,343	3,008	1,897	4,070	4,407	7.0	3,545
대형선망	6,435	8,373	4,969	2,426	3,603	6,252	9.9	5,125
근해자망	1,219	1,575	2,130	1,299	2,888	3,522	5.6	2,283
일반해면어업기타	1,569	2,646	3,266	4,222	4,710	3,971	6.3	3,763
원양어업(트롤)	28	40	64	37	5	0	0.0	29
합계	32,359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100	55,266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1년 갈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갈치 수출량은 2,978톤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수출금액도 16.2% 증

가한 844만 달러였음

- 갈치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출 단가는 전년보다 0.19달러 상승한 kg당 3.02달러였음
- 2021년 갈치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전년에 이은 연근해산 생산 호조 및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
 - 2021년 갈치 수입량은 15,522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9.6%, 26.0% 감소했음
 - 수입금액도 6,0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4%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5.4% 적었음. 수입단가는 전년과 비슷한 3.88달러였음
 - 이는 2020년 어황호조가 2021년에도 이어져 냉동갈치의 재고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갈치 소비가 감소한데 따른 것임

<표 4-64>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1,533	4,726	3.08	28,731	142,314	4.95
2017년	871	3,215	3.69	23,432	114,014	4.87
2018년	1,755	5,438	3.1	17,722	75,155	4.24
2019년	3,739	10,649	2.85	15,659	59,505	3.80
2020년	2,793	7,265	2.60	19,302	73,858	3.83
2021년	2,978	8,442	2.83	15,522	60,287	3.88
5개년 평균	2,427	7,002	3.02	18,327	76,564	4.12
전년 대비	6.6	16.2	9.0	-19.6	-18.4	1.5
평년 대비	39.3	34.9	-7.5	-26.0	-35.2	-10.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품유형별로 갈치 수출입을 살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냉동품 중심으로 이뤄졌음
 - 2021년 갈치 수출에서 냉동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99.2%, 금액은 96.8%였음
 - 수입의 경우는 중량 기준 97.8%, 금액으로는 95.0%를 냉동품이 차지했음

〈표 4-65〉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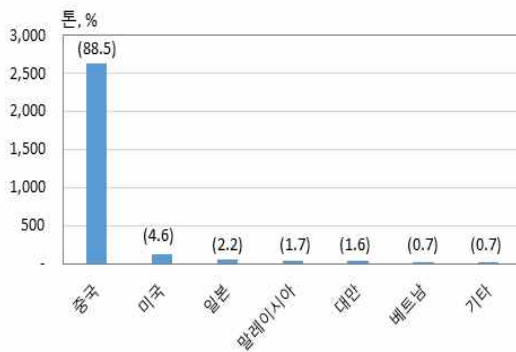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892000	2	0.1	15	0.2	337	2.2	3,013	5.0
냉동	0303892000	2,954	99.2	8,169	96.8	15,185	97.8	57,274	95.0
염장·염수장	0305693000	22	0.7	258	3.1	0	0.0	0	0.0
합계		2,978	100.0	8,442	100.0	15,522	100.0	60,2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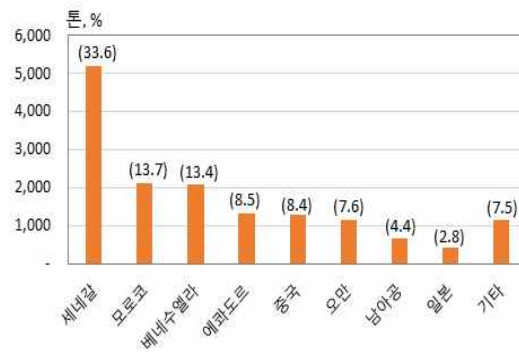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갈치는 중국(88.5%)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다음으로 미국(4.6%), 일본(2.2%), 말레이시아(1.7%) 등으로 수출되었음
- 갈치 수입국을 살펴보면, 세네갈에서 가장 많은 33.6%가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모로코(13.7%), 베네수엘라(13.4%), 에콰도르(8.5%), 중국(8.4%) 등의 순이었음

〈그림 4-33〉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0년 기준)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2021년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2.9% 감소한 92,739톤이었음
 - 2018년과 2019년에 감소세를 보였던 갈치 생산량은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6만 톤 이상을 보였음

- 2021년에는 전년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이입재고는 늘었으나, 국내 생산 및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총공급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92,739톤이었음
- 수요의 경우 수출과 이월재고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 소비량은 전년 대비 6.8% 감소했음. 그러나 평년에 비해서는 7.6% 많았음
- 국내 생산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소비 역시 감소함에 따라 갈치 연간 자급률은 86.1%로 전년에 비해 2.4%p 증가했음

<표 4-66>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32,359	28,731	14,591	75,681	54,990	1,539	19,152	58.8
2017년	54,521	23,432	19,152	97,105	76,540	873	19,692	71.2
2018년	49,514	17,722	19,692	86,928	67,841	1,758	17,329	73.0
2019년	43,516	15,659	17,329	76,504	62,283	3,743	10,478	69.9
2020년	65,724	19,302	10,478	95,504	78,545	2,798	14,161	83.7
2021년	63,056	15,522	14,161	92,739	73,226	2,981	16,532	86.1
5년 평균	55,266	18,327	16,162	89,756	71,687	2,431	15,638	77.1
전년대비	-4.1	-19.6	35.1	-2.9	-6.8	6.5	16.7	-
평년대비	28.4	-26.0	-12.8	7.4	7.6	39.2	2.3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재고량 동향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갈치 생산단가는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연근해 어획 갈치는 선어와 냉동으로 구분되어 위판되며, kg당 생산단가⁴²⁾는 냉동갈치가 선어에 비해 대체로 높게⁴³⁾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선어의 경우, 자망어업과 같은 망어업 및 저인망어업, 트롤어업과 같은 인망어업에서 생산되는 갈치를 비롯해 어린 갈치인 풀치의 가격이 근해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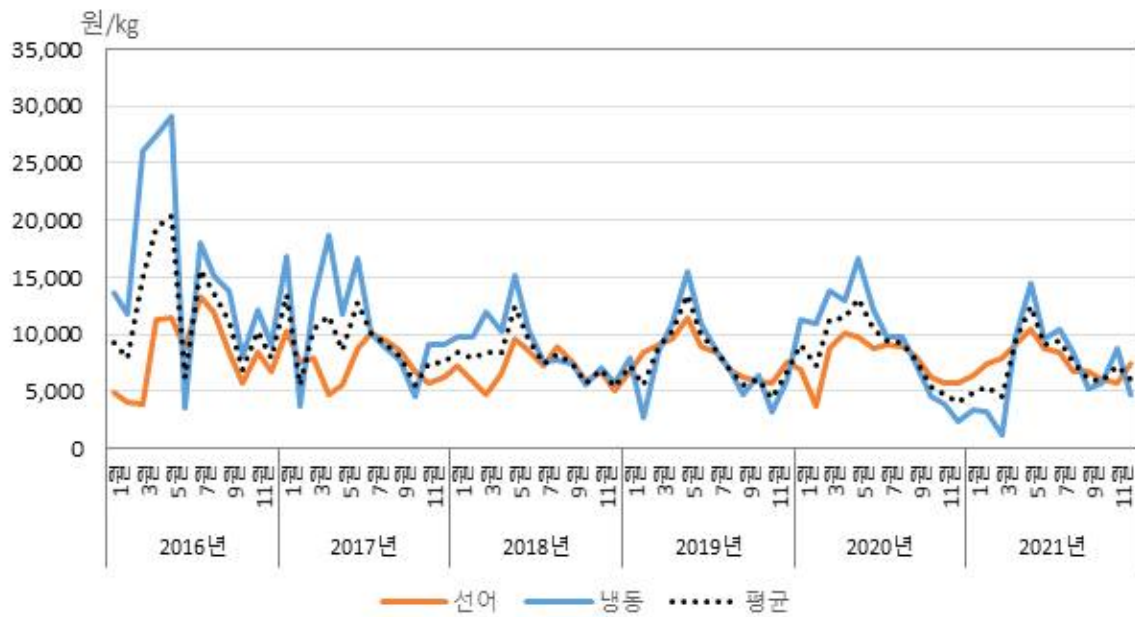
42) 생산단가는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구함

43) 동일 어법에서 생산되는 같은 크기의 가격을 비교하면 냉장갈치가 냉동갈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됨

어업으로 주로 생산되는 냉동갈치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임

- 그러나 2021년 연초에는 냉동의 생산단가가 매우 낮게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선어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연초 생산된 냉동갈치의 대부분이 대형트롤로 어획된 품질이 낮은 제품이었기 때문임

〈그림 4-34〉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통해 도출한 갈치 선어의 2021년 연평균 갈치 생산단가는 kg당 7,610원 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4-67〉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873	10,323	7,179	6,771	6,861	6,479	7,523	-5.6	-10.0
2월	4,086	7,571	5,948	8,476	3,706	7,461	6,632	101.3	25.2
3월	3,873	7,926	4,751	9,118	8,826	7,940	7,712	-10.0	15.1
4월	11,358	4,659	6,585	9,576	10,043	9,066	7,986	-9.7	7.4
5월	11,522	5,612	9,619	11,535	9,777	10,508	9,410	7.5	9.3
6월	8,774	8,776	8,604	8,946	8,768	8,717	8,762	-0.6	-0.6
7월	13,361	10,036	7,254	8,500	9,094	8,350	8,647	-8.2	-13.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8월	11,958	9,417	8,871	6,894	8,918	6,812	8,182	-23.6	-26.1
9월	8,485	8,520	7,529	6,300	8,150	6,825	7,465	-16.2	-12.5
10월	5,672	6,760	5,897	5,937	6,249	6,142	6,197	-1.7	0.6
11월	8,376	5,683	6,685	5,731	5,701	5,661	5,892	-0.7	-12.0
12월	6,728	6,300	5,110	7,647	5,761	7,353	6,434	27.6	16.6
연평균	8,256	7,632	7,003	7,953	7,654	7,610	7,570	-0.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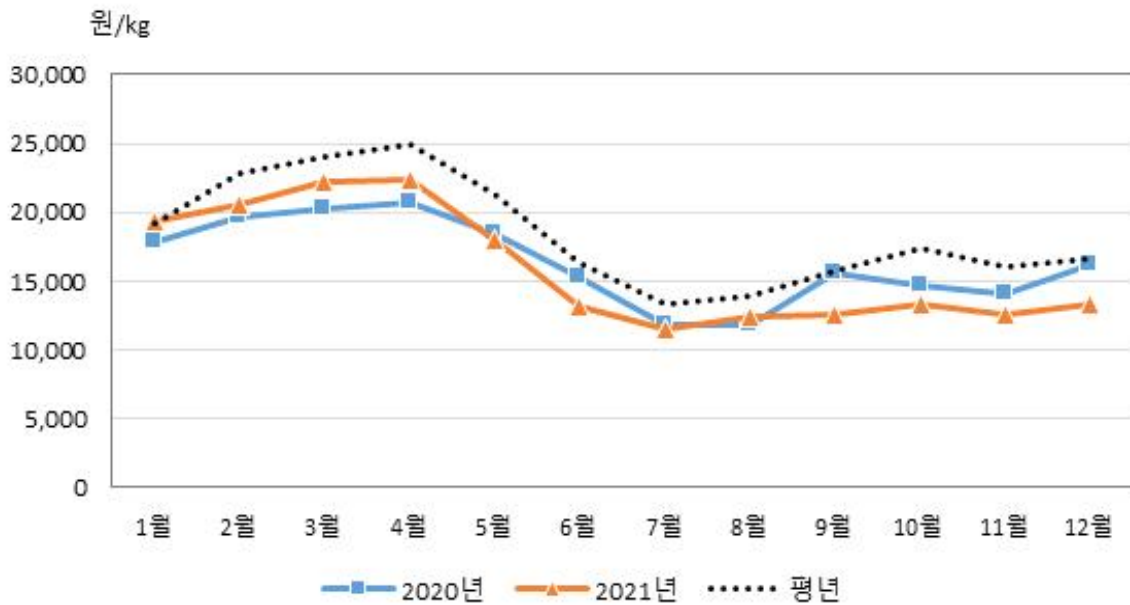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갈치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021년 수치는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제주 서귀포수협이 선어 갈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5,929원으로 앞서 살펴본 갈치(선어) 생산단가와 비슷하게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음
-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산지가격은 5월부터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음

<그림 4-35>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신선·냉장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이며,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표 4-68〉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3,278	23,864	17,382	13,784	17,881	19,323	18,447	8.1	0.4
2월	24,757	27,324	19,465		19,603	20,554	21,736	4.9	-9.8
3월	27,275	31,054	22,292	19,067	20,201	22,273	22,977	10.3	-7.1
4월	30,991	32,965	19,758	20,266	20,709	22,306	23,201	7.7	-10.6
5월	27,341	23,365	17,917	19,213	18,392	17,951	19,367	-2.4	-15.5
6월	24,967	15,132	13,173	13,145	15,294	13,153	13,979	-14.0	-19.5
7월	17,729	10,283	14,933	11,995	11,809	11,440	12,092	-3.1	-14.3
8월	22,826	13,245	10,329	11,483	11,814	12,444	11,863	5.3	-10.7
9월	23,953	16,271	10,248	12,669	15,654	12,513	13,471	-20.1	-20.6
10월	25,765	18,802	14,075	13,354	14,703	13,362	14,859	-9.1	-22.9
11월	22,815	15,934	12,751	14,579	14,045	12,581	13,978	-10.4	-21.5
12월	23,750	16,498	12,140	14,685	16,246	13,247	14,563	-18.5	-20.5
연평균	24,620	20,395	15,372	14,931	16,363	15,929	16,711	-2.7	-13.1

주: 1) 신선·냉장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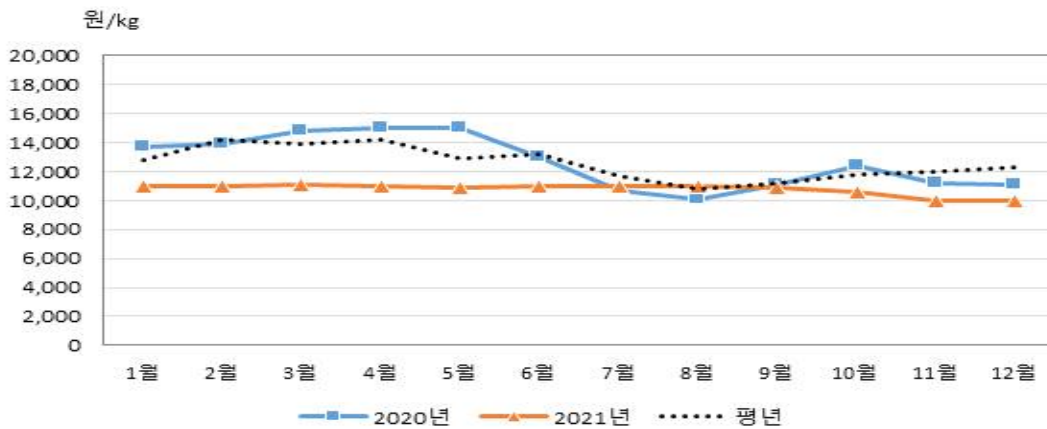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 2021년 서귀포수협 냉동 갈치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0,802원으로 작년보다 14.7% 낮았음

- 냉동 갈치 재고 증가로 인해 갈치 냉동의 산지가격이 전년에 비해 낮았음

〈그림 4-36〉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1) 냉동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표 4-69〉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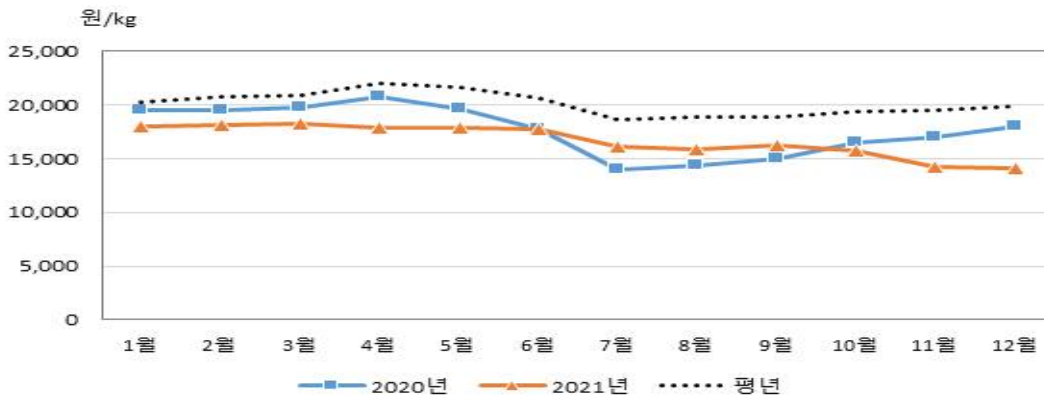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324	16,830	8,689	8,234	13,704	11,009	11,693	-19.7	-13.7
2월	16,839	16,654	9,325	-	13,920	11,013	12,728	-20.9	-22.4
3월	17,724	17,436	9,679	9,775	14,820	11,122	12,566	-25.0	-19.9
4월	19,401	17,444	9,633	9,604	15,000	11,018	12,540	-26.5	-22.5
5월	-	16,457	9,865	10,347	14,994	10,939	12,520	-27.0	-15.3
6월	19,653	16,784	8,221	8,123	13,002	11,000	11,426	-15.4	-16.4
7월	18,891	12,696	7,762	8,489	10,699	11,000	10,129	2.8	-6.0
8월	18,372	9,641	7,632	8,474	10,067	10,996	9,362	9.2	1.5
9월	18,404	9,316	8,045	9,306	11,086	10,913	9,733	-1.6	-2.8
10월	17,560	10,040	8,362	10,427	12,350	10,616	10,359	-14.0	-9.6
11월	17,774	9,726	8,528	12,954	11,150	10,000	10,472	-10.3	-16.8
12월	18,223	9,340	8,552	14,264	11,100	10,006	10,652	-9.9	-18.6
연평균	18,106	13,530	8,691	10,000	12,658	10,802	11,182	-14.7	-14.2

주: 1) 냉동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2) 도매가격

- 2021년 냉장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6,687원으로 전년 대비 5.5%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7.1% 낮았음
- 냉장 갈치의 도매가격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망어업에서 생산된 갈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4-37〉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0〉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8,460	21,020	22,182	19,991	19,570	18,019	20,156	-7.9	-11.0
2월	18,178	22,280	22,767	20,847	19,500	18,091	20,697	-7.2	-12.7
3월	18,191	22,882	22,600	21,000	19,709	18,285	20,895	-7.2	-12.4
4월	19,230	25,850	22,600	21,636	20,781	17,915	21,756	-13.8	-18.6
5월	19,210	25,126	22,400	21,800	19,645	17,920	21,378	-8.8	-17.2
6월	18,876	22,733	21,737	21,800	17,809	17,738	20,363	-0.4	-13.9
7월	19,057	17,510	21,400	21,470	13,978	16,065	18,085	14.9	-14.0
8월	20,045	19,550	20,418	20,333	14,338	15,828	18,093	10.4	-16.4
9월	19,105	20,238	19,882	20,295	15,024	16,195	18,327	7.8	-14.4
10월	21,200	20,750	19,343	19,448	16,454	15,738	18,347	-4.4	-19.0
11월	22,391	20,309	19,200	18,781	17,067	14,295	17,930	-16.2	-26.9
12월	21,800	20,968	19,579	19,100	18,067	14,160	18,375	-21.6	-28.9
연평균	19,645	21,601	21,176	20,542	17,662	16,687	19,534	-5.5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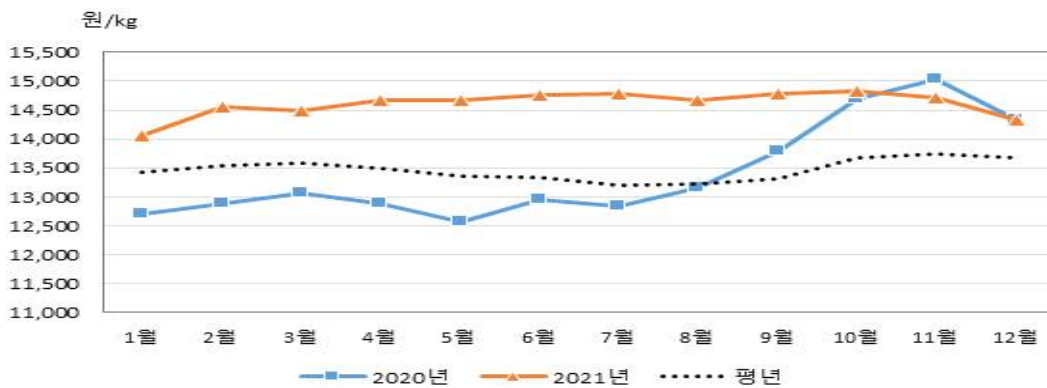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냉동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4,613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0%, 8.5% 상승했음
- 냉장 갈치와 달리 냉동 갈치의 경우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했음
- 냉동 갈치의 경우 산지가격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21년의 경우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은 높은 수준이 연중 유지되었음

〈그림 4-38〉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1〉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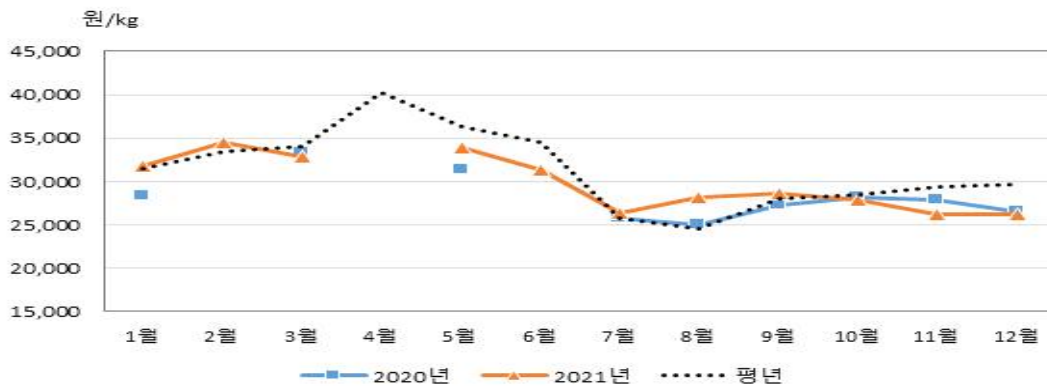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1,800	14,720	14,909	13,000	12,710	14,070	13,882	10.7	4.8
2월	11,800	14,800	15,200	13,000	12,885	14,548	14,087	12.9	7.5
3월	11,873	14,800	15,200	13,000	13,057	14,490	14,109	11.0	6.7
4월	12,000	14,800	15,200	12,627	12,880	14,680	14,037	14.0	8.7
5월	11,990	14,800	14,920	12,524	12,568	14,680	13,898	16.8	9.9
6월	11,800	14,800	14,500	12,600	12,947	14,762	13,922	14.0	10.7
7월	12,162	13,905	14,500	12,600	12,838	14,789	13,726	15.2	12.0
8월	12,600	14,000	14,064	12,276	13,160	14,680	13,636	11.6	11.0
9월	12,811	14,286	13,406	12,242	13,794	14,791	13,704	7.2	11.1
10월	13,100	14,600	13,200	12,781	14,697	14,820	14,020	0.8	8.4
11월	14,000	14,445	12,818	12,362	15,040	14,725	13,878	-2.1	7.2
12월	14,371	14,400	12,832	12,487	14,321	14,325	13,673	0.0	4.7
연평균	12,526	14,530	14,229	12,625	13,408	14,613	13,881	9.0	8.5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1년 냉장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29,805원으로 전년 대비 5.9% 상승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9% 낮았음

〈그림 4-39〉 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2〉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5,504	41,216	33,272	29,156	28,300	31,792	32,747	12.3	1.0
2월	22,712	45,748	35,128	30,032	-	34,512	36,355	-	3.3
3월	19,920	46,548	36,276	-	33,244	32,904	37,243	-1.0	-3.2
4월	35,920	47,464	37,484	-	-	-	42,474	-	-
5월	34,544	45,396	34,204	35,960	31,324	33,884	36,154	8.2	-6.6
6월	33,168	43,188	27,120	-	-	31,376	33,895	-	-9.0
7월	32,416	27,132	22,676	20,508	25,728	26,332	24,475	2.3	2.5
8월	31,204	25,324	22,104	18,988	24,940	28,136	23,898	12.8	14.8
9월	33,304	28,992	28,872	21,904	27,324	28,600	27,138	4.7	1.9
10월	32,712	30,852	28,432	22,316	28,188	27,856	27,529	-1.2	-2.3
11월	34,820	33,376	27,624	23,496	27,856	26,256	27,722	-5.7	-10.8
12월	37,488	32,544	28,876	23,088	26,512	26,208	27,446	-1.1	-11.8
연평균	31,143	37,315	30,172	25,050	28,157	29,805	31,423	5.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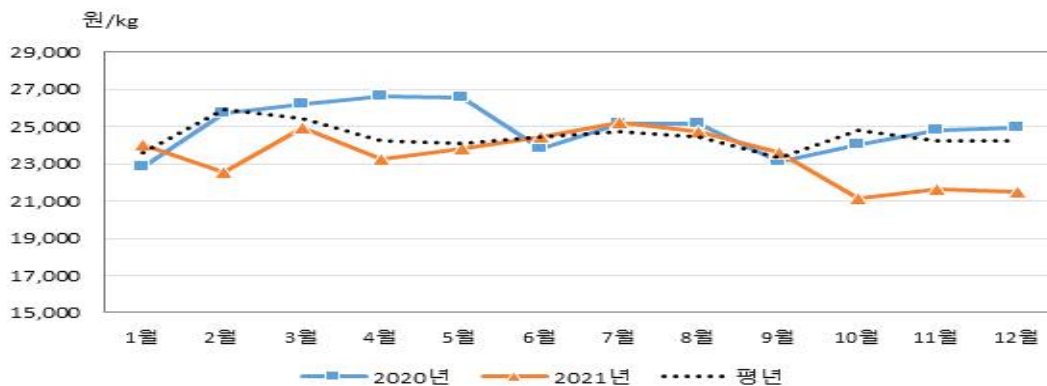
주: 1) 갈치(선어)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냉동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23,406원으로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4.3% 낮게 형성되었음

〈그림 4-40〉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3〉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4,664	30,072	22,624	17,920	22,804	24,016	23,487	5.3	1.7
2월	27,052	35,608	21,828	19,420	25,700	22,556	25,022	-12.2	-13.0
3월	24,932	36,252	19,872	19,932	26,188	24,948	25,438	-4.7	-1.9
4월	28,040	29,624	18,732	18,036	26,608	23,252	23,250	-12.6	-3.9
5월	28,508	28,820	18,684	17,764	26,592	23,808	23,134	-10.5	-1.1
6월	29,912	30,368	19,008	19,224	23,788	24,444	23,366	2.8	-0.1
7월	30,636	30,480	18,480	18,980	25,136	25,208	23,657	0.3	1.9
8월	28,236	31,440	18,468	18,896	25,168	24,720	23,738	-1.8	1.1
9월	29,312	31,960	15,916	16,424	23,096	23,584	22,196	2.1	1.0
10월	30,716	29,808	20,416	18,884	24,052	21,172	22,866	-12.0	-14.5
11월	29,356	26,756	20,968	19,172	24,800	21,660	22,671	-12.7	-10.5
12월	33,980	22,520	19,796	19,780	24,956	21,508	21,712	-13.8	-11.1
연평균	28,779	30,309	19,566	18,703	24,907	23,406	23,378	-6.0	-4.3

주: 1) 갈치(냉동)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갈치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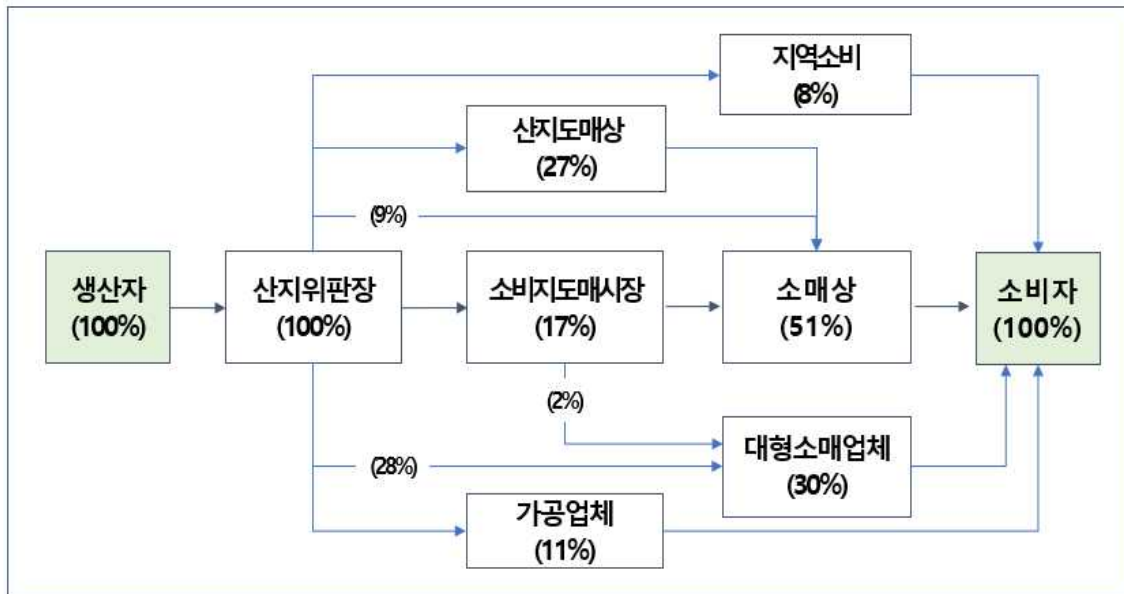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갈치는 어획 단계부터 선어와 냉동품으로 구분됨. 또한 유통단계 역시 선어와 냉동품이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선어는 1~2일 동안 연안에서 조업하는 채낚기어업에서 주로 어획됨
 - 냉동 갈치는 15일 이상 근해에서 조업하는 근해연승어업을 통해 생산됨
 - 선어와 냉동품의 유통과정 상의 가장 큰 차이는 저장성으로, 선어는 저장성이 낮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하지만, 냉동갈치는 재고로 활용할 수 있음⁴⁴⁾

44) 단 냉동 갈치의 유통실태 분석에서 재고는 제외함

- 2021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 제주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채낚기어업 및 근해연승어업을 통해 어획되며, 상품성이 좋아 대형소매업체로 판매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반해 목포, 여수 등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근해안강망어업이나 대형트롤어업에서 어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의 소매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음
- 먼저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2021년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어획량 중 계통판매량인 48,846톤 기준임
 - 대형소매업체→소비자: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를 통한 거래물량은 대금 결제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중도매인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해 대형소매업체로 주로 판매되는 제주지역 갈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거래 비중은 30%가량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소비자: 전통시장 등 소비지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은 전년에 이어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경로의 물량 비중은 약 27%로 추정됨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소비지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물량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지 중도매인들의 대형소매업체 선호 증가에 따라 이 경로를 통한 거래물량 비중은 17%로 전년 대비 약 7%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외에 산지 지역 내 소비 및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의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물량은 약 11%로 조사되었음

〈그림 4-41〉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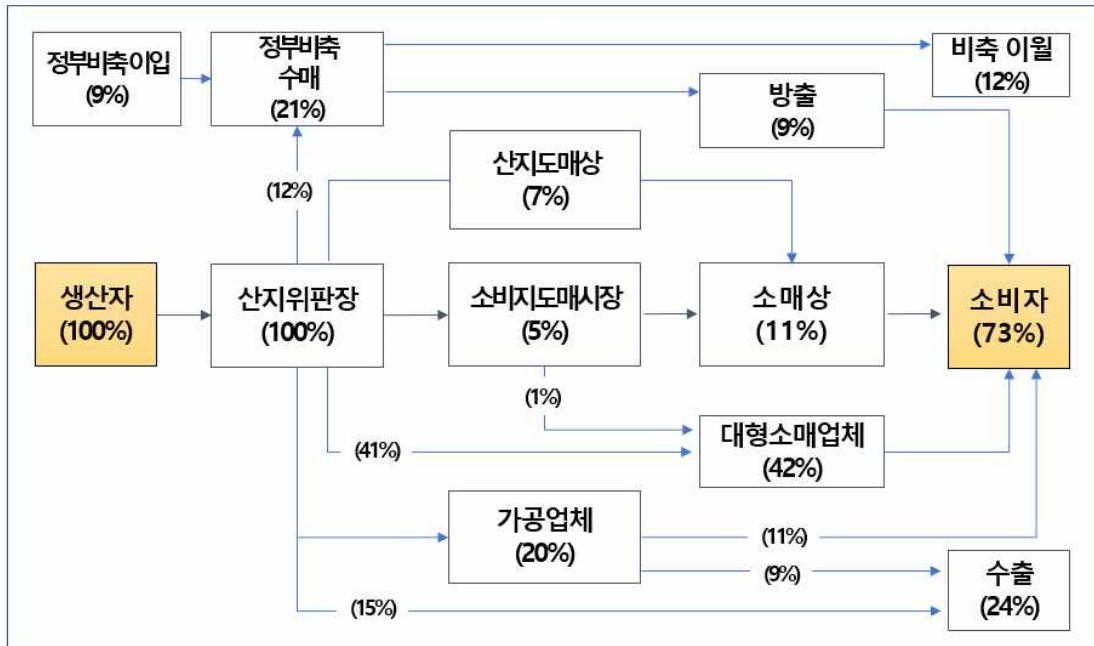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기준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냉동 갈치 유통경로는 선어 갈치 유통경로에 정부비축수매 및 방출사업으로 인한 물량의 이동이 추가됨
 - 2021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 갈치 생산량인 12,527톤 기준임
 -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2020년도에 이월된 물량은 2021년 생산량의 약 9%, 2021년 수매한 냉동 갈치의 비중은 12%였으며, 2021년 방출된 물량 비중은 9%, 2022년으로 이월된 비축 물량은 12%였음
 - 2021년 수출량은 2,978톤으로 냉동갈치 생산량의 24%에 달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비중은 5%p 증가했음
 - 2021년 이월된 정부비축물량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최종 소비된 냉동 갈치 비중은 73%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형소매업체: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는 선어와 마찬가지로 중도매인들의 거래 의향은 증가했으나, 수출 및 비축 이월 증가와 전반적인 냉동갈치 소비부진으로 인해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42%로 추정됨
 - 산지도매상→소매상: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지의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7% 수준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산지도매상을 거치는 경로의 비중은 4% 정도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감소했음

<그림 4-42>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2018년 기준 냉동갈치는 전량 계통출하 되었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에도 갈치 선어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상품성이 좋은 중·대형어는 대형소매업체로 유통 비중이 소폭 증가했음
 -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대금 결제가 원활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 거래를 선호하고 있음
 - 반면 소비지 소매상의 경우, 결제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비중을 줄이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
- 여수, 목포 등 제주 외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는 안강망어업, 트롤어업 등으로 어획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소매업체 거래 비중이 적고,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거나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비중이 컸음

- 그러나 갈치 선어의 경우 제주지역보다 이외 지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보다, 전통시장 등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많았음
 - 2021년 계통 출하된 48,846톤의 갈치 선어 중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물량이 13,677톤으로 2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다음으로 산지도매상→소매상을 통해 유통된 갈치 선어가 13,335톤(27.3%)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의 경로로 유통된 물량은 8,206톤으로 16.8%였음
 - 한편,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선어는 5,471톤으로 11.2% 정도였고, 지역 내 소비 혹은 택배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3,663톤으로 전체에서 약 7.5%로 추정되었음
 - '21년에는 전년에 비해 가공 및 택배 거래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공품 수요 및 직거래(비대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갈치 품목의 유통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4>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생산자 → 산지위판장(계통출하 물량)		48,846	100.0
산지 중도매인 유통	지역소비, 택배 등	3,663	7.5
	가공업체(홈쇼핑 등)	5,471	11.2
	대형소매업체	13,677	28.0
	산지도매상→소매상	13,335	27.3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8,206	16.8
	소매상	4,494	9.2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한편 2021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갈치 생산량은 12,527톤으로 전량 계통으로 출하되었음.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된 것은 없었음
 - 2021년 어획된 냉동갈치의 23.8%인 2,978톤이 수출되었는데 2020년에 비해 수출량이 7% 증가하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음

- 2021년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갈치는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물량이 41%인 5,136톤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물량 및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지의 중도매인들의 대형소매업체 선호 경향 증가추세는 선어와 마찬가지로, 냉동갈치 소비부진으로 거래 물량 및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비축용으로 구매된 냉동갈치는 1,477톤으로 11.8%를 차지함
-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물량을 포함하여 2021년에 방출된 냉동 갈치는 1,173톤이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을 통한 냉동 갈치의 유통량은 6.8%인 852톤이었고,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의 유통경로를 거쳐 냉동 갈치는 678톤으로 비중은 5.4%로 추정됨
- 이외에 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20.0%인 2,505톤으로 추정되었음

〈표 4-75〉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생산자 → 산지위판장(계통출하 물량)		12,527	100.0
산지 중도매인 유통	수출	1,879	15.0
	정부비축물량 구매	1,477	11.8
	가공업체(홈쇼핑, 택배 등)	2,505	20.0
	대형소매업체	5,136	41.0
	산지도매상→소매상	852	6.8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678	5.4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정부비축물량 구매 및 방출 실적, 한국무역협회(www.kati.net)

3. 갈치 유통비용

- 2021년에도 제주지역에서 서울 대형소매업체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갈치 선어가 유통되는 과정상의 비용을 조사하였음

가.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먼저 제주 서귀포수협에서 위판된 10kg당 30마리~33마리의 갈치 선어가 서울의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자고 함
 - 2021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12,652원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47.9%였는데, 산지 위판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함에 따라 수취가격의 비율이 소폭(0.3%p) 감소했음
 - 갈치 선어 양륙비용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위판수수료는 위판가격의 4.3%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판단가 하락에 따라 kg당 수수료는 전년보다 하락했음
 - 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중도매인들이 대형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포장 및 운반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2021년에는 어상자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kg당 346원이었으며, 항공운임도 kg당 840원으로 상승했음. 한편 박스 작업 비용 또한 kg당 86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음
 - 그리고 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한 kg당 1,5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이 산지 중도매인들의 비용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판매가격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중도매인 이윤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윤율은 출하가격의 4~5%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함)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 역시 인건비 등 간접비 증가로 이윤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간접비에는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2021년에는 6,938원/kg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이윤은 전년 2,887원/kg에서 2,614원/kg으로 줄었음

〈표 4-76〉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416	12,652	47.9	-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10kg 상자(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30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604	570	2.2	위판금액의 4.3%(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4.3%
	위판가격	14,045	13,247	50.1	서귀포수협 30마리~33마리 기준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303	346	1.3	<7-2호> 규격의 스티로폼 박스 기준 (3,070원/상자(10kg))
	물류비(운반·운송비)	600	840	3.2	항공운임 8,400원/10kg 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해상은 kg당 4,000원)
	박스 작업	50	86	0.3	얼음, 끈, 테이프, 내피
	인건비	1,200	1,500	5.7	중도매인당 3명 내외 고용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2,036	845	3.2	산지 출하가격의 4%~5%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8,233	16,864	63.8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점	간접비	6,736	6,938	26.3
	이윤	2,887	2,614	9.9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27,856	26,416	100.0	AT KAMIS 소비자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중순임

나.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시장)

1) 산지 단계

- 제주 서귀포수협에서 10kg당 30마리~33마리의 갈치 선어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거쳐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경로의 유통비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가수취가격을 비롯해 어상자대, 물류비는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동일함
- 한편,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우 소분작업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기타경비)이 들어가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
- 산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출하가격의 3~4% 수준이었으나, 비용 상승 및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도매시장의 상하차 비용은 전년과 거의 동일했으며, 수수료율 역시 경락가격의 4.3% 수준으로 비슷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단계에서의 비용은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 운반비는 전년 대비 9% 정도 상승했으며, 상차비 7%, 인건비 등의 간접비는 8%가량 상승했음
 - 이윤 역시 산지단계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3) 소매 단계

- 소매단계에서도 이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상승함
 -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늘었으며,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77〉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416	12,652	51.0	10kg 상자, 30마리~33마리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604	570	2.3	위판금액의 4.3%
	위판가격	14,045	13,247	53.4	서귀포수협 30마리~33마리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302	346	1.4	2,670~3,360원/상자(10kg)
	물류비(운송비)	600	840	3.4	항공운임 8,400원/1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박스작업	125	150	0.6	약 600원/상자(10kg) (얼음, 끈, 테이프, 내피)
	기타 경비	330	350	1.4	소분작업 및 포장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885	461	1.9	산지 출하가격의 3%~4%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6,287	15,394	62.1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35	37	0.1	370원/상자(10kg)
	경매수수료	733	693	2.8	경락가격의 4.3%
	경락가격	17,055	16,124	65.0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64	70	0.3	700원/상자(10kg)
	상차비	58	62	0.3	620원/상자(10kg)
	간접비	678	730	2.9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200	1,029	4.1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면담결과
	판매가격	19,055	18,015	72.6	중도매인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358	372	1.5	운반비 등
	간접비	5,374	5,410	21.8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433	1,003	4.0	서울 전통시장 소매상 면담결과
	판매가격	26,220	24,800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비자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 조사시기는 2020년 11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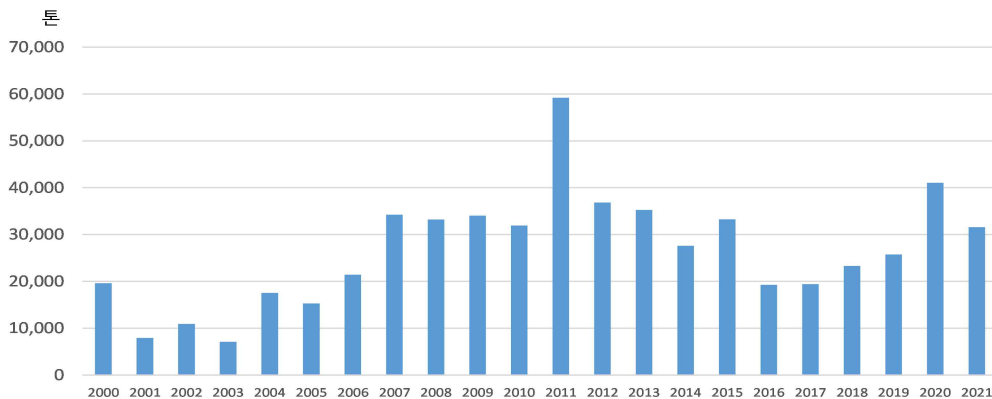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우리나라 참조기 생산량⁴⁵⁾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인 약 6만 톤이 생산되었음
-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다시 3만 톤 대로 감소했으며, 2016년 및 2017년 생산량은 2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음
- 2018년에 들어 참조기는 다시 2만 톤 이상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호어황이 계속되면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인 약 4만 톤이 생산되었음
- 2021년에도 어황 호조가 계속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그림 4-43〉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참조기 생산량은 3만 1,562톤으로 어황이 매우 좋았던 전년에 비해서는 23.1%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22.6% 많았음
 - 전년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좋았으나, 소형어 비중은 여전히 높았음

45) 참조기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으로 구분되는데, 양식어업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21년 참조기 생산금액은 2,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며, 평년보다도 2.8% 적었음

〈표 4-78〉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7,890	85,651
1995년	25,173	164,640
2000년	19,630	119,055
2005년	15,272	77,093
2010년	31,931	160,686
2015년	33,254	256,948
2016년	19,271	179,484
2017년	19,398	196,350
2018년	23,274	215,070
2019년	25,741	186,059
2020년	41,039	289,879
2021년	31,562	207,441
5개년 평균	28,203	218,960
전년 대비	-23.1	-28.4
평년 대비	22.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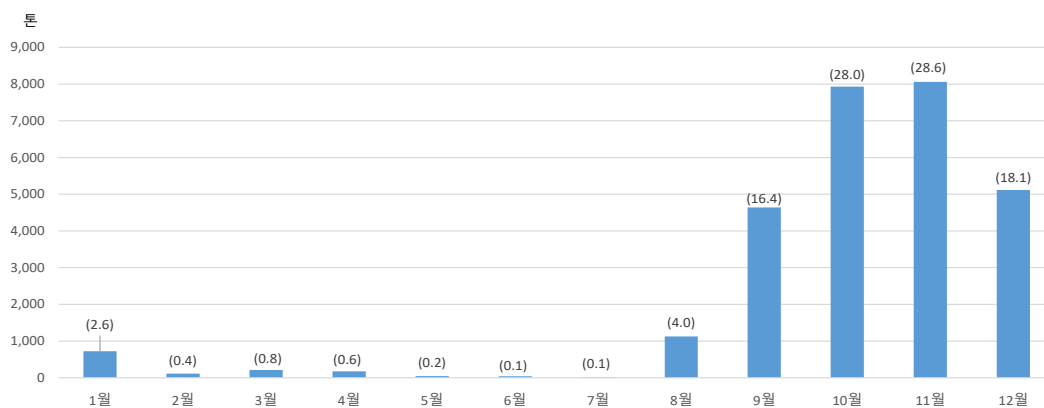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참조기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한기를 맞아 1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참조기 근해유자망어업 금어기(4월 22일~8월 10일)까지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어기 종료 이후인 8~12월까지 주로 생산됨
 - 성어기인 9~12월까지 어획량은 참조기 연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함

〈그림 4-44〉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참조기의 부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선어 생산량은 30,31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6.0%를 차지하여 대부분 선어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냉동이 1,247톤(4.0%) 생산되었으며, 활어는 생산되지 않았음

〈표 4-80〉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1	0	0	1	0	0	0.0	0
선어	18,776	18,912	22,676	25,359	40,418	30,315	96.0	27,536
냉동	494	486	598	381	621	1,247	4.0	667
합계	19,271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00.0	28,20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참조기 총 어획량의 대부분인 99.1%가 계통출하되었으며, 이 중 선어의 계통출하율은 99.1%였으며, 냉동은 전량 계통출하되었음

〈표 4-81〉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1	0	0	0	0	0	-	0
	비계통	0	0	0	1	0	0	-	1
	소계	1	0	0	1	0	0	-	1
선어	계통	18,759	18,903	22,612	25,289	40,371	30,035	99.1	27,442
	비계통	17	10	64	70	47	280	0.9	94
	소계	18,776	18,912	22,676	25,359	40,418	30,315	100.0	27,536
냉동	계통	494	486	598	381	621	1,247	100.0	667
	비계통	-	-	-	-	-	-	-	-
	소계	494	486	598	381	621	1,247	100.0	667
계	계통	19,254	19,389	23,211	25,670	40,992	31,282	99.1	28,109
	비계통	17	10	64	71	47	280	0.9	94
	소계	19,271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00.0	28,20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참조기는 타 대중성 어종에 비해 계통출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참조기가 다른 어종들에 비해 크기별 가격 차이가 커 비계통출하 형식의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참조기는 타 어종과 달리 크기가 매우 세분화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위판장에서의 선별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
- 비계통출하로는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작업을 대체하기 어려움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지역별 생산량⁴⁶⁾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생산 비중이 59.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주지역 32.4%, 부산지역 4.7%, 전북지역 1.1% 등의 순이었음
- 전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생산이 전체의 92%를 차지하여 참조기는 대부분 전남 및 제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지역에서는 주로 목포수협·영광수협, 제주지역에서는 한림수협·모슬포수협·추자도수협·성산포수협 등을 통해 위판됨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참조기 위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82〉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비중	평균
전라남도	10,969	11,165	13,707	13,537	24,127	18,769	59.5	16,261
제주도	6,587	6,552	7,744	9,327	12,973	10,233	32.4	9,366
부산광역시	386	474	567	1,510	1,634	1,494	4.7	1,136
전라북도	714	699	512	679	1,003	351	1.1	649
인천광역시	133	134	313	337	563	314	1.0	332
충청남도	254	243	245	266	551	269	0.9	315
경상남도	212	129	186	83	189	132	0.4	144
울산광역시	15	1	0	0	0	0	0.0	1
경기도	0	0	2	1	0	0	0.0	2
경상북도	0	0	0	0	0	0	0.0	0
계	19,271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00.0	28,203

주: 1) 2020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6년~2020년 평균, 평년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6)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참조기가 실제로 어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사매매로 판매된 것을 의미함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의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생산 비중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해안강망어업 14.8%, 연안자망어업 8.5%,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5% 등의 순이었음
- 2021년 어법별 참조기 생산 비중의 경우 근해자망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음
- 2021년 근해자망어업의 생산 비중은 68.5%로 전년에 비해 9.7% 증가했으나, 근해안강망어업은 11.3%로 전년보다 4.7% 감소했음

〈표 4-83〉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근해자망	13,326	12,356	14,036	18,642	24,135	21,624	68.5	18,159
근해안강망	3,264	4,072	3,372	3,053	6,562	3,604	11.3	4,133
연안자망	1,024	1,093	1,329	1,747	4,502	3,147	10.0	2,364
외끌이대형저인망	518	483	2,973	946	2,613	1,338	4.2	1,671
연안개량안강망	109	474	718	326	1,225	621	2.0	67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03	172	275	293	733	428	1.4	380
쌍끌이대형저인망	40	116	28	174	684	207	0.7	242
대형트롤	81	236	205	359	303	377	1.2	296
근해채낚기	375	317	57	150	160	87	0.3	154
연안복합	121	7	212	24	78	10	0.0	66
기 타	110	72	69	27	44	119	0.4	66
계	19,271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00.0	28,203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1년 참조기 수출량은 202톤으로 전년 대비 32.0% 증가했으나, 수출금액은 16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2% 적었음
 - 참조기 수출단가는 kg당 7.90달러로 전년에 비해 33.4% 하락했음
- 2021년 참조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3,168톤이었으며, 평년보다는 9.5% 적었음
 - 참조기 수입금액은 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3.0% 적었음

- 참조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7% 낮은 kg당 4.25달러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나, 평년보다는 3.8% 낮았음

<표 4-84>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285	1,138	4.00	28,437	118,378	4.20
2017년	184	1,358	7.40	23,198	109,430	4.70
2018년	75	855	11.40	27,798	128,291	4.60
2019년	114	955	8.38	27,450	122,677	4.47
2020년	153	1,816	11.87	21,173	87,699	4.14
2021년	202	1,595	7.90	23,168	98,540	4.25
5개년 평균	146	1,316	9.01	24,557	109,327	4.45
전년 대비	32.0	-12.2	-33.4	9.4	12.4	2.7
평년 대비	24.7	30.3	4.5	-9.5	-13.0	-3.8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량의 경우 건조(굴비)가 전체 수출량의 5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양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냉동 38.1%, 염장·염수장 4.0% 순이었음
- 수출금액 또한 건조(굴비)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는데, 건조(굴비)는 타 제품에 비해 수출단가가 높기 때문에 총 수출금액의 61.7%를 차지했음
- 2021년 참조기 수입량은 전량 냉동 형태로 수입되었음

<표 4-85>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냉동	0303895000	117	57.9	526	33.0	23,168	100.0	98,540	100.0
건조(굴비)	0305594000	77	38.1	982	61.7	0	0.0	0	0.0
염장·염수장	0305696000	8	4.0	87	5.5	0	0.0	0	0.0
내장	0305204020	0	0.0	0	0.0	0	0.0	0	0.0
합계		202	100.0	1,595	100.2	23,168	100.0	98,54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1년 참조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 7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5%, 캐나다 5.3%, 호주 3.6%, 중국 3.3% 등의 순이었음
 - 건조(굴비)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냉동은 중국 및 미국으로 수출되었음
- 한편, 2021년 참조기 수입량 중 중국산은 2만 3,145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23톤이 수입되었음

〈그림 4-46〉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참조기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공급량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음
 - 2021년 총 공급량은 7만 1,972톤으로 작년 대비 11.2%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3.0% 증가했음
 - 이는 수입은 전년보다 9.4% 많았으나, 생산 및 이입재고는 전년 대비 각각 23.1%, 8.3% 감소했기 때문임
- 수출이 전년에 비해 19.7% 늘었고 총 공급량 또한 줄면서 2021년 참조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음

〈표 4-86〉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19,271	28,437	21,412	69,120	45,855	303	22,962	42.0
2017년	19,398	23,198	22,962	65,558	51,027	209	14,322	38.0
2018년	23,274	27,798	14,322	65,394	50,291	89	15,014	46.3
2019년	25,741	27,459	15,014	68,214	49,288	128	18,798	52.2
2020년	41,039	21,173	18,798	81,010	63,570	198	17,242	64.6
2021년	31,562	23,168	17,242	71,972	56,193	237	15,542	56.2
전년 대비	-23.1	9.4	-8.3	-11.2	-11.6	19.7	-9.9	-
평년 대비	22.6	-9.5	-6.8	3.0	8.1	27.8	-12.0	-

주 :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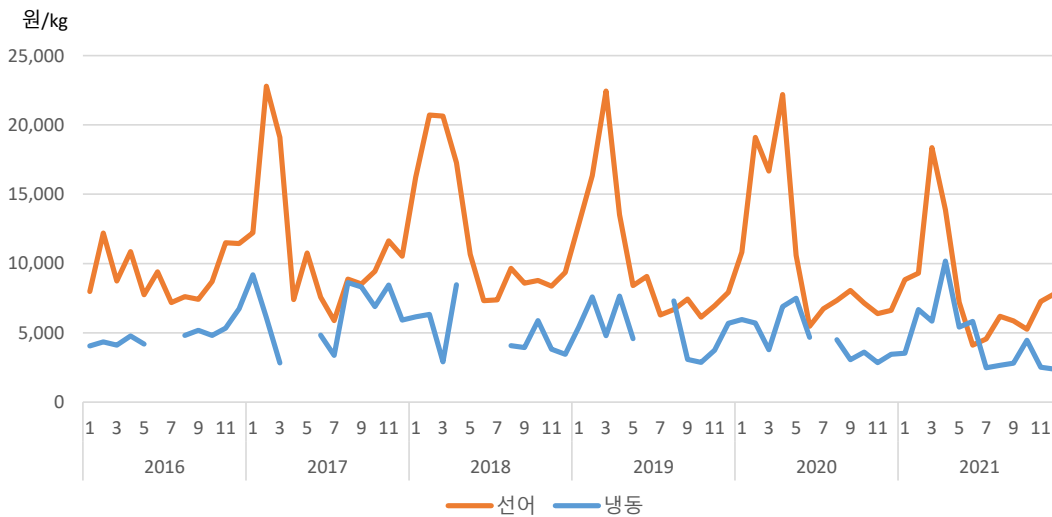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기준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선어가 냉동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47〉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냉동 참조기는 어획량이 적고 상품성도 좋지 않아 선어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며, 연중 가격 변동도 크지 않음
-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는 어획량이 급감하는 어한기에 큰 상승폭을 보이나, 어획이 집중되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어획량 증가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게 형성되는 구조가 매년 반복됨
- 2021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는 kg당 6,720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년 대비 5.6% 하락했음
- 월별로 살펴보면, 평년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까지의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 성어기인 9~12월까지 전년보다 적은 양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부진이 계속되면서 생산단가는 전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표 4-87〉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975	12,221	16,234	12,838	10,823	8,833	12,190	-18.4	-26.5
2월	12,208	22,803	20,709	16,345	19,097	9,305	17,652	-51.3	-49.0
3월	8,739	19,099	20,635	22,456	16,678	18,358	19,445	10.1	4.8
4월	10,848	7,392	17,267	13,525	22,195	13,880	14,852	-37.5	-2.6
5월	7,755	10,765	10,665	8,410	10,581	7,211	9,526	-31.8	-25.2
6월	9,392	7,570	7,314	9,061	5,477	4,109	6,706	-25.0	-47.1
7월	7,173	5,879	7,383	6,294	6,736	4,559	6,170	-32.3	-31.9
8월	7,603	8,871	9,652	6,677	7,328	6,192	7,744	-15.5	-22.9
9월	7,411	8,527	8,579	7,437	8,052	5,866	7,692	-27.1	-26.7
10월	8,708	9,436	8,767	6,123	7,147	5,256	7,346	-26.5	-34.6
11월	11,498	11,642	8,362	6,940	6,375	7,269	8,118	14.0	-18.9
12월	11,442	10,523	9,362	7,915	6,617	7,808	8,445	18.0	-14.9
연평균	9,424	10,204	9,359	7,279	7,121	6,720	8,137	-5.6	-22.6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참조기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1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참조기 선어 위판량이 많은 제주지역 한림수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참조기 선어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2,478원으로 전년 대비 21.8%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8.1% 낮았음

- 이는 전년산 재고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중도매인들의 매입이 감소했기 때문임

<표 4-88>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5,428	17,925	21,279	20,141	18,152	13,817	18,263	-23.9	-25.7
2월	16,983	19,487	22,608	21,268	18,561	14,075	19,200	-24.2	-28.8
3월	19,896	24,526	22,554	21,678	21,288	19,487	21,907	-8.5	-11.4
4월	22,247	-	24,502	18,337	20,328	14,021	19,297	-31.0	-34.3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12,805	14,391	14,299	12,951	13,582	10,050	13,055	-26.0	-26.1
9월	14,452	14,552	14,519	14,047	14,370	9,999	13,497	-30.4	-30.5
10월	15,710	16,783	15,803	13,571	14,505	9,077	13,948	-37.4	-40.6
11월	15,735	20,463	15,202	15,140	10,944	10,730	14,496	-2.0	-30.8
12월	15,813	18,858	17,244	17,661	11,862	11,052	15,335	-6.8	-32.1
연평균	16,563	18,373	18,668	17,199	15,954	12,478	16,534	-21.8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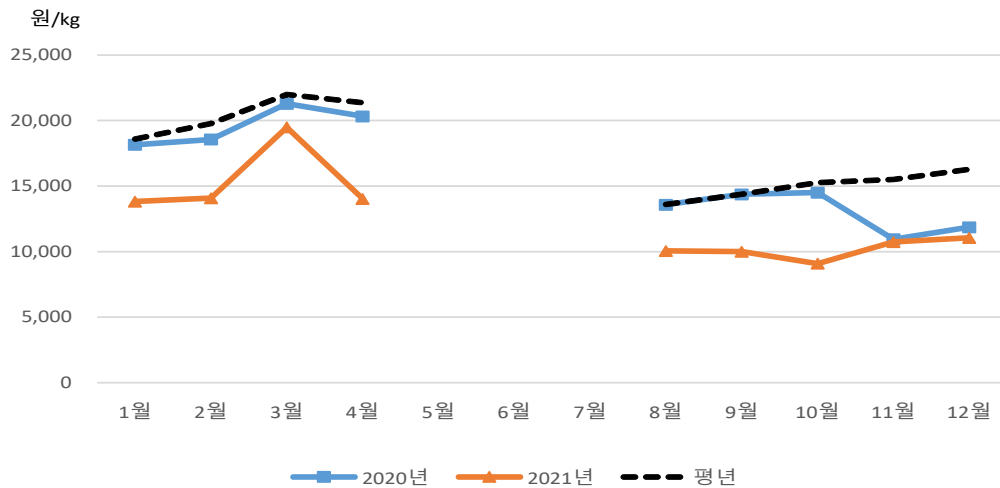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48>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월별로 살펴보면 참조기 산지가격은 연중 대체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 전년 11월부터 이어진 산지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어한기인 1~4월까지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음
 - 금어기 종료 및 성어기인 9~10월에는 전년산 재고 판매 부진 및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30% 이상 하락했으며, 11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년 및 평년보다 낮았음

2) 도매가격⁴⁷⁾

- 2021년 참조기 선어의 도매가격은 kg당 13,102원으로 전년 대비 21.8% 하락했으며, 평년보다도 28.1% 낮게 형성되었음

〈표 4-89〉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199	18,821	22,342	21,148	19,060	14,507	19,176	-23.9	-25.7
2월	17,832	20,461	23,738	22,331	19,489	14,779	20,160	-24.2	-28.8
3월	20,890	25,752	23,681	22,762	22,352	20,461	23,002	-8.5	-11.4
4월	23,359	-	25,727	19,254	21,344	14,722	16,209	-31.0	-17.9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13,445	15,111	15,014	13,599	14,261	10,553	13,708	-26.0	-26.1
9월	15,175	15,280	15,244	14,749	15,088	10,498	14,172	-30.4	-30.5
10월	16,496	17,622	16,593	14,249	15,230	9,530	14,645	-37.4	-40.6
11월	16,521	21,486	15,962	15,897	11,491	11,267	15,221	-2.0	-30.8
12월	16,604	19,801	18,106	18,544	12,455	11,604	16,102	-6.8	-32.1
연평균	17,391	19,292	19,601	18,059	16,752	13,102	17,361	-21.8	-28.1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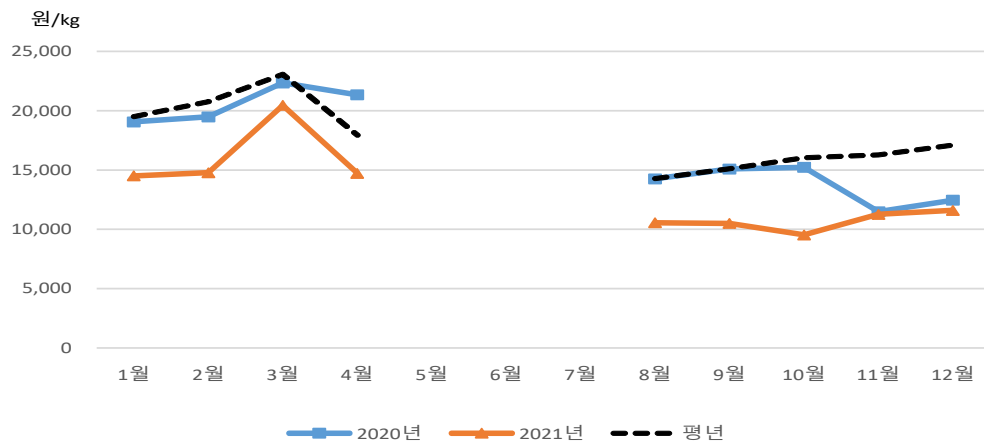
2)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47) 참조기 도매가격은 고등어·갈치 등과 달리 aT KAMIS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아, 수산업관측센터의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을 활용하였음(한림수협에서 가공업체로 주로 판매되는 가격 추정치)

<그림 4-49>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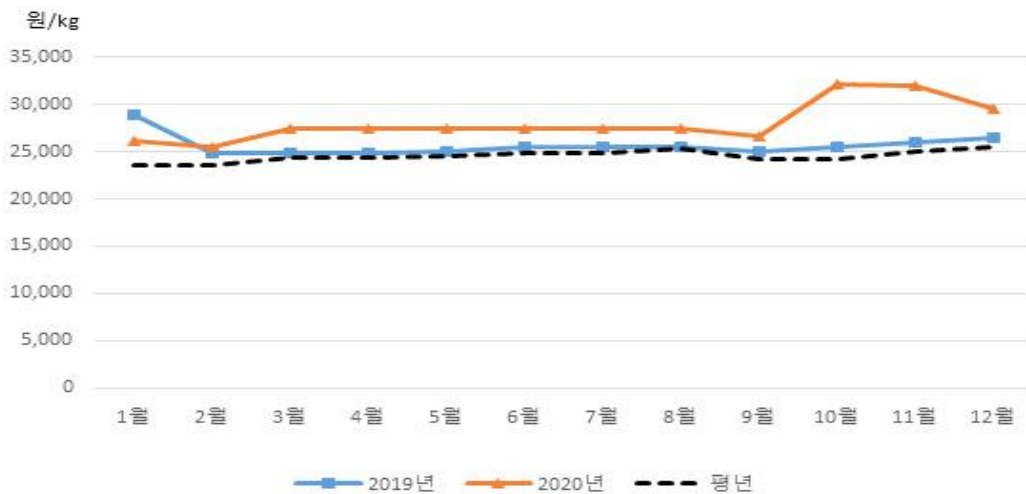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3) 소비자가격⁴⁸⁾

- 2021년 참조기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24,265원으로 전년 대비 13.4%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7.5% 낮았음

<그림 4-50>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48)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수산업관측센터 조사가격으로, 대형소매업체에서 해동하여 판매하는 참조기 소비자가격을 의미함

-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대체로 연중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1~8월까지는 평균 kg당 25,000원 수준을 유지했음
- 그러나 9월 이후로는 추석 명절 대비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이루어졌고 해양수산부의 소비촉진행사도 진행되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9%, 19.0% 낮은 kg당 21,541원까지 하락했음

〈표 4-90〉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0,991	24,861	27,332	28,877	26,124	27,913	27,021	6.8	8.9
2월	21,467	24,900	28,094	24,900	25,550	24,061	25,501	-5.8	-3.7
3월	22,622	24,900	29,400	24,900	27,400	22,570	25,834	-17.6	-12.7
4월	23,074	24,900	29,400	24,900	27,400	24,155	26,151	-11.8	-6.9
5월	23,920	24,713	29,400	24,957	27,400	25,825	26,459	-5.7	-1.0
6월	24,400	24,847	29,400	25,500	27,400	25,961	26,622	-5.3	-1.3
7월	24,400	24,800	29,400	25,500	27,400	26,170	26,654	-4.5	-0.5
8월	24,400	27,300	29,400	25,500	27,400	26,602	27,240	-2.9	-0.7
9월	24,144	23,760	28,800	25,089	26,592	21,974	25,243	-17.4	-14.4
10월	24,400	21,613	29,400	25,429	32,084	21,541	26,013	-32.9	-19.0
11월	24,350	24,800	29,400	26,000	31,929	21,954	26,817	-31.2	-19.6
12월	24,025	26,884	29,400	26,386	29,590	22,449	26,942	-24.1	-17.6
연평균	23,516	24,856	29,069	25,662	28,022	24,265	26,375	-13.4	-7.5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참조기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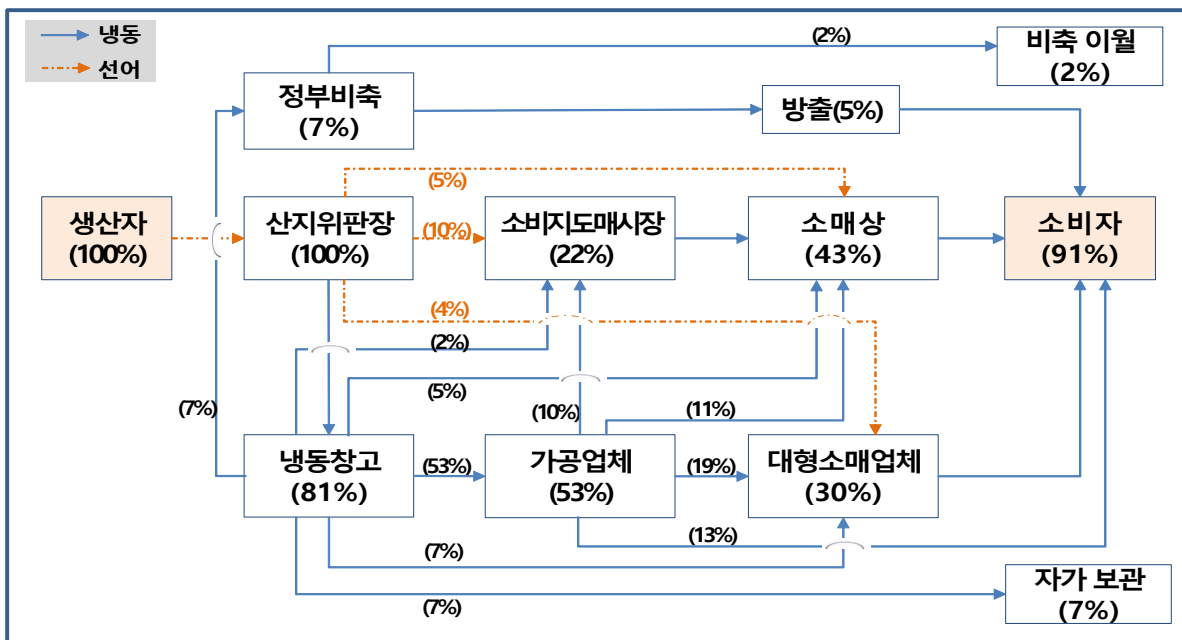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참조기는 2021년 기준 비계통 출하의 비중이 0.9%에 불과하고, 수출량 또한 전체 생산량에서 0.8%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참조기는 냉동품으로 위판되는 물량도 2021년 기준 4.0%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조기 유통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참조기 생산량은 계통-비계통, 국내 유통-수출, 선어-냉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생산량인 3만 1,562톤을 기준으

로 살펴보고자 함

- 참조기 위판량 규모가 큰 수협은 제주도의 한림수협과 전라남도의 목포수협 및 영광수협임
 - 한림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주로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등으로 어획되며, 대체로 상품성이 높음
 - 목포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 이외에 근해안강망어업 등에서 어획된 물량 또한 많음
 - 영광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대부분 제주도와 목포 등 타 지역에서 양륙된 후에 영광까지 운반되어 위판됨. 영광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주로 굴비 가공용으로 유통됨
- 어획된 참조기는 대부분 선어 상태로 위판되지만, 위판 물량 중 70~80% 정도는 바로 냉동 참고에 입고됨
 - 참조기는 굴비 가공용 수요가 많은데, 참조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어획되지만 영세한 규모의 굴비 가공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어획된 참조기를 냉동 보관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1>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는 대형소매업체, 도매시장 등을 통하거나 소비자의 소매상에 직접 유통되기도 함
- 2021년 정부비축을 위한 참조기 수매량은 2,131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였으며, 이 중 방출된 물량은 1,519톤으로 약 5%였음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 참조기 생산량 3만 1,562톤 중에서 위판 이후에 냉동처리 되어 유통된 물량은 81%인 2만 5,443톤으로 '20년(80%, 3만 2,029톤)에 비해 감소했으나, 유통 비중은 비슷했음. 선어 상태로 유통된 물량은 19%인 6,119톤으로 '20년 8,389톤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목포 지역의 경우 '19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소매업 위주로 유통되는 선어의 유통 비중이 60%를 차지하였으나,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어 수요가 줄면서 냉동 물량 위주의 유통이 늘었음
- 선어로 유통되거나 냉동처리된 참조기 중에서 가공업체로 유통된 물량은 약 53%인 1만 6,604톤으로 추정되는데, '20년(63%, 2만 5,784톤)에 비해 가공업체로의 유통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
 - 이는 청탁금지법, 제수용품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굴비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면서 굴비 가공업체에서 원료 구매를 줄이려는 경향이 컸기 때문임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53%) 중 19%인 6,010톤은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었고, 11%인 3,533톤은 소비자 소매상에 판매되었음. 13%인 4,214톤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물량(냉동 참조기, 가공업체에서 유통된 굴비 등)은 22%인 6,850톤으로 '20년(19%, 7,797톤)보다 유통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물량은 감소했음
-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참조기는 굴비, 냉동품, 선어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30%인 9,676톤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37%, 1만 5,184톤)보다 유통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굴비의 유통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9%인 6,01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냉동된 참조기를 해동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7%인 2,223톤, 산지에

서 선어 상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물량은 4%인 1,443톤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코로나19’ 로 인한 참조기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이 전체의 7%를 차지했음
- ’ 20년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재고가 많았던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참조기 수요 감소로 주요 소비처에서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가 보관(동결) 비중이 크게 늘었음
- ’ 21년 자가 보관(동결) 참조기 물량은 전체 물량의 7%인 2,236톤으로 추정됨

<표 4-91> 참조기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합계		선어		냉동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산지위판장	31,562	100.0	30,315	96.0	1,247	4.0
냉동창고(선어→동결)	31,562	100.0	6,119	19.4	25,443	80.6
소비지 도매시장	3,687	11.7	3,146	10.0	541	1.7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3,238	10.2	1,530	4.8	1,708	5.4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3,666	11.6	1,443	4.6	2,223	7.0
가공업체	16,604	52.6	-	-	26,604	52.6
자가보관(동결)	2,236	7.1	-	-	2,236	7.1
정부비축 구매 물량	2,131	6.8	-	-	2,131	6.8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참조기 유통비용

가.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1) 산지 단계

- 목포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지 단계의 유통비용은 참조기 소비 부진으로 위판가격이 하락하면서 양륙비, 위판수수료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어상자대는 늘었음
- 위판수수료와 중도매인 수수료는 정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하락하면 동반 하락하게 됨

- 선별작업 관련 비용인 입상비, 선별비, 작업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음
- 어상자대는 상자 당 907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상자의 주원료인 목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년(880원/상자)보다 상승했음
- 한편, 산지중도매단계에서의 비용은 스트로폼박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음
 - ‘21년 비용 관련 신규 협상 체결에 따라 포장작업 중 보호틀비는 ‘20년 상자 당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으며, 비닐비는 ‘20년 상자 당 150원에서 170원으로, 얼음비는 ‘20년 상자 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작업노임비는 ‘20년 상자 당 1,442원에서 1,600원으로 상승했음
 - 운송비 또한 유류비 증가로 인해 ‘20년 상자 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소비지 도매 단계에서 유통비용의 경우 경매수수료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상·하차비는 전년보다 상승했음
 - 도매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2021년의 산지가격과 소비지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정률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음
 - 소비지 도매시장 및 소비지 중도매단계에서 2021년 상·하차비는 운임이 상승하면서 ‘20년 344원/kg에서 350원/kg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운반비는 전년과 동일했음
 - 소비지중도매인 단계에서의 간접비는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이윤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음

3) 소매 단계

- 소매 단계에서는 간접비는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전반적인 가격 하락에 따라 이윤은 하락했음. 그러나 마진율은 전년과 비슷했음
 - 운반비 등이 포함된 직접비는 ‘20년 192원/kg으로 동일했으며,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 간접비는 '20년 1,867원/kg에서 1,960원/kg으로 상승했음. 상대적으로 이윤은 전년 대비 하락했음

- 그러나 마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표 4-92>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9,166	8,511	55.4		15kg 상자 당 160미(90g)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172	160	1.0		위판금액의 1.692%
	선별 작업	입상	105	105	0.7	입상(17만원), 선별(14만원), 작업보조(16만원) ※어선용 어상자(25kg) 60~70개 기준
		선별	86	86	0.6	
		보조	98	98	0.6	
	어상자대	59	60	0.4		880→907원/상자(15kg)
	위판수수료	456	425	2.8		위판금액의 4.5%
	위판가격	10,142	9,445	61.5		목포수협 160미 위판가격 (136,957원/상자(15kg))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보호틀	93	100	0.7	1,400→1,500원/상자(15kg)
		비닐	10	11	0.1	150→170원/상자(15kg)
		얼음	27	33	0.2	400→500원/상자(15kg)
		작업노임	96	107	0.7	1,442→1,600원/상자(15kg)
		스티로폼박스	200	200	1.3	3,000원/상자(15kg)
	운송비	100	133	0.9	1,500→2,000원/상자(15kg)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330	311	2.0	산지 출하가격의 3%	
	산지 출하(판매)가격	10,998	10,340	67.4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3	23	0.1	344→350원/상자(15kg)	
	경매수수료	496	466	3.0	경락가격의 4.3%	
	경락가격	11,517	10,829	70.5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37	37	0.2	220원/상자(6kg) 박스	
	상차비	23	23	0.1	344→350원/상자(15kg)	
	간접비	780	819	5.3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440	410	2.7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면담결과	
	판매가격	12,797	12,118	78.9	중도매인 조사가격 참조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92	192	1.3	운반비 등	
	간접비	1,867	1,960	12.8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143	1,080	7.0	서울 전통시장 소매상 면담결과	
	판매가격	16,000	15,350	100.0	서울 전통시장 조사가격 및 수산업관측센터 소매가격 참조	

주: 상자(14.5kg)당 160마리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나.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산지위판장) 한림수협을 대상으로 산지위판장 유통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위판수수료는 정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참조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 대비 높게 형성되면서 위판수수료 또한 전년보다 높게 산정되었음
 - 그 외 양륙비, 선별 작업 관련 비용, 어상자대, 상자포장비 등은 조사 시점인 '21년 12월까지 비용 책정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음
- (산지 중도매인) 산지 중도매인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또한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중도매인 이윤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산지 중도매인 단계에서의 비용인 포장작업비, 냉동창고 보관료, 운송비 등은 모두 전년과 동일했음
 - 다만, 중도매인 이윤의 경우 유통 비용이 동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 및 이윤은 '20년 대비 모두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의 간접비는 '20년 3,617원/kg에서 2,149원/kg으로, 이윤은 '20년 2,411원/kg에서 1,432원/kg으로 하락했음
 - 이는 참조기 생산량 감소로 위판가격 및 산지출하(판매)가격이 상승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등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임

〈표 4-93〉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7,305	7,393	59.1	상자(14kg)당 165마리(85g)의 평균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60	60	0.5	850원/상자(14kg)	
	선별 작업	211	211	1.7	입상, 선별, 보조: 3,000원/상자(14kg)	
	어상자대	133	133	1.1	1,890원/상자(14kg)	
	상자포장비	31	31	0.2	상자포장비(얼음, 간지, 식대 등) : 440원/상자(14kg)	
	위판수수료	339	343	2.7	위판금액의 4.2%	
	위판가격	8,079	8,171	65.4	한림수협 165미 위판가격 (원/14kg 상자)	
산지 중도매 인	포장 작업	내피	8	8	0.1	100원/상자(14kg)
		덧개	31	31	0.2	400원/상자(14kg)
		끈	38	38	0.3	500원/상자(14kg)
		노임	54	54	0.4	700원/상자(14kg)
	냉동 창고	대차	15	15	0.1	200원/상자(14kg)
		입출고비	31	31	0.2	400원/상자(14kg)
		동결비	38	38	0.3	500원/상자(14kg)
		냉동보관 입출고비	31	31	0.2	400원/상자(14kg)
		냉동보관료	23	23	0.2	300원/상자(14kg) (15원/일 × 20일 가정)
	운송비(동결 후)	154	154	1.2	2,000원/상자(14kg)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320	325	2.6	산지 중도매인 면담결과	
	산지 출하(판매)가격	8,822	8,919	71.4	산지출하가격의 5%	
	대형소 매업체	간접비	3,617	2,149	17.2	인건비,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2,411	1,432	11.5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14,850	12,500	100.0	수산업관측센터 소비자가격 참조	

주: 상자(14.2kg)당 165마리의 평균가격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조사

1. 마른멸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1년 마른멸치 생산량은 3만 2,006톤으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3.2% 적었음
- 상반기는 3~4월 마른멸치 위판량이 많아 전년과 비슷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며 9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해 8~12월 위판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46.4% 감소했음
- 통계청의 멸치 생산량 추정은 ‘멸치’로 검색되어, 마른멸치 생산량은 각 수협의 위판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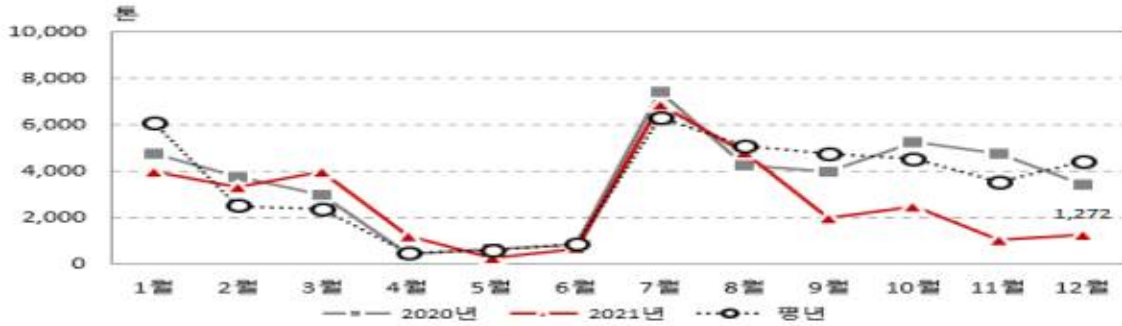
〈표 4-94〉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658	5,341	5,769	8,054	4,751	4,011	5,585	-15.6	-34.4
2월	1,180	2,164	1,646	3,809	3,787	3,338	2,949	-11.9	32.6
3월	2,550	2,661	2,006	1,631	2,999	3,985	2,656	32.9	68.2
4월	430	573	537	400	455	1,195	632	162.6	149.5
5월	424	620	829	554	629	248	576	-60.6	-59.4
6월	887	861	1,155	552	840	682	818	-18.8	-20.6
7월	5,676	6,588	6,914	4,896	7,436	6,908	6,548	-7.1	9.6
8월	6,480	6,445	4,811	3,462	4,270	4,823	4,762	13.0	-5.3
9월	3,952	7,000	5,917	3,037	3,986	1,981	4,384	-50.3	-58.5
10월	3,677	4,397	7,063	2,388	5,249	2,511	4,322	-52.2	-44.9
11월	2,951	3,353	4,429	2,231	4,778	1,052	3,169	-78.0	-70.4
12월	3,238	4,674	7,513	3,368	3,439	1,272	4,053	-63.0	-71.4
합계	38,103	44,677	48,589	34,382	42,619	32,006	40,455	-24.9	-23.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각 수협 위판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4-52〉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각 수협 위판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통계청의 2021년 멸치 총생산량은 14만 3,413톤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2.8% 적었음
 - 어획량이 많았던 전년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진 멸치 어선들이 조업일수를 줄였기 때문임
- 2021년 멸치 총생산금액은 약 1,978억 원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5%, 35.3% 낮았음

〈표 4-95〉 연도별 어업별 멸치 생산량·생산금액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총생산량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천해양식
1990년	130,195	130,192	3
1995년	230,679	230,679	-
2000년	201,192	201,192	-
2005년	249,001	249,001	-
2010년	249,636	249,636	-
2015년	211,574	211,574	-
2016년	140,958	140,958	-
2017년	210,943	210,943	-
2018년	188,684	188,684	-
2019년	171,677	171,677	-
2020년	216,748	216,748	-
2021년	143,413	143,413	-
5개년 평균	186,293	186,293	-

주: 1)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의 멸치로 집계하였음
 2)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멸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9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하였음
 - 3월은 어황이 개선되며 멸치 어획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4월은 멸치 포획 금지기간(금어기)임에도 이전에 어획된 물량이 위판되면서 전년보다 많았음
 - 금어기 이후 7~8월에는 연안 수온이 높게 형성되면서 멸치 산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평년보다 어획량이 많았음
 - 그러나 9월부터 어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면서 적당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획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음
 - 또한,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낮아진 멸치 어선들이 조업일수를 줄이면서 멸치 어획량의 감소폭이 컸음

〈표 4-96〉 연도별·월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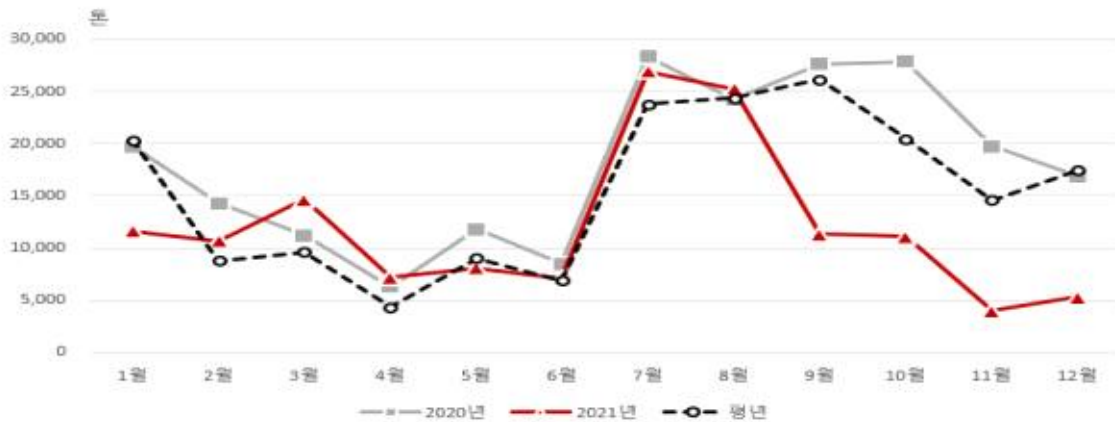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620	20,542	20,270	24,551	19,771	11,655	19,358	-41.1	-42.7
2월	4,007	7,971	6,063	11,536	14,329	10,684	10,117	-25.4	21.7
3월	8,832	13,445	7,678	6,793	11,238	14,687	10,768	30.7	53.0
4월	3,086	4,286	3,208	4,763	6,285	7,218	5,152	14.8	66.9
5월	7,703	8,940	7,387	9,446	11,808	8,065	9,129	-31.7	-11.0
6월	7,276	6,236	5,133	7,225	8,513	7,110	6,843	-16.5	3.4
7월	19,399	30,300	25,029	15,706	28,368	26,917	25,264	-5.1	13.3
8월	23,431	28,114	21,319	24,943	24,236	25,293	24,781	4.4	3.6
9월	13,875	37,399	30,418	21,556	27,623	11,373	25,674	-58.8	-56.5
10월	14,588	16,686	26,090	16,974	27,904	11,113	19,753	-60.2	-45.7
11월	9,932	14,038	17,543	11,684	19,784	3,974	13,405	-79.9	-72.8
12월	12,209	22,986	18,547	16,498	16,889	5,324	16,049	-68.5	-69.4
합계	140,958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86,293	-33.8	-22.8

주: 1)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멸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생산량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53> 월별 멸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의 멸치 부류별 생산동향은 활어, 선어, 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어 (100.0%)가 전년(99.5%) 대비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했음
 - 이 외 활어, 냉동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표 4-97> 연도별 부류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비중	비중	
활어	24	21	-	-	-	6	0.0	0.0	14
선어	140,527	210,634	188,682	171,650	215,772	143,408	100.0	100.0	186,029
냉동	407	289	2	27	976	-	-	-	324
합계	140,958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00.0	100.0	186,293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의 2021년 멸치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멸치의 계통출하율이 94.5%로 전년(94.3%) 대비 소폭 상승했음
 - 부류별로는 선어의 계통출하율이 94.5%이었으며, 생산량이 적지만 활어의 경우에는 전부 비계통출하되었음

〈표 4-98〉 연도별 부류별 멸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	-	-	-		
	비계통	24	21	-	-	-	6	100.0	14
	소계	24	21	-	-	-	6	100.0	14
선어	계통	138,402	199,364	176,852	163,173	203,505	135,587	94.5	175,696
	비계통	2,124	11,270	11,830	8,478	12,267	7,820	5.5	10,333
	소계	140,526	210,634	188,682	171,651	215,772	143,408	100.0	186,029
냉동	계통	-	-	2	27	976	-	-	335
	비계통	407	289	-	-	-	-	-	289
	소계	407	289	2	27	976	-	-	324
합계	계통	138,402	199,364	176,855	163,200	204,481	135,587	94.5	175,897
	비계통	2,556	11,579	11,830	8,478	12,267	7,826	5.5	10,396
	합계	140,958	210,943	188,685	171,678	216,748	143,413	100.0	186,293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지역별 멸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전체 생산량의 60.7%로 전년(57.3%)보다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13.0%), 부산광역시(11.5%), 충청남도(7.9%) 등 순이었으며, 전남의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의 멸치 어획량이 늘면서 전년(12.7%) 대비 늘었고, 충남은 전년(14.5%)보다 줄었음

〈표 4-99〉 연도별 지역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14,643	14,851	14,787	15,758	18,857		
인천광역시	62	64	100	40	71	223	0.2	100
울산광역시	790	570	1,754	948	2,576	448	0.3	1,259
경기도	-	9	26	30	1	0	0.0	13
강원도	26	54	106	35	6	42	0.0	49
충청남도	18,030	45,916	35,325	29,150	31,402	11,332	7.9	30,625
전라북도	1,059	1,884	1,332	750	835	775	0.5	1,115
전라남도	30,542	37,138	30,448	28,000	27,461	18,614	13.0	28,332
경상북도	149	2,509	2,248	4,077	4,165	2,501	1.7	3,100
경상남도	72,804	102,355	100,297	89,070	124,249	87,093	60.7	100,613
제주도	2,852	5,593	2,260	3,820	7,124	5,940	4.1	4,947
합계	140,958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00.0	186,293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멸치의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기선권현망어업 생산량이 9만 1,162톤으로 가장 많았음. 이는 총생산량의 63.6%를 차지했으며 전년(58.7%) 대비 늘었음
 - 이 외에는 어법별 생산량 비중은 연안선망 5.5%, 정치망 5.5%, 연안들망 5.0%이었음

<표 4-100> 연도별 어법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기선권현망	84,150	114,347	108,563	92,052	127,168	91,162	63.6	106,658
근해안강망	16,197	28,383	22,057	13,392	16,789	6,328	4.4	17,390
정 치 망	8,679	10,858	15,648	17,445	13,768	7,874	5.5	13,119
연안선망	8,627	16,336	8,209	8,935	14,060	7,941	5.5	11,096
연안들망	5,844	9,056	3,775	2,111	4,969	7,118	5.0	5,406
기타	17,461	31,963	30,432	37,742	39,994	22,990	16.0	32,624
계	140,958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00.0	186,293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1년 멸치 수출량은 742톤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9.9% 적었음
 - 이는 멸치 어획량이 감소한데다 중·대멸 비중이 줄면서 국내 내수용으로 소진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에 이어 원활한 수출이 어려웠기 때문임
- 수출금액은 1,0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6.1% 낮았음. 수출단가는 kg당 13.9달러로 전년(13.6\$/kg)보다 소폭 높았음
- 2021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66.4%)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15.0%), 캐나다(7.8%), 호주(3.4%) 등으로 전년과 비슷했음
- 2021년 멸치 수입량은 41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6%, 78.4% 적었음

- 국내 멸치 어획량이 적었음에도 수입량이 평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표 4-101〉 연도별 멸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944	10,344	11.0	284	1,037	3.6
2017년	674	8,295	12.3	281	1,139	4.1
2018년	1,342	20,270	15.1	178	868	4.9
2019년	881	11,981	13.6	157	785	5.0
2020년	788	10,682	13.6	51	269	5.3
2021년	742	10,331	13.9	41	266	6.5
5개년 평균	885	12,312	13.9	142	665	4.7
전년 대비	-5.8	-3.3	2.2	-19.6	-1.1	22.6
평년 대비	-19.9	-16.1	5.9	-78.4	-67.5	41.9

주: 1) 수출입 중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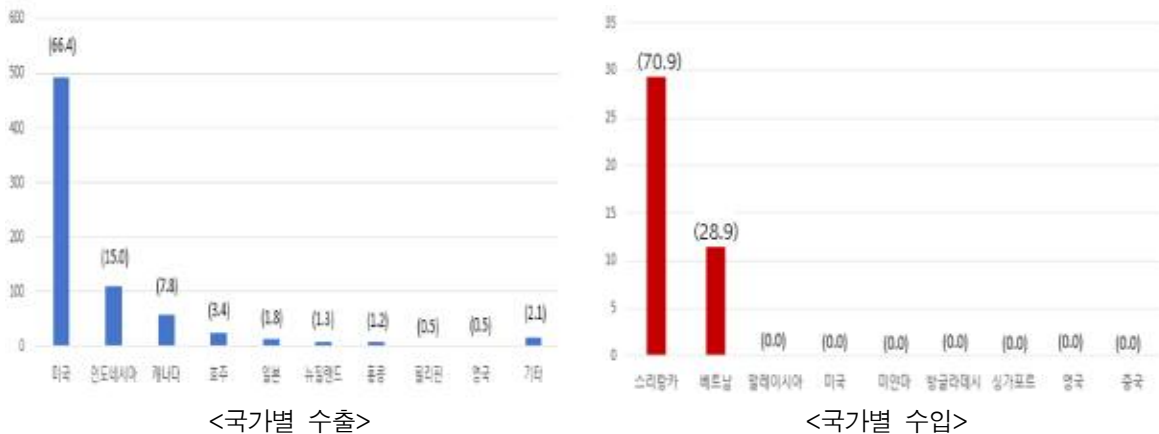
3) 2016년 HS코드: 305592000, 2017-2021년 HS코드: 30554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수입금액은 26.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67.5% 낮았음. 수입단가는 kg당 6.5달러로 전년(5.3\$/kg) 대비 높았음
- 2021년 기준 국가별 수입비중은 스리랑카(70.9%)로부터 수입된 양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는 베트남(28.9%) 등이었음

〈그림 4-54〉 국가별 멸치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21년 마른멸치 총 공급량은 3만 4,594톤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음
 - 전년의 멸치 어획 증가로 이입 재고량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 멸치 생산 및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4.9%, 19.6% 감소했기 때문임
 - 총 공급량에서 국내 생산 비중은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입 재고는 7.4%, 수입량은 0.1%이었음
- 2021년 국내 마른멸치 소비량은 3만 2,412톤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1.0% 적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수요는 늘었으나, 급식·식당 등 대형 식자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임
 - 총 공급량에서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7%이었으며, 이월 재고량은 4.2%, 수출량은 2.1%이었음
 - 2021년 마른멸치 자급률은 98.7%로 생산량이 줄면서 전년(103.0%)보다 낮았으며,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표 4-102> 연도별 마른멸치 수급구조

단위: 톤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6년	38,103	284	3,059	41,446	38,425	944	2,077	99.2
2017년	44,677	281	2,077	47,035	44,933	674	1,428	99.4
2018년	48,589	179	1,428	50,196	46,534	1,342	2,320	104.4
2019년	34,382	160	2,320	36,862	33,958	881	2,023	101.2
2020년	42,619	51	2,023	44,693	41,358	788	2,547	103.0
2021년	32,006	41	2,547	34,594	32,412	742	1,440	98.7
전년 대비	-24.9	-19.6	25.9	-22.6	-21.6	-5.8	-43.5	-
평년 대비	-23.2	-78.5	16.8	-21.5	-21.0	-19.9	-30.7	-

주: 수출입은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각 수협 위판자료 및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2) 수출입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2021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은 연평균 kg당 4,905원으로 어획량이 감소했음에도 전년 대비 18.1% 하락했음
 - 산지가격이 연초부터 낮게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하락했음
- 2021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산지가격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은 설 명절 성수기 및 어한기를 대비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이 상승했음
 - 3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4월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물량은 급감했으나 중·대멸 어획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멸 산지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하락했음
 - 금어기 이후, 특히 9월부터는 멸치 어획량이 급감했음에도 9~10월 중멸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낮았음
 - 어획 급감에 따른 영향이 11월 가격에 반영되면서 1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12월에 다시 하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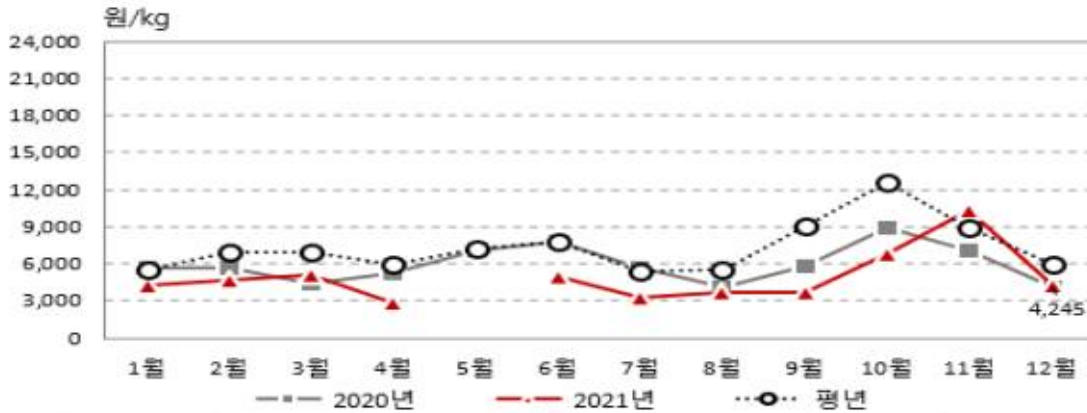
〈표 4-103〉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788	6,618	5,705	4,759	5,637	4,324	5,409	-23.3	-21.4
2월	5,876	8,669	9,911	4,508	5,723	4,684	6,699	-18.2	-32.5
3월	7,662	8,301	9,852	4,465	4,468	5,070	6,431	13.5	-27.0
4월	6,275	6,786	7,562	3,814	5,294	2,889	5,269	-45.4	-51.4
5월	6,813	9,353	9,150	3,938	7,019	-	7,365	-	-
6월	7,607	9,901	7,347	6,076	7,743	5,025	7,218	-35.1	-35.0
7월	4,765	5,555	6,438	4,366	5,734	3,204	5,059	-44.1	-40.4
8월	5,531	5,813	4,973	7,136	4,140	3,674	5,147	-11.3	-33.4
9월	8,634	8,442	9,471	12,572	5,842	3,666	7,999	-37.2	-59.2
10월	7,783	13,091	11,698	21,258	8,982	6,865	12,379	-23.6	-45.4
11월	7,256	9,433	7,247	13,880	7,099	10,309	9,594	45.2	14.8
12월	6,303	7,763	4,776	7,029	4,171	4,245	5,597	1.8	-29.3
연평균	6,608	8,310	7,844	7,817	5,988	4,905	6,973	-18.1	-32.9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멸치권현망수협 위판자료

〈그림 4-55〉 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멸치권현망수협 위판자료

2) 도매가격

- 2021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6% 하락한 연평균 kg당 10,863원이었음
- 전년보다 어획량이 줄었음에도 도매가격은 연중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했으며, 연초를 제외하고는 평년에 비해서도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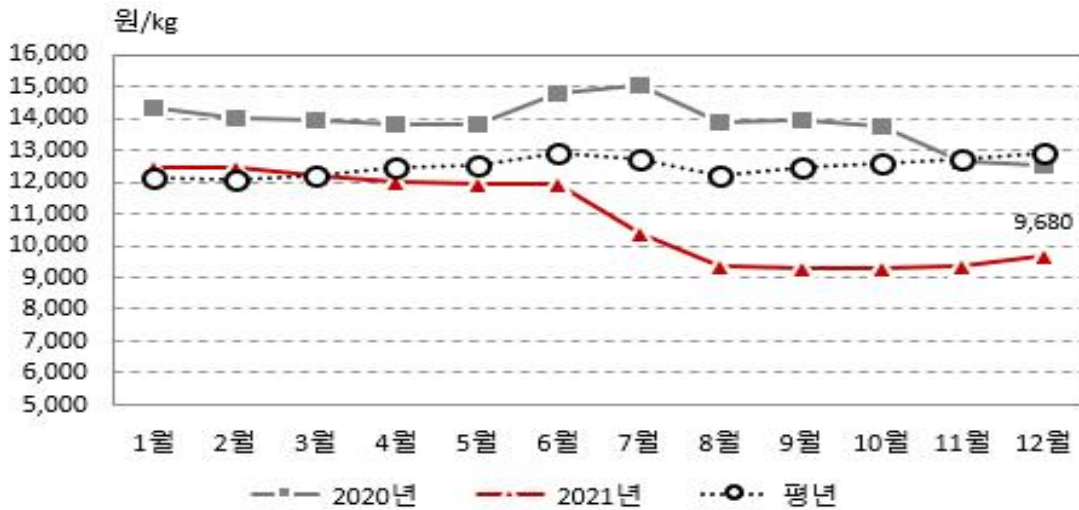
〈표 4-104〉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9,347	12,125	13,151	11,779	14,307	12,480	12,768	-12.8	2.8
2월	9,400	11,832	13,319	11,769	14,007	12,480	12,681	-10.9	3.4
3월	9,503	12,183	13,591	11,766	13,915	12,217	12,734	-12.2	0.2
4월	10,447	12,436	13,667	11,963	13,807	11,981	12,771	-13.2	-3.9
5월	10,747	12,508	13,733	11,911	13,825	11,960	12,787	-13.5	-4.7
6월	10,832	12,793	14,011	12,000	14,788	11,960	13,110	-19.1	-7.2
7월	10,768	12,902	13,250	11,693	15,025	10,357	12,645	-31.1	-18.6
8월	10,709	12,638	12,217	11,499	13,900	9,344	11,920	-32.8	-23.4
9월	10,779	13,242	12,359	11,979	13,922	9,271	12,155	-33.4	-25.6
10월	10,907	13,321	12,314	12,629	13,718	9,259	12,248	-32.5	-26.4
11월	11,043	13,388	12,121	14,521	12,620	9,371	12,404	-25.7	-26.4
12월	11,378	13,621	12,107	14,787	12,500	9,680	12,539	-22.6	-24.8
연평균	10,488	12,749	12,987	12,358	13,861	10,863	12,564	-21.6	-13.0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6〉 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1년 마른멸치(중멸)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kg당 28,573원으로 전년 대비 3.4%, 평년에 비해서는 10.1% 상승했음
 - 산지 및 도매가격 하락세에도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마른멸치 특성상 1.5kg 종이상자로 포장되어 개인별 보관이 용이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관해도 상품 변질 등이 심하지 않아 일부 중도매인 및 소매상 등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출하를 늦췄기 때문임
- 월별로는 연초에 높게 유지되었던 소비자가격이 금어기 이후에도 산지 및 도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점차 약보합세로 나타났음
 - 연초부터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던 소비자가격이 1~2월에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3월에 대형소매점의 할인행사 등이 진행되면서 소폭 하락했음
 - 4~6월에는 멸치 포획 금지기간(금어기)으로 어획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부비축물량이 방출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하반기에도 산지 및 도매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약보합세를 나타내다 11~12월에 전년 대비 낮게 거래되었음

<표 4-105>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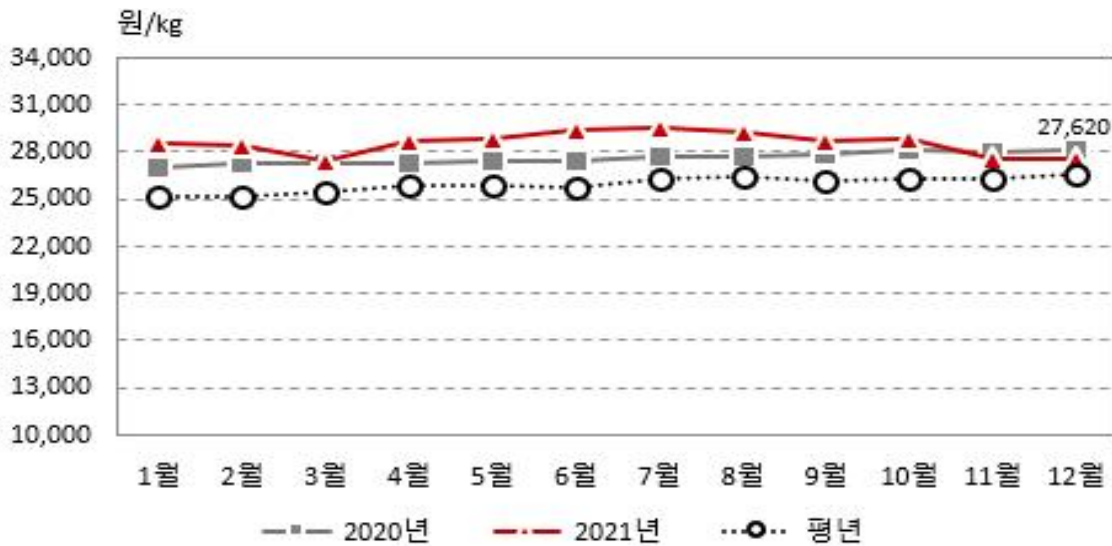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1,210	25,200	26,650	25,430	27,070	28,600	26,590	5.7	13.9
2월	21,260	25,580	26,760	25,300	27,230	28,440	26,662	4.4	12.7
3월	21,370	26,280	26,740	25,710	27,350	27,400	26,696	0.2	7.5
4월	22,030	27,350	26,630	25,990	27,340	28,690	27,200	4.9	10.9
5월	22,490	26,600	26,470	26,380	27,450	28,780	27,136	4.8	11.2
6월	22,220	25,350	26,910	26,860	27500	29,420	27,208	7.0	14.2
7월	23,760	25,930	27,480	26,970	27,710	29,620	27,542	6.9	12.3
8월	23,760	26,430	27,060	26,950	27,777	29,200	27,483	5.1	10.6
9월	24,100	25,570	26,010	27,030	27,900	28,730	27,048	3.0	10.0
10월	24,140	25,620	26,180	27,320	28,080	28,780	27,196	2.5	9.6
11월	24,870	25,660	25,990	27,270	28,040	27,600	26,912	-1.6	4.7
12월	25,320	26,120	25,790	27,230	28,110	27,620	26,974	-1.7	4.2
연평균	23,044	25,974	26,556	26,537	27,630	28,573	27,054	3.4	10.1

주: 1) 100g 단위로 소포장해서 거래되는 마른멸치 소비자가격을 kg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7> 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100g 단위로 소포장해서 거래되는 마른멸치 소비자가격을 kg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마른멸치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마른멸치는 어선에서 자숙과정을 거친 후 양륙되고, 가공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분류하고, 1.5kg 크기의 종이상자에 포장함
 - 종이상자를 6개씩 묶는 밴딩작업을 한 후, 경매장으로 운송된 마른멸치는 항운노조원이 운반차량에서 포장된 마른멸치를 내리고 위판장까지 이동하며, 이때 하륙 및 하차비용(노임 포함)이 발생함
-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된 마른멸치는 산지 유통인의 냉동창고, 소비지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대형 소매업체 등으로 유통됨
 - 산지 위판장을 통해 계통출하되는 유통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95.0%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도매시장(가락, 중부시장 등)에 출하하는 비중은 5%로 조사되었음
 - 위 유통비중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추정치이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조사에서도 제외하였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장 내 하역작업을 통해 산지에 이어 2차 경매가 이뤄짐
 - 가락시장(서울건해산물) 등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된 마른멸치는 각 소매단계별 유통을 위한 재선별 및 재포장이 이뤄짐
 - 한편, 최근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 산지유통인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마른멸치는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유통채널을 통한 택배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리하면, 마른멸치의 제도권 내 시장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 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로 전년과 유사했음
 -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비계통 유통경로는 생산자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를 거쳐 유통됨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 마른멸치 생산량은 3만 2,006톤⁴⁹⁾으로 하반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4.9% 감소했음
-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72.2%로 전년(73.9%)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통출하율도 95%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뤄지는 경우는 산지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도매시장(서울건해산물, 광주건어물유통시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비계통출하율이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본 조사에는 마른멸치 위판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하여 전년과의 비교도 용이하였음
- 마른멸치의 개별 유통경로별 물량비중은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하였음

〈표 4-106〉 마른멸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생산자		32,006	100.0	
산지 위판장 (계통 출하)	산지유통인 및 냉동냉장창고	소비지도매시장	4,480	14.0
		소매상(전통시장 등)	2,240	7.0
		대형 소매업체	2,240	7.0
		온라인, 택배	5,981	18.7
		가공식품 등	320	1.0
		수출	742	2.3
	소비지도매시장		3,259	10.2
	소매상(전통시장 등)		4,889	15.3
	대형 소매업체		6,194	19.3
	정부비축		61	0.2
소비지 도매시장(비계통 출하)		1,600	5.0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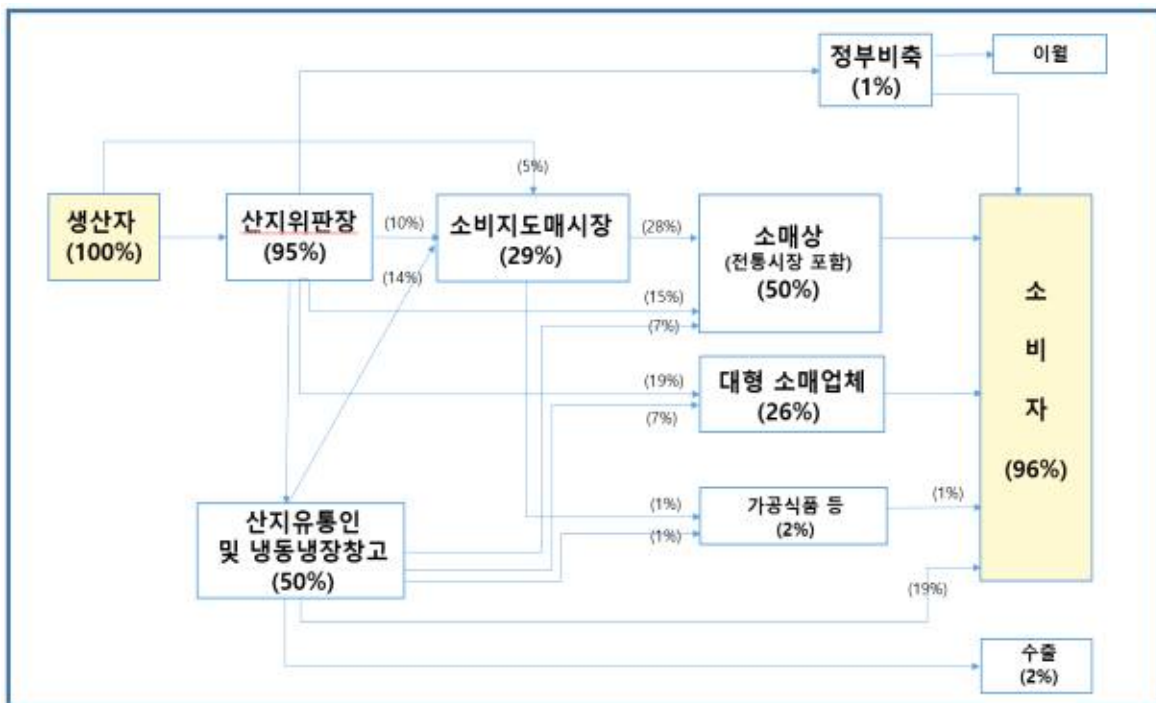
-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유통인의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는 비중은 전체 유통비중의 50%로 전년과 비슷했음

49) 각 수협 위판자료 및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임

- 이 물량은 소비지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대형 소매업체, 수출용, 가공식품용 등으로 유통되었음
- 2021년에는 물량이 적었음에도 산지 및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음
-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유통비중의 29%로 전년(37%) 대비 낮았음
 - 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각각 위판을 거치면서 위판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중도매인들의 이윤이 낮아져 소비지도매시장의 2차 위판이 감소하고 있음
 - 산지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도매시장에 출하한 비율이 5%,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중도매인들이 소비지도매시장에 2차 위판을 하는 비율이 10%, 산지 유통인을 통해 위판되는 경우가 14%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위판한 물량은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28%), 가공식품 등(1%)으로 유통되었음
-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50%로 전년(50%)과 유사했으며, 이는 산지 위판장(15%), 산지 유통인(7%) 그리고 소비지도매시장(28%)을 통해 유입되었음
-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26%로 전년(27%)보다 소폭 낮았음
 - 유입경로는 산지 위판장이 19%로 전년(22%) 대비 낮았음. 반면, 산지 유통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중은 7%로 전년(5%)에 비해 늘었음
 - 소비자들의 마른멸치 소비패턴 변화로 크기별로 소포장되는 마른멸치에서 국물용 패키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지유통인을 통한 구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빈도가 높아지면서 산지 유통인이 보관하고 있는 마른멸치를 개별 유통채널을 통해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중(19%)이 늘었음
- 한편, 정부비축사업으로 2021년에 수매한 마른멸치 물량은 61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기존 계획한 물량보다 적었음

- 2020년 이월 재고량을 포함하여 2021년에 방출된 물량은 226톤이었으며, 이에 2022년에 이월되는 마른멸치 물량은 97톤으로 조사되었음
- 결과적으로 마른멸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가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유통인 혹은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소매단계로 유통되었음
- 국내 소비자가 소비한 마른멸치의 비중은 수출 등을 제외하면, 전체 마른멸치 유통비중의 96%로 전년(96%)과 유사했음

〈그림 4-58〉 마른멸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3. 마른멸치 유통비용

가.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는 어선 및 차량에서 마른멸치를 하륙 및 하차하는 비용, 경매장까지 운반하는 등의 노임이 발생하며, 이는 생산자가 부담함
- 어선에서 양륙된 마른멸치를 경매장에 운반하고, 경매장 근처에 샘플을 진열

하는 등의 노임이 상자당 99.5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98원/1.5kg)보다 높았음

- 위판을 거친 후에 발생하는 위판수수료는 위판금액의 3.4%로 전년과 동일했음
- 산지 중도매인은 위판받은 마른멸치를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소비지도매 시장 등에 유통하기 위한 상·하차비, 창고 보관료, 입·출고비 등을 부담함
 - 상·하차비는 1.5kg 상자당 108원, 냉동·냉장창고의 입고비(45원/1.5kg) 및 출고비(55원/1.5kg)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이적료는 위판장 인근 실온에 단기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1일당 39원이며, 냉동·냉장창고 보관료는 1일당 5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음
 - 산지 위판장에서 소비지도매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발생하는 운송비는 지역 별로 상이하나 1.5kg 상자당 160원으로 전년(155원/1.5kg) 대비 상승했음
 - 산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되며, 판매가격 대비 산지 중도매인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년(2.6%)보다 낮았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마른멸치가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경유하여 소비지 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에 상·하차비, 경매 수수료 등이 발생함
 - 소비지도매시장의 상·하차비는 1.5kg 상자당 110원으로 전년(108원/1.5kg)보다 높았으며, 경매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의 3% 내외로 전년과 동일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유통비용으로는 상차비, 물류비, 간접비 등임
 - 상차비는 1.5kg 상자당 55원이며, 가락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1.5kg 상자당 100원으로 조사되었음
 - 간접비를 제외한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되며,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전년(5.9%)보다 낮았음

3) 소매 단계

- 최종단계인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용 봉투, 집기 등 직접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함
 - 직접비 및 간접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이에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전년(10.4%)보다 낮았음

<표 4-107>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9,687	8,889.9	40.0	-
산지 위판장	하륙 및 하차입고비 (노임 및 밴딩재료비 등)	98	99.5	0.4	99.5원/1.5kg 상자
	위판수수료	344	316.4	1.4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10,129	9,305.8	41.9	각 수협별 위판가격 및 산지 중도매인의 조사가격
산지 중도매인	상차비	53	54	0.2	108원/1.5kg 상자
	하차비	53	54	0.2	
	입고비	44	45	0.2	100원/1.5kg상자
	출고비	54	55	0.2	
	이적료	38	39	0.2	39원/1일 (단기 보관)
	냉동창고 보관료	5	5	0.0	5원/1일
	운송비	155	160	0.7	160원/1.5kg 상자 (산지→소비지도매시장)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625	447.3	2.0	판매가격의 5% 내외
	산지출하(판매) 가격	11,156	10,165.1	45.8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54	55.0	0.2	110원/1.5kg 상자
	상차비	54	55.0	0.2	
	경매수수료	348	317.8	1.4	경매 낙찰가의 3.0%
	경매 낙찰가격	11,613	10,592.9	47.7	마른멸치(중멸) 가락시장 경락가격
소비자 중도매인	상차비	54	55.0	0.2	55원/1.5kg 상자
	물류비	80	100	0.5	100원/1.5kg 상자 (가락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3,744	3,856.3	17.4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보관료 등
	이윤	1,406	932.2	4.2	판매가격의 5% 이상
	중도매인 판매가격	16,896	15,536.4	69.9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497.7	517.6	2.3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3,838	4,605.6	20.7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2,469.3	1,555.0	7.0	판매가격의 5% 이상
	판매가격	23,701	22,214.6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마른멸치 중멸 기준이며, 조사 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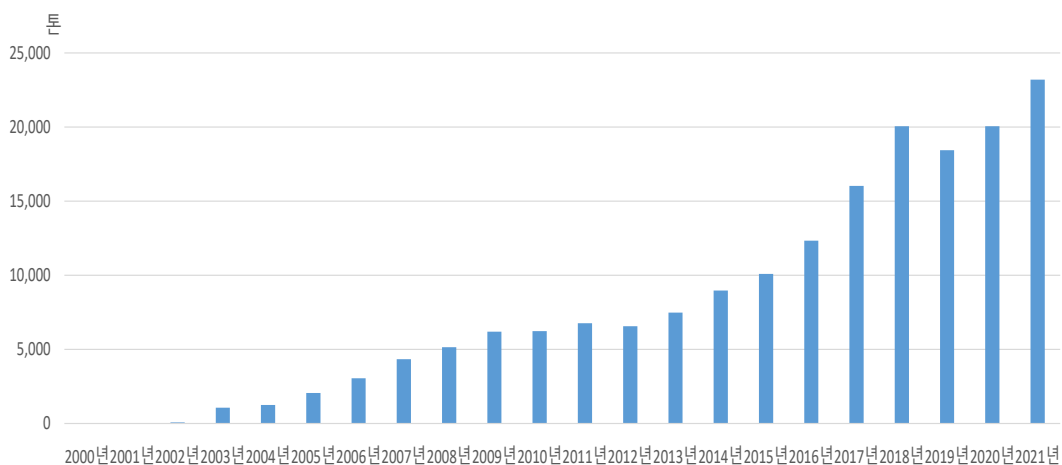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⁵⁰⁾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전복 생산량은 2019년에 감소했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음
 - 전복 폐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들은 칸 당 입식량을 감소시켰음. 이에 2019년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해상가두리 시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들어 전복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음
- 2021년 전복 생산량은 2020년에 비해 15.7% 증가한 2만 3,199톤이었음
 - 생산자들이 전복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칸당 입식량 감소, 어장 관리 개선 등의 효과 때문임
 - 또한 상반기 동안 먹이 공급이 원활했고 수온도 생장에 적정하게 형성됨에 따라, 마리당 중량이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그림 4-59〉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50) 일반해면어업으로 분류되는 ‘자연산’ 전복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유통실태 조사는 양식 전복을 대상으로 함

- 한편, ‘코로나19’는 전복 생산량의 변동, 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2020년 및 2021년에 생산된 전복의 치패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임
 - 그리고 생산자들은 기존에 양성 중인 전복을 판매하고, 치패를 입식하지 않으면 향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중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현재 가두리 시설량 수준의 생산량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전복 공급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에 큰 변동이 생겨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단기간 내에 공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기 어려움

〈표 4-108〉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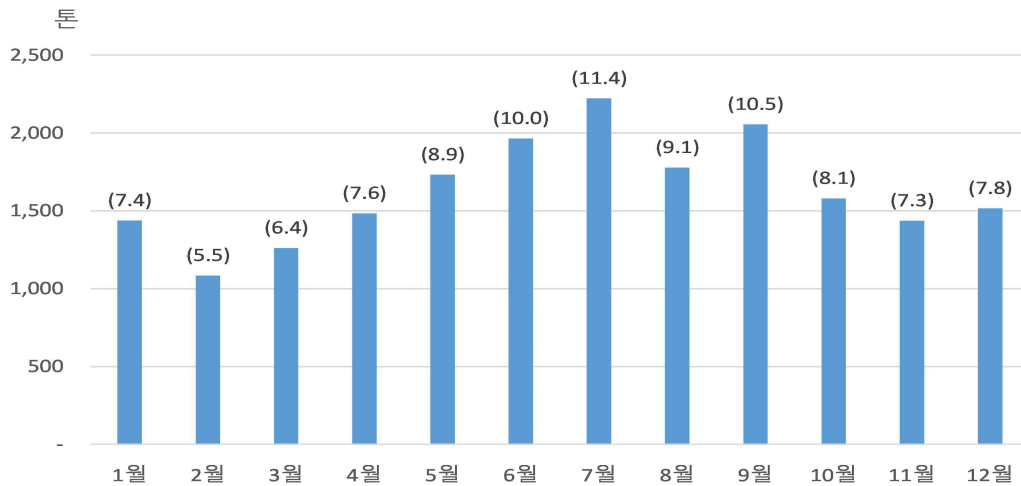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	59
1995년	61	2,884
2000년	20	1,941
2005년	2,062	92,813
2010년	6,228	233,145
2014년	8,977	296,840
2015년	10,090	324,670
2016년	12,342	347,395
2017년	16,027	577,368
2018년	20,053	607,142
2019년	18,436	591,855
2020년	20,059	610,340
2021년	23,199	694,339
5개년 평균	19,555	616,209
전년 대비	15.7	13.8
평년 대비	33.5	27.0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전복 생산금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음
 - 전복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의 생산금액 또한 증가했음. 그러나 추석 이전까지 전복 가격이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생산금액의 증가율이 생산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음

〈그림 4-60〉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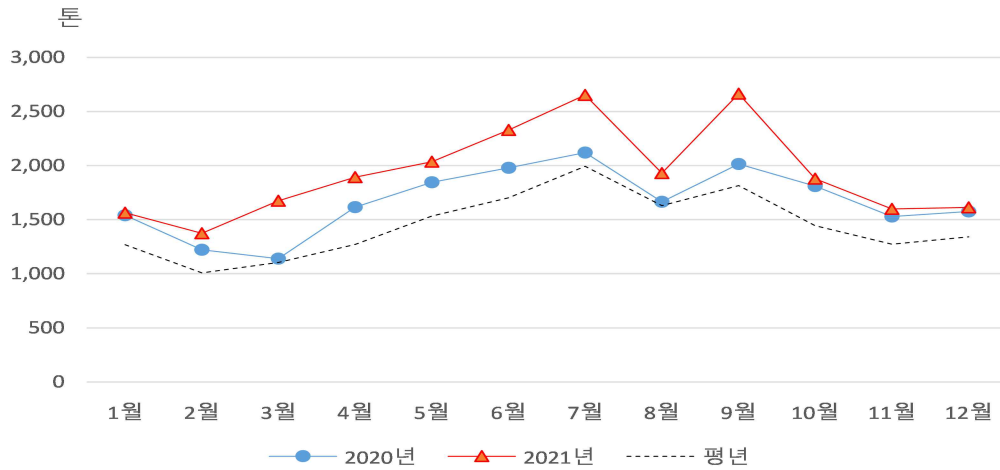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동안 월별 전복 출하량의 변동을 살펴보면, 출하량은 상반기 동안 증가세를 보였고, 하반기에 감소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음
 - 상반기에는 1월 이후 2월에 출하량 비중은 크게 감소함. 이는 1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량이 많은 시기이지만, 2월은 설 명절 이후 수요가 줄어들고 동시에 생산자들 또한 전복 양성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 3월부터 봄철 출하가 시작되면서 상반기 동안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7월에 복날 전복 수요의 영향과 고수온기 이전에 출하하려는 생산자들의 의향과 맞물리면서 출하량이 연중 가장 많은 편임
 - 8월 들어 전복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9월에 추석 수요 및 이를 겨냥한 생산자들의 공급으로 인해 출하량은 다시 증가함
 - 이후 추석 이후부터 출하 가능한 전복이 크게 줄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출하량은 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12월 연말연시 수요 및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출하량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 2021년 전복의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최근 5년 동안의 추세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대체로 전년에 비해 월별 출하량이 많았고 9월의 출하량 변동이 이전과 차이를 나타냈음

- 출하 가능한 물량이 전년에 비해 많았던 가운데, 추석을 맞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용 수요가 크게 늘었음. 이에 9월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그림 4-61> 2021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09>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10	1,098	1,241	1,751	1,540	1,563	1,439	1.5	23.3
2월	998	871	962	992	1,222	1,375	1,084	12.5	36.3
3월	887	1,071	1,244	1,179	1,139	1,673	1,261	46.9	51.5
4월	828	1,157	1,406	1,351	1,616	1,892	1,484	17.1	48.8
5월	1,044	1,246	1,807	1,724	1,845	2,036	1,732	10.4	32.8
6월	1,020	1,322	2,236	1,959	1,980	2,328	1,965	17.6	36.7
7월	1,498	1,767	2,521	2,055	2,120	2,651	2,223	25.0	33.1
8월	1,184	1,842	1,895	1,557	1,665	1,929	1,778	15.9	18.4
9월	1,462	1,621	2,141	1,836	2,015	2,663	2,055	32.2	46.7
10월	1,199	1,180	1,603	1,431	1,811	1,877	1,580	3.6	29.9
11월	777	1,379	1,446	1,232	1,529	1,599	1,437	4.6	25.6
12월	737	1,471	1,553	1,369	1,576	1,613	1,516	2.3	20.3
합계	12,342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19,555	15.7	33.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0〉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계	계통	267	190	91	152		
	비계통	12,075	15,836	19,962	18,284	19,914	23,091	99.5	19,417
	소계	12,342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100.0	19,55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계통·비계통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이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전복 출하는 모두 활어 상태로 이루어졌고, 산지 생산자들은 대부분 비계통으로 전복을 판매했음
- 2021년 비계통 출하의 비중은 99.5%였고, 계통 출하량은 0.5%에 불과했음

〈표 4-111〉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전라남도	12,201	15,904	19,905	18,237	19,726		
경상남도	13	22	48	114	48	35	0.2	53	
충청남도	47	24	30	36	24	31	0.1	29	
제주도	32	27	23	22	252	24	0.1	70	
울산광역시	36	34	40	21	6	7	0.0	22	
경상북도	10	12	5	4	2	2	0.0	5	
강원도	0	0	0	2	0	0	0.0	0	
부산광역시	3	2	2	0	1	1	0.0	1	
합계		12,342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100.0	19,55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지역별 전복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생산량이 99.6%로써 대부분을 차지했음
- 전라남도 이외 지역의 생산량 비중은 0.4%였는데, 경남, 충남, 제주도 등에서 전복이 생산되었음

나. 수출입 현황

- ‘코로나19’의 영향 전년에 이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복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136톤⁵¹⁾이었음
 - 2020년 3월 이후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유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에 이 같은 수출 유통의 문제는 없었음
 - 또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2020년에 비해 수출 수요가 다소 회복되면서 수출량이 증가했음
 - 특히 10월 이후부터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의 전복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하면서 수출량은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표 4-112〉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2,301	66,237	28.8	529	9,226	17.4
2017년	1,738	52,181	30.0	523	9,191	17.6
2018년	2,379	62,936	26.5	585	9,349	16.0
2019년	2,174	61,529	28.3	797	13,887	17.4
2020년	1,917	51,946	27.1	931	19,354	20.8
2021년	2,136	54,440	25.5	735	12,134	16.5
5개년 평균	2,069	56,606	27.5	714	12,783	17.7
전년 대비	11.4	4.8	-5.9	-21.1	-37.3	-20.6
평년 대비	1.6	-3.3	-13.8	28.0	22.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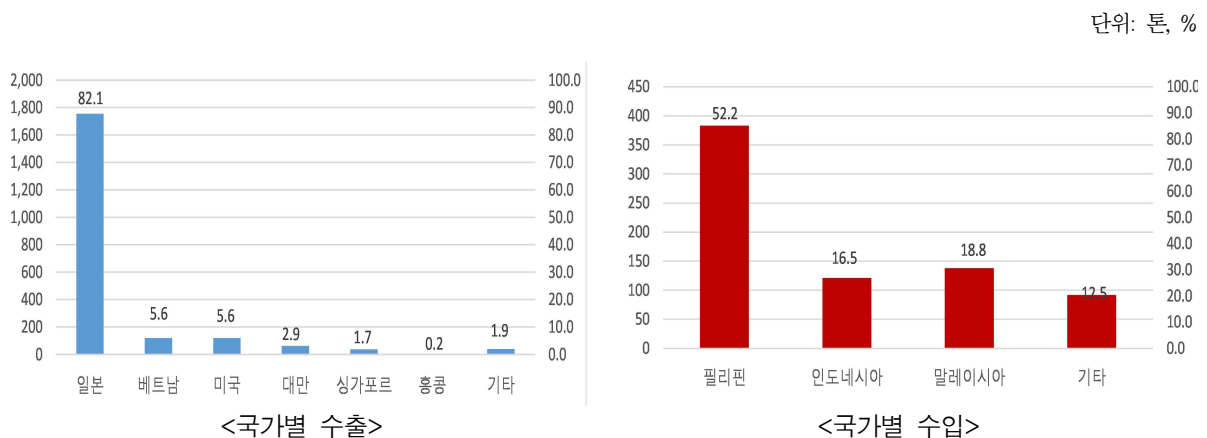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많은 1,754톤으로 82.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대만 등의 순이었음
 - 일본에 수출된 전복은 ‘코로나19’로 2020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2021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에 비해 10.4% 증가했음
 - 베트남은 최근 한국산 전복 수출량이 크게 늘기 시작한 국가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복이 수출되면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수출량은 135톤에 이르렀음

51) HS-Code로 분류된 수출량이며, 수출이 적용되지 않았음

-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베트남의 전복 수요 또한 줄면서 2021년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14.7% 감소한 119톤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톤 이상의 전복이 베트남에 수출되면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전복 수출대상국이라고 보여짐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복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21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전복은 120톤으로 전년에 비해 55.9% 증가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포를 대상으로 전복 수요가 증가했음
- 이와 달리 홍콩으로 수출되는 전복은 감소세를 보였음. 2021년 홍콩으로 수출된 물량은 4톤으로 65.7% 감소했음. 이는 홍콩의 정치적인 문제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전복 수입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 수입되었음
 - 필리핀에서 수입된 전복은 383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레이시아가 138톤, 인도네시아가 121톤 등의 순이었음
 - 수입되는 전복은 자숙하여 냉동한 전복이 대부분인데, 이를 수육을 고려하여 원물로 환산하면 2021년의 수입량은 1,793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림 4-62>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4-113〉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활어	0307810000	1,968	88.2	49,781	91.4	3	0.2	39	0.2
냉동	0307830000	105	4.7	2,624	4.8	26	1.5	451	2.3
건조	0307871000	0.06	0.0	24	0.0	0.023	0.0	0.1	0.0
염장	0307872000	0.04	0.0	1	0.0	0	0.0	0	0.0
훈제	0307873000	0.03	0.0	2	0.0	0	0.0	0	0.0
밀폐용기	1605571000	43	1.9	1,439	2.6	6	0.3	53	0.3
기타	1605579000	20.0	0.9	569	1.0	1,758	98.0	11,591	59.9
합계		2,231	100.0	54,439	100.0	1,793	100.0	19,354	100.0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전복 수급 구조⁵²⁾는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특성을 나타냄
 - 이로 인해 국내 전복의 자급률은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자급률의 경우, 98.7%로 100%에 미치지 못했음
 -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수출량이 감소했지만, 국내 비대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배달식 및 간편식 등에 대부분 이용되는 수입산 전복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그러나 2021년에 수출량이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감소하면서 자급률이 101.9%로 증가했음

52) 전복의 재고는 없다고 가정하였음. 이는 전복은 출하가 된 이후에도 대부분 활전복 상태로 유통되어 저장성이 없기 때문임. 산지 및 도매 유통단계에서 활전복이 재고 상태로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음. 또한 냉동 처리되거나 자숙으로 가공되기도 하지만, 국내 전복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표 4-114〉 연도별 전복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6년	12,342	1,320	13,662	11,334	2,328	108.9
2017년	16,027	1,303	17,330	15,522	1,808	103.3
2018년	20,053	1,462	21,515	18,916	2,599	106.0
2019년	18,436	1,976	20,412	18,034	2,378	102.2
2020년	20,059	2,304	22,363	20,331	2,032	98.7
2021년	23,199	1,793	24,992	22,761	2,231	101.9
전년 대비	15.7	-22.2	11.8	12.0	9.8	-
평년 대비	33.5	7.2	31.1	35.3	0.1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수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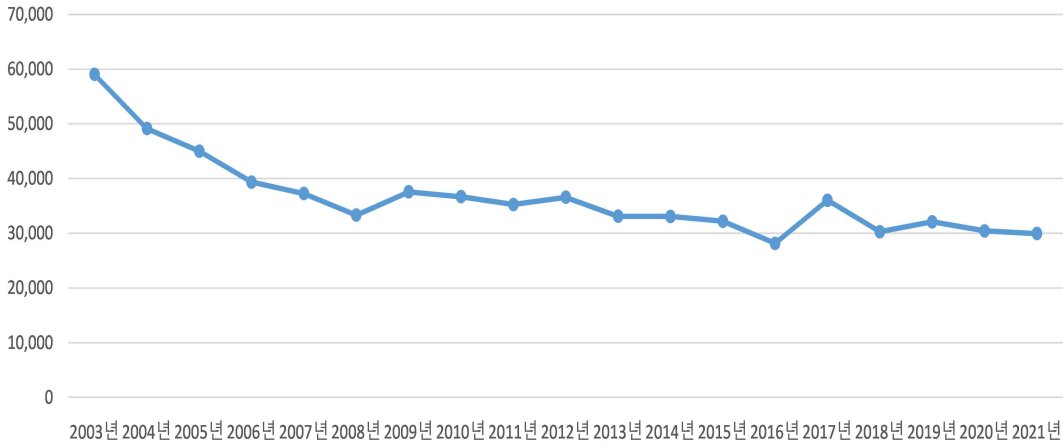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⁵³⁾

- 통계청의 전복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2021년의 생산단가는 29,930원/kg으로 2020년보다 1.6% 하락했고, 평년보다 4.7% 낮았음
 - 전복의 생산단가는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 kg당 30,000~40,0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1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음
 - 다만 2021년 추석 이후부터 전복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영향이 미쳤던 시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53) 전복 생산자들이 산지 유통인들에게 판매할 때, 덩이 포함됨. 대체로 15% 내외의 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지가격은 약 1.15kg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63〉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5〉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2,429	44,681	32,777	34,551	32,463	31,067	35,108	-4.3	-12.2
2월	30,550	40,319	31,947	33,044	31,881	29,640	33,366	-7.0	-11.6
3월	28,034	37,947	30,283	31,312	30,374	29,001	31,783	-4.5	-8.2
4월	27,150	35,418	27,549	31,370	29,046	28,758	30,428	-1.0	-4.5
5월	27,330	33,397	25,132	31,003	28,418	28,132	29,216	-1.0	-3.2
6월	25,829	33,722	26,569	30,183	28,300	27,491	29,253	-2.9	-4.9
7월	24,829	33,651	27,491	30,819	28,491	27,121	29,515	-4.8	-6.7
8월	25,386	33,156	28,667	31,975	27,768	26,513	29,616	-4.5	-9.8
9월	30,595	34,660	33,694	32,039	29,512	29,787	31,938	0.9	-7.2
10월	28,649	36,377	34,657	33,571	32,882	31,620	33,821	-3.8	-4.8
11월	28,678	37,639	34,502	33,601	34,198	35,528	35,094	3.9	5.3
12월	31,265	36,593	34,316	33,022	33,914	38,621	35,293	13.9	14.2
연평균	28,143	36,029	30,274	32,097	30,429	29,930	31,752	-1.6	-4.7

주: 1) 천해양식어업의 전복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1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전복 산지가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하는 kg당 15마리 크기를 대상으로 함

- 전복의 산지가격은 크기별 기준인 kg당 마리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kg당 7마리에서 20마리까지는 각 단계별로 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며, 25마리, 30마리, 40마리 등의 작은 크기들도 각각 가격이 서로 구분됨
- 그런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되는 전복은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모두 kg당 15마리 내외의 크기이기 때문에 산지가격 또한 이를 기준으로 삼았음

〈표 4-116〉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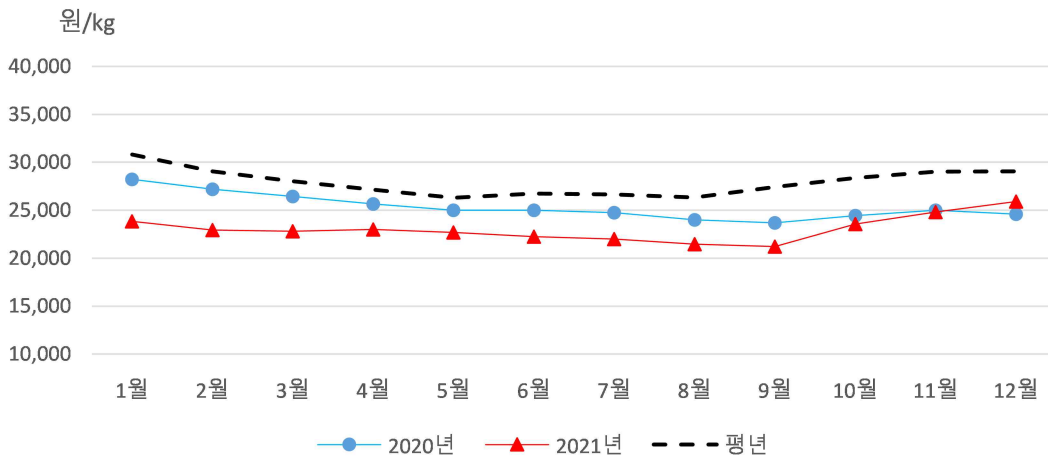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2,500	36,900	27,567	28,800	28,233	23,833	29,067	-15.6	-22.6
2월	31,333	32,900	26,667	27,233	27,200	22,933	27,387	-15.7	-21.1
3월	31,000	30,667	26,000	26,000	26,433	22,800	26,380	-13.7	-18.6
4월	30,917	29,233	23,933	26,000	25,667	23,000	25,567	-10.4	-15.3
5월	30,167	28,000	22,333	26,000	25,000	22,700	24,807	-9.2	-13.7
6월	29,500	28,767	24,433	26,000	25,000	22,233	25,287	-11.1	-16.9
7월	29,500	28,900	24,100	26,000	24,767	22,000	25,153	-11.2	-17.5
8월	29,000	28,233	24,500	26,000	24,000	21,467	24,840	-10.6	-18.5
9월	30,000	28,667	28,233	26,533	23,700	21,200	25,667	-10.5	-22.7
10월	30,000	29,500	29,000	28,867	24,433	23,567	27,073	-3.5	-16.9
11월	30,200	32,200	28,700	29,000	25,000	24,800	27,940	-0.8	-14.5
12월	33,333	30,833	28,500	28,000	24,600	25,900	27,567	5.3	-10.9
연평균	30,621	30,400	26,164	27,036	25,336	23,036	26,394	-9.1	-17.5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kg당 15마리 기준으로 전복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2021년의 연평균가격은 kg당 23,036원으로 2020년에 비해 9.1% 하락했고, 평년에 비해 17.5% 낮게 형성되었음
- 2020년에 이어 큰 크기 전복 산지가격 강세를 보였지만, 중간 및 작은 크기는 약세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복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크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음
 - 큰 크기의 산지가격은 2021년 초부터 비대면 선물용 수요의 영향으로 2020

- 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이 같은 양상은 연말까지 지속되었음
- 그러나 작은 크기의 가격은 큰 크기와 달리 대체로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음
 - 작은 크기들은 주로 대중음식점 등에 판매됨.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작은 크기들의 수요가 전년에 이어 많지 않았음
 - 하지만 전복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아지면서 가격이 약세를 면하지 못했음

<그림 4-64>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전복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6년 11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대상의 전복은 중품⁵⁴⁾의 1kg 기준⁵⁵⁾임
- 2021년 전복 kg당 14~15마리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35,764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7%, 11.5% 낮았음

54) kg당 14~15마리 내외이고 개당 60~70g 크기

55) 2019년까지 도매가격은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가격을 활용했으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모두 조사하고 있어, 2020년부터 이를 기준으로 전복의 도매가격 동향을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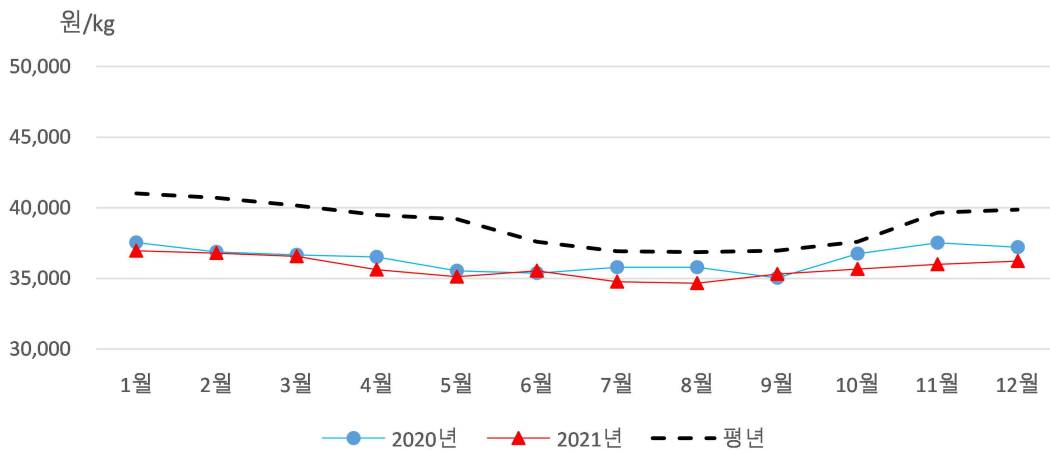
〈표 4-117〉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50,430	39,682	36,418	37,540	36,970	40,208	-1.5	-9.9
2월	-	49,960	39,618	36,388	36,878	36,793	39,927	-0.2	-9.6
3월	-	48,418	39,400	36,200	36,677	36,560	39,451	-0.3	-9.0
4월	-	46,130	39,152	36,200	36,525	35,624	38,726	-2.5	-9.8
5월	-	46,002	39,080	36,200	35,537	35,118	38,387	-1.2	-10.4
6월	-	42,400	36,979	35,611	35,365	35,546	37,180	0.5	-5.4
7월	-	41,023	35,600	35,261	35,798	34,769	36,490	-2.9	-5.8
8월	-	40,821	35,764	35,114	35,797	34,660	36,431	-3.2	-6.0
9월	-	40,981	37,094	34,800	35,047	35,313	36,647	0.8	-4.5
10월	-	41,090	37,400	35,124	36,753	35,660	37,205	-3.0	-5.1
11월	47,764	40,742	36,636	35,705	37,520	36,001	37,321	-4.0	-9.3
12월	48,612	40,032	36,600	36,860	37,205	36,233	37,386	-2.6	-9.1
연평균	48,178	44,010	37,735	35,818	36,378	35,764	37,941	-1.7	-11.5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65〉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3) 소비자가격

- 전복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6년 11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음. 조사 대상의 전복은 중품 5마리 기준인데, 이를 kg으로 환산하였음⁵⁶⁾
- 2021년 kg당 14~15마리의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43,877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6.8%, 15.6% 낮게 형성되었음

<표 4-118>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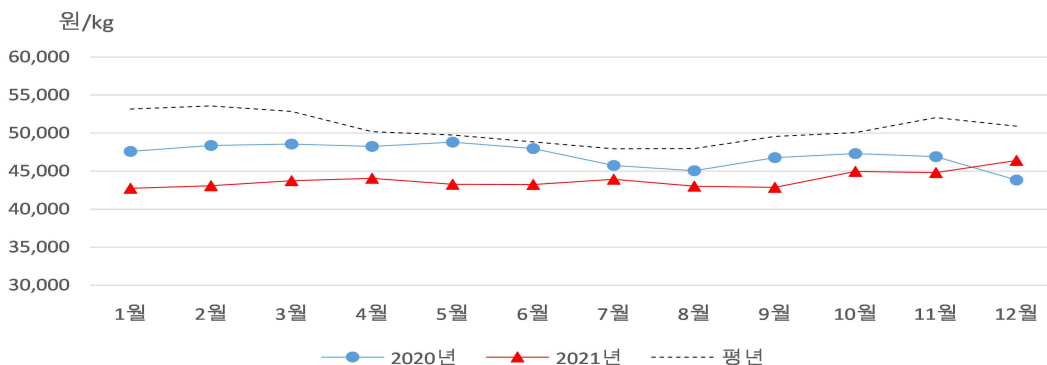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62,083	52,086	50,948	47,609	42,738	51,093	-10.2	-19.6
2월	-	62,575	52,058	51,326	48,385	43,092	51,487	-10.9	-19.6
3월	-	61,089	50,714	51,068	48,575	43,754	51,040	-9.9	-17.2
4월	-	56,222	48,889	47,446	48,255	44,071	48,977	-8.7	-12.2
5월	-	55,428	48,375	46,431	48,828	43,271	48,466	-11.4	-13.1
6월	-	52,889	47,182	47,335	47,966	43,243	47,723	-9.8	-11.5
7월	-	52,778	46,871	46,378	45,754	43,945	47,145	-4.0	-8.3
8월	-	52,471	48,357	45,948	45,074	43,009	46,972	-4.6	-10.3
9월	-	51,705	52,403	47,412	46,791	42,865	48,235	-8.4	-13.5
10월	-	54,215	52,065	46,674	47,311	44,954	49,044	-5.0	-10.2
11월	59,074	54,409	54,772	45,058	46,911	44,815	49,193	-4.5	-13.9
12월	58,646	53,197	53,422	45,468	43,852	46,415	48,471	5.8	-8.8
연평균	58,865	55,757	50,566	47,566	47,089	43,877	48,971	-6.8	-15.6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을 kg 단위로 환산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6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을 kg 단위로 환산함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56) kg당 15내외, 개당 65g이라고 가정하고 1kg 기준으로 환산함

2. 양식전복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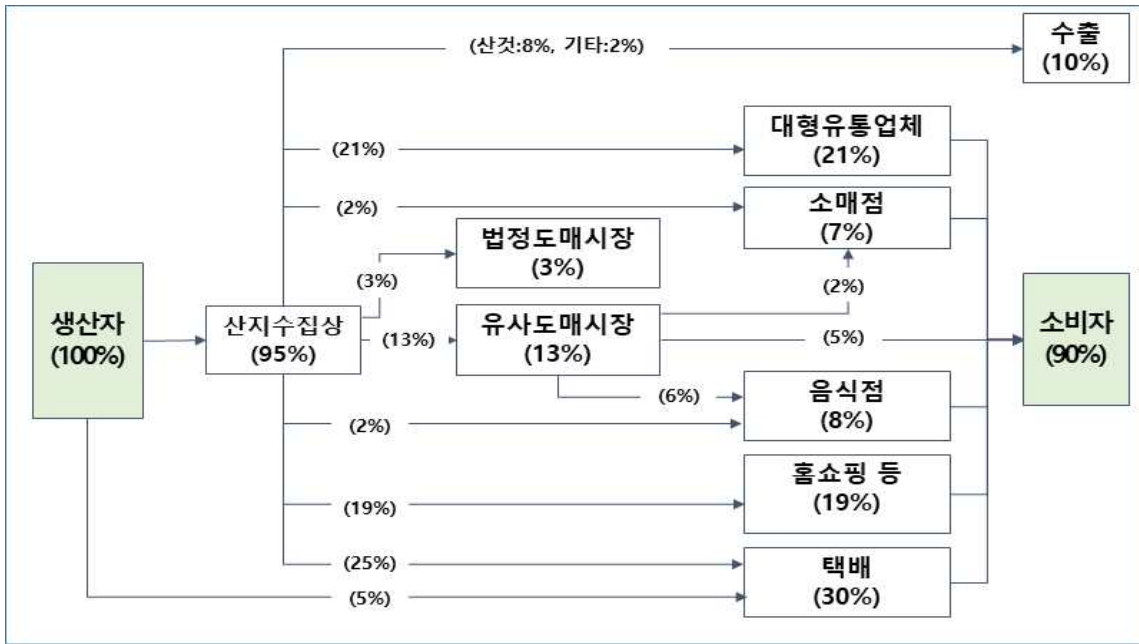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2021년 전복 유통경로는 이전과 비슷했지만, 경로별 비중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보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됨에 따라, 산지 생산자 및 유통상인들의 택배 물량과 홈쇼핑 등을 통한 전복 유통량이 크게 늘었음
 - 이에 반해 대면 판매 위주인 소매점, 음식점 등을 통한 전복 유통량은 2020년보다 줄었음
- 전복 비계통 출하를 기준으로 2021년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및 유통비중을 추정했음
 - 2020년과 마찬가지로 전복 생산량의 99.5%가 비계통으로 출하되었고, 계통 출하는 0.5%에 불과했기 때문임
- 비계통으로 출하된 양식전복의 약 95%가 산지수집상에게 판매되었고, 나머지 5%는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생산자가 직접 택배로 판매한 물량은 2020년보다 약 2%p 증가한 5%로 추정되었음
- 산지 수집상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에게 구매한 전복을 수출하거나, 대형유통업체, 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 이외에도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 소비지에 직접 유통함. 또한 홈쇼핑업체⁵⁷⁾ 및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했음
- 전복 수출의 경우, 수출 물량은 대부분 산지수입상이 구매한 전복으로 구성됨
 - 전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출업자가 생산자 혹은 산지수집상을 통해 전복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아 수출되는 전복의 비중은 적은 수준임
 - 산지수집상이 직접 수출하게 되면, 수출업자라는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임

57) 인터넷 판매 및 대행업체 포함

- 수출 물량 이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복은 산지수집상을 거쳐 유사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매점, 음식점으로 판매됨

<그림 4-67>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에도 2020년처럼 전복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
 - 양식전복 생산량 2만 3,199톤 중에서 계통으로 출하된 147톤을 제외한 비계통 물량인 2만 3,091톤을 기준으로 2021년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을 추정함
- 이 중에서 생산자가 택배 등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한 물량은 1,080톤으로 2020년보다 1.5%p 증가한 4.7%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용 소비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임
- 생산자가 산지수집상에게 출하한 물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2만 2,011톤이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3%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생산자들의 직접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이 중에서 수출된 물량은 2,231톤이었고, 비중은 전년보다 0.6%p 줄어든 9.7%였음
- 택배 및 지역 내에서 소비된 물량은 5,984톤이었고, 비중은 전년보다 5.5%p 늘어난 25.9%로 증가했음. 산지의 지역내 소비는 줄었지만, 비대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또한 인터넷 판매 등을 포함한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된 전복 물량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4,338톤으로 18.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큰 크기에 비해 수요가 적었던 중간 및 작은 크기들의 판매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표 4-119〉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		23,091	100.0
생산자 → 소비자(택배)		1,080	4.7
산지수집상	수출	2,231	9.7
	지역소비, 택배 등	5,984	25.9
	대형소매업체	4,750	20.6
	유사도매시장	3,064	13.2
	법정도매시장	741	3.2
	홈쇼핑	4,338	18.8
	기타(소매점, 음식점)	903	3.9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그러나 유사도매시장에 판매된 전복은 3,064톤, 비중은 13.2%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741톤으로 비중 또한 3.2%로 축소되었음. 산지수집상들 및 유사도매상인들이 음식점 및 소매점 등에 직접 유통한 물량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한 903톤으로 비중은 3.9%로 추정되었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지의 음식점 혹은 소매점의 영업을 원활하지 못해, 이 같은 소비처로 판매되는 물량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음
-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전복은 전년보다 늘어난 4,750톤이었지만, 물량 비중은 오히려 2020년보다 감소한 20.6%로 추정됨

-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음식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했음.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전복 유통 물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3. 양식전복 유통비용

- 2021년 조사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양식전복이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까지 거치는 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산지수집상→대형소매업체→소비자의 경로를 조사했음
 - 지역별 생산량이 가장 많고, 산지수집상이 집중되어 있는 완도에서 출하된 전복이 판매되는 경로를 추적했음
 -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kg당 14~15마리, 산지가격은 kg당 15마리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음
 - 이 같은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함

1) 산지 단계

- 2021년 조사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생산자 수취가격의 비율은 2020년 보다 소폭 상승한 56.3%로 조사되었음
 - 이는 kg당 15마리의 산지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추석 이후부터 조사시점인 11월 초순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대면 구매 수요가 적어 판매가격이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기 때문임
 - 한편 2021년 전복 산지가격은 비대면 소비가 많았던 kg당 10마리 등의 큰 크기 전복의 가격과 대중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은 kg당 15마리 등의 작은 크기의 양상이 서로 달랐음. 이에 크기별로 생산자 수취가격의 비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산지수집상들은 조사 대상인 kg당 15마리만을 취급하지 않으며, 다양한 크기들을 취급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kg당 15마리의 유통비용 및 생산자 수취가격의 비율은 해당 크기의

특징과 더불어 전복의 평균적인 비용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산지수집상이 대형소매업체에 판매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업체 운영을 위한 제반 간접비가 kg당 2,43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그리고 다음으로 인건비, 운반비, 전력비 등의 순이었는데, 모두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
 - 산지수집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제반 간접비를 제외한 주된 비용 요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였음. 인건비는 kg당 1,387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3.2%를 차지했음. 이는 전복 구매를 위해 출하된 전복을 수조를 통해 운반·보관·저장·판매 등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복 폐각에 부착된 이물질제거 작업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인건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산지수집상의 고용인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아 인건비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음
 - 선박 이용료 등이 포함된 운반비는 kg당 316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0.7%였음
 - 전력비는 전년보다 증가한 kg당 285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0.6%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복을 수조에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음
 - 그런데 산지수집상의 이윤은 kg당 582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대형소매 단계

- 대형소매업체의 비용 항목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웠음. 이에 전년과 동일하게 제반 비용과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했음
 - 대형소매업체의 전복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은 kg당 8,514원, 이윤은 kg당 5,676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각각 19.4%, 12.9%의 비중을 차지했음

- <표 4-1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지와 대형소매 유통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용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소비자 판매가격 하락으로 유통비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지 유통단계에서 인건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대형소매업체 유통단계에서의 간접비와 같은 다수의 비용이 전년 대비 상승했음
- 그러나 조사 대상 크기인 kg당 14~15마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 모두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개별 유통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전체 유통비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20>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5,000	24,700	56.3	kg당 15마리
산지수집상	인건비	1,321	1,387	3.2	산지수집상 조사결과
	전력비	271	285	0.7	
	운반비	301	316	0.7	
	간접비	2,314	2,430	5.5	
	이윤	543	582	1.3	
	산지 판매가격	29,750	29,700	67.7	
대형소매업체	간접비	8,329	8,514	19.4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7,269	5,676	12.9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45,348	43,890	100.0	대형소매업체 현지 조사

주: 1) 산지판매가격은 kg당 15마리 활전복 기준이고,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은 kg당 14~15마리 기준임
 2) 조사 시기는 2021년 11월 초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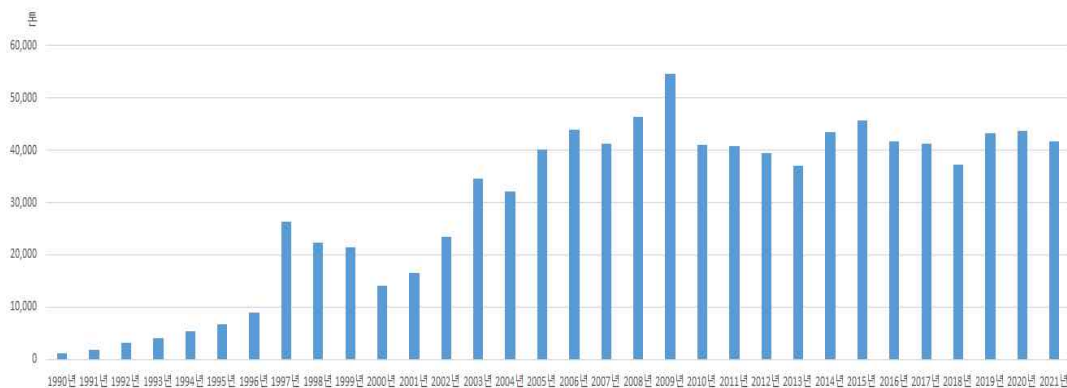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넙치는 1980년대 대량 양식 기술이 개발된 이후, 국내 어류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어종으로 흔히 ‘국민 횡감’으로 불리며 우리의 식탁에 자리매김 해왔음
- 국내 양식넙치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만 톤 미만을 기록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1만 톤을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음
- 2000년대 후반에는 연간 5만 톤이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며 최대 생산량을 보였으나, 2009년 이후 생산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4만 톤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4-68〉 연도별 넙치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3년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인 3만 6,944톤이었는데, 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보도’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임
- 이후 수요가 회복되면서 연간 4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식품안전성 문제 등으로 출하가 급감하면서 생산량은 3만 7,241톤에 그쳤음

- 2021년 양식넙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만 1,791톤이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시로 강화되면서 수요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양식어가들의 출하의향은 높았으나, 출하가능물량이 부족해 많은 출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21년 양식넙치 총생산금액은 약 6,62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8%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8.1% 많았음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는 연초부터 산지가격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출하량은 4.6% 줄었으나, 생산금액은 22.8% 증가했음
 - 1995년 약 784억 원 수준이었던 넙치 생산금액은 2021년 6,622억 원으로 급증했음. 최근 연간 생산량은 큰 변화 없이 4만 톤 내외가 유지되는 가운데 출하가능물량, 수급상황 등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하면서 생산금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표 4-121〉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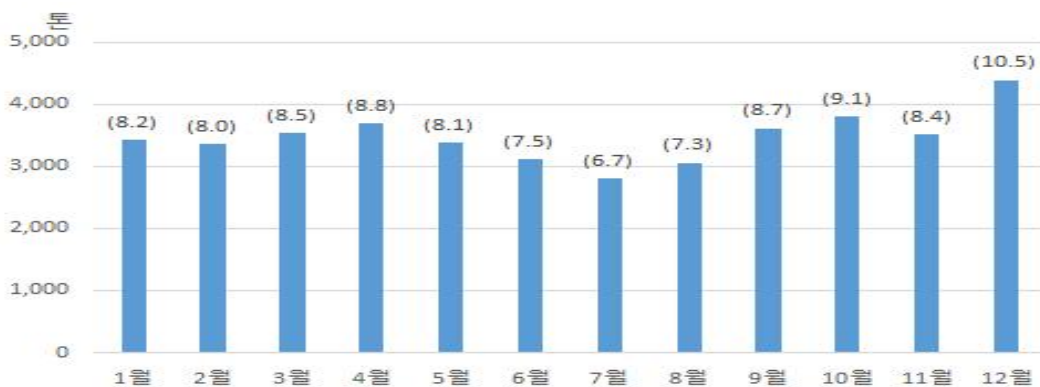
단위 :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1,037	19,998
1995년	6,733	78,390
2000년	14,127	190,091
2005년	40,075	353,585
2010년	40,925	489,793
2015년	45,759	504,182
2016년	41,620	534,130
2017년	41,207	584,138
2018년	37,241	495,391
2019년	43,360	430,809
2020년	43,813	539,218
2021년	41,791	662,171
5개년 평균	41,482	542,345
전년 대비	-4.6	22.8
평년 대비	0.8	28.1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3) 양식넙치 생산량은 터бот을 포함한 넙치류 생산 통계로 발표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의 월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한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어기를 가지는 기타 양식품목에 비해 연중 일정한 생산 비중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 여름철의 경우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봄철 입식 이후 양성에 집중하는 시기임
 - 12월의 경우 기타 활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생산도 많이 이루어지며, 수출수요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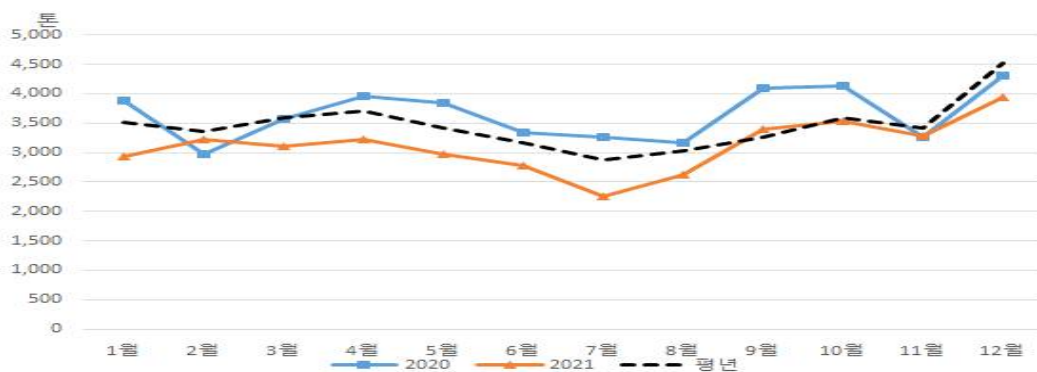
〈그림 4-69〉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넙치의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작년보다 적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연중 적은 출하량을 보였음. 2020년의 경우 출하가능물량이 많아 원활한 출하가 가능했으나, 2021년의 경우 높은 산지가격으로 생산자들의 출하의향은 높았으나 출하가능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임

〈그림 4-70〉 월별 양식넙치 출하량 추이



주 :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그러나 2월에는 전년보다 많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광어 출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이후에도 산지 중·대형어 양성물량이 부족해 계속해서 전년보다 적은 수준의 출하가 이루어졌음
- 연말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출하가능물량이 부족해 출하량은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평년보다도 적은 출하량을 보였음

<표 4-122>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842	3,544	2,932	3,390	3,891	2,932	3,338	-24.6	-16.7
2월	3,685	3,642	3,224	3,263	2,975	3,224	3,266	8.4	-4.0
3월	3,817	3,781	3,112	3,647	3,577	3,112	3,446	-13.0	-13.2
4월	3,831	3,713	3,217	3,848	3,952	3,217	3,589	-18.6	-13.3
5월	3,577	3,354	2,970	3,324	3,845	2,970	3,293	-22.8	-13.0
6월	3,432	3,226	2,776	3,044	3,333	2,776	3,031	-16.7	-12.2
7월	3,004	2,784	2,265	3,066	3,268	2,265	2,730	-30.7	-21.3
8월	2,937	3,113	2,618	3,341	3,173	2,618	2,973	-17.5	-13.8
9월	2,084	3,351	3,391	3,368	4,090	3,391	3,518	-17.1	4.1
10월	3,026	3,402	3,531	3,906	4,128	3,531	3,700	-14.5	-1.9
11월	3,223	3,211	3,275	4,078	3,269	3,275	3,422	0.2	-4.0
12월	5,161	4,085	3,931	5,085	4,313	3,931	4,269	-8.9	-12.9
합계	41,620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40,573	-4.6	0.8

주 :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넙치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합계의 경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을 살펴보면, 양식넙치는 전량 활어로 출하된다고 할 수 있음
 - 넙치의 경우 대부분 생선회로 소비되며, 선어로 가공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선도 유지를 위해 활어 상태로 유통된 후 가공되어 판매되기 때문임
 - 또한 생산자 입장에서도 양식넙치 생산비를 고려할 때, 활어로 판매하여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넙치와는 달리 양식넙치는 대부분 활어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3〉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선어	0	0	0	0	0	0	0.0	0
냉동	4	0	0	0	0	0	0.0	0
합계	41,620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100.0	41,48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활어의 경우 계통출하 비중이 43.3%로 나타났으며, 비계통 출하의 경우는 56.7%로 나타났음
- 양식넙치의 계통판매는 비계통판매보다 많은 제약조건을 수반함. 제주지역의 경우 계통판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계통 판매를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활어 위판을 위해서는 위판장에 수조시설이 있어야 하며, 많은 비용이 필요함. 또한 활어를 위판장에 하역하고 상차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음

〈표 4-124〉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비계통	20,445	22,403	19,759	27,107	26,158	23,680	56.7	23,821
	소계	41,616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100.0	41,482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4	0	0	0	0	0	0.0	0
	소계	4	0	0	0	0	0	0.0	0
합계	계통	21,171	18,804	17,482	16,253	17,655	18,111	43.3	17,661
	비계통	20,449	22,403	19,759	27,107	26,158	23,680	56.7	23,821
	합계	41,620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100.0	41,48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총 생산량의 5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43.9%), 경상남도(3.3%), 경상북도(1.1%) 등의 순이었음
- 양식넙치의 경우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중에서도 완도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많음

<표 4-125>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제주도	26,098	25,092	22,171	22,431	23,423	21,478	51.4	22,919
전라남도	13,286	13,867	12,900	18,108	17,882	18,327	43.9	16,217
경상남도	876	892	925	1,252	1,255	1,369	3.3	1,139
경상북도	831	840	914	1,094	895	453	1.1	839
부산광역시	168	219	136	229	143	90	0.2	163
울산광역시	236	225	128	225	216	75	0.2	174
강원도	126	72	68	21	-	-	0.0	54
합계	41,620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100.0	41,48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계통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도에 위치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7.7%를 점함
- 양식넙치의 경우 제주지역에 위치한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대부분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도 일부 계통출하되고 있음

<표 4-126> 연도별 수협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제주어류양식수협	20,764	18,263	17,268	16,158	16,947	16,709	92.3	17,069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407	541	215	94	708	1,402	7.7	592
합계	21,171	18,804	17,483	16,252	17,655	18,111	100.0	17,66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최근 넙치 수출량은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수출단가가 낮았던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1년 넙치 수출량은 1,857톤으로 전년 대비 16.8%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8.8% 적었음
- 수출금액은 약 3천 863만 달러로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으나, 평년보다는 1.7% 적었음

〈표 4-127〉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2,943	43,997	14.9	170	2,386	14.0
2017년	2,696	43,962	16.3	312	3,226	10.3
2018년	2,475	40,199	16.2	362	4,081	11.3
2019년	2,701	34,867	12.9	554	5,268	9.5
2020년	2,233	33,559	15.0	529	4,545	8.6
2021년	1,857	38,629	20.8	614	6,292	10.2
5개년 평균	2,392	38,243	16.3	474	4,682	10.0
전년 대비	-16.8	15.1	38.4	16.1	38.4	19.3
평년 대비	-28.8	-1.7	37.9	59.3	61.3	-4.7

주 : 1) 수출의 경우 활넙치(HS코드:0301998000), 수입의 경우 넙치류 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최근 넙치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넙치류 수입 물량 중 대부분은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으로 국내에서 양식되는 넙치와 동일한 품종의 수입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1년 기준 세계 19개국에 양식 활넙치를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59.9%), 미국(29.9%), 베트남(6.3%), 캐나다(1.0%) 등이었음
 - 2015년 전체 수출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던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은 2021년 59.9%로 줄어들었으며, 전년(68.9%)에 비해서도 9.0% 감소했음.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양식 넙치 전체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음
 -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2015년 전체물량의 17.4%에서 2021년 29.9%로 증가했으며, 전년(20.8%)보다도 증가했음. 또한 최근 베트남으로의 수출비중

도 2015년 0.2%에서 2021년 6.3%로 증가했음

- 월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200톤 이하의 저조한 수출량을 보였으며, 특히 6월의 경우 100톤에도 못 미치는 83톤이 수출되었음

<그림 4-71> 국가별 양식넙치 수출 실적(2021년 기준)

단위 : 톤,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넙치류 수입량은 약 614톤으로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다. 수급 구조

- 국내 양식넙치 총 공급량은 2015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국내 생산이 늘면서 2019년 이후 4만 톤 이상을 보이고 있음
 - 양식넙치 총 공급량을 살펴보면, 국내생산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수출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양식넙치 총 공급량은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4.4% 감소한 4만 2,405톤이었음
 - 국내소비도 국내 생산이 줄면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3.4% 많은 4만 548톤이었음

〈표 4-128〉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구조

단위 :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6년	41,620	170	41,790	38,847	2,943	106.5
2017년	41,207	312	41,519	38,823	2,696	107.1
2018년	37,241	362	37,603	35,128	2,475	106.1
2019년	43,360	554	43,914	41,213	2,701	106.0
2020년	43,813	529	44,342	42,109	2,233	105.2
2021년	41,791	614	42,405	40,548	1,857	104.0
5개년 평균	41,482	474	41,957	39,564	2,392	105.7
전년 대비	-4.6	16.1	-4.4	-3.7	-16.8	-
평년 대비	0.8	59.3	1.4	3.4	-28.8	-

주 : 1) 국내생산은 천해양식 생산량임

2) 수출입은 활넙치 및 활넙치류 기준임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생산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활광어 산지가격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일본의 방사능 유출 보도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소비가 회복되고, 출하가능물량 또한 적어 최근 몇 년간 상승세가 이어졌음
 - 2017년의 경우 수요에 비해 출하가능물량이 적어 매우 높은 kg당 13,545원(제주산 1kg 기준)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출하가능물량이 크게 늘고 위생 관련 부정적 이슈 등의 영향으로 소비 또한 부진하면서 2018년 하반기 이후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
- 이후 2020년 4월까지 kg당 1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되었음. 그러나 5월 들어 적체물량이 해소되고 소비촉진행사,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수요도 늘면서 광어 산지가격은 회복세를 보이며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음
 - 2021년 광어 산지가격(제주산 1kg기준)은 kg당 14,747원으로 2020년 5월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전년 대비 27.6%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에 형성되었음

- 일반적으로 제주산 넙치의 산지가격이 지역적 특성상 물류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완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 2021년 제주산과 완도산(1kg 크기 기준)의 가격차를 살펴보면, 모든 달에서 완도산이 제주산보다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음. 5월에 두 지역의 가격격차가 2,526원으로 가장 컸던 반면 1월에는 150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 4-129〉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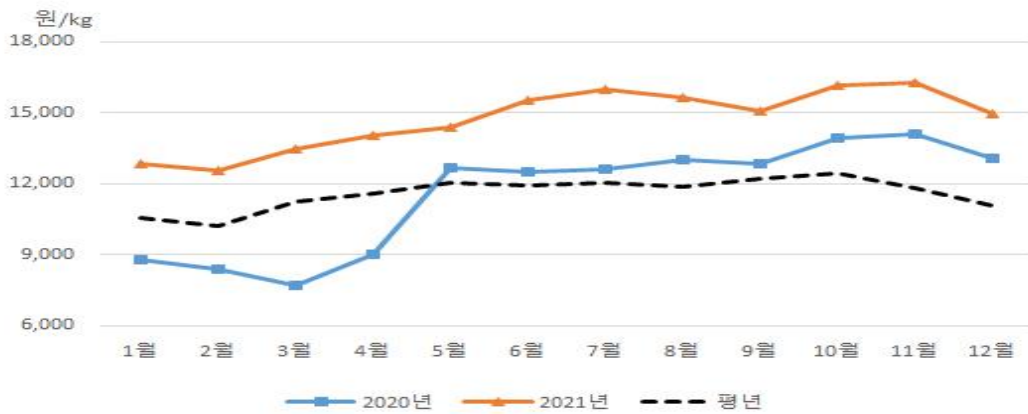
단위: 원/kg,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1,200	11,816	12,369	8,650	8,808	12,850	10,899	45.9	21.6
2월	10,771	11,421	11,687	8,869	8,376	12,590	10,589	50.3	23.1
3월	11,372	14,047	13,809	9,240	7,729	13,489	11,663	74.5	20.0
4월	12,613	12,958	13,327	9,958	9,020	14,071	11,867	56.0	21.6
5월	12,795	12,751	13,355	8,640	12,650	14,377	12,355	13.7	19.4
6월	12,492	13,000	13,150	8,465	12,529	15,514	12,532	23.8	30.1
7월	13,012	12,957	12,449	9,350	12,601	15,981	12,668	26.8	32.4
8월	13,025	12,997	10,537	9,767	13,000	15,650	12,390	20.4	31.9
9월	12,903	14,955	11,155	9,156	12,856	15,064	12,637	17.2	23.4
10월	11,799	16,358	11,494	8,497	13,948	16,143	13,288	15.7	30.0
11월	10,678	15,724	10,580	8,134	14,102	16,265	12,961	15.3	37.3
12월	11,624	13,550	9,074	7,923	13,098	14,975	11,724	14.3	35.5
연평균	12,024	13,545	11,915	8,887	11,560	14,747	12,131	27.6	27.3

주 : 1) 제주산 활넙치 1.0kg 크기의 kg당 가격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 양식넙치의 산지 출하가격은 연말 및 연초에는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가짐. 그러나 봄 행락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3~5월과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경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21년 산지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부터 전년에 이어 높은 가격에 형성되었으며, 중·대형어 양성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연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 12월들어 연말 성수기로 출하물량이 늘어나고 2020년 가을부터 입식된 물량이 점차 출하가능크기로 성장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 4-72〉 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주 : 제주산 활넙치 1.0kg 크기의 kg당 가격,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2) 도매가격

-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넙치의 경우 도매가격은 산지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고 비슷한 패턴으로 변동되는 특징을 가짐. 2020년 양식넙치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음

〈표 4-130〉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219	13,582	15,338	10,992	10,675	14,000	12,917	31.1	9.7
2월	13,188	13,900	14,542	11,125	10,519	14,396	12,896	36.9	13.8
3월	13,698	15,625	15,729	11,167	10,448	15,617	13,717	49.5	17.1
4월	15,438	15,558	15,792	11,500	10,767	16,031	13,930	48.9	16.1
5월	14,708	15,443	16,108	10,842	14,917	16,875	14,837	13.1	17.2
6월	14,667	15,175	15,646	10,906	14,750	17,617	14,819	19.4	23.8
7월	15,313	14,892	14,167	10,969	14,600	18,000	14,526	23.3	28.7
8월	15,013	15,030	12,458	11,025	14,563	17,688	14,153	21.5	29.9
9월	14,708	16,792	12,469	11,115	14,650	18,313	14,668	25.0	31.3
10월	14,208	18,174	13,808	11,192	15,854	18,575	15,521	17.2	26.8
11월	13,328	16,817	12,490	10,969	15,906	18,188	14,874	14.3	30.8
12월	13,427	15,885	11,604	10,604	14,617	16,413	13,825	12.3	24.1
연평균	14,243	15,573	14,179	11,034	13,522	16,809	14,223	24.3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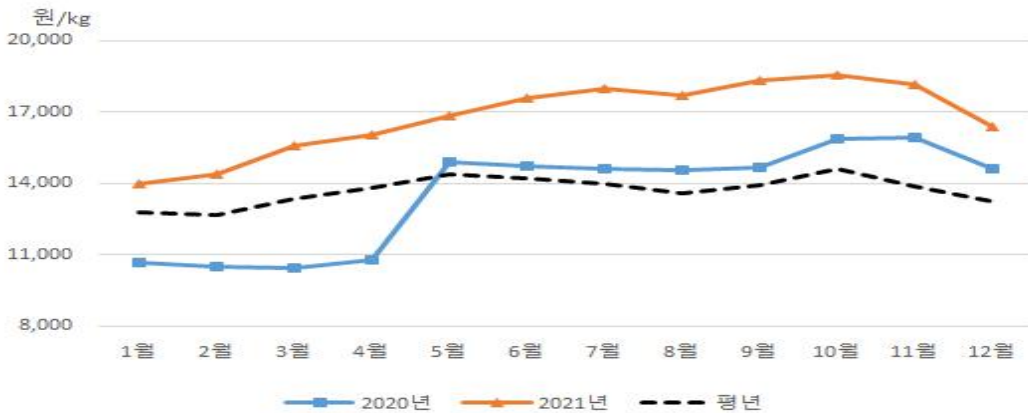
주 : 1) 인천 활어도매시장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인천 활어도매시장

- 2021년 양식넙치 도매가격 또한 연초부터 높게 형성되었으며,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연중 높은 수준을 보이다 12월 들어 출하량이 늘면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 4-73> 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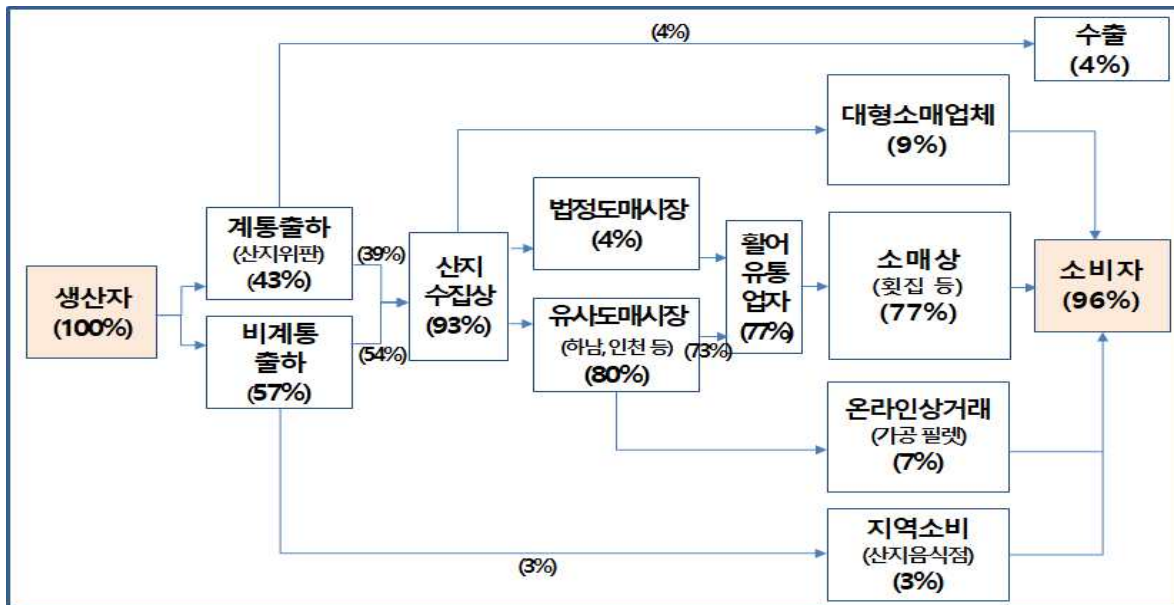


주 : 인천 활어도매시장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 인천 활어도매시장

2. 양식넙치 유통경로

- 선어상태로 위판되거나 유통과정에서 선어화 되는 다른 수산물과 달리 양식넙치는 대부분 활어로 유통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회로 소비되기 직전까지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지님. 양식넙치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 → 유사도매시장 → 소매상(횃집 등)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임
 - 양식장에서 출하된 양식넙치는 산지수집상에 의해 수집된 후 소비지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까지 운송됨
 - 이후 양식넙치는 유사도매시장(계류장·보관장)에서 흔히 ‘나까마’로 불리는 활어유통업자를 통해 소매상(횃집 등)으로 배송됨
 - 활어유통업자는 소매상들의 요구에 맞춰 넙치뿐만 아니라 어종별로 물량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부재료 등을 구입해 공급하고 운송비를 받음
 - 유사도매시장 중 규모가 큰 곳은 인천, 하남,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시장은 제주산, 하남시장은 완도산 넙치의 유통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4-74〉 활양식넙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 비중



- 양식넙치는 산지의 양식장에서 활어차에 바로 옮겨져 소비지시장으로 운송됨
 - 통상 산지에서 수집상에 의해 운영되는 활어차는 4.5~5톤 크기로 1차당 2.5톤의 광어를 운송함. 산지수집상은 한 곳의 양식장에서 2.5톤의 물량을 한번에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주 거래 양식장 여러 곳의 물량을 합산하여 1차(2.5톤) 분의 물량을 확보한 후 육지부로 운송함
 - 제주항에서 카페리를 통해 활어차 자체를 육지로 이동시키며, 2021년 기준 대략적인 물량 비중은 목포항 60%, 녹동·여수·부산항 40%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목포항으로 운반된 물량은 대부분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지방으로 공급됨
 - 익일 새벽에 소비지 (유사)도매시장에 새벽에 배송된 광어는 빠르면 당일 오전 중에도 횃집이나 일식집으로 배송이 가능하지만, 도매시장에서 2~3일 정도의 순치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수출의 경우는 크게 일본으로 활어차를 배에 실어 해상운송하는 경우와 그 외 지역으로 항공운송, 활어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의 운송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송한 후 카페리 편으로 일본으로 수출됨

- 그 외 지역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항공을 이용하거나, 거제와 부산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배송된 광어를 활어컨테이너에 담아 화물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함
- 광어 유통이 일반 수산물 유통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식 활어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계통판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제주지역의 경우는 계통판매비중이 7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계통판매비중은 5% 이하로 낮은 편임
 - 둘째, 일반적인 수산물의 경우와 달리 법정도매시장 경유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음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 국내소비를 기준으로 한 양식넙치의 유통경로는 크게 산지-유사도매시장-횃집-소비자의 구조와 산지-대형소매점-소비자의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두 가지 유통경로에 따른 유통비용을 제주산 양식넙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가. 제주 → 횃집

- 먼저 산지수집상과 양식장과의 거래를 위한 구두 계약이후, 양식업체에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판매를 요청함
 - 이후 항생제에 대한 잔류검사를 통과하면 중도매인은 광어양식업체와 가격을 결정한 후 활어차에 운송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협에서 파견한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1%의 수협 위판수수료가 발생함
 - 2020년까지는 위판수수료의 형태로 위판가격의 1%를 수협이 수취한 후 0.5%는 수수료로 취득, 0.5%는 유통지원자금으로 적립 했으나, 계통출하 시에만 징수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모든 조합원에게 수면적 평당 7,500원 기준으로 계통출하 시 1.5%를 취득하며, 기준 금액 충족 이후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위판금액 전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산지수집상에 의해 활어차(톤수는 4.5~5톤)에 상차된 넙치(물량 2.5톤)는 소비지로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kg당 1,000원의 물류비가 발생함
 - 산지수집상은 소비지도매상(계류장·보관장)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물량을 다수의 주거래 양식장의 물량을 취합해 2.5톤의 물량을 확보함
 - 넙치가격을 제외한 운반비용은 활어차 1대(넙치물량 2.5톤) 당 250만 원으로 kg당 1,000원 정도임. 산지수집상 자체로 활어차를 운반하며 운반인에게 수당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운반인이 직접 활어차를 운송하며 비용을 받는 형태임
 - 산지수집상이 운반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건비, 차량유류비, 카페리 선적비, 물, 액화산소비용, 차량수리비 등 운반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은 활어차 1대 기준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음
 - 산지수집상의 간접비와 이윤을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접비는 761원, 이윤은 245원으로 환산됨
-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상(계류장·보관장)은 일반소매점(횃집, 일식집)에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횃집에 양식넙치를 납품하게 됨
 -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17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500원이 발생함
 - 소비지 도매상 역시 일반소매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흔히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납품함. 중간상인은 일반소매점(횃집, 일식집)의 요구에 맞추어 넙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종의 활어를 여러 가지 소매상을 통해 확보하며, 양질의 품질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함
 - 또한 활어 외의 영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식재료 등을 구입하여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운송비 형태로 kg당 1,000~2,000원 정도가 지급됨
 - 판매량이 적은 일반소매점 입장에서는 직접 활어차를 구입하여 양질의 활어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중간상인을 이용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공급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횃집에 납품된 광어는 인건비, 자가 및 가족인건비, 결들이 안주 등 기타 식재료비, 임차료, 세금공과, 기타비용이 더해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

련의 비용과 마진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31>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횃집 기준)

단위 :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967	14,825	35.3	1kg 크기 기준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131	150	0.4	위판금액의 1%
	산지가격	13,098	14,975	35.7	
도매유통 단계	산지수집상 간접비	748	761	1.8	활어차 1대(넙치물량 2.5톤) 기준 수수료(250만원), 비용지급(187만원)
	산지수집상 이윤	252	245	0.6	
	도매상 간접비	602	617	1.5	
	도매상 이윤	500	500	1.2	kg당 500원
	도매가격	15,200	17,098	40.7	
횃집	운송비(중간상인)	1,500	1,500	3.6	중간상인 수수료 추가
	영업비용	18,300	19,079	45.4	인건비, 임대료, 결들이 안주 등이 포함된 비용임
	이윤	5,000	4,323	10.3	횃집 면담결과
	판매가격	40,000	42,000	100.0	

주: 1) 조사시기는 12월 하순이며, 1마리 1kg 기준

2) 영업비용에는 자가인건비 및 가족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일식집 비용구조 기준

나. 제주 → 대형소매점

- 먼저 산지수집상과 양식장과의 거래를 위한 구두 계약이후, 양식업체에서는 제
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판매를 요청함
 - 이후 항생제에 대한 잔류검사를 통과하면 중도매인은 광어양식업체와 가격
을 결정한 후 활어차에 운송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협에서 파견한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1%의 수협 위판수수료가 발생함
 - 2020년까지는 위판수수료의 형태로 위판가격의 1%를 수협이 수취한 후 0.5%
는 수수료로 취득, 0.5%는 유통지원자금으로 적립 했으나, 계통출하 시에만
징수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했음. 이에따라 2021년부터는 모든
조합원에게 수면적 평당 7,500원 기준으로 계통출하 시 1.5%를 취득하며, 기
준 금액 충족 이후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위판금액 전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산지수집상에 의해 활어차에 상차된 넙치(4.5~5톤 활어차에 2.5톤)는 소비지로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kg당 1,000원의 물류비가 발생함
 - 산지수집상은 소비지도매상(계류장·보관장)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물량을 다수의 주거래 양식장의 물량을 취합해 2.5톤의 물량을 확보함
 - 넙치가격을 제외한 운반비용은 활어차 1대(넙치물량 2.5톤) 당 2,500,000원으로 kg당 1,000원 정도임. 산지수집상 자체로 활어차를 운반하며 운반인에게 수당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운반인이 직접 활어차를 운송하며 비용을 받는 형태임
 - 산지수집상이 운반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건비, 차량유류비, 카페리 선적비, 물, 액화산소비용, 차량수리비 등 운반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은 활어차 1대 기준 1,87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음
 - 산지수집상의 간접비와 이윤을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접비는 761원, 이윤은 245원으로 환산됨
-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상(계류장·보관장)은 대형소매점에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횡집에 양식넙치를 납품하게 됨
 -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17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500원이 발생함
 - 소비지 도매상은 대형소매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흔히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납품함. 중간상인은 대형소매점의 요구에 맞추어 넙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종의 활어를 여러 가지 소매상을 통해 확보하며, 양질의 품질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함
- 대형소매점에 납품된 광어는 인건비, 간접비와 입점수수료 등에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비용과 마진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최근 대형마트에서 도매유통단계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고자 직접 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활어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비용을 산정함
- <표 4-1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매와 대형소매 유통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용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어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매유통 단계에서 간접비, 이윤 등을 비롯해 대형소매업체유통 단계에서의 간접비, 입점수수료 등 유통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전년 대비 상승했음
- 한편, 광어의 경우 출하가능 양성물량 부족으로 어가수취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의 인상률은 산지가격 인상률보다 낮았음.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개별 유통비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통비용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32>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단위 :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967	14,825	32.6		1kg 크기 기준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131	150	0.3		위판금액의 1%
	산지가격	13,098	14,975	33.0		
도매유통 단계	산지수집상 간접비	748	761	1.7		활어차 1대(넙치물량 2.5톤) 기준 수수료(250만원), 비용지급(187만원)
	산지수집상 이윤	252	245	0.5		
	도매상 간접비	602	617	1.4		
	도매상 이윤	500	500	1.1		kg당 500원
	도매가격	15,200	17,098	37.6		
대형소매점	운송비(중간상인)	1,000	1,000	2.2		중간상인 수수료 추가
	간접비	16,267	16,400	36.1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입점수수료	6,400	6,400	14.1		
	이윤	4,300	4,544	10.0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43,167	45,442	100.0		

주: 조사시기는 12월 하순이며, 1마리 1kg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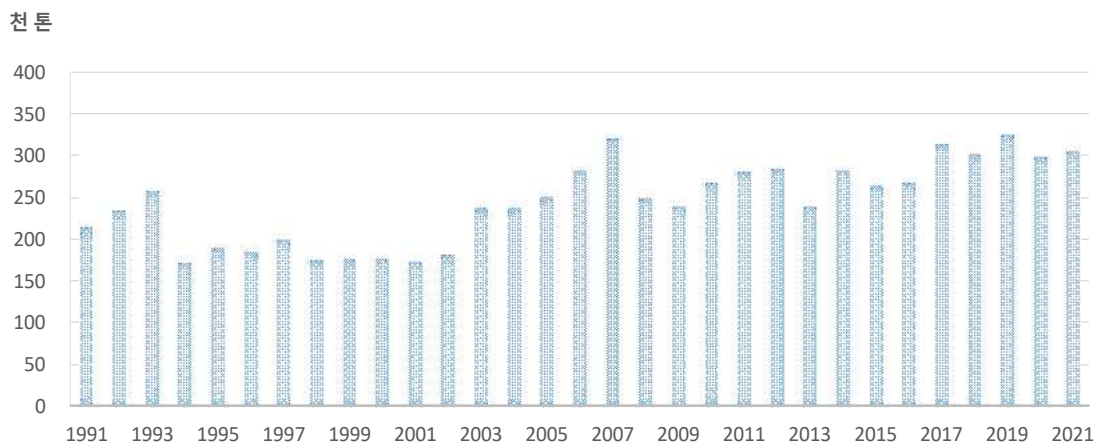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조사

1. 양식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우리나라 굴 양식은 1970년경 수하식 양식 방법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 양식을 통한 국내 굴 생산량은 1993년에 25만 톤을 넘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10년간은 20만 톤 이하를 유지했음
- 2003년부터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7년에는 30만 톤을 넘어섰음
- 이후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연간 30만 톤 이상의 굴이 생산되었음
- 특히,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양성상태가 양호했고 시설량 또한 늘어 32만 6천여 톤의 굴이 생산되었으며, 이 양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음

<그림 4-75>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양식 굴 생산량은 각굴을 기준으로 30만 5,914톤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 1.1% 증가했음

- 양식산 굴 생산금액은 2000년에 약 838억 원 규모였으나,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음
- 2021년 굴 생산금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3%, 27.1% 늘어난 2,773억 원이었으며, 산지가격 상승으로 생산금액이 크게 늘었음

<표 4-133>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및 생산금액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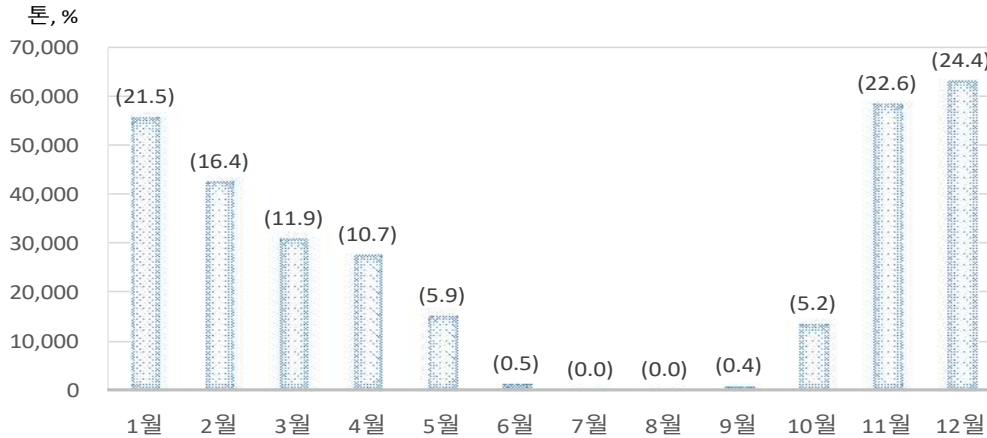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19,124	59,174
1995년	191,156	108,320
2000년	177,079	83,814
2005년	251,706	130,894
2010년	267,776	169,827
2015년	265,146	182,753
2016년	268,841	172,700
2017년	315,255	214,515
2018년	303,183	211,230
2019년	326,190	228,788
2020년	300,084	263,487
2021년	305,914	277,348
5개년 평균	310,125	239,074
전년 대비	1.9	5.3
평년 대비	1.1	27.1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월별 양식 굴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양식 굴의 생산량은 6~9월에는 거의 없었음. 생산 어기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연산’으로 구분됨
- 양식 굴의 어기가 시작되는 10월에는 연간생산량의 5.2%가 생산됨
- 11~12월은 굴의 주 출하시기로 김장철 생굴 수요 집중으로 생산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연간생산량의 각각 22.6%, 24.4%를 차지함
- 설 명절 및 겨울철 생굴 수요로 1~2월에는 연간생산량의 각각 21.5%, 16.4%가 생산되었음
- 3~5월에는 굴의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굴 수요는 줄어들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공용 굴이 주로 생산됨. 3~5월 양식 굴 생산량은 연간 생산량의 11.9%, 10.7%, 5.9%를 차지함

<그림 4-76> 최근 5년간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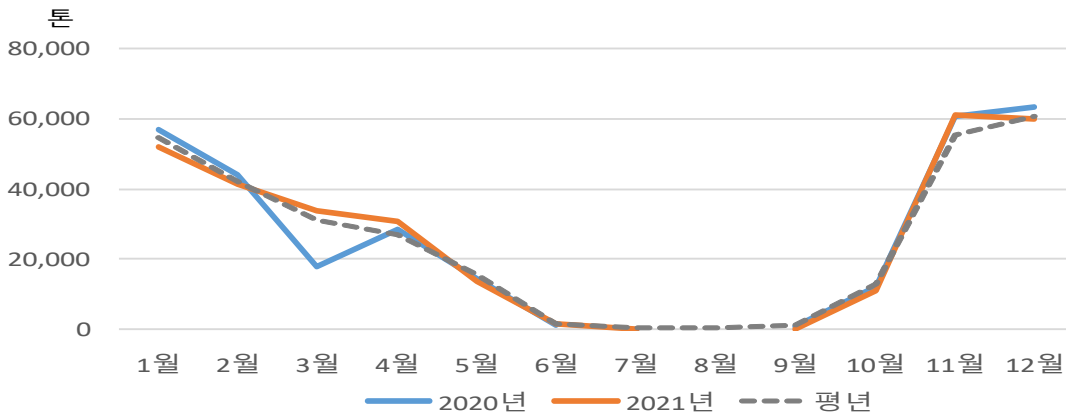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는 연간 생산량 비중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에 생산된 굴을 연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5월에 출하된 굴은 2021년산이며, 10~12월의 경우에는 2022년산임
- 2021년 1~5월까지 굴 생산량(2021년산)은 17만 1,808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2% 많았으며,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1~2월 굴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8.9%, 5.9%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알굴 수요가 감소했고 알굴 크기나 비만도 등으로 인해 가공용 굴 생산 시기에도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았음
 - 3월에는 굴 생산이 매우 부진했던 전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2018~2019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음
 - 4월경에는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의 영향이 적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늘었음
 - 가공시기가 마무리되는 어기말인 5월 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부진했음
- 2021년 9~12월까지 굴 생산량(2022년산)은 전년 동기간 대비 3.3% 적은 13만 2,367톤이었음
 - 2022년산 초기시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기초 주 생산지역에서 폐사가 발

생했고, 성장 및 비만도 등도 좋지 않았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박
신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알골 생산도 원활하지 못했음

- 11월을 제외한 대부분 월의 굴 생산량은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77>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34> 연도별·월별 양식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5,447	54,760	56,942	58,258	57,022	51,931	55,783	-8.9	-4.7
2월	38,230	37,009	47,839	43,147	43,979	41,441	42,683	-5.8	-1.4
3월	34,119	30,649	37,853	34,708	17,851	33,932	30,999	90.1	9.3
4월	27,774	28,753	24,273	26,700	28,421	30,713	27,772	8.1	13.0
5월	15,331	15,449	20,673	11,680	14,580	13,791	15,235	-5.4	-11.3
6월	3,021	1,200	1,825	868	1,375	1,659	1,385	20.7	0.1
7월	554	-	-	-	-	82	82	-	-
8월	717	16	-	-	-	-	16	-	-
9월	2,075	1,322	1,760	670	742	88	916	-88.1	-93.3
10월	9,213	16,027	13,610	14,536	12,137	11,144	13,491	-8.2	-15.0
11월	44,914	66,006	36,174	68,812	60,726	61,250	58,594	0.9	10.7
12월	47,446	64,064	62,233	66,809	63,250	59,885	63,248	-5.3	-1.4
합계	268,841	315,255	303,182	326,188	300,083	52,879	259,517	-82.4	-82.5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양식 굴의 계통 및 비계통 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계통물량이 13만 5,912톤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했음. 비계통 물량은 17만 2톤으로 전체의 55.6% 수준임
- 최근 5개년 평균 양식 굴의 계통 출하 비율은 48.6%였으며, 51.4%가 비계통으로 판매되었음
- 2021년의 경우, 계통 출하 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5개년 평균에 비해서는 4.2%p 낮았음

〈표 4-135〉 연도별 양식 굴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계통	166,685	150,363	168,317	153,815	145,620	135,912	44.4	150,805
비계통	102,156	164,892	134,867	172,375	154,464	170,002	55.6	159,320
합계	268,841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100.0	310,125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양식 굴 생산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81.7%)가 차지하는 생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라남도(15.2%), 충청남도(2.5%), 부산광역시(0.7%) 순이었음
- 경상남도의 양식 굴 생산량은 24만 9,809톤으로 작년 대비 2.9% 감소한 반면, 전라남도는 작년 대비 41.3% 늘어난 4만 6,400톤이었음. 충청남도 및 부산광역시는 각각 4,565톤, 2,140톤으로 작년 대비 3.5%, 1.3% 감소했음
- 경상남도의 계통 및 비계통 판매비율은 각각 52.9%, 47.1%였음. 부산광역시 는 전체가 계통판매였으며, 전라남도는 전체의 96.4%, 충청남도는 전체가 비계통판매였음

<표 4-136> 연도별 지역별 양식 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2,287	2,692	2,631	2,849	2,168	2,140	0.7	2,496
충청남도	2,449	5,969	8,715	7,713	7,839	7,565	2.5	7,560
전라남도	20,388	54,538	47,496	42,840	32,847	46,400	15.2	44,824
경상남도	243,717	252,056	244,342	272,788	257,230	249,809	81.7	255,245
합계	268,841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100.0	310,125

주: 1) 2021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굴은 국내외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굴을 양식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등으로 신선·냉장, 냉동, 통조림 등의 제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굴 수출량 추이는 국내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굴 생산에 따라 변동을 보임
 - 2016~2019년 굴 수출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국내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수출량은 1만 톤 이하로 줄었음
- 굴 수입의 경우, 주로 중국으로부터 가공된 기타제품⁵⁸⁾(굴소스, 엑기스 등)이 수입량의 대부분이며, 2021년에는 전년 및 평년 대비 69.2%, 81.7% 감소한 37톤이 수입되었음
- 2021년 굴 수출량은 1만 127톤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으며, 평년(9,599톤)에 비해서도 5.5% 많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여건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굴 및 가공제품의 국외 수요(특히, 미국)가 늘면서 수출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함

58) HS코드 1605519000임

- 한편, 2022년 굴 수출금액은 7,130만 달러로 ‘코로나19’로 수출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12.0% 증가했으며, 평년(6,766만 달러)에 비해서도 18.3% 많았음
- 수출물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선·냉장품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수출단가 또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표 4-137〉 연도별 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8,025	61,912	7.7	382	1,179	3.1
2017년	9,071	59,472	6.6	207	602	2.9
2018년	10,423	68,779	6.6	145	537	3.7
2019년	11,018	76,664	7.0	155	543	3.5
2020년	9,457	71,484	7.6	120	484	4.0
2021년	10,127	80,074	7.9	37	228	6.2
5개년 평균	10,019	71,295	7.1	133	479	4.1
전년 대비	7.1	12.0	4.6	-69.2	-52.9	53.1
평년 대비	5.5	18.3	11.7	-81.7	-65.9	78.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표 4-138〉 제품유형별 굴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달러, %

분류	명칭	HS CODE	2021년					
			중량	비중	전년대비	금액	비중	전년대비
신선	치패	0307111090	11	0.1	-87.5	165	0.2	-72.6
냉장	생굴	0307119000	410	4.0	-23.6	1,465	1.8	-37.5
냉동	냉동	0307120000	6,808	67.2	12.4	47,385	59.2	14.3
통조림	훈제	0307194000	0	0.0	-	0	0.0	-
	통조림	1605511000	1,867	18.4	1.7	14,190	17.7	4.9
기타	건조	0307192000	11	0.1	989.1	264	0.3	1,344.1
	염장	0307193000	82	0.8	53.6	741	0.9	46.9
	조제저장	1605519000	938	9.3	5.6	15,864	19.8	21.6
합계			10,127	100.0	7.1	80,074	10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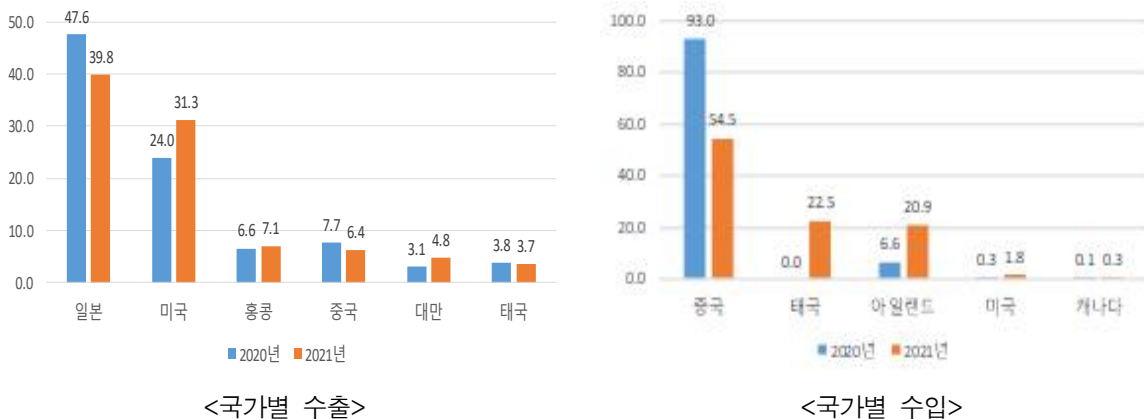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 제품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신선·냉장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늘었음

- 냉동굴은 전년 및 평년 대비 12.4% 증가한 6,808톤이 수출되었으며, 굴 전체 수출물량 중 67.2%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음
- 통조림 수출량은 1,867톤으로 전체 물량 중 18.4% 정도를 차지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1.7% 늘었음
- 건조굴 및 엑기스 등이 포함된 기타제품의 경우 전년 대비 9.3% 증가한 1,031톤이었음 전체 물량 중 10%의 비중을 차지했음
- 반면, 신선냉장품 수출량은 전체 물량의 4% 정도인 421톤이었음. 국내 가격 상승 및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굴 작황이 원활함에 따라 전년 대비 32.5% 감소했음
-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물량 비중은 전년 대비 7.8%p 감소한 39.8%였던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량 비중은 전년 대비 7.3%p 늘어난 31.3%로 늘었음
- 홍콩 및 대만의 수출량 비중은 증가, 중국 및 태국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물량이 전체의 54.5%로 전년 대비 38.4%p 감소하였으며, 그 외 태국과 아일랜드로부터 전체 물량의 20% 이상이 수입되었음

<그림 4-78> 국가별 굴 수출입 비중

단위: 톤,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17년 이후 굴 총 공급량은 30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굴 총 공급량은 30만 6,029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음
 - 이는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9% 늘었기 때문임
- 2021년 국내 굴 소비량은 17만 8,144톤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4% 줄었음
 - 이는 국외 수요 증가로 수출량이 전년 대비 8.8%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및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 2021년 굴 자급률은 전년보다 7.8%p 늘어난 171.7%였으며, 이는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표 4-139〉 연도별 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6년	268,841	1,401	270,242	170,657	99,585	157.5
2017년	315,255	908	316,163	203,253	112,910	155.1
2018년	303,183	719	303,902	178,274	125,629	170.1
2019년	326,190	754	326,944	193,434	133,510	168.6
2020년	300,084	494	300,578	183,061	117,517	163.9
2021년	305,914	115	306,029	178,144	127,885	171.7
전년 대비	1.9	-76.7	1.8	-2.7	8.8	-
평년 대비	-0.9	-42.3	-1.0	-1.4	-0.3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이며, 원어환산량이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와 다를 수 있음

3)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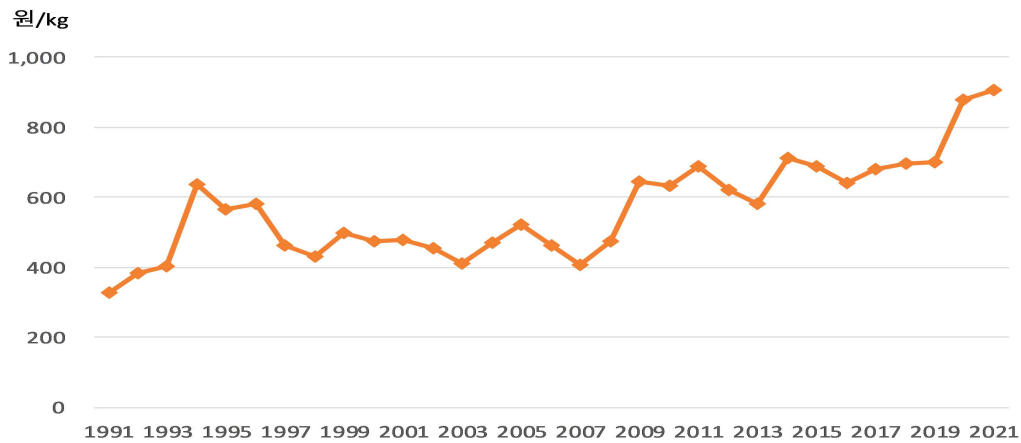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양식 굴 생산단가는 통계청의 각굴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했으며, 생산단가는 장기적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음

- 굴의 연평균 생산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 kg당 473원이었으나 2010년에 634원, 2020년에는 878원으로 올랐음
- 2021년 양식산 굴의 연평균 생산단가는 kg당 907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3.3%, 26.0% 높았음

<그림 4-79> 연도별 각굴 생산단가 추이



주: 1) 통계청 천해양식어업의 굴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생산단가이며 각굴 기준임
 2)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40> 연도별 월별 각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99	781	591	650	734	721	695	-1.7	4.4
2월	548	490	603	550	627	678	589	8.1	20.2
3월	438	389	467	558	664	592	534	-10.9	17.5
4월	317	353	485	554	565	500	491	-11.4	10.0
5월	311	387	398	588	547	453	474	-17.1	1.6
6월	248	406	403	755	541	535	528	-1.1	13.7
7월	281	-	-	-	-	1,276	1,276	-	354.4
8월	304	1,227	-	-	-	-	-	-	-
9월	353	414	686	848	580	581	622	0.1	0.9
10월	610	614	760	684	1,057	1,227	869	16.1	64.7
11월	955	937	1,150	854	1,323	1,445	1,142	9.2	38.4
12월	866	824	919	843	1,009	1,117	942	10.7	25.2
연평균	642	680	697	701	878	907	773	3.3	26.0

주: 1) 생산단가는 통계청 천해양식어업의 굴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며, 각굴 기준임
 2) 2021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공표하는 굴 산지가격의 경우, 통영 굴 수하식수협, 고성군수협, 여수수협의 알굴 위판가격 평균임
- 2021년의 알굴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가격은 kg당 8,544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4%, 10.3% 높았음
 - 여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1년산 여기 상반기(2020년 9~12월)에는 여기초 생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지가격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2021년 1~2월 산지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알굴 수요 감소 및 가공용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년과의 가격 격차가 소폭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평년에 비해서는 높았음
 - 3~5월에는 일반적으로 알굴의 크기와 비만도가 높아지면서 가공용 원물로의 알굴 수요가 높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8~13% 정도 낮았음
 - 2021년산 굴 산지가격은 여기 내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여기초와 말 가격 등락폭 또한 컸음
 - 2022년산 여기인 2021년 10~12월까지 알굴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9% 높은 12,840원이었음
 - 9월은 산지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10월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12.9% 높은 kg당 12,520원이었음. 여기초 대형마트 공급을 위한 중도매인의 수요가 높았던 가운데, 폐사 발생 및 양성상태 부진으로 공급이 적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11월 산지가격은 kg당 14,810원으로 평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12.5% 높았음. 김장철 등으로 생굴 수요가 높았던 가운데, 생산 부진으로 공급 물량이 적었음. 특히, 11월 중순경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월말 식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 12월에는 김장용 알굴 수요 감소에 따라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생산이 적어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높았음

〈표 4-141〉 연도별 월별 알골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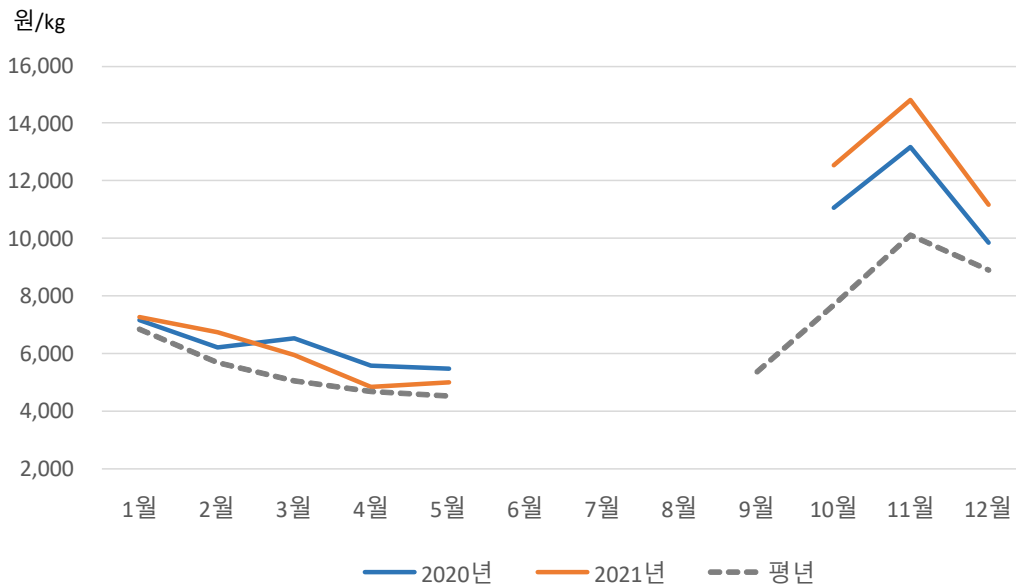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303	7,556	5,774	6,380	7,158	7,288	6,831	1.8	6.6
2월	6,141	4,645	5,923	5,454	6,196	6,732	5,790	8.7	18.7
3월	4,709	3,860	4,658	5,559	6,535	5,939	5,310	-9.1	17.3
4월	3,794	3,565	4,848	5,541	5,584	4,868	4,881	-12.8	4.3
5월	3,370	3,875	3,980	5,895	5,455	5,004	4,842	-8.3	10.8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	-	-	-	-	-	-	-	-
9월	4,875	4,312	6,856	-	-	-	5,584	-	-
10월	6,632	6,304	7,571	6,858	11,090	12,520	8,869	12.9	62.8
11월	10,175	9,486	9,251	8,428	13,164	14,810	11,028	12.5	46.6
12월	8,921	8,225	9,381	8,245	9,860	11,190	9,380	13.5	25.4
연평균	6,213	5,759	6,471	6,545	8,130	8,544	6,946	2.4	10.3

주: 1) 알골 기준이며, 각골의 수율은 10% 정도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80〉 월별 알골 산지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2021년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된 2021년 굴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0,150원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8%, 22.9% 높았음
- 굴 도매가격은 연중 내내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었으나 비슷한 추세로 등락을 보였음
- 2021년산 생산이 시작되는 9월부터 연말까지 굴 평균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25~43% 높았으며, 특히 10월에는 12,858원으로 평년보다 43.2%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3~4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전년에 비해서도 높게 형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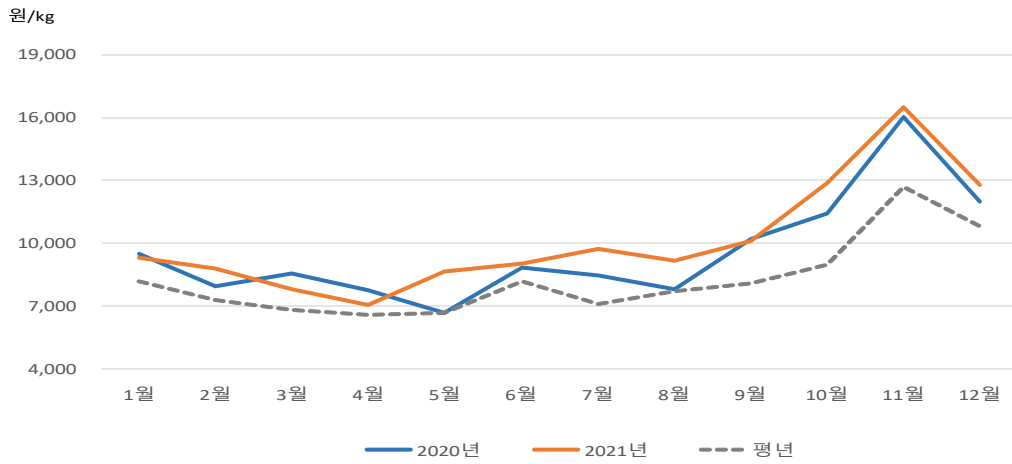
〈표 4-142〉 연도별 월별 알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619	8,308	6,865	7,561	9,502	9,329	8,313	-1.8	14.2
2월	7,704	6,004	7,747	7,169	7,945	8,784	7,530	10.6	20.1
3월	7,157	5,108	6,110	7,226	8,560	7,834	6,968	-8.5	14.7
4월	6,584	5,197	6,219	7,190	7,760	7,076	6,688	-8.8	7.4
5월	6,828	5,401	6,608	7,937	6,663	8,675	7,057	30.2	29.7
6월	8,480	6,530	6,982	10,007	8,835	9,019	8,275	2.1	10.4
7월	6,356	4,596	6,833	9,244	8,448	9,725	7,769	15.1	37.1
8월	7,234	7,096	7,225	9,100	7,820	9,176	8,083	17.3	19.2
9월	8,033	6,551	7,195	8,477	10,184	10,093	8,500	-0.9	24.8
10월	7,941	8,003	8,937	8,605	11,404	12,858	9,961	12.8	43.2
11월	11,914	11,730	11,862	11,879	16,035	16,503	13,602	2.9	30.1
12월	10,661	10,026	10,699	10,786	11,971	12,785	11,253	6.8	18.1
연평균	8,126	7,046	7,774	8,765	9,594	10,155	8,667	5.8	22.9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그림 4-81〉 월별 양식 굴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3) 소비자가격

- 2021년 알굴의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22,148원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4%, 28.4% 높았음
-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연중 내내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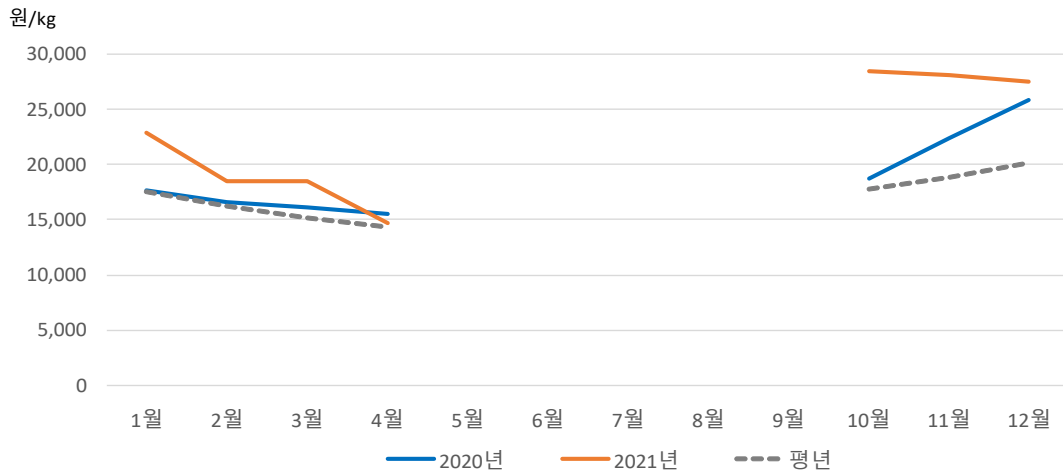
〈표 4-143〉 연도별 월별 알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408	18,017	17,868	16,796	17,510	17,631	22,881	18,537	29.8
2월	15,223	17,698	15,153	15,947	15,489	16,618	18,478	16,337	11.2
3월	14,657	16,193	14,280	14,488	15,074	16,074	18,495	15,682	15.1
4월	13,325	14,827	14,309	12,414	14,571	15,460	14,726	14,296	-4.7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	-	-	-	-	-	-	-	-
9월	-	-	-	-	-	-	-	-	-
10월	17,072	16,595	18,063	18,295	18,723	28,386	20,012	51.6	59.9
11월	18,542	17,214	18,234	17,985	22,436	28,105	20,795	25.3	48.8
12월	18,895	18,504	19,348	18,237	25,784	27,455	21,866	6.5	36.2
연평균	17,658	16,385	16,361	16,623	19,197	22,148	18,143	15.4	28.4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82〉 월별 알골 소비자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양식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굴은 주로 경남의 통영, 고성, 거제, 마산, 남해, 전남의 여수, 고흥 및 충남의 서산, 태안 등에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남의 경우 박신작업을 통해 알골의 상태로 주로 유통함. 통영 굴수하식 수협, 고성군수협 등 지역 내 수협을 통한 계통 출하 비중이 높음
 - 전남 및 충남은 주로 각굴의 형태로 유통되며 경남에 비해 비계통 판매 비율이 높음
- 본 실태조사에서는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알골의 유통경로를 선정하였으며, 생굴의 주 소비 시기인 12월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굴은 출하시기별로 소비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일반적으로 어기 시작 이후 김장철, 겨울철 국내 생굴 수요가 집중되어 어기 중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기임
 - 국내 수요가 마무리되는 2월부터 냉동굴, 통조림 등 가공을 통한 수출 제품 생산이 시작되어 6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산지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생굴에 비해 낮게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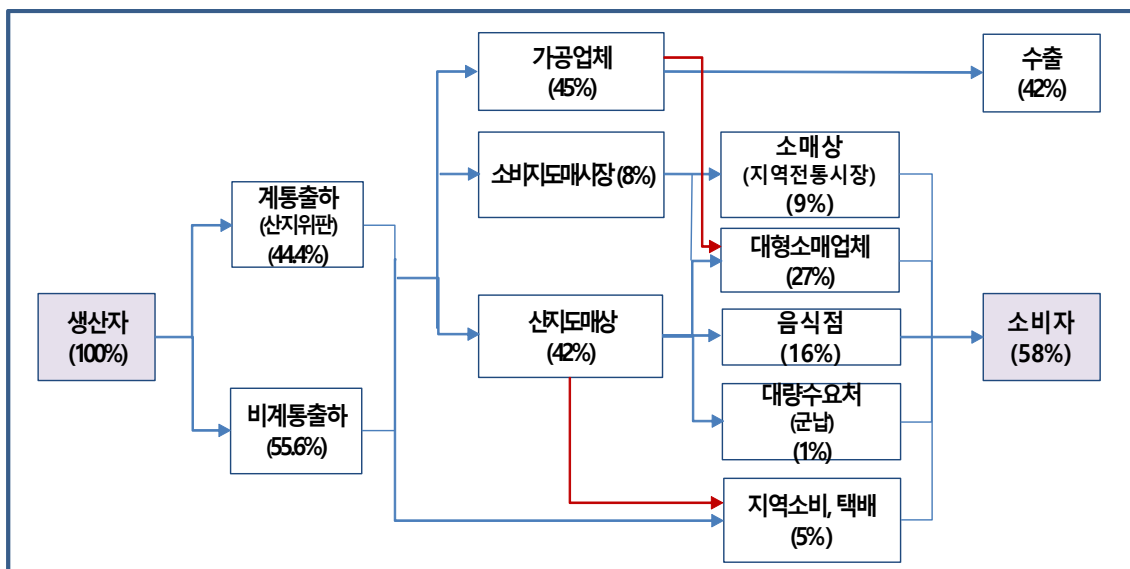
〈표 4-144〉 양식굴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합계	305,914	100.0
수출(가공포함)	127,885	41.8
대형소매업체	24,473	9.0
음식점	86,268	27.2
소매상	48,946	16.0
지역소비 및 택배	3,059	1.0
대량수요처	15,296	5.0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그림 4-83〉 양식 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자료: 산지 관계자(수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2021년의 경우 계통 출하비중이 전년(48.5%) 대비 4.1%p 감소하면서, 비계통 거래가 증가했음
- 굴 수출량 비중은 전체 생산 물량의 약 42%로 전년(39%) 대비 3%p 높아졌음
- 수출을 제외한 58%의 물량이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 가공 및 도매단계를 거쳐 주로 5개 소매 경로를 통해 유통됨
 - 가공의 경우, 전체 물량의 약 45%로 전년(39%) 대비 늘었으며, 소비지도매시장 및 산지 도매상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0%, 48% 감소했음

-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물량은 주로 소분되어 소포장의 형태로 판매됨. 이는 전체 물량의 27%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에 비해 비중은 3%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음식점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 비중의 1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p 늘었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개인식당 소비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죽(보양식) 재료로 프랜차이즈 식당으로의 유통 물량이 증가했음
- 지역 전통시장, 상회 등의 소매상으로의 물량은 전년 대비 3%p 정도 감소한 9%였음
-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강세로 지역 내 소비 및 택배 비중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5%였음
- 군납 등의 대량 수요처가 1% 정도로 전년과 비슷했음

3. 양식굴 유통비용(통영 기준)

- 양식 굴의 유통비용 실태조사는 2020년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조사는 2번째 수행되는 것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양식산 알굴의 주요 유통경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소포장되어 마트에서 흔히 거래되는 봉지굴의 유통경로의 경우, 생산자→[<산지위판장>]→<산지중도매인>→대형소매업체→소비자 경로를 조사하였음
 - 3~5kg로 나누어 별크로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산지위판장>]→<산지중도매인>→소비지도매시장→소비자 경로를 조사하였음
- 이러한 두 가지 유통경로에 따른 유통비용의 경우, 전년에 이어 수협을 통해 계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영산 연승수하식 양식굴을 기준으로 조사했음

가. 통영 → 대형소매점

- 어장에서 채취된 굴은 산지 내 박신장에서 박신작업을 거친 후 껍데기가 제거된 알굴의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이 이루어짐

- 해수와 함께 굴 상태가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에 알굴을 담은 형태로 위판되며, 기본 위판 단위는 알굴 10kg임
 - 포장된 봉지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경매를 위해 수협 위판장으로 운반함. 여기 내 위판은 월, 화, 목, 금 주 4회 이루어지며, 오전 및 오후 일 2회 이루어짐
 - 위판장에 도착한 알굴은 트럭에 실린 상태 그대로 pH 간이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판 가능 여부를 확인함
 - 이후 수협 위판장 내 플라스틱 바구니를 하차하고 이를 두고 중도매인이 상태를 확인 후 경매를 실시하며, 생산자는 3.5%의 위판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 2021년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12% 정도 상승함에 따라, 어가 수취가격은 전년 대비 늘어난 kg당 10,798원이었음
- 그러나 소비자가격 또한 상승함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에 따른 산지가격의 비중은 전년(50.8%)에서 43.3%로 감소하였음

<그림 4-84> 통영 굴 수하식 수협의 알굴 위판 현황



<위판전 pH 간이검사>



<비닐에 담긴 알굴>



<위판을 위해 대기 중인 알굴 박스>



<알굴 위판 현장>

자료: 연구진 현지 출장자료

- 산지위판장에서 알곡을 구매한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에서 가공공장으로 운반한 후 소포장한 후 출고함
- 가공공장에서 사용된 비용 중 직접비를 살펴보면, 물류비, 포장비, 얼음대였으며, 이는 총 kg당 2,377원으로 전체 유통비용의 9.2%를 차지하였음
 - 물류비는 유류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kg당 835원이었음
 - 소포장 재료비 및 박스비가 포함된 포장비의 경우에도 kg당 1,364원으로 직접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원료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하였음
 - 얼음의 경우에도 11% 상승한 kg당 178원이었음
- 간접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며, 이를 모두 합하면 kg당 3,886원이었으며, 전체 유통비용의 15.1%를 차지하였음
 - 인건비는 kg당 2,784원으로 원료 세척, 선별, 포장, 상차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유통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가 27% 상승하였음
 - 가공공장 가동을 위한 일반관리비 kg당 552원, 수도광열비 kg당 367원, 자동화 포장기기의 감가상각비 kg당 184원이었음. 대부분 전년 대비 14~18% 정도 상승하였음
- 대형소매점으로 납품하는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kg당 18,372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음
 - 이윤을 살펴보면 kg당 919원으로 전년 대비 16%정도 상승하였음. 그러나 전체 유통 비용의 3.6%로 전년 대비 0.4%p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에 납품된 굴은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에 이윤을 합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소비자가격은 kg당 25,817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음
 - 간접비의 경우 kg당 2,214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음. 이윤 또한 조사 결과 두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 결과, 굴의 경우 수요 및 판매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시즌 상품으로 단기적으로 이윤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연중 공급되는 대중성 수산물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임. 대형마트의 경우 개별 어종의 이윤보다는 수산물 전체의 이윤을 고려하여 판매 정책 조절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감안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표 4-145>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9,650	10,798	41.8	1kg 기준	
산지위판장	위판수수료	350	392	1.5	산지가격의 3.5%	
	산지가격	10,000	11,190	43.3	통영 굴수하식 수협 위판가	
산지도매 유통단계	직접비	물류비	540	835	3.2	가공공장 및 대형소매점 납품 운반비
		포장비	1,100	1,364	5.3	봉지 굴 소포장 및 박스비 등
		얼음	160	178	0.7	-
	간접비	인건비	2,200	2,784	10.8	원료세척, 선별, 포장, 상차
		감가상각비	160	184	0.7	자동화기기사용
		수광비	310	367	1.4	-
		일반관리비	480	552	2.1	가공공장 운영
	이윤	790	919	3.6	-	
도매가격	15,740	18,372	71.2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소매점	간접비	1,574	2,214	8.6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이윤	2,361	5,231	20.3	면담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19,675	25,817	100.0	대형소매점 조사가격	

주: 2021년 12월 말, 소포장 봉지굴 150g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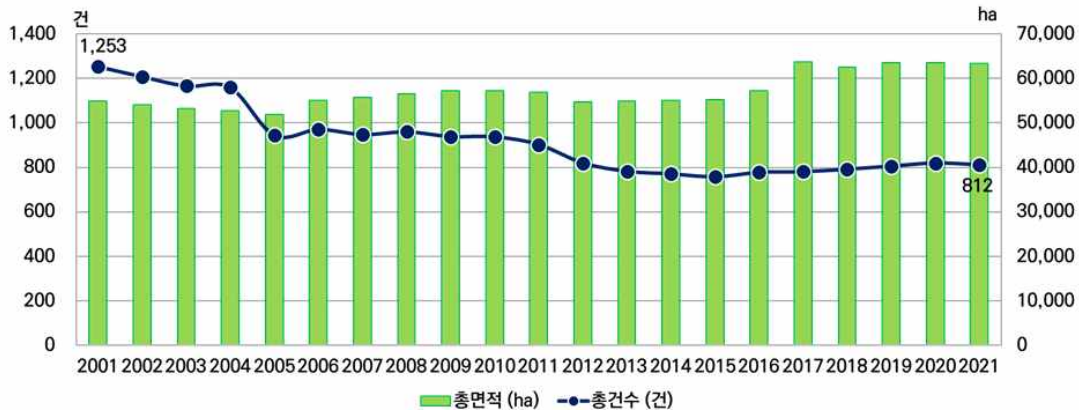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조사⁵⁹⁾

1. 양식김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2021년 기준, 양식 김 어업권은 총 812건으로 2001년 대비 약 35% 감소했으나, 면적은 15.4% 증가한 6만 3,266ha로 집계되었음
- 면허 건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면허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실제 김 시설량도 면허 면적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국내 김 양식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림 4-85〉 연도별 양식김 어업권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복합양식 및 한정면허는 제외
 자료: 통계청, 전해양식어업권통계

- 지역별 김 면허 면적 비중은 2021년도 기준 주산지 전남이 58,828ha로 전체 면적의 약 93%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충남 및 전북이 약 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및 인천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⁶⁰⁾

59) 김은 어기(2021년산 : 2020년 10월~2021년 5월)가 있는 품목이나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생산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함

60) 해당 통계는 한정면허 및 복합양식 면허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생산량 비중과는 차이가 있음

〈표 4-146〉 연도별 지역별 양식김 어업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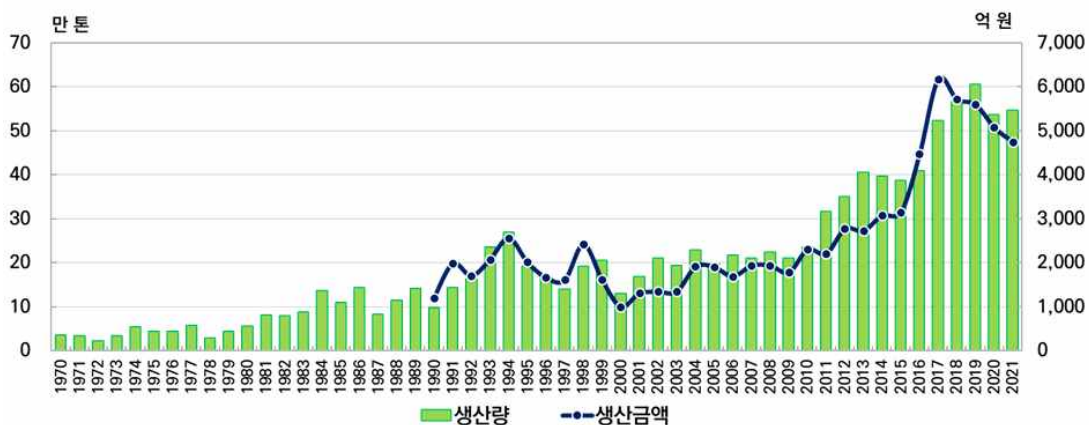
단위: ha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부산시	750	517	517	517	517	517	0.8	517
인천시	138	118	118	118	88	88	0.1	106
울산시	-	-	-	-	-	-	-	-
경기도	-	819	-	-	-	-	-	273
강원도	-	-	-	-	-	-	-	-
충남도	2,411	2,411	2,041	2,041	2,041	2,041	3.2	2,115
전북도	1,724	1,923	1,921	1,840	1,792	1,792	2.8	1,854
전남도	52,128	57,883	57,851	59,010	59,144	58,828	93.0	58,543
경북도	-	-	-	-	-	-	-	-
경남도	-	-	-	-	-	-	-	-
제주도	-	-	-	-	-	-	-	-
총면적	57,150	63,671	62,448	63,526	63,581	63,266	100.0	63,298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복합양식 및 한정면허는 제외
 자료: 통계청, 천해양식어업권통계

- 김 생산량은 양식 기술 개발 및 우량종자 개발 등의 영향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 2020년산(2019년 10월~2020년 5월) 김 생산 부진에 따라 2020년도 김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생산금액은 2018년도 이후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4-86〉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7년도 이후부터 약 50만 톤 수준의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60만 톤 가까이 생산되어 역대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했음
 - 2021년 김 생산량은 2022년산 어기가 시작되는 10월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 늘었고, 평년에 비해서도 3.6% 많은 약 55만톤으로 집계되었음
- 2021년 김 생산금액은 전년 대비 6.6% 적고 평년보다도 12.2% 감소한 약 4,700억 원에 그쳤음
 - 생산량이 늘었던 2019년에도 생산금액은 감소해 최근 김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47〉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	97,637	120,229
1995	192,960	201,920
2000	130,488	100,276
2005	197,610	191,255
2010	235,534	230,588
2015	386,646	314,967
2016	409,408	446,950
2017	523,648	617,507
2018	567,162	572,365
2019	605,767	560,584
2020	536,127	508,324
2021	547,587	474,956
최근 5개년 평균	556,058	546,747
전년 대비	2.1	-6.6
평년 대비	3.6	-12.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월별 김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3월 생산량 비중이 전체 생산량의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10월 김 어기가 시작된 이후 생산량은 꾸준히 늘다가 어기 후반에 해당되는 4월부터는 생산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통상적으로 10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나, 2021년에는 9월에도 김 생산이 일부 있어 생산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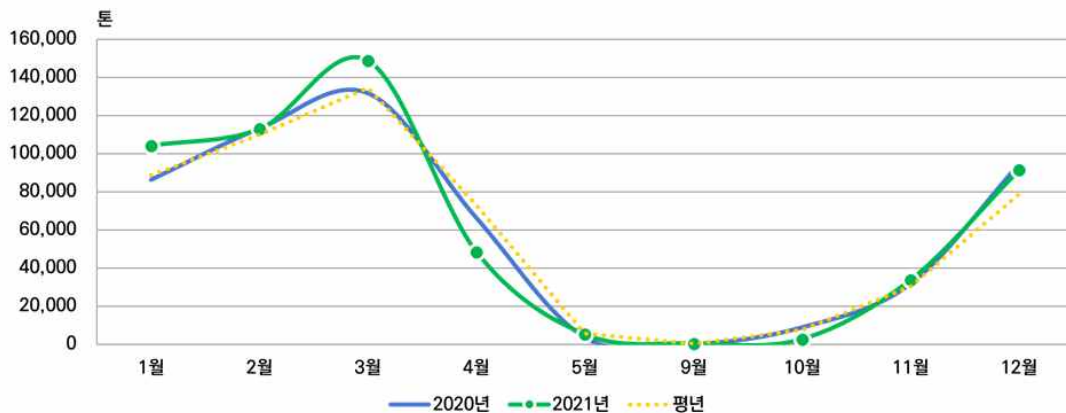
<그림 4-87>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월별 김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에 비해 1월 및 3월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났으나, 4월 생산량은 30%가량 적었음
 - 이는 작황 부진 및 낮은 김 가격으로 예년에 비해 생산을 조기 종료한 어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임
 - 한편, 2021년 10월에는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음

<그림 4-88> 2021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월별 생산량의 경우 3월 생산량은 전체의 약 27% 비중을 차지해 연중 가장 많아 평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음

〈표 4-148〉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월	81,093	115,909	114,837	123,801	113,290	113,035	20.6	116,174	-0.2	3.0
3월	113,150	120,312	143,834	163,645	131,806	148,920	27.2	141,703	13.0	10.7
4월	60,808	88,200	70,982	78,521	66,191	48,318	8.8	70,442	-27.0	-33.8
5월	4,813	5,269	8,923	6,285	3,497	5,075	0.9	5,810	45.1	-11.9
9월	-	-	-	-	-	396	0.1	396	-	-
10월	2,431	9,172	13,771	3,711	8,771	2,558	0.5	7,597	-70.8	-66.2
11월	18,276	32,286	42,281	27,608	31,684	33,674	6.1	33,507	6.3	10.7
12월	56,868	73,744	81,131	87,193	94,528	91,310	16.7	85,581	-3.4	16.0
합계	409,408	523,649	567,161	605,766	536,127	547,587	100.0	556,375	2.1	3.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1년 양식김 계통출하 비중은 전체 김 생산량의 95.7%를 차지해 대부분이 계통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년 기준 계통 출하량은 약 48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87.2% 수준이었음

〈표 4-149〉 연도별 양식김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5개년 평균
비계통	48,359	133,660	63,890	85,685	50,165	23,279	4.3	71,336	
소계	409,408	523,648	567,162	605,767	536,127	547,587	100.0	55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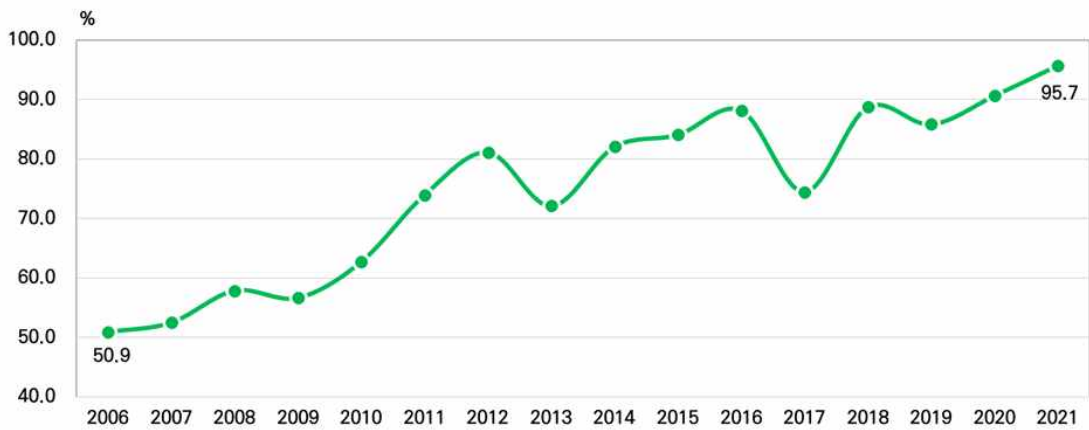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연도별 계통출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6년 계통 출하 비중은 50.9%로 비계통 출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 계통 출하 비중은 2006년 대비 약 44.8%p 상승했음

〈그림 4-89〉 2021년 연도별 계통 출하 비중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양식김 주산지에 해당되는 전남지역의 김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약 42만 톤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충청이 및 전북 지역이 각각 7.6%, 6.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경기도는 4.7%, 부산은 2.6% 비중을 차지했음
 - 한편, 인천 및 경남지역은 전체 생산의 약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50〉 연도별·지역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13,941	17,168	15,320	18,989	16,606	14,440	2.6	16,405
인천광역시	2,740	2,797	2,396	4,455	6,824	6,360	1.2	3,842
경기도	13,098	19,042	18,064	26,195	28,609	25,692	4.7	21,002
충청남도	39,506	50,224	32,472	43,766	41,136	41,465	7.6	41,421
전라북도	23,552	42,787	32,828	32,978	41,458	35,132	6.4	34,721
전라남도	310,930	388,804	459,345	471,347	394,111	416,652	76.1	404,907
경상남도	5,640	2,826	6,739	8,036	7,384	7,846	1.4	6,125
합계	409,408	523,648	567,162	605,767	536,127	547,587	100.0	528,422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김은 수출액 기준,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6억 달러 달성 이후 2021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의 자리를 지켰음
- 2021년 기준 김 수출량은 약 29만 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20.7%, 33.1% 늘었고, 2016년에 비해서는 70% 이상 많았음
 - 수출금액은 약 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4%, 평년보다는 34.8%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16년 이후 수출량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2020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늘었음
 - 한편, 마른김 및 조미김을 모두 포함한 수출 단가는 2021년 기준 2.4달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김 수입은 수출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폭이 컸음
 - 2021년 김 수입량은 945톤, 수입금액은 약 1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수입 단가는 약 2달러 수준이었음

〈표 4-151〉 연도별 양식김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6년	167,780	352,918	2.1	1,414	1,996	1.4
2017년	207,612	512,779	2.5	322	824	2.6
2018년	213,248	525,444	2.5	470	944	2.0
2019년	261,603	579,108	2.2	352	897	2.5
2020년	240,739	600,129	2.5	338	861	2.5
2021년	290,516	692,783	2.4	945	1,891	2.0
5개년 평균	242,744	582,049	2.4	486	1,083	2.2
전년 대비	20.7	15.4	-4.3	180.0	119.6	-21.5
평년 대비	33.1	34.8	1.5	63.2	71.2	-9.7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3) 수출입 중량은 마른김 및 조미김 환산 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양식김의 수출입 형태는 크게 마른김, 조미김,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수출량은 마른김이 약 59%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조미김 수출량이 40.7%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72.1%를 차지해 전체 수출금액을 견인하고 있음
 - 한편, 기타 제품은 수출량 기준 전체의 0.3%, 수출금액은 0.1%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제품별 수입량은 마른김이 715톤으로 전체 수입량은 75.6%를 차지했으며, 조미김은 23.7%에 해당되는 224톤이 수출되었음
 -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건조와 조미김이 약 90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입액의 48.4%, 49.8% 비중을 차지했음

〈표 4-152〉 제품유형별 김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건조	1212211010	171,629	59.0	192,818	27.8	715	75.6	916	48.4
조미	2008995010	118,157	40.7	499,267	72.1	224	23.7	942	49.8
기타	1212211090	730	0.3	698	0.1	6	0.7	33	1.7
합계		290,516	1.4	692,783	3.3	945	100.0	1,8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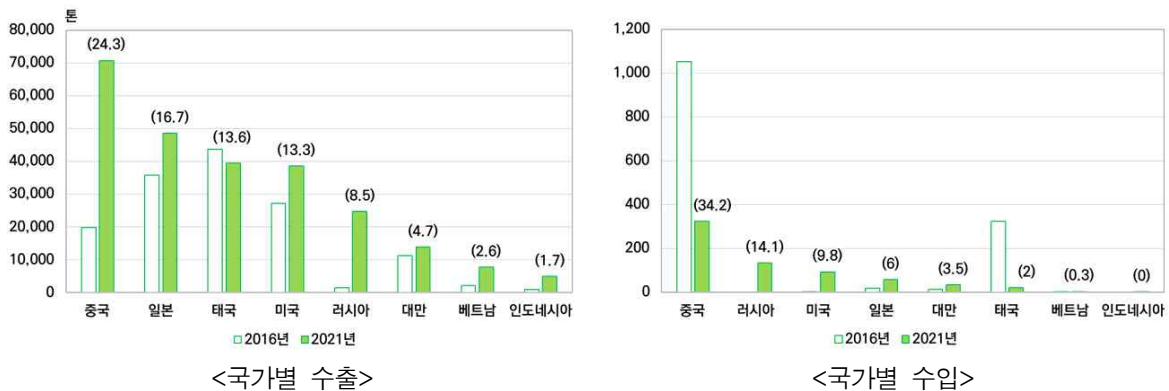
주: 수출입 중량은 마른김 및 조미김 환산 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1년 김 수출량 기준, 김 수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일본, 태국, 미국, 러시아 순이었으며, 이밖에도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많았음
 - 2021년 기준, 위 8개 국가로의 수출 비중 합계는 전체 수출량 85.5% 수준이었음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김 수출량이 2021년 기준 약 7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일본 16.7%, 태국 13.6%, 미국 13.3%, 러시아 8.5% 순이었으며,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수출 비중은 5% 미만이었음
 - 한편, 2016년 대비 2021년 수출량은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러시아로의 김 수출량은 2016년 기준, 상위 8개국 중 7번째로 많았으나, 2021년에는 5번째로 많아 수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90〉 국가별 김 수출입 실적(2021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김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전체 공급에서 국내 생산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국내 김 공급량은 약 55만 톤으로 생산이 감소했던 2020년 대비 2.3% 늘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3.7% 많았음
 - 전체 공급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16년은 99.7%, 2021년은 99.8%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김 수요는 2019년도까지 국내 소비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김 수출이 늘면서 2021년에는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보다 많았음
 - 2021년 국내 김 소비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12.8%, 17.0% 감소해 전체 수요량의 약 47% 수준이었음
 - 그러나 김 수출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20.7%, 33.1% 증가해 전체 수요량의 53.0%를 차지하며 국내 소비량보다 6%p 많았음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급량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김 자급률은 100% 이상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2016년 김 자급률은 168.5% 수준이었으나 국내 김 생산량의 장기적인 증가세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21년 김 자급률은 20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표 4-153〉 연도별 김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6년	409,408	1,414	410,822	243,041	167,780	168.5
2017년	523,648	322	523,970	316,358	207,612	165.5
2018년	567,162	470	567,632	354,384	213,248	160.0
2019년	605,767	352	606,119	344,516	261,603	175.8
2020년	536,127	338	536,465	295,725	240,739	181.3
2021년	547,587	945	548,532	258,017	290,516	212.2
전년 대비	2.1	180.0	2.3	-12.8	20.7	-
평년 대비	3.6	63.2	3.7	-17.0	33.1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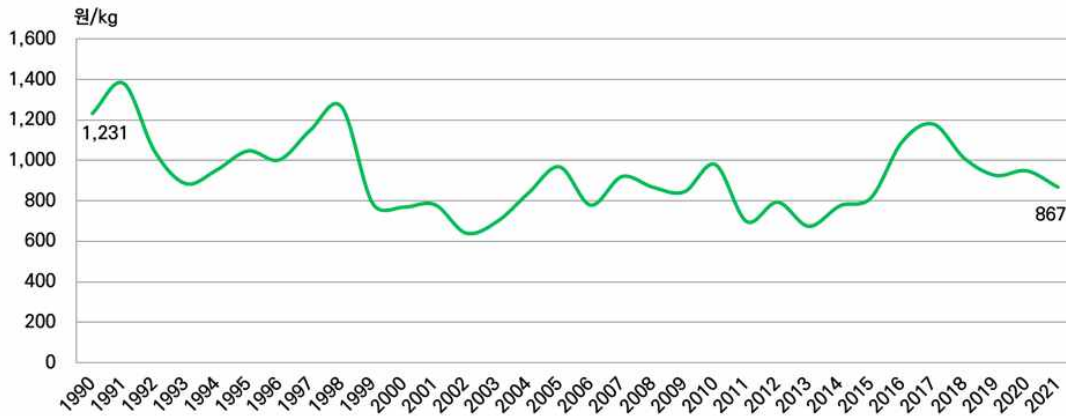
3)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2021년 김 생산 단가는 kg당 867원으로 전년 대비 8.5%, 평년보다는 약 16% 낮은 수준이었음
 - 1990년 이후 김 생산단가는 연도별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2021년 생산단가는 1990년보다 약 30% 낮았음
 - 이는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소비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이 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그림 4-91〉 연도별 양식김 생산단가 추이



주: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생산단가를 살펴보면, 어기가 시작되는 10월~11월에는 가격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형성되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는 12월 이후부터 생산단가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어기 초 가격이 높은 것은 햇김 생산의 영향도 있으나, 일반김에 비해 단가가 높은 잇바디돌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임

〈표 4-154〉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39	1,347	1,365	974	988	894	1,114	-9.5	-21.7
2월	1,165	1,354	980	881	1,006	788	1,002	-21.7	-26.9
3월	996	745	860	832	926	658	804	-28.9	-24.5
4월	864	1,124	872	691	692	671	810	-3.0	-20.9
5월	1,103	1,423	877	833	778	589	900	-24.3	-41.3
9월	-	-	-	-	-	1,041	1,041	-	-
10월	2,554	1,842	2,132	3,080	2,133	2,681	2,374	25.7	14.2
11월	1,428	1,234	907	1,810	1,265	1,854	1,414	46.5	39.5
12월	1,316	1,375	911	945	843	981	1,011	16.4	-9.0
연평균	1,092	1,179	1,009	925	948	867	1,031	-8.5	-15.9

주: 1) 천해양식어업의 김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1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한편, 각 지역별 수협 위판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김 산지가격도 통계청 김 생산단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표 4-155〉 연도별·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동향(물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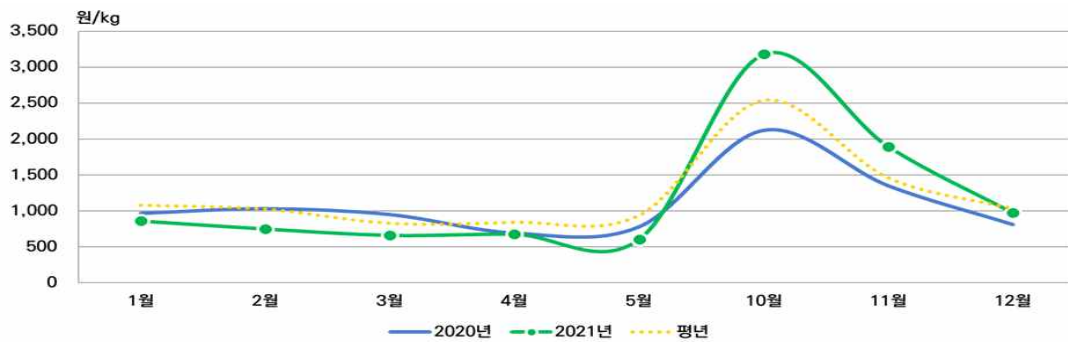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10	1,369	1,346	936	966	861	1,081	-10.9	-20.4
2월	1,166	1,345	980	891	1,031	750	1,027	-27.3	-27.0
3월	971	706	857	841	950	662	831	-30.4	-20.4
4월	889	1,167	952	690	692	677	845	-2.2	-19.8
5월	1,096	1,423	878	853	779	605	939	-22.4	-35.6
10월	2,570	2,378	2,077	2,907	2,121	3,180	2,539	49.9	25.3
11월	1,536	1,360	937	1,691	1,350	1,897	1,462	40.5	29.8
12월	1,282	1,365	860	906	811	974	1,033	20.0	-5.7
연평균	1,315	1,389	1,111	1,214	1,088	1,201	1,220	10.4	-1.6

주: 1) 연평균 가격은 월별 가격의 단순평균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2021년 월별 산지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산 여기에 해당되는 1월~5월 산지 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2022년산 여기 초 김 작황 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10월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약 50%, 평년에 비해서도 25%가량 높았음
 - 이후 김 작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생산이 회복되었으나, 여기 초 높게 형성된 가격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강세는 지속되었음

〈그림 4-92〉 2021년 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추이(물김 기준)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산지 위판 이후 마른김 형태로 반입되는 김 도매가격(반입가격)은 2021년 기준 속당 4,430원으로 전년보다 5.2%, 평년보다는 12.1% 낮았음

〈표 4-156〉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구매 기준)

단위: 원/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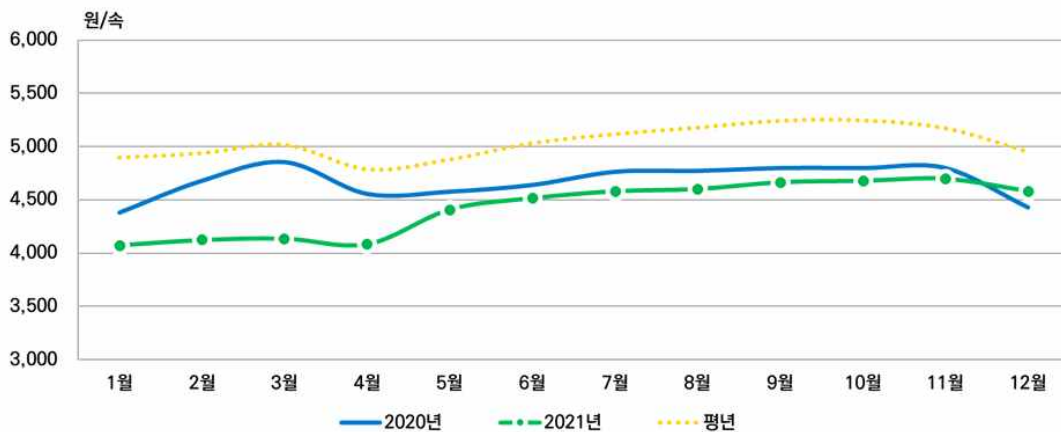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059	5,766	5,991	4,301	4,379	4,074	4,902	-7.0	-16.8
2월	4,297	5,777	5,365	4,583	4,680	4,123	4,906	-11.9	-16.5
3월	5,026	5,828	4,858	4,527	4,855	4,135	4,841	-14.8	-17.6
4월	4,758	5,591	4,669	4,370	4,555	4,083	4,654	-10.4	-14.7
5월	5,147	5,827	4,720	4,138	4,577	4,410	4,734	-3.6	-9.7
6월	5,235	6,096	4,940	4,258	4,640	4,517	4,890	-2.7	-10.3
7월	5,248	6,193	5,015	4,374	4,764	4,582	4,986	-3.8	-10.5
8월	5,284	6,358	5,040	4,443	4,773	4,603	5,043	-3.6	-11.1
9월	5,275	6,544	5,079	4,524	4,799	4,667	5,123	-2.8	-11.0
10월	5,226	6,615	5,030	4,569	4,800	4,681	5,139	-2.5	-10.8
11월	5,222	6,362	4,916	4,567	4,801	4,700	5,069	-2.1	-9.2
12월	5,523	6,120	4,238	4,455	4,429	4,583	4,765	3.5	-7.5
연평균	5,025	6,090	4,988	4,426	4,671	4,430	4,921	-5.2	-12.1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월별 도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 내 김 반입량이 많은 1월~3월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음

〈그림 4-93〉 2021년 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추이(마른김-중품 기준)



주: 평년은 2016년~2019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그러나 어기 종료 이후 화입김(얼구운김)⁶¹⁾ 반입에 따라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한 이후 일정 기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음 어기에 생산된 김 반입이 시작되는 12월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2021년 도매가격은 12월을 제외하고 작년 및 평년보다 약세를 보여 김 도매 가격도 최근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57>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판매 기준)

단위: 원/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264	6,047	7,336	6,460	6,240	6,240	6,465	0.0	2.8
2월	4,322	6,196	7,321	6,440	6,258	6,240	6,491	-0.3	2.2
3월	4,456	6,360	7,135	6,431	6,254	6,226	6,481	-0.4	1.6
4월	5,225	6,448	6,954	6,380	6,240	6,190	6,442	-0.8	-1.0
5월	5,393	6,647	6,760	6,380	6,240	6,190	6,443	-0.8	-1.5
6월	5,385	6,837	6,661	6,380	6,263	6,142	6,457	-1.9	-2.6
7월	5,380	6,880	6,740	6,356	6,360	6,140	6,495	-3.5	-3.2
8월	5,380	6,984	6,740	6,340	6,372	6,140	6,515	-3.6	-3.5
9월	5,414	7,103	6,740	6,340	6,372	6,140	6,539	-3.6	-4.0
10월	5,460	7,100	6,724	6,340	6,372	6,140	6,535	-3.6	-4.1
11월	5,520	7,159	6,764	6,340	6,310	6,140	6,543	-2.7	-4.3
12월	5,650	7,322	6,673	6,325	6,272	5,975	6,513	-4.7	-7.3
연평균	5,163	6,754	6,880	6,375	6,296	6,157	6,492	-2.2	-2.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도매시장 내 김 반입 이후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2021년 속당 6,157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약 2% 하락했음
 - 2017년 이후 도매상 판매가격은 6,000원 후반대부터 7,000원 초반대까지 형성되었으나, 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2021년에는 연중 6,000원 초반 수준이 유지되다가 12월에는 5,000원 대까지 하락하였음
 - 도매가격도 산지가격과 등락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가격이 매년 하락하는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61) 얼구운김(화입(火入)김) : 마른김(수분함량 5-10%)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수분함량 4% 이하로 건조시킨 김

3) 소비자가격

- 김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을 조사한 가격을 활용함
 - 일반적으로 한 속은 마른김 100장에 해당되나, aT조사에서는 10장을 기준으로 가격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한 속 기준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 2021년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속당 8,990원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평년보다도 1.3% 높았음
 -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및 도매가격과 달리 소비자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에도 모든 월에서의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5월~8월을 제외하고 모두 높았음

〈표 4-158〉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마른김)

단위: 원/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170	7,770	9,300	9,610	8,710	9,000	8,878	3.3	5.7
2월	7,250	7,960	9,330	9,610	8,670	8,950	8,904	3.2	4.5
3월	7,740	8,160	9,240	9,580	8,670	8,920	8,914	2.9	2.8
4월	8,200	8,520	9,290	9,330	8,650	8,920	8,942	3.1	1.4
5월	8,530	8,790	9,280	9,550	8,660	8,920	9,040	3.0	-0.5
6월	8,590	8,840	9,460	9,370	8,730	8,940	9,068	2.4	-0.6
7월	8,740	8,910	9,310	9,190	8,790	8,940	9,028	1.7	-0.5
8월	8,780	8,970	9,410	8,910	8,930	8,990	9,042	0.7	-0.1
9월	8,700	8,970	9,550	8,860	8,930	9,030	9,068	1.1	0.3
10월	8,650	8,970	9,570	8,870	8,920	9,000	9,066	0.9	0.0
11월	8,710	9,090	9,610	8,880	8,940	9,060	9,116	1.3	0.2
12월	8,050	9,180	9,590	8,930	8,940	9,150	9,158	2.3	2.4
연평균	8,270	8,670	9,410	9,220	8,790	8,990	9,016	2.3	1.3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얼구운김 기준 소비자가격은 2021년 기준 속당 16,08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2%, 6.5% 높게 형성되어 화입 전 마른김 가격보다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얼구운김 가격은 화입 및 보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화입 전 마른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화입 전 마른김 소매가격은 7,000원~9,000원, 얼구운김 소매가격은 14,000~16,000원 대의 분포를 보였음
- 한편, 2021년 얼구운김 소비자가격은 화입 전 마른김 가격보다 78.9% 높게 형성되었음

<표 4-159>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얼구운김)

단위: 원/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5,190	15,170	14,700	15,630	15,173	6.3	4.1
2월	15,220	15,180	15,110	15,280	15,198	1.1	0.7
3월	15,220	15,230	16,760	15,510	15,680	-7.5	-1.4
4월	15,230	14,980	14,950	16,030	15,298	7.2	6.5
5월	15,180	14,990	16,500	16,060	15,683	-2.7	3.2
6월	15,030	14,880	15,260	16,130	15,325	5.7	7.1
7월	15,050	14,860	14,990	16,210	15,278	8.1	8.3
8월	15,070	14,750	14,990	16,250	15,265	8.4	8.8
9월	15,080	14,760	14,960	16,290	15,273	8.9	9.1
10월	15,030	14,760	14,940	16,460	15,298	10.2	10.4
11월	15,010	14,690	14,810	16,500	15,253	11.4	11.2
12월	15,030	14,750	15,350	16,500	15,408	7.5	9.7
연평균	15,110	14,910	15,280	16,080	15,345	5.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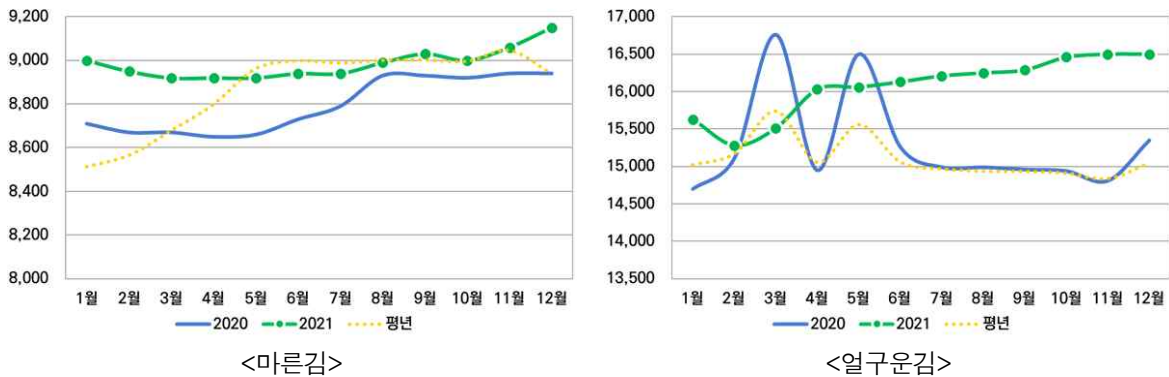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1년 화입 전 마른김 월별 소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음
 - 반면에 2021년 얼구운김 월별 가격추이는 작년 및 평년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음
 - 작년 및 평년은 2월에서 7월까지 등락폭에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는데, 2021년의 경우 2월부터 상승 이후 연말까지 보합세를 보여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그림 4-94〉 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속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양식김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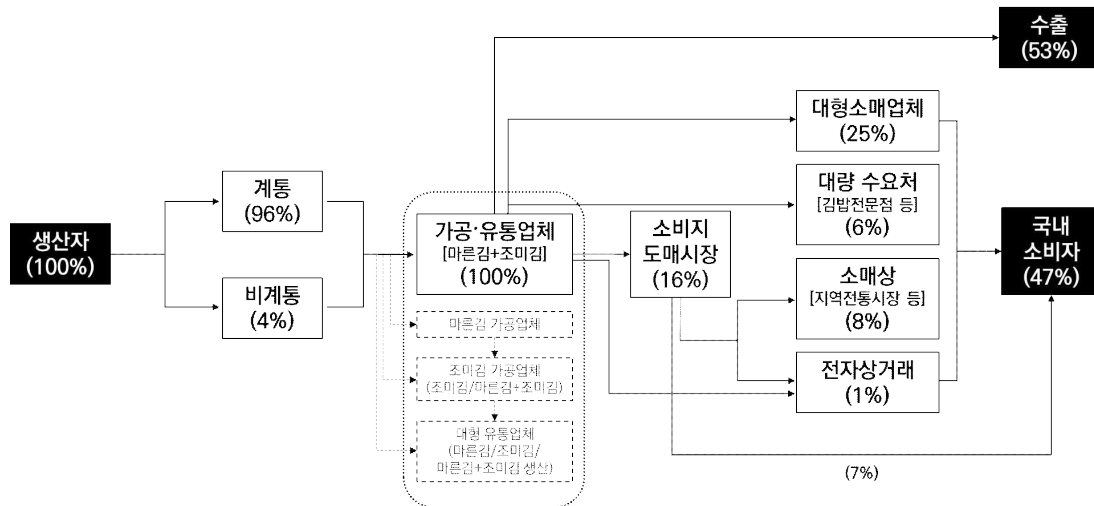
- 양식 김은 산지위판장 이후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1차 가공(건조)을 거쳐 마른 김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물김 계통 출하 비중은 약 96%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위판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음
 - 위판 이후 물김은 일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지만, 전체 생산량 대비 극히 적은 양으로 추정됨
 - 실제 유통단계에서 거래되는 김 제품 형태는 마른김이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위판 이후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양식업자가 생산한 물김 전량이 가공업체로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유통경로 추정을 실시함
 - 제품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 양식김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위판장→1차 가공업체(마른김)→2차 가공업체(조미김)→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임⁶²⁾

62)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김은 마른김 및 조미김 형태 모두 유통되고 있는데 마른김으로 판매되는 경우 2차 가공 단계는 제외됨

- 일반적으로 1차 가공업체가 생산한 마른김을 2차 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조미김을 생산하면 이를 유통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업체로 판매하는 경로를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김 유통경로 내 가공업체가 제품 생산 이후 유통업체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에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들이 직접 물김을 구매하여 제품 생산부터 유통 및 수출까지 진행하는 수직계열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제품 생산 및 유통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유통경로가 다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과거 1·2차 가공 단계 이후 도매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출량 증가 및 대형 소매업체 등장 등의 영향으로 도매시장 유입물량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는 물량들은 가공 및 유통업체들을 통해 대형 소매업체 또는 김밥전문점과 같은 대량 수요처로 유통됨
-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물량 중 일부는 지역전통시장 및 대형 소매업체를 제외한 소매상이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 판매함
 - 이밖에도 최종 소비자가 직접 도매시장을 방문해 구매하기도 하며, 중도매상인 중 일부는 인터넷 판매를 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양식김 유통 경로는 계통 출하 비중이 높지만 위판단계 이후부터는 원물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개별 가공업체에서 가공 단계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출 및 내수용 제품에 따라 선호도가 상이하고 기존 거래 계약에 의해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극단적인 특징이 있어, 관련 정보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보임
 - 또한,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김 직접 구매 이후 마른김부터 조미김까지 가공 및 유통하거나, 조미김 원료 및 수출물량 부족 시 도매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 김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유통 흐름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마른김 및 조미김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구분은 하지 않고, 유통 경로별 양방향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음

〈그림 4-95〉 양식김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가공업체,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양식김 유통 경로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생산량 55만 톤 중 약 53%에 해당되는 29만 톤이 해외로 수출되며, 나머지 47%에 해당되는 약 26만 톤이 국내에서 유통·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⁶³⁾
 - 수출물량 중 59.0%에 해당되는 17만 톤가량이 마른김 형태로 수출되며, 조미김은 약 12만 톤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26만 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통 경로는 대형 소매업체로 전체 물량의 25%에 해당되는 약 14만 톤이 유통 및 판매되었음
 - 대형 소매업체와 같이 가공·유통업체에서 직접 거래되는 비중이 많은 김밥 전문점의 경우 약 3만 톤의 물량이 유통되어 전체의 약 6% 비중을 차지했음

63) 양식김의 경우 마른김으로 가공 이후 보관이 가능해 재고량이 존재하나, 보관 가능 기간이 길고 어기가 있어 한 해 기준의 재고량을 추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물김 생산 이후 마른김 또는 조미김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재고는 고려하지 않고 모두 시중에 판매 또는 수출된 것으로 가정하였음. 이에 국내 유통량은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 존재함

-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경로 중 소매상과 소비자 직접 구매 비중은 각각 8%, 7% 비중을 차지해 4만 톤 전후의 물량이 유통되었음
- 한편, 인터넷·모바일 판매 등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유통은 일부 있으나 거래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유통량의 1% 수준에 해당되는 5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표 4-160> 양식김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1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		548,532	100.0
가공유통 업체	수출	290,516	53.0
	대형소매업체	137,243	25.0
	김밥전문점	32,938	6.0
소비자 도매시장	소매상	43,917	8.0
	소비자 직접 거래	38,428	7.0
	전자상거래	5,490	1.0

주: 취급량 합계는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을 포함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가공업체,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양식김 유통비용⁶⁴⁾

- 양식김 유통경로는 유통 주체, 제품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통주체에 따라 원료 구매 비용이 상이할 수 있고, 판매목적(내수용, 수출용) 및 제품 포장 형태에 따라 판매가격에도 차이가 발생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올해 첫 시행되는 2021년 양식김 유통 비용 실태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품 형태가 단순한 마른김(김밥용김)을 기준으로 가공 및 유통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유통단계별 비용을 살펴봄
- 마른김 유통단계별 비용구조 분석을 위해 가정한 유통경로는 물김 위판→가공업체→도매시장→대형소매업체 순으로 진행함
 - 도매시장 유통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화입 비용까지 고려하기 위해 제품 형태는 얼구운김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64) 양식김 유통 비용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시행되어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한 관계로 2021년 단년도 비용 구조 분석을 실시함

- 유통 단계별 가격은 물김 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은 3월을 기준 조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함
 - 유통경로의 시작이 되는 김 산지 위판가격은 지역별 생산량 비중과 일반김(방사무늬김) 생산 비중을 고려해 고흥군수협 위판실적을 활용함
 - 도매가격의 경우 도매시장 반입가격은 서울 중부시장 조사가격을 활용하였으며, 판매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 자료를 사용함
 -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마른김(중품) 10장당 가격을 기준으로 속(100장)당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1) 산지 및 가공단계

- 산지 위판단계에서 양식김은 물김 형태로 거래되므로 산지가격은 kg당 가격으로 제시되나, 위판 이후에는 마른김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속당 환산가격⁶⁵⁾을 적용하였고 타 품목과의 비교를 위해 1속(260g)을 kg당 단위로 변환했음⁶⁶⁾
- 2021년 3월 고흥군 산지 위판가격은 속 기준 kg당 8,905원이며 이중 수수료 4.5%를 제외한 어가 수취가격은 8,504원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14.3% 수준임
- 도매시장 반입가격을 kg당 16,692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마른김 가공업체 이윤은 속당 2,546원으로 소매가격의 4.3% 수준이었음
 -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인건비는 kg당 1,373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매시장 반입 시 발생하는 위판 수수료(반입가격의 6% 적용)는 1,002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kg당 668원이었음
 - 김 건조 시 사용되는 김 발장 비용은 kg당 577원이었으며, 이밖에도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되는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 수선비 등 기타비용으로 각각 969원, 652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65) 월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른김 한 속(100장) 생산을 위해 물김 3.6kg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함

66) 해당 기준은 도매 및 소매가격에도 적용하였음

2) 도매 및 소매 단계(대형소매업체 포함)⁶⁷⁾

- 도매시장 판매가격이 kg당 23,946원일 때 도매단계에서의 발생 이윤은 속당 5,304원으로 소매가격의 약 9% 수준이었음
 - 도매단계에서는 마른김을 재건조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화입 과정에서 808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화입 공장 내 김 보관 비용은 346원이었음
 - 포장비용은 소포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투입되는 방습제 및 인건비까지 포함해 769원으로 조사됨
- 최종 소비자가격은 얼구운김 기준 속당 59,654원으로 조사되어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제외한 소매단계에서의 이윤은 최종 판매가격의 32.1%에 해당되는 kg당 19,143원으로 추정됨

<표 4-161> 양식김(얼구운김)의 유통비용(산지 위판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속, %

구분		2021년		비고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504	14.3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401	0.7	산지가격의 4.5%	
	산지가격	8,905	14.9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마른김 가공업체	직접비	발장 구입비	577	1.0	소모성 재료
	간접비	인건비	1,373	2.3	
		일반 관리비	969	1.6	수도 광열비(전기)
		위판 수수료	1,002	1.7	도매가격(반입)*6%
		운송비	668	1.1	도매가격(반입)*4%
		기타	652	1.1	기타
	이윤	2,546	4.3		
도매가격(반입)	16,692	28.0	중도매인 조사가격		
도매시장	화입비	808	1.4		
	보관비용	346	0.6	화입 이후 해당 공장에서 보관	
	포장비	769	1.3	인건비 포함	
	운송비	27	0.0	일반김 기준 1박스(72속) 500원	
	이윤	5,304	8.9		
	도매가격(판매)	23,946	40.1	aT 조사가격	
소매업체	인건비	4,963	8.3		
	기타비용	11,602	19.4		
	이윤	19,143	32.1		
	소매가격	59,654	100.0	aT 조사가격	

주: 1) 가격은 물김 생산량 비중이 높은 3월 기준임
 2) 산지가격은 지역별 생산량 및 일반김(방사무늬김) 비중을 고려해 고흥 수협 위판 가격을 기준으로 함
 3) 주로 거래되는 김 유통 단위는 '속'이며, 모든 유통단계별 가격은 속 기준 kg당 단위로 변환한 수치임
 자료: 고흥군수협, 서울 중부시장, aTKAMIS

67) 앞서 가정된 양식김 유통경로에서는 도매시장에서 대형 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하는 소매가격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Ⅰ 제5장 Ⅰ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요약

1.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요약

가.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비용

- 20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와 유통비용을 파악하였음
- 유통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과 이윤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수산 업계 또는 학계에서는 ‘유통마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비용’과 ‘유통마진’을 동일한 의미로 보았음
 - ‘직접비’는 양륙·배열비, 선별비,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과 같이 거래물량의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간접비’는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 같이 거래물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임
 - 또한, ‘이윤’은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 품목별로도 도매시장과 대형소매점 등 유통경로별 및 활어, 선어, 냉동 등 판매형태별로 유통비용이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각 품목별 비교 편의를 위해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산지수협위판장~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선어로, 명태는 냉동, 그리고 마른멸치는 건조품을 기준으로 하며,
 - 주요 양식수산물인 전복, 넙치, 굴은 산지 생산자~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활어로, 김은 마른김(얼구운김)의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률 조사결과⁶⁸⁾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음

68) 생산자 수취율=(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유통비용률=(소비자가격-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표 5-1>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생산자 수취	유통 비용	생산자 수취	유통 비용	비용별			단계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도매	소매
고 등 어	선어(부산→가락)	31.5	68.5	33.9	66.1	13.7	28.4	24.0	9.5	13.4	43.2
	선어(부산→서울 대형소매)	30.2	69.8	32.0	68.0	11.9	32.0	24.1	16.8	-	51.2
	냉동(부산→가락)	34.6	65.4	38.7	61.3	13.8	26.5	21.0	10.6	14.8	35.9
명 태	냉동(부산→노량진)	37.1	62.9	33.8	66.2	17.7	29.8	18.7	7.7	18.0	40.5
오 정 어	선어(구룡포→가락)	61.0	39.0	63.7	36.3	8.4	14.6	13.3	6.9	11.5	17.9
	활어(울진후포→횃집)	56.2	43.8	65.7	34.3	5.3	12.7	16.3	6.0	7.5	20.8
	선어(구룡포→서울 대형소매)	61.2	38.8	71.6	28.4	4.4	12.0	12.0	6.9	-	21.5
갈 치	선어(제주→노량진)	51.2	48.8	51.0	49.0	14.3	24.7	10.0	11.1	10.5	27.4
	선어(제주→서울 대형소매)	48.2	51.8	47.9	52.1	7.0	32.0	13.1	15.9	-	36.2
참 조 기	선어(목포→노량진)	57.3	42.7	55.4	44.6	14.8	18.1	11.7	12.0	11.5	21.1
	동결(목포→서울 대형소매)	61.7	38.3	-	-	-	-	-	-	-	-
	동결(제주→서울 대형소매)	49.2	50.8	59.1	40.9	10.6	16.2	14.1	12.3	-	28.6
마 른 멸 치	건어(부산→가락)	40.9	59.1	40.0	60.0	8.7	38.1	13.2	5.8	24.1	30.1
양 식 전 복	활어(완도→서울 대형소매)	55.1	44.9	56.3	43.7	1.4	28.1	14.2	11.4	-	32.3
양 식 녘 치	활어(제주→서울 대형소매)	30.0	70.0	32.6	67.4	16.6	39.2	11.6	0.4	4.6	62.4
	활어(제주→횃집소매)	32.4	67.6	35.3	64.7	53.2		11.5	0.4	5.0	59.3
양 식 굴	신선(통영→서울 대형소매)	49.0	51.0	41.8	58.2	10.8	23.6	23.8	1.5	27.8	28.9
양 식 김	건어(산지→대형소매)	-	-	14.3	85.7				13.7	12.1	59.9

주: 1) 대형소매점에 입점하는 횃집은 직영과 임대 가 있는데, 여기서는 횃집들이 주로 임대를 하므로 임대기준 적용
 2) 횃집의 간접비와 직접비 구분을 할 수 없어 활어 소매횃집 경로는 '직접비+간접비'로 적용

〈표 5-2〉 조사대상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비용별			단계별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직접 비	간접 비	이윤	수입	도매	소매	
고등어	수입냉동 (부산→서울 소매업체)	30.6	69.4	32.7	67.3	16.1	32.6	18.6	7.0	23.3	37.0
오징어	수입냉동 (부산→가락시장)	30.2	69.8	29.9	70.1	13.3	25.4	31.4	11.3	16.3	42.5

나. 조사대상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

- 조사 대상 9개⁶⁹⁾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제) 조사대상 9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규모에 따른 가중치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고 분석하였음
 - 첫째, 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는 KOSIS 어업생산동향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중에서 계통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마른멸치는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생산량(각 수협 위판 자료)을 기준으로 하였음
 - 둘째, 명태(원양산 냉동)은 명태의 원양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셋째, 양식수산물인 전복, 넙치, 굴은 천해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굴의 경우 대부분 알굴 형태로 유통되므로 알굴(각굴의 1/10)로 환산하였음
- (분석 결과) 조사대상에 각각의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수산물의 평균 유통비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산자 수취율)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40.6%였으며, 2020년(42.8%) 대비 2.2%p 감소했음. 품목별로는 오징어 63.7%, 전복 56.3%, 참조기 55.4%, 갈치 51.0%, 굴 41.8% 등은 평균 이상이였으며, 넙치 32.6%, 명태 33.8%, 고등어 33.9%, 마른멸치 40.0% 등은 평균 이하였음
 - (유통비용률) 평균 유통비용률은 59.4%로 2020년(57.2%)에 비해 2.2%p 높았음. 품목별로는 넙치 67.4%, 명태 66.2%, 고등어 66.1% 등은 평균 이상이였으며, 오징어 36.3%, 전복 43.7%, 참조기 44.6% 등은 평균 이하였음

69) 양식김의 경우 생산량이 많아 평균 유통비용에 영향을 주며, 조사가 시작된 첫 해이므로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제외함

- (유통비용별) 2021년 조사대상 품목의 직접비는 13.9%로 2020년(13.4%)에 비해 0.5%p 상승했으며, 간접비는 2020년(26.2%)보다 1.9%p 상승한 28.1%이었음. 그에 비해 이윤은 17.4%로 2020년(17.6%)에 비해 0.2%p 하락했음
- 즉 2021년 조사대상 품목의 수산물 유통비용(직접비와 간접비)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이윤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비용 상승 때문임
- (유통단계별) 2021년 조사대상 품목의 산지 유통비용률은 7.8%로 2020년(7.7%)에 비해 0.1%p 늘었음. 그러나 도매단계는 2020년(15.5%)보다 1.1%p 하락한 14.4%였으며, 소매단계는 37.2%로 2020년(34.0%)에 비해 3.2%p 높아졌음
- 2021년 조사대상 품목의 수산물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의 경우 산지 및 소매 단계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도매단계는 감소했음. 도매단계의 비용 감소는 직간접비 하락이 아닌 이윤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분석) 본 조사의 대상품목은 가공단계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전년에 이어 선어와 활어로 구분하여 유통비용을 추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률) 가공단계별로 분석하면, 선어의 생산자 수취율이 44.8%로 활어(41.1%)보다 높으나, 유통비용률은 활어(58.9%)가 선어(55.2%)보다 높음. 즉 활어의 유통비용이 선어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2020년에 비해서는 활어의 유통비용율이 다소 낮아진 반면 선어는 높아졌음
 - (유통비용별) 선어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높아진 반면 이윤은 소폭 감소했고, 활어는 직·간접비와 이윤 모두 전년에 비해 낮아졌음
 - (유통단계별) 선어의 경우 전년 대비 산지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활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의 유통비용률이 감소했음

〈표 5-3〉 9개 품목 수산물 적용 가중치

구분		고등어 (선어)	명태 (원양)	오징어 (선어)	갈치 (선어)	참조기 (선어)	마른 멸치	전복 (활어)	넙치 (활어)	굴 (신선)	합계
가중치 산정기준	21년 생산량	121,770	156,439	33,140	61,373	30,315	32,006	23,199	41,791	30,591	530,624
	적용 가중치	0.229	0.295	0.062	0.116	0.057	0.060	0.044	0.079	0.059	1.000

주: 1) 생산자 수취율 및 유통비용률은 산지에서 서울 도매시장 유통경로 기준임. 단, 양식전복, 양식넙치, 양식굴은 산지에서 대형소매점 기준임
2) 가중치는 7개 품목의 생산량(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계통 출하량, 마른멸치는 KMI 수산업관측센터 생산량, 명태는 원양산 및 냉동명태 반입량, 양식전복, 넙치, 굴은 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굴은 알굴로 환산하였음

〈표 5-4〉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단위: %, 원/kg

구분	생산자 수취율	유통비용율							가격		
		비용별			단계별			생산자	소비자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도매	소매				
고등어	33.9	66.1	13.7	28.4	24.0	9.5	13.4	43.2	3,387	9,951	
명태	33.8	66.2	17.7	29.8	18.7	7.7	18.0	40.5	1,171	3,465	
오징어	63.7	36.3	8.4	14.6	13.3	6.9	11.5	17.9	13,696	21,500	
갈치	51.0	49.0	14.3	24.7	10.0	11.1	10.5	27.4	12,652	24,800	
참조기	55.4	44.6	14.8	18.1	11.7	12.0	11.5	21.1	8,511	15,350	
마른멸치	40.0	60.0	8.7	38.1	13.2	5.8	24.1	30.1	8,890	22,214	
전복	56.3	43.7	1.4	28.1	14.2	11.4	-	32.3	24,700	43,890	
넙치	32.6	67.4	16.6	39.2	11.6	0.4	4.6	62.4	14,825	42,000	
굴	41.8	58.2	10.8	23.6	23.8	1.5	27.8	28.9	10,798	25,817	
수산물 평균 (가중치 적용)	40.6	59.4	13.9	28.1	17.4	7.8	14.4	37.2	7,351	16,491	
추가 분석	선어	44.8	55.2	13.3	24.3	17.6	9.9	12.2	33.2	-	-
	활어	41.1	58.9	11.2	35.2	12.5	4.3	2.9	51.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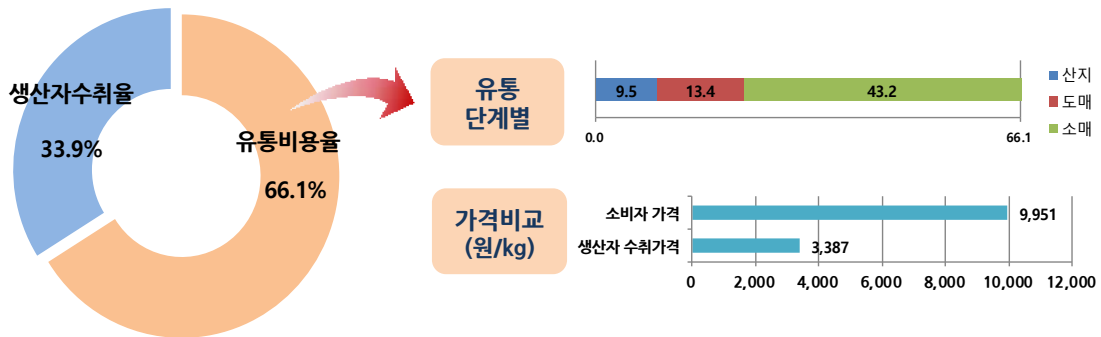
주: 1) 추가분석 중 '선어'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이며, '활어'는 전복, 넙치이며, 가중치를 적용함

2.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가. 고등어

- 고등어 선어를 대상으로 산지(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부산→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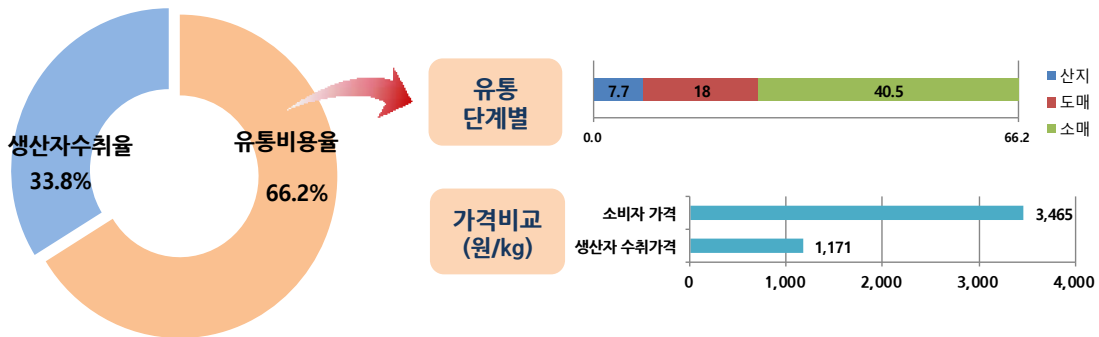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두 경로 모두 상승하면서, 유통비용율은 두 경로 모두 내려갔음
 -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로의 생산자 수취율은 33.9%로 2020년(31.5%)에 비해 2.4%p 상승했으며, 대형소매점 경로의 생산자 수취율은 32.0%로 2020년(30.2%)에 비해 1.8%p 상승했음
- (원인분석) 고등어(선어)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 소비 규격인 중·대형어 생산량 감소로 2020년에 비해 23% 정도 상승했으며, 산지가격 상승 및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가격이 2020년 대비 소매상과 대형소매점에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임
 - 각 유통단계의 유통비용은 상승했으나,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 따른 어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통비용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산지 위판장→소비지 법정(공영) 도매시장 기준)

- (산지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양륙 배열비(38.0→38.6원/kg), 야간부녀반 노임(69.4→72.2원), 위관수수료(위관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어상자대(130.0→140.0원), 주간부녀반(64.3→68.6원), 기타 노임(91.9→92.2원), 산지 중도매인 수수료(낙찰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 (도매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경매 수수료(경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물류비(12.0→13.0원/kg), 간접비(844.5원→863.9원/kg), 이윤(판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 (소매단계) 직접비(329.0→330.0원), 간접비(1,696.0→1,957.0원), 이윤(1,804.0→1,948.5원)

나. 명태

- 명태는 국내 원양선사 혹은 합작 수입 명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0년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5-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냉동, 부산→노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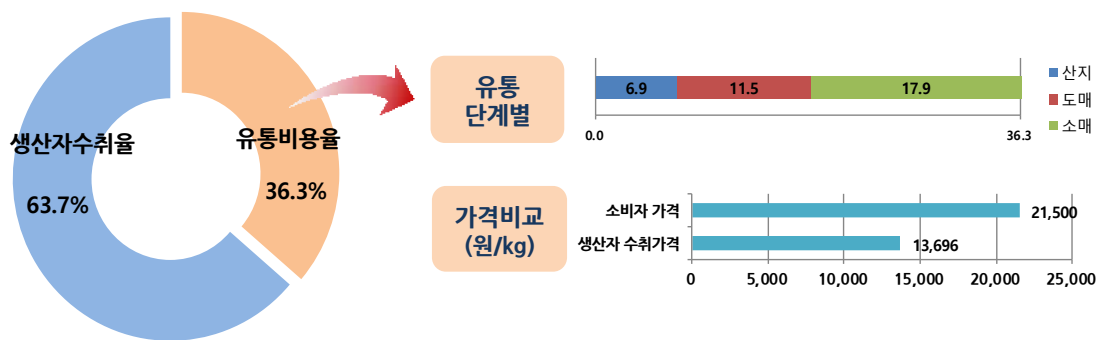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0년 37.1%에서 2021년 33.8%로 3.3%p 하락함
- 생산자(원양 및 합작수입업자)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며 2020년 1,259.5원/kg에서 2021년 1,170.7원/kg으로 7% 정도 하락한 반면, 소매가격(소비자 소매상)은 ’ 20년 3,391.0원/kg에서 ’ 21년 3,464.5원/kg으로 2% 상승함

- (원인분석)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반면, 생산자 가격은 하락하면서 생산자 수취율이 줄었으며, 각 단계에서의 직·간접비 상승에 따라 소비자 소매상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 단계의 이윤율이 하락했음
 - (원양선사 유통비용 상승 항목) 육상운반비(10.0→10.2원/kg), 하차비(8.8→9.1원/kg), 창고입고비(9.3→9.5원/kg), 냉장료(78.0→83.7원/kg),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 (1차 도매업자의 비용 상승 항목) 냉장료(14.0→16.7원/kg), 상차비(7.8→8.4원/kg), 운송비(69.8→74.4원/kg), 간접비(64.5→68.4원/kg),
 - (소비자 도매) 간접비(203.1→213.3원/kg)
 -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180.5→220.0원/kg), 이윤(361.2→432.3원/kg)

다. 오징어

- 오징어는 산지(경북 구룡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5-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구룡포→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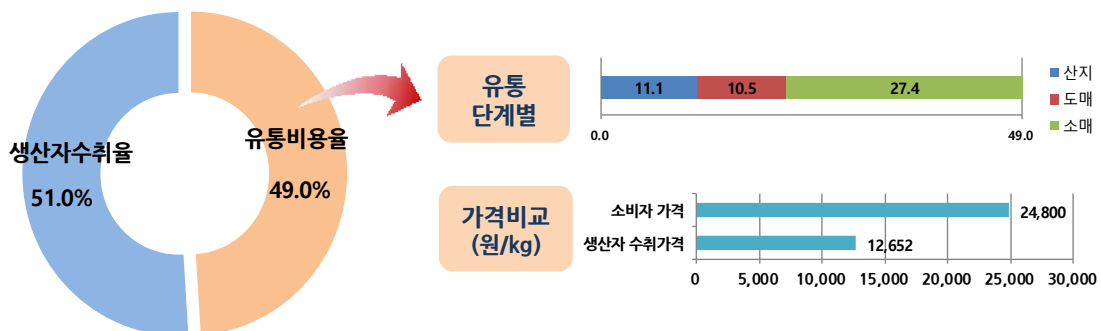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0년에 비해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 경유와 대형소매점 경유 모두 상승했음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 생산자 수취률은 2020년 61.0%에서 2020년 63.7%로 2.7%p 상승함

- (대형소매점 경유) 생산자 수취율은 ' 20년 61.0%에서 ' 20년 71.6%로 10.6%p 상승함
- (원인분석) 2021년 오징어 산지가격은 2020년보다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직접비 및 간접비가 상승에도 큰 변화가 없어 생산자 수취율이 증가했음. 특히 대형소매점 경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여 생산자 수취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 상차비(46.7→50.0원/kg), 산지 중도매인 운송비(233.3→266.7원/kg), 소비지 중도매인 상하차비(28.3→28.5원/kg), 소비지 중도매인 간접비(922.0→931.2원/kg),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175.4→184.2원/kg), 소비지 소매상 간접비(2,110.5→2,216.0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 상차비(46.7→50.0원/kg), 산지 중도매인 운송비(242.0→255.0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2,295.5원/kg→2,307.0원/kg)

라. 갈치

- 갈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노량진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제주→노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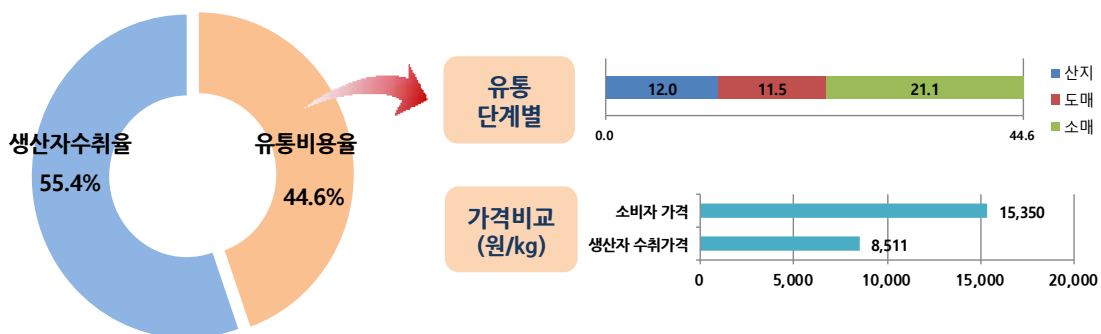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두 경로 모두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통비용률은 두 경로 모두 소폭 상승했음
 - 서울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2020년 48.2%에서 2021년 47.9%로 0.3%p 하락함
 - 노량진 수산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는 '20년 51.2%에서 '21년 51.0%로 0.2%p 하락함
- (원인분석) 생산 증가에 따른 산지의 갈치(선어) 가격 하락과 함께 소매 부분에서의 간접비(인건비 등)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산지의 가격 상승(위판가격 기준)은 2020년 13,416원/kg에서 12,652원/kg으로 '20년 대비 5.7% 하락함
 - (노량진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중도매인의 어상자대(302→346원/kg)·박스작업비(125→150원/kg), 소비자 중도매인의 하차비(35→37원/kg)·운반비(64→70원/kg)·상차비(58→62원/kg)·간접비(678→730원/kg), 소비자 소매상의 직접비(358→372원/kg)·간접비(5374→5,410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중도매인의 어상자대(303→346원/kg)·물류비(600→840원/kg)·박스비(50→86원/kg)·인건비(1,200→1,500원/kg), 대형소매점의 간접비(6,736→6,938원/kg)

마. 참조기

- 참조기는 산지(제주, 목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5-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목포→노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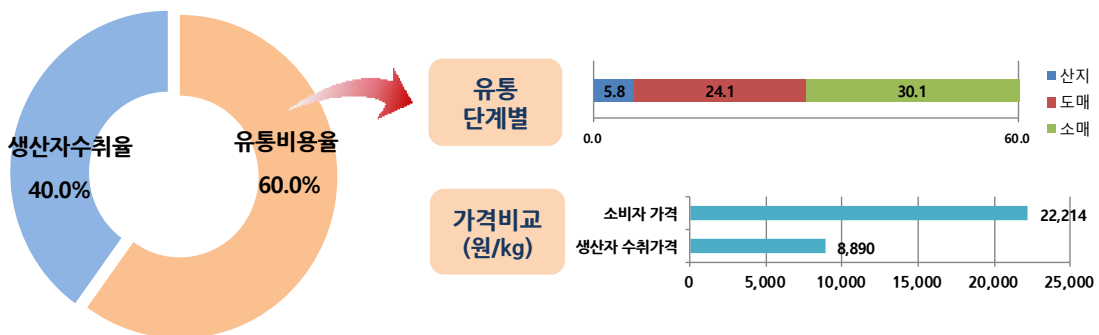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목포→노량진(선어)의 경우 하락한 반면, 제주→대형소매점(선어→동결)은 상승했음
 - (노량진 수산시장 경유: 선어) 생산자 수취율은 '20년 57.3%에서 '21년 55.4%로 1.9%p 하락함
 - (대형소매점 경유: 선어→동결) 생산자 수취율은 '20년 49.2%에서 '21년 59.1%로 9.9%p 상승함
- (원인분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참조기 소비 감소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했기 때문
 - (노량진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의 어상자대(59→60원/kg), 산지중도매인의 보호틀(93→100원/kg)·비닐(10→11원/kg)·얼음비(27→33원/kg)·작업노임비(96→107원/kg)·운송비(100→133원/kg), 소비지 중도매인의 간접비(780→819원/kg), 소비지 소매상의 간접비(1,867→1,960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 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년과 동일함

바. 마른멸치

- 마른멸치는 산지(부산·경남지역)에서 서울 가락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함

<그림 5-6> 마른멸치의 유통비용 구조 (건어, 부산→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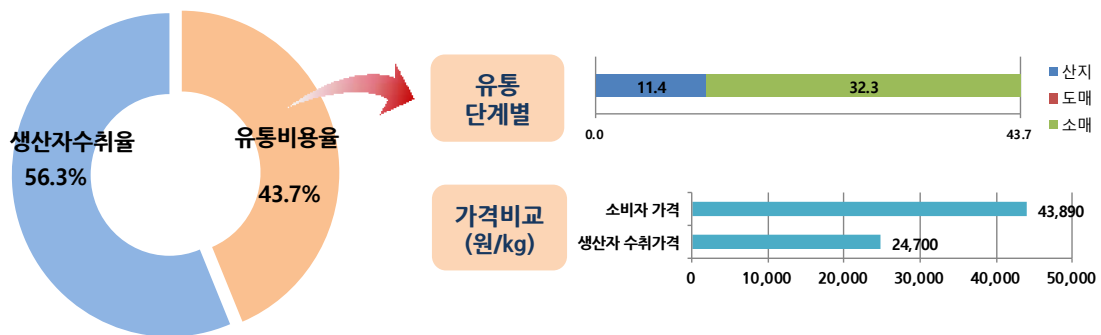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 20년 40.9%에서 ' 21년 40.0%로 0.9%p 하락했음
- (원인분석) 2021년 멸치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에도 품질 저하로 2020년보다 하락했으며, 소비자가격 역시 직접비 및 간접비 상승에도 하락하여 생산자 수취율이 소폭 감소했음
 - (소비자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 하륙 및 하차입 고비(98→99.5원/kg), 산지 중도매인 상하차비(53→54원/kg) · 입출고비(44→45원/kg) · 이적료(38→39원/kg) · 운송비(155→160원/kg), 소비자 중도매인 상하차비(54→55원/kg), 소비자 중도매인 물류비(80→100원/kg) · 간접비(3,744→3,856.3원/kg),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497.7→517.6원/kg), 소비자 소매상 간접비(3838.0→4,605.6원/kg)

사. 양식전복

- 양식전복은 산지(완도)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음

<그림 5-7>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완도→대형소매점)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 20년 55.1%에서 ' 21년 56.3%로 1.2%p 상승했음
 -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2020년 10.5%에서 2021년 11.4%로 증가했음
 -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2020년 34.4%에서 2021년에 32.3%로 감소했음
- (원인분석) 선물용 큰 크기 출하는 증가했으나, kg당 10마리 이하 크기는 소비가 줄어 양성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산지가격이 하락((25,0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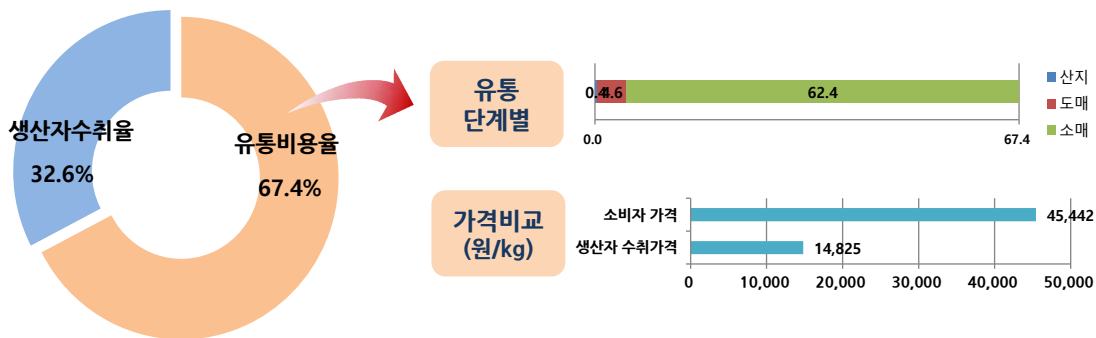
24,700원/kg)했음. 한편 산지수집상 및 대형소매업체의 직·간접비 상승에도 소비 감소로 소비자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임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수집상 인건비(1,321→1,387원/kg) · 전력비(271→285원/kg) · 운반비(301→316원/kg) · 간접비(2,314→2,430원/kg) · 이윤(543→582원/kg), 대형소매업체 단계의 간접비(8,329→8,514원/kg)

아. 양식넙치

- 양식넙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5-8>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제주→대형소매점)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0년의 30.0%에서 2021년 32.6%로 2.6%p 상승함
 - 출하가능물량 감소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자 수취율이 상승하였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대형소매점에서의 유통비용율이 가장 높았음
 - 도매단계의 유통비용율은 4.6%,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62.4%
- (원인분석) 2021년 광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소매유통단계의 직접비, 간접비 및 이윤이 상승하면서 소비자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수취율이 소폭 상승했음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

률적 변동), 산지수집상 간접비(748→761원/kg), 도매상 간접비(602→617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16,267→16,400원/kg) · 이윤(4,300→4,544원/kg)

자. 양식굴

- 양식굴은 산지(통영)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5-9> 양식굴의 유통비용 구조(신선, 통영→대형소매점)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0년 49.0%에서 2021년 41.8%로 7.2%p 하락함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율 28.9%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도매단계는 감소했고, 소매단계의 비용율이 상승함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1.5%
 - (도매의 유통비용) 도매의 유통비용율은 27.8%
 - (소매의 유통비용)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28.9%
- (원인분석) 2021년 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소매 단계의 직접비, 간접비 및 이윤이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수취율이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도매단계 물류비(540→835원/kg) · 포장비(1,100→1,364원/kg) · 얼음비(160→178원/kg) · 간접비(3,150→3,887원/kg) · 이윤(790→919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1,574→2,214원/kg) · 이윤(2,361→5,231원/kg)

차. 양식김

- 양식김은 산지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품목으로 도입되어 2020년과 비교는 불가능함

〈그림 5-10〉 양식김의 유통비용 구조(건어, 산지→대형소매점)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14.3%였으며, 유통비용율은 85.7%였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율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13.7%
 - (도매의 유통비용) 도매의 유통비용율은 12.1%
 - (소매의 유통비용)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59.9%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 지금까지 20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환경 변화,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를 파악한 후, 주요 수산물 10개 품종에 대한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 품종은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주요 대중성어종 6개와 전복, 넙치, 굴, 김의 주요 양식 4개 품종임
 - 특히, 양식김의 경우, 이번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대상 품종은 점진적으로 추가할 예정임
- 이번 수산물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소비행태’, ‘유통현황’ 및 ‘유통비용’ 등 세 분야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소비행태)** 온라인 소비 지속적 증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 강화
 -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21년의 경우 전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온라인 소비 및 배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온라인 소비에 적합한 수산물 가공품의 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한 수산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결정요인 중 식품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의 수산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통현황)**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의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오프라인 경로 중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했음. 그러나 대형소매점을 통한 수산물 소비는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며, 2021년에도 대형소매점의 유통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의 유통 비중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음

-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생과 식품위생문제 등의 발생 시마다 수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전통시장의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필요
- (유통비용) 전반적 비용 상승, 직거래 등 유통체계 단순화를 통한 비용 절감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는 증가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난항 및 물류비·운송비 등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유통비용은 증가했음
 -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향후 유통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유통단계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선별기 등 자동화기기 개발이 필요하며,
 - 더불어 수산물 유통구조 단순화를 위한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을 위한 수산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수반되어야 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립수산과학원, 「넙치 양식 표준 지침서」, 200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2022.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대형선망수협, 어종별 일일단가 현황, 2021.
- 법제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ekape.or.kr>)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http://kosis.kr>)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http://kosis.kr>)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kosis.kr>)
- 통계청, 온라인 쇼핑몰 판매매체별/상품군별거래액(<http://kosis.kr>)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http://kosis.kr>).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및 서비스업조사(<http://kosis.kr>)
-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수(<http://kosis.kr>)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및 산업분류 연계표(<http://kosis.kr>)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개정, 시도·산업·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현황 (<http://kosis.kr>)
- 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http://kosis.kr>)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한국무역협회(<http://www.kati.net>)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정보포털(<https://www.bandtrass.or.kr/>)
- 해양수산부, 「2022년도 수산물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1. 12.
-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 해양수산부, 수산물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www.foc.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년 해양수산물전망대회 자료집」, 202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2021. 4분기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수산물관측 & 이슈. Vol. 58. 2022. 01
- FAO, Food Outlook, 각 연도.
- FAO, Food price index.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